



아가서

...

SONG OF SOLOMON

마이크 비클 저 / 박영진 역



우리를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서

SONG OF SOLOMON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MISSIONS BASE OF KANSAS CITY

THE SONG OF SOLOMON STUDY GUIDE
Copyright© 2007 Mike Bickle

Published by Forerunner Books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3535 E. Red Bridge Rd.
Kansas City, MO 64137
www.IHOP.org

아가서
SONG OF SOLOMON

지은이 마이크 비클 (MIKE BICKLE)
옮긴이 박영진 (DAVID Y. PARK)
편 집 이 데이빗 (DAVID K. LEE)
디자인 이 데이빗 (DAVID K. LEE)
발행처 국제 기도의 집 한국인 사역부
www.IHOP.org
www.IHOPKorean.org

SONG OF SOLOMON 아가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09 | 아가서 1 아가서 소개 (아 1:1)
Session 1 Introduction to the Song of Solomon (Song 1:1)
- 19 | 아가서 2 가장 위대한 예언적 노래안에 계신 예수님 만나기
Session 2 Encountering Jesus in the Greatest Prophetic Song
- 29 | 아가서 3 거룩한 입맞춤: 주의 말씀으로 변화됨 (신부의 영성)
Session 3 The Divine Kiss: Transformed by the Word (Bridal Paradigm)
- 37 | 아가서 4 아가서 줄거리 개요
Session 4 An Overview of the Storyline in the Song of Solomon
- 49 | 아가서 5 세상의 포도주 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랑 (아 1:2)
Session 5 God's Love is Better than the Wine of this World (Song 1:2)
- 61 | 아가서 6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 1:2)
Session 6 God's Superior Love: How God Feels about Us (Song 1:2)
- 73 | 아가서 7 예수님의 향기 (아 1:3)
Session 7 The Fragrance of Jesus (Song 1:3)
- 83 | 아가서 8 신부의 삶의 비전 (아 1:4)
Session 8 The Bride's Life Vision (Song 1:4)
- 91 | 아가서 9 심령은 검은나 하나님께 사랑스런 (아름다운) 존재 (아 1:5)
Session 9 Dark in Heart but Lovely to God (Song 1:5)
- 103 | 아가서 10 신앙 (영적)의 위기로 시작되는 신부의 여정 (아 1:5-11)
Session 10 Her Journey Begins With Spiritual Crisis (Song 1:5-11)
- 115 | 아가서 11 신부의 패러다임 (영성): 기초 진리 (아 1:12-17)
Session 11 The Bridal Paradigm: Foundational Truths (Song 1:12-17)
- 127 | 아가서 12 하나님의 사랑안에 있는 신부의 정체성 (아 2:1-7)
Session 12 The Bride's Identity in God's Love (Song 2:1-7)
- 139 | 아가서 13 도전받는 안락의 지대 (아 2:8-17)
Session 13 Challenging the Comfort Zone (Song 2:8-17)
- 153 | 아가서 14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훈육 (아 3:1-5)
Session 14 God's Loving Discipline (Song 3:1-5)
- 165 | 아가서 15 안전한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계시 (아 3:6-11)
Session 15 Revelation of Jesus' Safe Leadership (Song 3:6-11)
- 177 | 아가서 16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소중한 신부의 마음 (아 4:1-8)
Session 16 The Cherished Heart: Equipped to Love Jesus (Song 4:1-8)
- 193 | 아가서 17 빼앗긴 하나님의 마음 (아 4:9-5:1)
Session 17 The Ravished Heart of God (Song 4:9-5:1)
- 207 | 아가서 18 성숙을 위한 궁극적 시험 2가지 (아 5:2-9)
Session 18 The Ultimate 2-Fold Test Of Maturity (Song 5:2-9)
- 215 | 아가서 19 두 가지 시험에 대한 신부의 반응 (아 5:8-6:5)
Session 19 The Bride's Response To The 2-fold Test (Song 5:8-6:5)
- 227 | 아가서 20 시험의 계절 후 신부를 칭찬하시는 예수님 (아 6:4-10)
Session 20 Jesus Praises Her After Her Season of Testing (Song 6:4-10)
- 241 | 아가서 21 핍박받는 신부를 변호하다 (아 6:11-7:9)
Session 21 Vindication of the Persecuted Bride (Song 6:11-7:9)
- 255 | 아가서 22 예수님과 성숙한 동역을 이루는 신부 (아 7:9-8:4)
Session 22 The Bride's Mature Partnership With Jesus (Song 7:9b-8:4)
- 269 | 아가서 23 성숙한 사랑의 인치심을 받는 신부 (아 8:5-7)
Session 23 The Bridal Seal of Mature Love (Song 8:5-7)
- 277 | 아가서 24 신부의 마지막 중보기도와 계시 (아 8:8-14)
Session 24 The Bride's Final Intercession and Revelation (Song 8:8-14)

Session 1 Introduction to the Song of Solomon (Song 1:1)

아가서 소개 (아 1:1)

I. INTRODUCTION

소개

- A. In this session, we will give introductory information about the Song of Solomon and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This will give us a road map so as to understand the big picture in the Song.
이 단원에서, 우리는 아가서에 대한 소개와 아가서를 해석하는 원칙들에 대해 다루게 될 텐데 이것은 아가서의 큰 그림 (전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길잡이’를 제공해 줄 것이다.
- B. King Solomon is the author of this eight chapter love Song in approximately 900 BC. It was probably written before his spiritual decline (1 Kings 11:3-4).
솔로몬 왕은 대략 주전 900년경, 그가 아직 영적으로 타락 (우상숭배)하기 전이었던 시기에 전체 8장에 이르는 이 사랑의 노래 (아가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상 11:3-4).
- C. The two primary sections of the Song are Song 1-4 and Song 5-8.
아가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 진다. 아가서 1-4 장, 그리고 5-8 장
1. The first four chapters of the Song focus on the Bride understanding and enjoying her inheritance in Christ. These chapters emphasize God’s desire for her.
전반부 4 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신부’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기업 (유업)’을 누리며 즐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또한,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강조한다.
 2. The last four chapters focus on Jesus’ inheritance in the Bride. We seek something from Him, but He also seeks something from us. He wants us to love Him with all our heart (Mk. 12:30). The focus of the book completely shifts in the middle (4:16-5:1).
후반부 4 장은, 신부 안에서 누리는 ‘예수님의 기업(유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도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 (막 12:30). 아가서의 초점은 책의 중간지점에서 완전히 변하게 된다 (전환점: 아 4:16 - 5:1).
- D. There are 8 distinct revelations of Jesus in the Song of Solomon. Each different face of Jesus’ beauty produces a certain response in the Bride. The 8 faces are as follows: The Counseling Shepherd (1:8), the affectionate Father (1:12-2:6), the Sovereign King (2:8-9), the safe Savior (3:6-8), the Heavenly Bridegroom (4:1-15), the Suffering Servant (5:2), the majestic God (5:10-16) and the jealous God of consuming fire (8:6-7).
아가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8 가지 정도 나온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 8 가지 예수님의 모습에 신부는 다양하게 반응하게 된다. 예수님의 8 가지 모습은 다음과 같다: 돌보시는 목자 (아 1:8),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 (아 1:12-2:6), 통치하는 왕 (아 2:8-9), 안전한 (신뢰의) 구세주 (아 3:6-8), 거룩하고 열정적인 신랑 (아 4:1-15), 고난의 종 (아 5:2), 위엄의 하나님 (아 5:10-16), ‘소멸하는 불’이신 질투의 하나님 (아 8:6-7).

II. MY PERSONAL MANDATE AND JOURNEY WITH THE SONG

아가서에 대한 사명과 여정

- A. The Lord spoke to me by His audible voice in July 1988. I was in my office and I was reading Song of Solomon 8:6 and began to pray, “Let Jesus seal my heart with the seal of His love.” I experienced the presence of God in a unique way. I put this passage with Jn. 17:26, “Father, put the love in my heart that You have for Your dear Son. Put Your seal of fire on my heart.”
1988년 7월, 주님은 귀에 들리는 육성으로 내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우연히 아가서 8:6 을 읽고 묵상하면서 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예수님, 주의 ‘사랑의 인’으로 제 마음에 인쳐 주세요.” 그 순간, 나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 본문을 요한복음 17:26 과 연결시켜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제 심령에도 심어 주시고, 제 마음을 주님의 불로 인쳐 주세요.”
- B. The Lord said that He would release grace to walk in Song 8:6-7 across the Body of Christ worldwide and that I was to focus on this theme throughout my ministry.
주님은 아가서 8:6-7 을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으며, 내 모든 사역이 이 주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 C. My first response was to be perplexed and hesitant after I read the Song of Solomon that day. My next response was to begin to diligently study the Song by faith without enjoyment or understanding much of it. I obtained many commentaries on it. I now have over 150 commentaries on the Song. Do not be intimidated by the symbolic terminology.
그 날, 아가서를 한 번 다 읽고 나서, 난 당황스러웠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아가서에 대한 이해나 즐거움도 없이, 믿음으로 아가서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아가서에 대한 주석들이 많이 섭렵하면서 이제는 약 150 권이 넘는 아가서 주석들을 소장하게 되었다.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아가서에 나오는 상징적인 용어들에 너무 겁먹지 말라는 것이다.
- D. I soon began to find much delight and pleasure in studying the Song as I encountered Jesus the Bridegroom and felt the power of His love.
‘신랑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곧 아가서 연구의 기쁨과 즐거움,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III. PURPOSE OF THIS STUDY: TO REVEAL THE PATTERN OF JN. 17:26

연구 목적: 요한복음 17:26 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기

- A. Jesus prayed that the Spirit would impart the Father’s love for Jesus into our hearts. The purpose of our study of the Song is to be filled with the love with which the Father loves His Son.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를 기도하셨다. 아가서를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다.

²⁶I have declared to them Your name, and will declare it, that the love with which You loved Me may be in them, and I in them. (Jn. 17:26)

²⁶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6)

- B. This is the love Song of the ages. It reveals God's pattern in how we grow in passion for Jesus. It touches the significant principles and practical realities needed to develop mature love for God.
 아가서는 세대를 초월하는 사랑의 노래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보여준다. 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사랑을 키우는 데 필요한 '핵심 원칙들'과 '실제적 현실들'을 다룬다.
1. Understanding this Song helps us identify the issues that God is specifically dealing with in our lives. It equips us to discern what God is doing in the different seasons in our lives.
 아가서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다루시는 문제들을 찾는 데 도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된다.
 2. Through our life, we ebb and flow in and out of the testing and blessing described throughout the Song. People often find themselves in two different places in this Song in the seasons of their life. I re-visit the same place in the Song again and again.
 인생 전반에 걸쳐, 우리는 아가서에 나오는 '시험'과 '축복'의 연속을 반복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아가서에 나오는 두 종류의 계절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나 자신도 아가서를 보며, 같은 '계절'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됨을 보게 된다.

IV. HOW TO INTERPRET THE SONG OF SOLOMON

아가서 해석 방법

- A. **Natural interpretation:** this view depicts a natural love story between King Solomon and his bride, the Shulamite maiden. It emphasizes biblical principles that honor the beauty of love within marriage. This view has grown in popularity in the last 100 years and has many good commentaries. There are two basic story lines when interpreting the Song as a natural love story.
자연적 해석: 솔로몬 왕과 그의 신부, 술람미 여인의 러브 스토리로 이 관점은 부부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높여주는 성경적 원칙들을 강조한다. 이 해석은, 특별히 지난 100여 년간 사랑을 받아왔으며 많은 주석들이 배출되어 왔다. 자연적 러브 스토리로 아가서를 해석할 때, 보통 두 가지의 기본 줄거리를 가진다.
1. The first tells of a Shulamite maiden who was wooed by the handsome and wealthy King Solomon who progressively wins her heart as the storyline unfolds.
 먼저, 잘 생기고 부유한 솔로몬 왕의 구애를 받으며 점차적으로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
 2. The second is the story of a godly Shulamite maiden who deeply loves a poor shepherd in her hometown (Shunem). King Solomon passed through her town and noticed her working in a vineyard. He was struck by her extraordinary beauty. Thus, he sought to steal her heart away from the poor shepherd that she loved. She remained loyal to the poor shepherd in the midst of the temptations of King Solomon's wealth and power.
 둘째, 마을 (수넴)에 사는 가난한 목동 소년을 깊이 사랑하는 거룩한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 마을을 지나던 솔로몬 왕은, 마침,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던 여인을 주목하게 되고, 곧 그 여인의 아름다운 외모에 반하게 된다. 왕은 가난한 목동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그렇지만, 솔로몬 왕의 부와 능력의 유혹에도, 여인은 가난한 목동 소년을 향한 일편단심을 지키게 된다.

B. ***Spiritual interpretation***: this is a symbolic interpretation to see the spiritual truths behind the natural love story. This is the approach that I will use throughout this study course.

영적 해석: 이 관점은 자연적 남녀의 사랑 이야기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 진리’를 보는 상징적 해석으로,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우리가 사용할 접근방식이다.

1. The Song is about marital love but can also be interpreted symbolically as the journey of love between God and His people.

아가서는 부부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간의 사랑의 여정으로 상징적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

2. We read Song of Solomon to gain deeper understanding of our relationship with Jesus. This is by far the most common interpretation over the last 3000 years (since Solomon wrote this Song). This was prominent in the medieval centuries (12th to 16th centuries).

우리는 ‘우리와 예수님과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아가서를 읽어야 한다. 이 해석은 지난 3000 년동안 (솔로몬이 이 책을 쓴 후로부터) 주류를 이뤄왔으며, 중세시대 (12세기부터 16세기)에도 주로 사용되었던 해석이다.

V. JESUS IS EXALTED IN THE SONG OF SOLOMON

아가서를 통해 높임 받으시는 예수님

A. Jesus spoke of Himself from all the Scriptures to the disciples on the Emmaus road (Lk. 24:27). He went through each of the 39 books of the OT to speak of Himself to them.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한 성경본문들을 모두 말씀하시면서 (눅 24:27), 구약 성경 39 권을 하나하나 인용하셨다.

²⁷***He expounded to them in all the Scriptures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Lk. 24:27)***

²⁷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눅 24:27)

B. The Spirit inspired all Scripture (2 Tim. 3:16) and exalts Jesus in all that He does (Jn. 16:14). The Spirit has a fierce loyalty and jealousy to fill people with love for Jesus (Jn. 17:26).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씌여 졌으며 (딤후 3:16), 성령님은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 예수님을 높이신다 (요 16:14). 성령님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충만케 하기 위해 무서울 정도의 충성심과 질투심을 갖고 계신다 (요 17:26).

¹⁴***He will glorify Me, for He will take of what is Mine and declare it to you. (Jn. 16:14)***

¹⁴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 16:14)

C. The Holy Spirit has a deep friendship with Jesus and they have been together from eternity past and the depth of their love is infinite. Thus, it is inconceivable for the Spirit to inspire a book in the Bible without Jesus being the predominant theme.

성령님은 예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신다. 그들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으며,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도 영원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가 되지 않는 책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쓰게 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VI. THE SPIRITUAL INTERPRETATION: 3 COMMON APPROACHES

영적 해석: 3 가지의 주된 접근방식

- A. There are three common spiritual interpretations of the Song of Solomon that magnify Jesus. The main purpose of this interpretation of the Song is to enhance our love for God and others. We bless different interpretations as long as they exhort others to grow in love for Jesus.
 아가서의 영적 해석에 있어, 예수님을 높이는 3 가지 주된 접근방법이 있다. 이 해석의 주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서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자라게 해주는 해석들을 우리는 환영한다.
- B. Firs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Jesus and the individual believer. This approach gives spiritual principles that aid us in our progression of holy passion. This is the way we approach this study.
 첫번째, 접근은 아가서를 ‘예수님과 나’의 관계로 해석, ‘거룩한 열정’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적 원칙들을 제공해 준다. 우리는 이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할 것이다.
- C. Second is the relationship between Jesus and His universal Church throughout history.
 두번째, 예수님과 역사에 걸쳐있는 일반적인 주님의 ‘전체 교회’의 관계로 해석.
- D. Third is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s the Bridegroom and ethnic Israel as His Bride (Jer. 2:2; Hos. 2:16-20; Ezek. 16:8-14, 20-21, 32, 38; Is. 54:5-6). This was the primary approach of the scribes in OT times as well as Jewish rabbis today.
 세번째, 신랑 하나님과 그분의 신부인 ‘이스라엘’의 관계로 해석 (렘 2:2; 호 2:16-20; 겔 16:8-14, 20-21, 32, 38; 사 54:5-6). 구약시대 서기관과 오늘날의 유대 랍비들이 주로 채택하는 접근방식이다.

VII. ALL BELIEVERS ARE INCLUDED IN THE BRIDE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주님의 신부이다

- A. Theologically, believers on earth are betrothed (engaged) to Jesus. In Hebrew tradition, an engaged couple was legally married and needed to be divorced if they broke their engagement.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은 모두 예수님과 ‘약혼’한 자들이다. 유대 전통에서, 약혼한 커플은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아, 만일 약혼을 파기할 경우, 이혼 절차를 거쳐야 했다.
²*For I have **betrothed** you to one husband, that I may present you as a chaste virgin to Christ. (2 Cor. 11:2)*
²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 (약혼시킴)** 이로다 (고후 11:2)
- B. The consummation of the marriage relationship occurs in the age to come (Rev. 19:7). 결혼의 완성은 ‘다가오는 시대’에 일어난다 (계 19:7).
⁷*Let us be glad and rejoice and give Him glory, for the marriage of the Lamb has come, and His wife has made herself ready. (Rev. 19:7)*
⁷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계 19:7)
- C. A working definition of the Bride is one that includes all those who are mature in love.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신부는 성숙한 사랑을 지닌 모든 자들을 포함한다.

- D.** I believe that the Bride of Christ is the entire Church from history that is filled with mature love. In the resurrection, the Spirit will bring God's work to completion in the whole church. In other words, every believer will experience a mature bridal relationship with Jesus.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숙한 사랑이 충만했던 역사상의 모든 교회라고 나는 믿는다. 부활을 통해, 성령님은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 역사의 완성을 가져오실 것이다. 다시말해, 모든 자들은 성숙한 신부로 예수님과 관계하게 될 것이다.
- E.** First, the maturity of the Bride is ultimately the fruit of Jesus' work on the cross.
첫번째, 신부가 소유하게 되는 성숙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의 '궁극적 열매'다.
³¹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³²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delivered Him up for us all, how shall He not with Him also freely give us all things? ³³Who shall bring a charge against God's elect? It is God who justifies. ³⁴Who is he who condemns? It is Christ who died, and furthermore is also risen, who is even at the right hand of God, who also makes intercession for us. ³⁵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Rom. 8:31-35)
³¹...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³²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³³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³⁴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³⁵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롬 8:31-35)
- F.** Second, in heaven there will be only one unified people, rather than two classes of believers. Jesus prayed that His people would be unified like the Father and the Son. Jesus prayed that the Father impart His love for Jesus to His people.
두번째, 천국에는 신분 계층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마음이 하나된 사람들 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인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 하셨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부어 주실 것을 기도하셨다.
²¹ That they all may be one, as You, Father, are in Me, and I in You... ²⁶ I (Jesus) have declared to them Your (Father's) name, and will declare it, that the love with which You loved Me may be in them... (Jn. 17:21, 26)
²¹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 ²⁶내가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 (요 17:21, 26)
- G.** Third, we will be like Jesus when we see Him in glory. The impact of seeing God will release great power that will transform all believers in the age-to-come.
셋번째, 우리는 영광중에 계신 주님을 보게될 때,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가오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²When He is revealed we shall be like Him,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1 John 3:2)
²...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일 3:2)

- H. Fourth, the Bride's destiny is ensured by God's ravished heart for her. His heart is ravished for all of His people. God's heart is ravished for all the redeemed, not just for those who are spiritually mature during their brief time on the earth. Jesus is not more ravished for one group in the Church than He is for another group.

네번째, '신부'의 부르심은 신부에게 완전히 마음이 빼앗기신 하나님을 통해 확증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구속받은 모든 자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으시다. 예수님의 빼앗긴 마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더해지거나 감해지지 않는다.

⁹You have ravished My heart, My sister, My spouse... (Song 4:9).

⁹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 4:9)

- I. Summary: the maturity of the Bride is based primarily upon Jesus' work on the cross, His intercession, the revelation of His glory and His ravished heart for us.

요약: 신부의 성숙함을 위한 기초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증보, 주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 그리고 우리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

VIII. THE THREE MAIN CHARACTERS OF THE BOOK

아가서 주요 등장인물

- A. **King Solomon:** in the spiritual interpretation he is a picture of the triumphant resurrected Jesus Christ who is King of Kings.

솔로몬왕: 영적 해석에서,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승리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 B. **Shulamite maiden:** in the spiritual interpretation she is a picture of the Bride of Christ. She is introduced as a young maiden who grows up to become a Bride in mature partnership with King Jesus. The Shulamite is mentioned once by name (6:13). She lived in Shunam (north of Jezreel).

술람미 여인: 영적 해석에서 그녀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나타낸다. 그녀는 어린 소녀에서 점차 왕이신 예수님과 성숙한 동역을 하게 되는 '신부'로 소개된다. '술람미'라는 단어는 딱 한번 나온다 (아 6:13). 그녀는 수넵 (이스라엘 북쪽)에 살았다.

- C. **Daughters of Jerusalem:** in the spiritual interpretation they speak of sincere yet spiritually immature believers. They look to the Shulamite for answers on how to grow close to the King. They are not an actual group that we can identify in history (but personify immature believers).

예루살렘 여자 (딸)들: 영적 해석에서, 이들은 믿음은 있지만,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자들을 말한다. 그들은 술람미 여인을 보며, 왕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된다. 이들이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한 사람들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을 의인화한다).

IX. COMPARING ECCLESIASTES AND SONG OF SONGS

전도서와 아가서 비교

Solomon wrote 3 books in the Old Testament: Proverbs, Ecclesiastes and Song of Solomon. It was common for the Jewish fathers to relate the 3 books of Solomon to the temple he built.

솔로몬은 3 권의 책을 저술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보통, 유대인 선조들은 솔로몬 성전을 비유 삼아 이 책들을 인용하곤 했다.

1. They related the book of Proverbs to the **outer court** of Solomon's temple.
잡언을 성전의 바깥 뜰에 비유했다.
 2. They related the book of Ecclesiastes to the **inner court** of Solomon's temple.
전도서를 성전의 안쪽 뜰에 비유했다.
 3. They related the Song to the **Holy of Holies** in Solomon's temple.
아가서를 성전안에 있는 지성소에 비유했다.
- A. In Ecclesiastes, he wrote,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This book proclaims that life without obedience to God is vanity.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be satisfied with even the most desirable circumstances. This book speaks of man's endless wanderings until he finds rest in God. We can have everything but if we lack reality with God then in reality we have nothing.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썼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은 '헛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살아도 인간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 전도서는, 하나님 안에 안식을 찾기 전까지 방황하며 떠돌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말해준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실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제로 실속없는 빈 껍데기, 빈 깡통, 빈 강정과도 같은 존재다.
 - B. In the Song of Solomon, Solomon shows forth the joy of life that can be attained without regard to how our circumstances are going. In this book, the Holy Spirit is calling us to make intimacy with God the goal of our life. The Song highlights how full our life is when our consuming passion is to love and know Jesus. Even with hard circumstances, our spirit can be alive in God.
아가서는 주위환경 처한 환경과는 전혀 상관 없이 얻을 수 있는 삶의 기쁨을 보여준다. 아가서에서 성령님은 우리 삶의 목표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아가서는, 우리의 '불같은 열정'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일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충만케 될 수 있는지를 조명해 준다. 인생의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 살아 숨쉬며 살아갈 수 있다.
 - C. Ecclesiastes teaches us that no matter how great our accomplishments are in man's eyes they will not ultimately have any value if they are not pleasing to God. When Ecclesiastes is understood it awakens us to the fervency that begins the journey in Song 1:5. Thus, Ecclesiastes prepares us to understand the Song of Solomon.
전도서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훌륭한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이 아니면 궁극적으로 그 성공은 전혀 가치가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준다. 전도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을 깨우는 뜨거운 열정으로 아가서 1:5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전도서는 아가서의 여정을 예비해주는 책이다.
 - D. The philosophy in Ecclesiastes tells us to "assert ourselves to gain more worldly experience as the way to enjoy life." Song of Solomon speaks of entering fulfillment through humility, obedience and the impartation of God's love.
전도서에서 말하는 세상 철학은 "인생을 즐기려면, 세상의 경험을 더 쌓으며, 자신을 주장하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나, 아가서는 겸손과 순종,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함으로 삶의 충만함을 누리라고 말해준다.

- E. Ecclesiastes speaks of the vanity of pursuing the best things found in earthly life, while Song of Solomon speaks of the spiritual pleasure of pursuing the best things found in heavenly life. 전도서는, ‘세상적 성공’을 꿈꾸는 것이 헛됨을 말해주지만, 아가서는, ‘하늘 (천국)의 성공’을 꿈꾸는 데서 오는 영적 기쁨을 말해준다.

X. THE CANTICLES OR A SERIES OF SONGS

솔로몬의 아가 (THE CANTICLES): 일련의 노래들

- A. The Song of Songs i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Canticles. The Latin noun “canticum” means “a Song”. Canticles mean a series of Songs.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 (the Canticles)라고도 불린다. 라틴어 명사인 “canticum”은 “노래”를, ‘Canticles’는 ‘일련의 노래들’을 의미한다.
- B. The Vulgate was a popular Bible translation written in the 4th century by Jerome who translated the Scripture into Latin so that the common people could understand it.
불가타역 라틴어 성경은, 4세기경 제롬 (Jerome) 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대중화를 위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으로 유명하다.
- C. In the Vulgate, the Song of Solomon is called the Canticles. The following references may be rightfully used: Cant. 4:9 or Song 4:9 or SS 4:9 or SOS 4:9.
불가타역 성서에, 아가서는 ‘the Canticles’ 로 불린다. 다음의 인용들은 같은 의미로 통한다: Cant. 4:9, 또는 아가서 4:9.

XI. ALLEGORICAL INTERPRETATION

비유적 해석 (알레고리)

²³But he who was of the bondwoman was born according to the flesh, and he of the freewoman through promise, ²⁴which things are symbolic (figurative in NIV; allegorically speaking in NAS). For these are the two covenants: the one from Mount Sinai which gives birth to bondage, which is Hagar—²⁵for this Hagar is Mount Sinai...and corresponds to Jerusalem which now is, and is in bondage with her children—²⁶but the Jerusalem above is free, which is the mother of us all. (Gal. 4:23-26)

²³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²⁴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²⁵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²⁶오직 위에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 4:23-26)

- A. The allegorical interpretation has been used in different ways through history. Paul’s treatment of the Hagar-Sarah story “is described by Paul as symbolic by the NKJV, as figurative by the NIV and as an allegory by NAS.
비유적 해석 (알레고리)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바울은 “비유”를 사용해서 해석한 적이 있다.
- B. Paul’s use of the Sarah-Hagar story in Gal. 4:21-31 is more “figurative” (typology) instead of an “allegory.”
갈라디아서 4:21-31에서 사도 바울은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사용했다.

1. Paul's use of allegory differed greatly from Alexandrian allegory (first-century Philo as well as the third and fourth century Origen and Chrysostom).
사도바울이 사용한 비유는 알렉산드리아인들이 사용한 비유 (1세기 필로와 3, 4세기 오리겐과 크리소스톰)와 큰 차이를 보인다.
 2. The Alexandrians used allegory in a way that ignored its historical context and meaning.
알렉산드리아인들은 역사적 정황과 의미를 무시한 채 비유를 사용했다.
 3. In 1 Cor. 9:9-10, Paul used an allegorical interpretation of the "muzzled ox" (Deut 25:4) to apply to the full-time workers in the gospel receiving finances.
고전 9:9-10 에서 사도바울은 "망울 씌운 소의 입" (신 25:4)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면서, 재정 후원을 받는 전임 사역자들 (복음의 일꾼들)에게 적용했다.
- C. An allegory is a fictional story with symbolic meaning without historical facts as its basis. An experience of this type of an allegory is seen in the book, The Chronicles of Narnia.
알레고리 (비유)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를 두지 않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허구 이야기다. 대표적인 예로, 나니아 연대기를 들 수 있다.
- D. An allegory is a literary form where people or objects symbolically represent truths. Allegories illustrate truths to make them easier to understand.
알레고리는 사람 또는 어떤 대상을 통해 상징적으로 진리를 표현하는 문학 형식이다. 알레고리는 진리를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 사용된다.
- E. Our primary interpretation of Scripture must be the historical grammatical that takes the Scripture at face value. We approach the Scripture this way unless the Scripture indicates otherwise (Gal. 4:24; Jn. 15:1-6; Rev. 11:8; Isa. 5:1-7; Hos. 2:1-14; Ezek. 16; Dan. 7:2-8, 16).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또한, 역사적 문맥에 맞춰야 한다. 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접근한다 (갈 4:24; 요 15:1-6; 계 11:8; 사 5:1-7; 호 2:1-14; 겔 16; 단 7:2 - 8, 16).
- F. Allegorical interpretations are helpful if we only use them to illustrate truths that are clearly established throughout the New Testament.
알레고리 (비유)를, 신약성경 전체의 명확한 진리구축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비유적 해석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Session 2 Encountering Jesus in the Greatest Prophetic Song

가장 위대한 예언적 노래안에 계신 예수님 만나기

I. THE GREATEST PROPHETIC SONG

가장 위대한 예언적 노래

- A. The Song of Solomon is the greatest song in redemptive history.
아가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노래다.

¹*The Song of Songs, which is Solomon's. (Song 1:1)*

¹솔로몬의 아가라 (아 1:1)

- B. Solomon was a prolific and gifted Songwriter. He wrote 1005 Songs (1 Kings 4:32). The Song of Solomon is his greatest song. The Holy Spirit inspired him to name it the Song of all Songs. It is named with the highest honor because there is no Song greater than this Song. It expresses the ultimate superlative as Jesus is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in the Holy of Holies. 솔로몬은 재능을 겸비한 왕성한 작사, 작곡가로, 약 1,005 개의 노래를 지었다 (왕상 4:32). 그 중, 아가서는 최고의 노래로 꼽힌다. 그렇기에, 성령님께서 이 노래를 ‘노래들 중의 노래’로 이름을 짓게 감동을 주셨다. 더 위대한 노래가 없기에, 최고의 명예를 가진 노래로 불려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주의 주, 거룩의 거룩 (지성소)과 같은 분인 것처럼, 궁극적으로 최상급의 표현인 것이다.

- C. The End-Time saints will stand around God's Throne on the sea of glass like crystal as they gain victory over the rage of the Antichrist. They were victorious in love even in the face of martyrdom. They are pictured singing two songs, the Song of Moses and the Song of the Lamb. 마지막 때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분노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주님의 보좌 주위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한 ‘헌신적 사랑’의 승리자들이다. 그들은 두 종류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데, 하나는 ‘모세의 노래’요, 다른 하나는 ‘어린양의 노래’이다.

²*I saw something like a sea of glass mingled with fire, and those who have the victory over the beast...standing on the sea of glass, having harps of God. They sing the song of Moses, the servant of God, and the song of the Lamb... (Rev 15:2-3)*

²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³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계 15:2-3)

1. The song of Moses is recorded in the Bible (Exodus 15:1-21; Deut. 31:30-32:47).
모세의 노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출 15:1-21; 신 31:30-32:47).

2. Jesus has a song called the Lamb's Song. Jesus' song is surely the greatest one. The Bride of Christ is referred to in Scripture as the Lamb's wife (Rev. 19:7-9; 21:9). 예수님은 ‘어린양의 노래’라 불리는 노래를 갖고 계신다. 예수님의 노래는 가장 위대한 노래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경에서 ‘어린양의 아내’로 소개된다 (계 19:7-9; 21:9).

- D. It is possible that the Lamb's Song and the greatest Song of all songs are the same song. ‘어린양의 노래’와 최고가 되는 ‘노래들 중의 노래 (아가서)’가 동일한 노래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 E. There will be a great interest in the Song of Solomon in the generation in which the Lord returns.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대에는 아가서에 대해 큰 관심이 있게 될 것이다.
- F. The Holy Spirit is even now raising up many men and women, young and old who proclaim it, sing it, write about it and pray it back to God.
성령님께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가서를 선포하고, 노래하며, 노래로 만들고, 아가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세우고 계신다.
- G. I will offer practical advice to songwriters who are inspired by the Song of Solomon in writing new songs. Some write songs using the exact language of the Song of Solomon, rather than interpreting its meaning. We receive edification from symbolic language if we understand it. 아가서에서 영감을 받아 찬양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충고를 한 가지 해주고 싶다. 아가서 내용의 뜻을 해석하지 않고, 본문에 나오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언어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뜻을 이해할 때 덕을 세울 수 있게 되므로, 그 언어와 함께 뜻을 노래에 담아 노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H. I recommend only taking a small portion of the Song of Solomon to write a new song. It is the longest Song in the Bible and is in a “concentrated” form. I encourage songwriters to take one or two phrases to develop into a new song.
아가서의 아주 작은 부분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기를 제안하고 싶다. 아가서는 성경에서 가장 긴 노래로, “함축된”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아가서 한 두 구절만을 사용, 발전시켜 노래를 만들 것을 권한다.
- I. Arise prophetic singers of God’s new song. Arise songwriters to take your place before the Lord.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드릴 예언적 싱어들이여 일어나라! 주님앞에 이 부르심을 감당하며 나아갈 작사, 작곡가들이여 일어나라!

I. FOUR DISTINCTIVES OF THE SONG OF SOLOMON

아가서의 네가지 특징

- A. We are to love with all our heart (Matt. 22:37). Our whole heart is like a diamond with many facets. There are aspects of our heart that are most touched by God’s holy poetic affection. The Song emphasizes the emotional side of “why” Jesus gave Himself to us on the cross. The reason we have deep and diverse emotions is because God does. We are made in His image.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마 22:37). 우리의 마음은 마치 다양한 면을 가진 ‘다이아몬드’와 같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시적인 애정표현을 통해 가장 감동을 받는 ‘내면’이 있다. 아가서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 지에 대한 ‘감성적인 부분’을 강조한다. 우리가 다양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소유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감정들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 B. These four distinctives are found in many places in Scripture. The uniqueness of the Song is not the fact that it contains these truths. Rather, it is in the focused concentration of them. 아가서의 4 가지의 특징은 사실 성경의 많은 본문에서 발견된다. 아가서의 독특함은 이러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특징들이 함축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데 있다.
1. First, is the revelation of Jesus’ passionate affections and enjoyment of His people.
첫번째,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적 사랑과 기쁨에 대한 계시다.

2. Second, is the revelation of the beauty of Jesus, especially as a Bridegroom King.
두번째, 예수님의 아름다움, 특별히 ‘신랑되신 왕’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
 3. Third, is the revelation of the beauty of the individual believer to Jesus, even in our weakness. If you want to know what you look like to God then study the Song.
세번째,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지를 알고 싶다면, 아가서를 공부하라.
 4. Fourth, are the principles needed to grow in love and mature partnership with Jesus.
네번째, 예수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 들어가며, 성숙한 동역을 위해 필요한 원칙들이다.
- C. The Church needs to be equipped with this revelation because of the significant increase of emotional wounding and sexual brokenness. Jesus wants to fascinate us with His beauty and to enthrall our heart with the beauty that He has given to us. The Song of Solomon is one of God’s holy laser beams of revelation of Jesus’ heart and desire.
감정적, 성 (性)적인 상처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는 이 계시들로 더욱 무장해야 한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매혹시키길 원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원하신다. 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계시를 비취주는 일종의 ‘광선’과도 같아, 예수님의 마음과 갈망을 선명하게 조명해 준다.

II. THE 3-FOLD INHERITANCE—PS. 2:11-12

3 종류의 기업 (유업) – 시 2:11-12

- A. King David described God’s 3-fold inheritance as being a people who tremble, rejoice and kiss the Son of God. This is one of most excellent descriptions of the mature Bride.
다윗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 종류의 유업을, 하나님 앞에 ‘떨고’, ‘즐거워’ 하며,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백성이 되는 것으로 기술했다. 이 구절은 ‘성숙한 신부’의 모습을 가장 훌륭하게 표현해 주는 본문 중의 하나다.
- ⁸Ask of Me, and I will give You the nations for Your inheritance...¹⁰Be wise, O kings...¹¹ Serve the LORD with fear, and rejoice with trembling. ¹²Kiss the Son.... (Ps. 2:8-12)*
⁸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¹⁰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¹¹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¹²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시 2:8-12)
- B. David showed us the three sides of our redemption.
다윗은 여기서 구속 (redemption)의 세가지 측면을 보여준다.
1. **Trembling** – we tremble by seeing the eternal majesty and splendor of Jesus.
떨며 –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위엄과 광채를 보며 떨게 된다.
 2. **Rejoicing** – we rejoice by seeing who we are in Christ and the legal benefits of the cross.
즐거워하며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는 우리의 정체성과, 십자가가 주는 합법적인 유익과 축복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3. **Kissing** – we figuratively “kiss the Son” or we love Him with all our heart as expressed by holy affections. In this, we touch the emotional and passionate side of our redemption.
입맞추라 – 우리는 상징적으로 “그 아들에게 입맞춘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구속의 감정적, 열정적 차원을 볼 수 있다.
- C. There are three books of the bible that focus on these three sides of our redemption.
이 세가지 구속의 측면을 특별히 강조하는 성경 본문이 세 군데 있다.
1. **Revelation**: the majestic eternal side that causes us to tremble before God
요한 계시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떨게 하는 위엄과, 영원함의 측면
 2. **Romans**: the legal practical side that causes us to rejoice in our benefits of the cross
로마서: 십자가의 유익을 누리며 기쁘게 하는 법적, 실제적 측면
 3. **Song of Solomon**: the passionate emotional side that empowers us to love God
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권능을 부여해 주는 열정적, 감정적 측면
- D. Luther wrote of the legal side of our redemption, yet avoided the passionate and emotional side.
마틴 루터는 구속의 ‘법적’인 측면만 강조했을 뿐, 열정적, 감정적 측면은 회피했다.

III. TURNING THE SONG INTO AN AFFECTIONATE PRAYER DIALOGUE WITH JESUS 아가서를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와 기도로 바꾸기

- A. We must engage in long and loving meditation on the Song with a hungry and honest heart before God. One of the Spirit’s purposes in the Song is to fill us with the Father’s love for Jesus.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아가서를 통한 ‘사랑의 묵상’에 동참해야 한다. 아가서를 통한 성령님의 목적중의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다.

26I have declared to them Your name, and will declare it, that the love with which You loved Me may be in them, and I in them. (Jn. 17:26)

²⁶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6)

- B. If we are to receive the full benefit of the Song, we must turn it into an on-going affectionate prayerful dialogue with Jesus. It is not enough to only study the Song without going to the next step of turning it into a prayer dialogue. The language of the Song must get into our prayer life and thought life before it will transform our emotions.
아가서가 주는 유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아가서를 예수님과 지속적인 ‘사랑의 대화’ 와 ‘사랑의 기도’ 로 바꾸어야 한다. 단순히, 아가서를 일반 성경공부 하듯 하게 되면, 아가서가 주는 유익을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말이다. 아가서를 통해 심령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아가서의 언어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생각 속에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

- B. We approach the Song as more than an academic exercise as seen in Bible research. Informing our intellect is significant but it is only a starting point. No one would go to a famous restaurant to merely study the menu. The menu is there to help them obtain a good meal. It is not enough to be a connoisseur of the Song of Solomon, we must allow this book to fill our heart.
 아가서를 접근할 때, 단순한 성경 연구를 하는 듯한 ‘학구적’ 학습자세를 가져서는 안된다. 지식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유명한 식당을 가는데, 단순히 메뉴판만을 연구하려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메뉴판은 맛있는 음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아가서의 감정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도록 만들어야 한다.
- C. I have about 10 phrases that have become deeply personal to me. In my early days, I wrote them on postcards to use when I drove or took a walk. I slowly whispered them to Jesus. For example, “Father, let Him kiss me with His Word” or “Spirit, sustain me, refresh me” (Song 1:2; 2:5).
 개인적으로, 내게는 ‘나의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들이 아가서 안에 10개 정도 있다. 초창기 때에는, 엽서에 그 구절들을 적어 운전하거나 걸으면서 읽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예수님께 그 구절들을 속삭였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라든지, “성령님, 나를 지탱해 주시고, 새롭게 하소서”(아 1:2; 2:5).
- D. As you read through the notes, I recommend that you pray specific phrases from the Song back to God. By doing this, we use the Song as a springboard to launch into the depths of God’s love.
 아가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중요한 구절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다시 올려 드리라고 제안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아가서를 ‘도약대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IV. ENCOUNTERING JESUS: JOURNALING & PRAYER-READING THE SONG OF SOLOMON 예수님 만나기: 아가서의 저널링 작성, 묵상하며 읽기

- A. I define two general categories of truth related to meditating on the Word. The first category is related to truths that exhort us “*to believe*” something about God, ourselves or the Kingdom. The second category is related to truths that exhort us “*to obey*” God’s Word.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는 데 관련된 진리들을 보통 두가지 종류로 정의한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 자신,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리들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리들이다.
- B. Below are two ways to pray-read the Scriptures that exhort us “*to believe*” God’s Word.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묵상법 두가지이다.
1. First, we **thank God** for the particular truth set forth in the passage. We turn the truth into a dialogue that includes taking time to say “Thank You, Jesus” in a specific way.
 먼저,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진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포함한 진리의 말씀을 대화로 바꾼다
 - a. For example, when reading, “*You have ravished My heart,*” (Song 4:9) we respond by thanking God for this truth by praying, “Thank you Jesus, that I ravish Your heart.”
 예를 들어, “네가 나의 마음을 빼앗았구나”(아 4:9)를 읽을때, 다음과 같이 기도 하면서, 진리에 감사 드린다. “예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 b. For example, when Jesus says to the Bride,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Song 4:10), we respond by praying “I thank You Jesus that You esteem my love for You as better than the wine (the glory and pleasure) of this world.”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신부에게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옴이로구나” (아 4:10)라고 말할 때,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이 세상의 포도주 (영광과 즐거움)보다 낫다고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라고 기도하며 답한다.

¹⁰***How fair is your love...How much better than wine is your love... (Song 4:10)***

¹⁰...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아 4:10)

2. Second, we ***ask for understanding*** of the truth as we seek to believe more. Ask God to release revelation that causes us to know and feel the power of specific truths (Eph. 1:17).
두번째,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위해 이해를 구한다. 그 진리의 권능을 알고 느끼게 되도록 계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엡 1:17).

- a. For example, when reading, “*You have ravished My heart, My bride.*” ask Jesus for heart revelation by praying, “Jesus, show me more how *I have ravished Your heart.*”

예를 들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를 읽을 때,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마음 속에 계시가 임할 것을 구하라.

- b. For example, when reading that Jesus says to the Bride,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respond by praying for understanding by praying, “Jesus, show me more about the truth that “*My love for You is better to You than all the wine of this world.*””

예를 들면,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옴이로구나”를 예수님이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을 읽을 때,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주님께 이 세상의 그 어떤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진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이해를 구한다.

- C. Below are two ways to pray-read the Scriptures with truths that exhort us “***to obey***” God’s Word.
다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리 묵상법 2 가지이다.

1. First, we ***commit to obey*** Jesus in the specific way described in the passage. We turn a particular truth into a simple dialogue with God that includes declaring our intention or commitment to obey Him (according the particular exhortation in that passage).

먼저, 우리는 성경본문에 나온 방법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데 헌신한다. 구체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 (본문에서 주는 특정한 권면에 따라)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와 헌신을 선포하며 하나님과의 간단한 대화로 바꾼다.

- a. For example, when Jesus exhorts the Bride to “*rise up in obedience to leave the comfort zone to follow Him*” (costly obedience; Song 2:10), we respond by simply committing to obey this truth by praying, “Jesus, I will rise from the comfort zone to meet You on the mountains of costly obedience (Song 4:6).”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신부에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순종하며 일어나, 안락의 지대에서 떠나자” (대가를 치르는 순종; 아 2:10)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안락의 지대에서 벗어나, 대가가 따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고난의 산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라고 진리에 순종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답한다 (아 4:6).

¹⁰***My Beloved...said to me: “Rise up, My love...and come away. (Song 2:10)***

¹⁰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0)

- b. For example, when Jesus honors the Bride’s heart for being like “*an enclosed garden whose springs of water are undefiled*” (a king’s garden was enclosed or locked, in contrast to public garden. This points to having a pure heart that is as an enclosed garden or fully reserved for Jesus). We respond by committing to obey this truth by praying, “Jesus, my heart is locked to all compromise. I am fully Yours.”

예를 들면, 예수님이 “샘물이 더럽혀지지 않은 잠근 정원 (동산)” (왕의 정원은 일반 (대중) 정원과는 다르게 보통 잠겨(봉해져) 있었다. 이것은 잠근 정원과 같이 예수님만을 위해 온전히 준비된 순결한 마음의 소유를 가리킨다)과 같이 신부의 마음을 칭찬하실 때, “예수님, 제 마음은 어떠한 타협에도 굴하지 않도록 잠겨져 있습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진리에 순종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답한다.

¹²*A garden enclosed is...My spouse, a spring shut up... (Song 4:12)*

¹²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봉한 샘이 로구나 (아 4:12)

2. Second, we **ask for God’s manifest power to obey** a particular truth in a passage. Ask the Spirit for help to obey specific exhortations in a passage.

두번째, 구절에 나와있는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을 구한다. 그 구절에 있는 권면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

- a. For example, when the Lord exhorts the Bride to “*arise in obedience to follow Him to the mountains,*” we ask the Spirit to help us obey by praying, “Jesus, empower me to obey You as I arise from the comfort zone to meet you in costly obedience.”

예를 들면, 주님께서 신부에게 “순종하며 일어나 주님과 함께 산으로 따라갈 것” 을 권면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 제게 권능을 입혀주사 주님께 순종하며, 나의 안락의 지대에서 일어나 (벗어나) 고난의 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한다.

- b. For example, when the Lord honors the Bride’s heart for being like “*an enclosed garden...*” we respond by asking God for help to obey this truth by praying, “Jesus, empower me to live with a locked heart that resists all compromise for You.”

예를 들면, 주님께서 “잠근 동산” 과 같은 신부의 마음을 칭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 제게 권능을 주셔서 어떠한 타협에도 절대 굴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위한 잠근 동산 (마음)으로 살게 도와 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한다.

V. THE NECESSITY OF JOURNALING

저널링 기록의 필요성

- A. Take time to journal by writing down your thoughts, prayers and meditations as you “pray-read” through the Song. This will help you to capture the truths that the Lord puts on your heart. The simple exercise of writing your ideas will help you take this magnificent Song and turn it into a glorious prayer dialogue between your heart and Jesus.

아가서를 “묵상” 하며 읽어 나갈 때에 떠오르는 생각, 기도, 묵상들을 노트에 적으라. 주님이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들을 붙잡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는 연습을 통해, 이 장대한 아가서를 예수님과의 영광스런 대화, 기도로 바꾸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 B. Be patient, speak slowly and softly, then journal your thoughts. You may be surprised how the Spirit will give you more revelation, strengthen your obedience and tenderize your heart by this. 인내를 가지고, 천천히, 조용히 읽으면서 생각들을 적어보라. 성령님이 계시를 더욱 부어 주셔서, 더욱 강력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음을 온유케 하시는 역사를 보며 당신은 놀라게 될 것이다.

VI. THE 8 REVELATIONS OF JESUS IN THE SONG

아가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 8 가지

- A. There are 8 distinct revelations of Jesus in the Song of Solomon. They reveal 8 distinct facets of Jesus' personality. Each time that God reveals His name to us in Scripture, He is revealing a different dimension of how He wants to relate to us. Therefore, each of these 8 faces of Jesus reveals a unique aspect of His relationship with us and thus, produces a distinct response in our heart back to Him. Each different face of Jesus' beauty produces a certain response in the Bride. 아가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8 가지 계시가 들어있다. 이 계시들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8 가지 측면을 보여준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마다, 각각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신다. 이 8 가지 예수님의 모습 하나 하나는 우리와 그분의 관계의 독특한 측면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 안에 각각 다른 반응들을 창출하게 된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 8 가지 계시 하나 하나는 신부 안에 각각 다른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

- B. Isaiah declared four names of Jesus. He is our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Prince of Peace and Everlasting Father (Isa 9:6).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름을 4 가지로 선포했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사 9:6).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Isa. 9:6)

⁶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 9:6)

- C. We can combine the four names that Isaiah spoke of with the 4 faces of the high ranking angelic beings (living creatures) in Ezek. 1:10; Rev.4:7. Each have the same four faces, including the face of a man, a lion, a calf (or oxen) and a flying eagle.

이사야가 언급한 예수님의 4 가지 이름을, 에스겔 1:10; 계 4:7 에 나오는 고위급 천사 (생물들)들의 4 가지 얼굴과 결합할 수 있다. 에스겔과 요한 계시록은 네 얼굴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 사자, 송아지 (또는 소),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다.

⁷ The first living creature was like a lion, the second... like a calf, the third living creature had a face like a man, and the fourth living creature was like a flying eagle. (Rev. 4:7)

⁷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계 4:7)

¹⁰As for the likeness of their faces, each had the face of a man, each...had the face of a lion..., each of the four had the face of an ox..., and each...the face of an eagle. (Ezek. 1:10)

¹⁰그 얼굴들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겔 1:10)

- D. The 8 faces are: the counseling Shepherd (1:8), the affectionate Father (1:12-2:6), the sovereign King (2:8-9), the safe Savior (3:6-8), the passionate Bridegroom (4:1-15), the suffering Servant (5:2), the majestic God (5:10-16) and the jealous God of consuming fire (8:6-7).
주님의 8 가지 얼굴은 다음과 같다: 모사 (목양)하는 목자 (아 1:8),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 (아 1:12 - 2:6), 통치하는 왕 (아 2:8-9), 신뢰의 구세주 (아 3:6-8), 열정적 신랑 (아 4:1-15), 고난의 종 (아 5:2), 위엄의 하나님 (아 5:10-16)과, ‘소멸하는 불’이신 질투의 하나님 (아 8:6-7).
- E. **Face of an Oxen:** the counseling Shepherd and suffering Servant (Song 1:8-11 and 5:2-7)
소의 얼굴: 모사 (목양)하는 목자, 그리고 고난의 종 (아 1:8-11, 5:2-7)
1. The counseling Shepherd serves the Bride as a shepherd (Song 1:7-11).
모사 (목양)하는 목자는, 목자로 신부를 섬긴다. (아 1:7-11)
 2. The suffering Servant calls the Bride to join Him in His burden (Song 5:2-7).
고난의 종은 주님의 짐을 함께 짊어지도록 신부를 초청한다 (아 5:2-7).
- F. **Face of a Lion:** the sovereign King and safe Savior or Prince of peace (Song 2:8-9 and 3:6-11)
사자의 얼굴: 통치하는 왕, 신뢰의 구세주 또는 평강의 왕 (아 2:8-9, 3:6-11)
1. The sovereign King (Song 2:8-9) has authority over all mountains and obstacles, etc.
통치하는 왕 (아 2:8-9)은 모든 산들과 장애물들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2. The safe Savior (Song 3:6-11) is the Prince whose government brings peace and safety.
안전한 (신뢰의) 구세주 (아 3:6-11)는 평강과 안보를 가져다 주는 왕이다.
- G. **Face of a Man:** the affectionate Father and passionate Bridegroom (Song 1:12-16; 4:1-15)
사람의 얼굴: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 그리고 열정적인 신랑 (아 1:12-16; 4:1-15)
1. The affectionate Father brings her joy at the banqueting table (Song 1:12-2:7; Lk 15:20).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는 잔칫상에서 신부에게 기쁨을 부어주신다 (아 1:12-2:7; 눅15:20).
 2. The passionate Bridegroom is the primary revelation in this Song (Song 4:1-15; 6:4-5). There are 2 expressions of the Bridegroom: the Prophetic heart of the Bridegroom (Song 4:1-5) and the ravished heart of the Bridegroom (Song 4:8-15).
‘열정적인 신랑’은 아가서의 핵심 계시로 (아 4:1-15; 6:4-5), 신랑의 모습을 두 종류로 표현한다: 예언적인 신랑의 마음 (아 4:1-5), 빼앗긴 신랑의 마음 (아 4:8-15).
- H. **Face of an Eagle:** the mighty God and the jealous consuming Fire (Song 5:10-16; 8:6-7)
독수리의 얼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소멸하는 불이신 질투의 하나님 (아 5:10-16; 8:6-7)
1. The majestic God (Song 5:10-16) is revealed in the description of splendor and awe.
위엄의 하나님 (아 5:10-16)은 광채와 경외를 설명할 때 나타난다.

2. The consuming Fire of our jealous God (Song 8:6-7; Deut. 4:24) is seen in God's supernatural love.
질투의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아 8:6-7; 신 4:24)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에서 나타난다.

Session 3 *The Divine Kiss: Transformed by the Word (Bridal Paradigm)* 거룩한 입맞춤: 주의 말씀으로 변화됨 (신부의 영성)

I. INTRODUCTION

소개

¹*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Word) -- for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Song 1:2)*

²내게 (주의 말씀으로)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 1:2)

A. What is a Bridal paradigm? A paradigm is a point of view or a perspective. It is the lens through which we interpret our worldview. In July 1988, the Lord began to lead me to see the Kingdom of God through the eyes of a cherished Bride who is to be fascinated with the beauty of Jesus as the Bridegroom God. I began to see Jesus' beauty in a whole new way, even in familiar passages. 신부의 영성 (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 패러다임이란 관점이나 견해를 말한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패러다임'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본다. 1988년 7월, '신랑 하나님' 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소중한 신부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으로 주님은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셨다. 그로부터, 나는 이미 친숙한 성경본문들 안에서도 새롭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B. The dominant theme in the Song is the King's emotions or affections for His Bride. We must make it a priority to study and meditate on the subject of God's emotions. This is important to our own emotional health. We are transformed as we understand the way God thinks and feels about us, especially in our weakness. This revelation causes us to run to Him instead of from Him. It causes us to have confidence in His love and to open our spirit to Him in our weakness. Many sincere believers seek God with a condemned heart or a closed and guarded spirit.

아가서의 지배적 주제는 '신부를 향한 왕의 마음과 애정 (감정)'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란 주제를 공부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아가서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건강한 마음'을 소유하는 데 아가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시고, 바라보시는 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 계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달아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이 계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고, 또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열 수 있게 도와준다. 사실, 많은 진실한 사람들이 죄책감과, 굳게 닫힌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현실이다.

C. In the grace of God, our experience of God's love is not to be quenched nor drowned by any flood. Many have a quenched heart in which their ability to experience God's love has been drowned. The truths of the Song unlock our heart by the fire of God.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그 사랑이 어떠한 '홍수'에 의해서도 꺼지거나 엎몰되어서는 안된다.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거나, 아예 소진된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아가서의 진리는 닫힌 심령을 '하나님의 불'로 열어주게 될 것이다.

⁶*Set Me (Jesus) as a seal upon your heart...for love (God's love in us) is as strong as death... its flames are flames of fire...⁷ Many waters (persecution, sin, condemnation, pressures, etc.) cannot quench love, nor can the floods drown it. (Song 8:6-7)*

⁶너는 나 (예수)를 인 같이 마음에 품고 ... 사랑 (우리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 ⁷이 사랑은 많은 물 (핍박, 죄, 정죄, 압박, 등)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엎몰하지 못하나니 (아 8:6-7)

II. THE KISS OF GOD'S WORD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

- A. The focus of this session is to understand the Divine kiss of God's Word. The eight chapter love Song unfolds the implications of receiving the Divine kiss. This is the theme of the Bride's life. 이 단원의 초점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이해하는 것이다. 전체 8 장에 이르는 이 사랑의 노래는 '거룩한 입맞춤'의 함축적 의미를 전개시켜 준다. 바로 이것이 신부의 삶의 주제다.

²***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Word) wine. (Song 1:2)***

²내게 (주의 말씀으로) 입맞추기를 원하니 ... (아 1:2)

- B.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kisses in Scripture. Examples are the kiss on the cheek of a friend, or the kiss on the feet of a servant. The kiss of the mouth speaks of holy married love or intimacy.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입맞춤'이 나온다. 예를 들면, 친구의 볼에 하는 입맞춤, 종이 발에 하는 입맞춤 등등. 입술에 하는 입맞춤은 부부의 거룩한 사랑 친밀감을 말한다.

- C. The maiden requests the kisses of the King's mouth. The Word of God is what proceeds from God's mouth. Our heart can only live by that which comes from the mouth of God. Jesus quoted Deut. 8:3 in His wilderness temptation (Mt. 4:4). For 3,000 years, rabbis have referred to the "kisses of the mouth" in this verse as the "kiss of the Torah".

솔라미 여인은 왕에게 입맞춤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 우리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신명기 8:3 을 인용하셨다 (마 4:4). 지난 3000년 동안, 랍비들은 이 구절에 나오는 "입맞춤"을 "토라의 입맞춤"으로 해석해 왔다.

³***That He might make you know that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man lives by every word that proceeds from the mouth of the LORD. (Deut. 8:3)***

³...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 8:3)

- D. The Divine kiss is a metaphor for intimacy with God. We are to think of God's hand touching our heart by the Holy Spirit to expand our capacity to receive His love and to give ourselves back to Him in love. It speaks God's invitation to go deep with Jesus. The kisses of His mouth speak of the release of the Word of God that tenderizes our hearts in the love of God. We are NOT to think of kissing Jesus on the mouth. This is entirely outside the boundaries of God's Word. We renounce all interpretations of the "kisses of the Word" that come from sensual imagination. '거룩한 입맞춤'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친밀함을 나타내는 비유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의 영역을 넓히시고, 주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 (능력)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이 입맞춤은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초청을 말한다. 주님의 입맞춤은,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시로 풀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 입에 입맞추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씀의 입맞춤"을 관능적, 감각적으로 보는 해석을 모두 부정한다.

- E. The Song of Solomon was written to extol the beauty of married love and to give us insight into our relationship to Jesus as our Bridegroom God. All that the Spirit teaches motivates us to love Jesus more. It is inconceivable that the Spirit would inspire Scripture that did not point to Jesus. 아가서는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을 찬양하며, ‘신랑’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부여해 주기 위해 씌여졌다. 성령님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주제를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게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¹⁴He will glorify Me, for He will take of what is Mine and declare it to you. (Jn. 16:14)

¹⁴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 16:14)

- F. The Word of God covers many different subjects such as relationship skills, ministry skills or apostolic strategies for outreach (Book of Acts). The Word as it pertains to growing in these skills and insights is very valuable to us. However, in Song 1:2, the Bride cried out specifically to receive the Word of God in a way that would reveal and impart God’s love to her heart.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 관계론과 사역 방법, 아웃리치를 위한 사도적 전략 (사도행전)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도 많이 다루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과 통찰력들을 얻고자 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준다. 그러나, 아가서 1:2 에서 신부가 부르짖는 기도는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다.

- G. There are three metaphors of intimacy with God in the Song. They are the Divine kiss (1:2), the Divine seal (8:6), and the Divine embrace (2:5; 8:4).

아가서에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친밀함을 나타내는 비유가 세가지 있는 데, 거룩한 입맞춤 (아 1:2) 과 거룩한 인 (아 8:6), 그리고 거룩한 품으심 (포옹) (아 2:5; 8:4)이다.

- H. The Bride’s journey started with a longing for the kisses of His Word (Song 1:2) and up ended up encountering Jesus in His holy jealous love (Song 8:6-7). He came to seal her heart with holy jealous love which is the ultimate expression of maturity in the Song.

신부의 여정은, 주님 말씀의 입맞춤에 대한 열망으로 시작되어, 거룩한 질투의 사랑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면서 끝을 맺게 된다 (아 8:6-7). 예수님은 신부에게 오셔서, 아가서의 ‘궁극적’ 성숙의 표현인 ‘거룩한 질투의 사랑’을 신부의 마음에 ‘인 (seal)’치신다.

III. THE DIVINE KISS: THE BRIDE’S SUPREME REQUEST

거룩한 입맞춤: 신부의 가장 큰 소원

- A. The maiden made her request to One with authority over the King instead of directly to the King. She said, “Let Him...” She asks One who could influence the King in personal matters. 술람미 여인은 왕에게 직접 요청한 것이 아니라, 왕보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닌 분에게 요청한다. 여인이 말하길, “(그로- 영어역) 내게...” (아 1:2). 여인은, 개인적으로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께 요청한 것이다.

- B. Solomon writes this love Song in a way that is reminiscent of his own experience with God. In Solomon's early years as king of Israel, God visited him in a dream to test him (2 Chr. 1; 1 Kg. 3). The Lord tested Solomon by allowing him to make one supreme request or to ask God for anything. He asked for a supernatural impartation of wisdom and knowledge to serve God better.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랑의 노래를 써 나간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 꿈에 나타나셨다 (대하 1장; 왕상 3장). 주님은 솔로몬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 하나를 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그를 시험하셨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초자연적인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⁷God appeared to Solomon, and said to him, "Ask! What shall I give you?"...¹⁰Now give me wisdom and knowledge...for who can judge this great people of Yours?" ¹¹God said to Solomon: "Because this was in your heart, and you have not asked riches or wealth or honor or the life of your enemies, nor have you asked long life—but have asked wisdom and knowledge for yourself, that you may judge My people...¹²wisdom and knowledge are granted to you; and I will give you riches and wealth and honor, such as none of the kings have had who were before you, nor shall any after you have the like." (2 Chron. 1:7-12)

⁷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¹⁰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¹¹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¹²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대하 1:7-12)

- C. In a similar way, the Lord has invited the Church to ask for anything in His will. As the Bride, we stand in the Father's presence to ask for what we want most. We cry "Father,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Word." We ask for the deepest things that God will give the human spirit.

유사한 방법으로, 주님은 교회가 주님의 뜻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다.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서서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을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주의 말씀으로 제게 입맞추게 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주실 수 있는 '가장 깊은 것들'을 구해야 한다.

²²And whatever things you ask in prayer, believing, you will receive. (Mt. 21:22)

²²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 21:22)

²³Whoever...does not doubt in his heart, but believes that those things he says will come to pass, he will have whatever he says. (Mk. 11:23)

²³...누구든지 ...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막 11:23)

¹³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at I will d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¹⁴If you ask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Jn. 14:13-14)

¹³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¹⁴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 14:13-14)

- D. God continues to test His people by allowing them to ask for anything. The Bride's supreme request from the Father is the Divine kiss of the Word. She wants this more than power, prominence and earthly comforts. God is raising up a people who long for the kisses of God's Word as their supreme request. There are many necessary things to ask for. They are secondary. The greatest prayer of faith is to receive grace to love God with all our heart and strength.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신부의 최고의 요청은 '거룩한 주 말씀의 입맞춤'이다. 신부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성, 안락보다 이것을 더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최고의 소원이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으키고 계신다. 사실, 우리의 필요를 구하자면 참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기도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다.

IV. THE 3-FOLD NATURE OF THE CRY FOR THE KISS OF GOD'S WORD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위한 간구 (부르짖음)의 세가지 특징

- A. First, this is the great *prophetic cry* that expresses *where* the Spirit is leading the Church in the nations. The Spirit will restore the First Commandment to first place before Jesus returns. God promised Moses that in the End-Times, He would circumcise the heart of His people so that they would love God with all their heart. The Church will cry out with a bride's love, "Come, Jesus!" 먼저, 이것은 모든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표현하는 위대한 '예언적' 부르짖음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재림전에 교회 안에 '첫 계명을 최우선 순위'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할례'시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 모세에게 약속하셨다. 그 때에, 주님의 교회는 신부의 사랑으로 외치게 될 것이다, "오시옵소서, 예수님!"

³⁷Jesus said to him,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Mt. 22:37)

³⁷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 22:37)

⁶The LORD your God will circumcise...the heart of your descendants, to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that you may live. (Deut. 30:6)

⁶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위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 30:6)

¹⁷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Rev. 22:17)

¹⁷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느도다 (계 22:17)

- B. Second, this is the great *philosophical cry* of the human spirit that answers *why* we exist in time and eternity. The ultimate purpose and meaning of our life is to experience intimacy with God. The absolute definition of success is to a wholehearted lover of God. When we know that we are loved by God and desire to be a wholehearted lover of God, then we are truly successful.

두번째, 이것은 시간과 영원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는 '철학적' 부르짖음이다.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는 데 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사랑 받는다는 것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는 진정 성공한 자들이다.

- C. Third, this is the great *psychological cry* that answers *how* our heart functions. It answers the mystery of how our heart experiences true happiness and is satisfied. God designed us so that experiencing His love is the most pleasurable reality available to the human make-up. We were created to love God with all our heart. When we do not love God with a passionate heart, then our emotional life is out of balance. Life does not work without pursuing this. We were created in such a way that we can not live in wholeness without the pursuit of being wholehearted for God. If we have nothing to die for, then we have nothing to live for. Many in the Body of Christ are suffering from spiritual boredom because they are not passionate in their pursuit to love God.

세번째,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심리적’ 부르짖음이다.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만족하며 사는 삶의 비밀에 대한 해법을 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실재가 되도록,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서 감정과 마음의 균형은 깨지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좇지 않을 때, 그것은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좇지 않고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게 창조된 것이다. 생명을 다해 좇을 대상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스도 지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권태’로 고통 받고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좇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V. THE 2-FOLD SPIRITUAL REST OF THE BELIEVER

믿는 자들이 누리는 두 종류의 영적 안식

- A. *The rest of forgiveness*: we experience this with the knowledge that we are fully forgiven as a free gift in Jesus. We rest in receiving forgiveness because of Jesus’ finished work on the cross. **죄사함(용서)의 안식**: 예수님 안에서 값 없이 받은 선물로, 온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경험한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로 죄사함을 받고 안식한다.
- B. *The rest of intimacy*: we experience this as we pursue intimacy with God. There is no rest until we conclude the highest purpose of our life is intimacy with God. Augustine (354-430 AD) wrote, “Man does not rest until he finds his rest in God.” We only find our ultimate purpose for life in being wholehearted in our love for God. This is our highest life purpose that brings us peace and happiness in this life. Many believers who have the assurance of being forgiven are striving to find purpose and happiness. It is not an issue of going to heaven but how and why they live on earth. **친밀감의 안식**: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좇을 때 경험하게 된다. 삶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성 어거스틴 (서기 354-430년)은 다음과 같이 썼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 인간은 안식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만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야 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평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인생의 최고 목적이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과 행복을 찾으려 애쓴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왜 존재하며, 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C. There is a God-shaped vacuum in our hearts that can only be fulfilled in the rest of intimacy. Without resting in this area of our lives, we are far more vulnerable to sexual bondage, addictions and bitterness, etc.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는 친밀감이 주는 안식에서만 충족될 수 있는, 하나님이 형성하신 공백이 있다. 삶에서 이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성적 속박이나, 중독, 쓴뿌리 등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게 된다.

VI. LIVING BEFORE AN AUDIENCE OF ONE

한 분의 청중(AUDIENCE OF ONE)앞에 사는 삶

- A. I heard the story of a concert pianist in the last century that longed to play in the great concert hall in Vienna. When he finished his first concert before thousands, the people gave him a long standing ovation. Afterwards, he was asked, “Was it the greatest moment in your life to receive this long applause?” The concert pianist replied, “No! I liked it, but it was no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me.” He said, “When the people all sat down, an elderly man who sat in the top corner of the balcony simply nodded his head at me. That was the greatest moment of my life because he is the master who taught me for 30 years. One nod from him was worth much more than the long applause of the masses.”
비엔나의 웅장한 콘서트 홀에서 처음으로 연주하게 된 한 피아니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수 천명의 청중 앞에서 그의 첫 콘서트를 마쳤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긴 기립 박수를 보냈다. 얼마 후, 그는 한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기나긴 박수 갈채를 받았을 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고 느끼셨습니까?” 그 피아니스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 때, 기쁘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들이 모두 제자리에 앉았을 때, 꼭대기 발코니 끝에 앉아 계시던 지긋한 나이의 노인들이 제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때가 제 삶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난 30년 동안 저를 가르치셨던 스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제게 한 번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이 제게는 수 천명이 보내는 박수 갈채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 B. We must learn to live before an audience of One. Receiving the nod from our Master has great power in the hearts of those who love Him. It has more power than the approval of all others.
우리는 ‘한 분의 청중’ 앞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고개 끄덕임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위대한 능력을 부여해 준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받는 그 어떠한 인정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VII. PRACTICAL APPLICATION: SEEKING THE KISSES OF GOD’S WORD

실제 적용: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구하라

- A. The cry for the kisses of God’s Word is the same reality as living before the audience of One.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한 분의 청중 앞에 사는 것과도 같은 실재를 말한다.
- B. We receive the kisses of God’s Word by pray-reading God’s Word or in meditation on it (as covered in session 2) as we set our heart to receive the deepest things that God will give us.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깊은 것들을 받을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며 읽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C. In times of temptation, we speak this truth before the Lord. We say, “I will not yield to sin. Father let Him kiss me. My life is about receiving the kisses of God’s Word. This is who I am.” When people mistreat us. We declare, “My life is not primarily about being more popular, I live for the kisses of God’s Word.”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진리를 고백해야 한다. “이 죄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게 입맞추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정체성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 대할 때, 다음과 같이 선포해야 한다. “나는 세상적인 명성과 명예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위해 산다.”

Session 4 An Overview of the Storyline in the Song of Solomon

아가서 줄거리 개요

I. SONG OF SOLOMON: THE DIVINE KISS & THE BRIDE'S LIFE VISION (SONG 1:2-4)

아가서: 거룩한 입맞춤 & 신부의 삶의 비전 (아 1:2-4)

- A. The theme of the Song of Solomon is the Bride's spiritual journey to be drawn near to Jesus in intimacy and then to run in deep partnership with Him in ministry. She matures in these two realities as she experiences the kisses of God's word touching her heart.

아가서의 주제는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주님과 성숙한 동역으로 달음질 하는 신부의 영적 여정이다. 신부는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심령에 경험하면서, 이 두가지 실재 가운데 성숙하게 된다.

²*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Word). For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⁴*Draw me away (intimacy)! We will run after you (ministry). (Song 1:2-4)*

²내게 (말씀으로)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너는 나를 인도하라 (친밀감)! 우리가 (사역에) 너를 따라 달려 가리라 (아 1:2-4)

- B. The Song of Solomon has two main sections. First, Song 1-4 is focused on receiving our inheritance in God. Second, Song 5-8 is focused on God receiving His inheritance in us.

아가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뉜다. 아가서의 전반부인 1-4장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기업 (유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후반부인 5-8 장은 우리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II. HER JOURNEY BEGINS WITH THE PARADOX OF GRACE (SONG 1:5-11)

하나님 은혜의 역설로 시작되는 신부의 여정 (아 1:5-11)

⁵*I am dark (in heart), but lovely (to God)...⁶ my own vineyard (heart) I have not kept. (Song 1:5-6)*

⁵...내가 비록 (심령이) 검은나 (하나님께는) 아름다우니 ⁶나의 포도원 (마음)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 1:5-6)

- A. The paradox of our faith is that we are dark in our heart yet we are lovely to God. Both truths must be held in tension to understand who we are before God. Some emphasize how sinful we are (darkness of our heart) and others emphasize how beautiful we are to God (lovely in Christ).

믿음의 역설이란, 심령은 비록 검은나,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다 알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죄성만을 (검은 심령), 또 어떤 이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존재성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음)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 B. We are lovely before God even in our weakness for four reasons.

연약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데에는 4 가지 이유가 있다.

1. God's personality: is filled with tender loving emotions for His people. God sees us through His heart that is filled with tender love. Beauty is in the eyes of the beholder.
 하나님의 성품: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온유한 사랑으로 충만하시며,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 보신다. 아름다움은 바라보는 자의 눈에 있다.

2. The gift of righteousness: we receive the beauty of Jesus' righteousness as a free gift.
 의의 선물: 우리는 값 없는 선물로 예수님의 '의 (rightousness)' 의 아름다움을 받았다.

²¹For He made Him who knew no sin to be sin for us,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2 Cor. 5:21)

²¹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후 5:21)

3. The Spirit's impartation: of a sincere and willing spirit of obedience that cries for God.
 자원하는 심령: 거듭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진실한 마음과, 자원하는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¹⁵You received the Spirit of adoption by whom we cry, "Abba, Father." (Rom. 8:15)

¹⁵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롬 8:15)

4. Our eternal destiny: as Jesus' Bride. God sees the end from the beginning. He sees us in light of the billions of years in which we will be perfect in obedience.

우리의 영원한 부르심: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의 신부로 살게 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이미 보고 계신다. 수십 억년이라는 세월을 걸쳐 성숙한 신부로 온전히 순종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

C. She has a desperate cry to have more of Jesus. She wants Him to personally feed her spirit.
 신부에게는 예수님을 더욱 열망하는 절규가 있다. 신부는 주님이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갈망한다.

⁷Tell me, O You whom I love, where You feed your flock... For why should I be as one who veils herself by the flocks of Your companions? (Song 1:7)

⁷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 내게 고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아 1:7)

D. Jesus tenderly reveals His heart for her. Then He reaffirms her sincerity (Song 1:8-11).

예수님은 신부를 향해 온유한 마음을 나타내시며, 신부의 진실함을 재확인시켜 주신다 (아 1:8-11).

⁸...O fairest (most beautiful) among women... (Song 1:8)

⁸...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어여쁜 자야... (아 1:8)

III. UNDERSTANDING HER IDENTITY IN GOD'S BEAUTY (SONG 1:12-2:7)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 있는 신부의 정체성 (아 1:12 - 2:7)

A. She has an initial revelation of the beauty of Jesus and the pleasure of knowing Him (Ps. 27:4).
 신부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대한 계시를 갖고 있다 (시 27:4).

¹⁶Behold, You are handsome (beautiful), my Beloved! Yes, pleasant! (Song 1:16)

¹⁶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아름답고), 화창하다 (아 1:16)

She receives revelation of her identity in Christ as a beautiful rose in God's sight.

신부는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장미'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¹I am the rose of Sharon, and the lily of the valleys. (Song 2:1)

나는 사론의 수선화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아 2:1)

- B. Jesus is sweet to her heart as she rests under the shade of the finished work of the cross. She experiences the superior pleasures of knowing God as she feeds at His table and lives under the banner of His excellent leadership. In this she becomes lovesick. The goal of her life is her own spiritual happiness. This happens best when she experiences God's Presence. In the future, her goal will be to walk as His inheritance regardless of the cost.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주님의 역사의 '그늘' 아래서 안식하는 신부에게 예수님은 기쁨을 부여 주신다. 신부는 주님의 상에서 먹고, 탁월한 주님의 리더십 '깃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바로 이 부분 즈음에서, 신부는 '사랑앓이'를 하게 된다. 여기서 신부의 삶의 목표는 '영적 행복'이다. 영적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최절정이 된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신부의 목표는 모든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기업'이 되고자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

³*I sat down in His shade (resting in the finished work of the cross) with great delight, and His fruit was sweet to my taste. ⁴He brought me to the banqueting House, and His banner (leadership) over me was love. ⁵Sustain me...refresh me...for I am lovesick. (Song 2:3-5)*

³... 내가 그 그늘 (십자가에서 완성된 일로 안식하며)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⁴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 (리더십)로구나 ⁵너희는 ...내 힘을 돕고 ...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음이니라 (아 2:3-5)

IV. CHALLENGING THE COMFORT ZONE (SONG 2:8-17)

안락의 지대 (COMFORT ZONE)에 오는 도전 (아 2:8-17)

⁸*The voice of my Beloved! He comes leaping upon the mountains, skipping upon the hills. ⁹My beloved is like a gazelle...¹⁰My Beloved spoke, "Rise up, My love...and come away. ¹⁴Let Me see your face, let Me hear your voice; for your voice is sweet, and your face is lovely." ¹⁷Until the day breaks and the shadows flee away, Turn, my Beloved... (Song 2:8-17)*

⁸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산을 빨리 넘어 오는구나 ⁹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¹⁰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¹⁴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¹⁷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때에 돌아와서 ... (아 2:8-17)

- A. Jesus is pictured as effortlessly skipping and leaping over the mountains or as working to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The mountains speak of obstacles (human, demonic). Jesus has power over all of them. She is accustomed to eating apples at His table, under the shade tree. (Song 2:3-5)

여기서 예수님은 산들을 아주 쉽게 달리고 넘어오는 모습, 즉, '지상 대 명령(the Great Commission)'을 성취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산들은 (인간적인, 악한) '장애물들'을 말한다. 예수님은 모든 장애물들을 쉽게 정복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러나 아직, 신부는 주님의 '그늘' 아래 앉아, 주님의 잔치상에서 '사과'를 즐기는 데에만 익숙해 있다 (아 2:3-5).

- B. She refuses Him by telling Him to turn and go to the mountain without her (Song 2:17). Her painful compromise is due to her immaturity and fear not rebellion. She fears that total obedience will be too difficult and costly. She loves Him, but does not think she has the strength to fully obey Him.

본문에서, 신부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홀로 산으로 되돌아 가라고 말한다 (아 2:17). 여기서 오는 고통스런 신부의 타협은 반항이 아닌, '미성숙함과 두려움'으로 생기게 된 것이다. 온전한 순종에는 '고통과 댓가'가 따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한다.

V. SHE EXPERIENCES GOD'S LOVING DISCIPLINE (SONG 3:1-5)

하나님의 사랑스런 훈육 (DISCIPLINE)을 경험하게 되는 신부 (아 3:1-5)

¹By night on my bed I sought the One I love...but I did not find Him. ²I will rise now...I will seek the one I love. ⁴...When I found the One I love. I held Him and would not let Him go... (Song 3:1-4)

¹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²이에 내가 일어나서 ...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 3:1-4)

A. She experiences the discipline of God as He hides His face from her. The sweetness of Song 2 is gone. He disciplines us out of His affection (Heb. 12:5-12). God's correction is not the same thing as His rejection. The Father promises to pry our fingers off what holds us in bondage. The Father loves us too much to allow us to come up short of partnering with Jesus as His Bride.

예수님이 모습을 감추시면서, 신부는 하나님의 훈육을 경험하게 된다. 아가서 2 장의 달콤함은 이제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훈육하신다 (히 12:5-12). 사랑의 훈육은 우리를 '교정' 하시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의 손가락을 '떼어놓을 것'이라 약속하신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로 동역하는 데 있어 부족하게 되는 것을 허락치 않으신다.

B. She soon "arises" to obey the call to leave her comfort (Song 3:2). Jesus' manifest presence returns in response to her obedience (Song 3:4).

이 후에, 신부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안락의 지대'를 떠나 곧 '일어나게' 된다 (아 3:2). 신부의 순종을 보신 예수님은 신부에게 다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게 된다 (아 3:4).

VI. A FRESH REVELATION OF JESUS AS A "SAFE SAVIOR" (SONG 3:6-11)

"안전한 (SAFE)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되는 신부 (아 3:6-11)

Jesus reveals Himself as one who is safe to obey 100%. She believes that "100% obedience is the only safe place in life. Walking with Jesus on the water is far safer than being in the boat without Him.

주님은 '100 % 순종하기에 신뢰할 수 있는 분, 예수님'으로 모습을 드러내신다. 신부는 "100%" 순종할 때만이 자신이 삶의 안전지대에 입에 거할 수 있음을 믿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물위를 걷는 것'이 주님 없이 '홀로 배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뜻이다.

VII. THE PROPHETIC HEART OF THE BRIDEGROOM GOD (SONG 4:1-8)

신랑 하나님의 예언적 마음 (아 4:1-8)

¹Behold, you are fair (beautiful), My love! Behold, you are fair (Song 4:1)

¹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름답고)도 어여쁘다 ... (아 4:1)

A. The King reveals how beautiful the maiden is to Him. He describes 8 distinct virtues of her beauty that He sees emerging in her life (Song 4:1-5). Jesus prophetically proclaims her "budding virtues". He calls things that are not as though they were (Rom. 4:17). He sees the cry in her spirit, not just her failures. God defines us by the cries in our spirit not just by our struggles.

왕은 솔라미 여인이 자신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그는 그 여인의 삶에 피어나는 8 가지 미덕들을 기술한다 (아 4:1-5). 예수님은 예언적으로 신부의 "짜트는 미덕들"을 선포하신다. 예수님은 신부에게 아직 없는 미덕들을 이미 있는 것처럼 선포하신다 (롬 4:17). 예수님은 신부의 실패뿐만 아니라, 신부의 열망의 절규 또한 보시기 때문이다. 매일 겪는 육의 싸움 뿐만 아니라, 영혼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우리를 정의하신다.

- B. A life of total commitment is foundational for all who are to be mature in ministry (Song 4:6). Initially, she refused His call to come to the mountain (Song 2:9-10). However, in this season she commits to go to the mountain. She is only in the initial stages of her obedience. Later she becomes mature. ‘온전히 헌신하는 삶’은 성숙한 사역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본이다 (아 4:6). 처음에 신부는 ‘산’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했다 (아 2:9-10). 그러나, 이제 바뀐 영적 계절에서 신부는 주님을 따라 산으로 가겠다는 헌신을 하게 된다. 신부는 이제 순종의 ‘시작단계’에 접어들은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신부는 점차 성숙해지게 된다.

⁶*I will go my way to the mountain of myrrh... (Song 4:6)*

⁶... 내가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 4:6)

VIII. THE RAVISHED HEART OF THE BRIDEGROOM GOD (SONG 4:9-5:1)

신랑 하나님의 빼앗긴 마음 (아 4:9-5:1)

- A. The King is now revealed as a Bridegroom. His heart is ravished with desire for her. Jesus has passionate affection for His Bride. This revelation of His heart, equips her to fully embrace the cross (Song 4:9). Jesus describes His pleasure over her character (Song 4:10d-11). 왕은 ‘신랑’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의 마음은 신부를 향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다. 예수님은 신부를 향해 뜨거운 열정을 품고 계신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신부가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도록 무장시켜 준다 (아 4:9). 예수님은 신부의 성품을 보시며, 기쁨을 나타내신다 (아 4:10-11).

⁹*You have ravished My heart... My spouse...with one look of your eyes...¹⁰How fair (beautiful) is your love... How much better than wine is your love... (Song 4:9-10)*

⁹...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¹⁰...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 (아 4:9-10)

- B. Jesus gives her a 7-fold description of her purity (4:12-15). A king’s garden was private. This is in contrast to a public one with defiled water. We can speak this to Jesus in our desire for purity. 예수님은 신부의 순결함 7 가지를 말씀하신다 (아 4:12-15). 왕의 정원 (동산)은 오직 왕만 출입할 수 있는 개인 소유지로, 더러운 물이 있는 일반 정원 (동산)과는 달랐다. 우리는 순결함을 위한 갈망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¹²*A garden enclosed is My sister, My spouse, a spring shut up, a fountain sealed. (Song 4:12)*

¹²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 로구나 (아 4:12)

- C. Her garden speaks of her heart before God. She wants the fragrance of God’s spices to increase in her life. The north wind speaks of the cold bitter winds of winter. The south wind speaks of the warm refreshing winds of the summer. She is no longer afraid of the testings of God. She desires that Jesus receive His inheritance in her and cries, “Let my Beloved come to His garden.”

신부의 ‘동산 (정원)’은, 하나님 앞에 사는 신부의 ‘마음’을 말한다. 신부는 삶에 하나님의 향기가 배가 되기를 원한다. 북풍은 겨울에 부는 바람으로, 살을 파고드는 듯한 차가운 바람을 말한다. 남풍은 여름에 부는 따스하고 상쾌한 바람을 말한다. 신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시험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부는 예수님이 그녀 안에 있는 그분의 기업(유업)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님의 정원 (동산)에 임하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다.

¹⁶*Awake, O north wind, and come, O south! Blow upon my garden, that its spices may flow out. Let my Beloved come to His garden and eat its pleasant fruits. (Song 4:16)*

¹⁶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 4:16)

- D. In the first 4 chapters she was concerned with her inheritance (her garden). However, in the last 4 chapters, Jesus' inheritance in her is her focus. From now on, her heart is His garden not hers. She now defines her life radically different. Nine times He uses the ownership word “My”.
전반부 4 장에서, 신부는 자신의 유업 (그녀의 정원)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반부 4 장에서는,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의 유업이 신부의 초점이 되었다. 이제부터 신부의 ‘마음’ 은 자신의 동산이 아닌, 예수님의 동산 (정원)이 되었다. 이제, 신부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게 되며, 예수님은 “나의” 라는 소유격을 아홉번이나 사용하시게 된다.

¹I have come to My garden, My sister, My spouse; I have gathered My myrrh with My spice; I have eaten My honeycomb with My honey; I have drunk My wine with My milk. (Song 5:1).
¹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나의)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나의)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아 5:1)

IX. THE ULTIMATE 2-FOLD TEST OF MATURITY (SONG 5:2-8)

성숙을 위한 궁극적 시험 두가지 (아 5:2-8)

²The voice of my Beloved! He knocks, saying, “Open for Me...My love...My perfect one; for My head is covered with dew, My locks with the drops of the night.” (Song 5:2)

²...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 5:2)

- A. Jesus embraced the cross in the long and lonely night in Gethsemane. Jesus comes to her as the man of sorrows in Gethsemane (Song 5:2) and invites her to share His sufferings (Phil. 3:10).
예수님은 길고도 고독한 밤을 보낸 ‘겻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끌어 안으셨다. 예수님은 겻세마네의 슬픔과 고난을 가진 분으로 신부에게 다가오셔서 (아 5:2), 고난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하신다 (빌 3:10).

¹⁰That I may know Him, 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Phil. 3:10)

¹⁰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 3:10)

- B. Jesus asks her to, “Open up that He may come to her as the Man of Gethsemane.” Jesus wants to be the goal of her life, and not just the stepping stone to her agenda of success and happiness.
예수님은 신부에게 “겻세마네의 모습으로 내게 입하도록 문을 열어다오” 라고 요청하신다. 예수님은 신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디딤돌’을 넘어, 신부의 삶의 목표가 되길 원하신다.

- C. She responds in obedience saying she took off her dirty robes and washed her feet in His grace (Song 5:3). She is not afraid of obeying Jesus and thus, asked for the bitter north winds (Song 4:16). She rises immediately with a heart yearning in love for Him. The locks of her heart have myrrh on them, which speak of her heart commitment to embrace death in her pursuit of Jesus.
신부는 자신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발을 씻겠다는 순종을 보인다 (아 5:3). 이제 신부에게는 예수님을 100% 순종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래서 차가운 ‘북풍’을 요구했던 것이다 (아 4:16). 신부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워,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게 된다. 신부의 마음에는 ‘몰약’이 있는데, 이것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좇겠다는 ‘헌신’을 말한다.

⁴My heart yearned for Him. ⁵ I arose to open for my Beloved, and my hands dripped with myrrh...on the handles of the lock. (Song 5:4-5)

⁴내 마음이 동하여서 ⁵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든는구나 (아 5:4-5)

- D. She experiences her first test as God withdraws His presence (Song 5:6). This affects her ability to experience intimacy with God. In this passage, His presence leaves her for the second time in the Song (Song 3:1). However, this time it is not related to disobedience (as in 3:1-2), but rather to her mature obedience. Some medieval teachers called this “the dark night of the soul.”
신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첫번째 시험을 치르게 된다 (아 5:6). 이 시험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자 하는 신부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예수님의 부재는 아가서에 두 번 나온다 (아 3:1). 그러나 이번에는 (아 3:1-2 처럼) 신부의 불순종과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신부의 성숙한 순종을 위한 시험인 것이다. 중세 설교가들 중에는 이 계절을 “영혼의 어둔 밤 (dark night of soul)”이라 부르는 이들도 있었다.

6I opened for my Beloved, but my Beloved had turned away and was gone. My heart leaped up when He spoke. I sought Him, but I could not find Him... He gave me no answer. (Song 5:6)

6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아 5:6)

- E. She experiences her second test as her ministry is rejected (Song 5:7). The watchmen or the leaders strike and wound her taking her veil (spiritual covering) so she can no longer function in ministry in the Body. Her ministry is gone. How will she respond to Him now?

두번째, 신부는 자신의 사역이 사라지는 시험을 맞게 된다 (아 5:7). 파수꾼과 리더들은 신부를 치고, 상처를 주며, ‘신부의 옷 (영적 커버링)’을 취해버려, 신부가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끔 만들어 버린다. 신부의 사역은 이제 없어져 버렸다. 이제 신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주님께 나아가게 될까?

7The watchman...struck me, they wounded me; the keepers of the walls took my veil away from me. (Song 5:7)

7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아 5:7)

- F. The Lord is asking her, “Will you be Mine even if I withhold the things you deeply desire? Are you Mine when you cannot feel My Presence? Will you still love and trust Me when you are disappointed by circumstances?” She responds, “I am Yours, at the deepest level of love. She responds in humility by asking for help from the daughters of Jerusalem (who are less spiritual).

주님은 신부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못 얻는다 할지라도 나의 것이 되겠니? 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도 나의 것이라 고백하겠니? 주위환경이나 상황이 네게 실망을 안겨준다 해도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겠니?” 신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저는 모든 사랑을 다바쳐 주님의 것입니다.” 신부는 겸손함으로 (영적으로 더 미숙한)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8O daughters of Jerusalem, if you find my Beloved...tell Him I am lovesick! (Song 5:8)

8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 5:8)

- G. Summary: Jesus called her to join Him in Gethsemane. She responded in obedience. He gave her a 2-fold test related to her life vision to be drawn near Him and to run with Him (Song 1:2-4).

요약: 예수님은 자신이 계신 곳, ‘겔세마네’로 신부를 부르셨다. 신부는 순종하며 응답한다. 예수님은 신부의 삶의 비전, 즉,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삶을 위해 두 종류의 시험 (연단)을 신부에게 주신다 (아 1:2-4).

2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Word). For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4Draw me away (intimacy)! We will run after you (ministry). (Song 1:2-4)

2내게 (말씀으로)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4너는 나를 인도하라 (친밀감) 우리가 너를 따라 (사역에 함께) 달려 가리라 (아 1: 2-4)

X. THE BRIDE'S RESPONSE TO THE 2-FOLD TEST (SONG 5:9-6:5)

두가지 시험에 대한 신부의 반응 (아 5:9-6:5)

- A. The daughters of Jerusalem ask the Bride a question. In essence, they ask, "Why do you love Him so much that you charge us to go find Him? He has abandoned you. He took His presence away from you (v. 6) and lets the elders wound you as they took their ministry from you (Song 5:7).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데, 쉽게 의역하면 이렇다. "네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우리에게 주님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니? 주님은 너를 버렸어. 너로 부터 임재를 거둬 가셨단 말야 (6절), 그리고, 봐봐! 지도자들이 네 사역을 빼앗고, 네게 상처 주는데 주님은 뭐하시니? 가만 놔두시잖아" (아 5:7).

⁹*What is your Beloved more than another Beloved, O fairest among women? (Song 5:9)*

⁹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아 5:9)

- B. Her answer reveals her love for Jesus. She gives 10 descriptions of Jesus' majestic beauty (Song 5:10-16). This is one of the greatest proclamations on Jesus' beauty in the Scripture.

신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광대한 아름다움을 10가지로 설명한다 (아 5:10-16). 이 본문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해 주는 성경 본문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본문 중의 하나이다.

¹⁰*My beloved is white (dazzling, NAS)...and chief among ten thousand. ¹¹His head is like the finest gold; His locks are wavy...and black as a raven. ¹²His eyes are like doves by the rivers of waters...¹³His cheeks are like a bed of spices...His lips are lilies, dripping liquid myrrh. ¹⁴His hands are rods of gold set with beryl. His body is carved ivory inlaid with sapphires. ¹⁵His legs are pillars of marble set on bases of fine gold. His countenance is like Lebanon, excellent as the cedars. ¹⁶His mouth is most sweet, Yes, He is altogether lovely. This is my Beloved, and this is my friend... (Song 5:10-16)*

¹⁰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 (눈부신)...만 사람에게 뛰어난다 ¹¹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¹²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¹³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똑똑 떨어진다 ¹⁴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듯 하구나 ¹⁵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¹⁶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아 5:10-16)

XI. JESUS PRAISES HER AFTER THE SEASON OF TESTING (SONG 6:4-10)

시험의 계절을 잘 마친 신부를 칭찬하시는 예수님 (아 6:4-10)

- A. Her 2-fold test is now over. Jesus breaks the silence as He lavishes affection on her and describes her beauty. He declares that she is as beautiful as *Tirzah* (became the capital city of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and as lovely as *Jerusalem* (the capital of Israel, spiritually and politically). He proclaimed that she was as awesome as a victorious army with banners. When an army in the ancient world returned victorious from battle, they displayed their banners in a military procession. She defeated her greatest enemies, those found in her heart.

신부의 두가지 시험은 이제 끝났다. 예수님은 신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다시 쏟아 붓으시면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시면서 오랜 침묵을 깨뜨리신다. 예수님은 신부가 디르사(북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이 아름다우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수도)과 같이 사랑스럽다고 선포하신다. 예수님은 신부가 깃발을 높이 든 '승리의 군대'와 같이 놀랍다고 선포하신다. 고대의 군대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깃발을 높이 휘날리며 행진했다. 신부는 가장 큰 마음의 적 (자신과의 싸움에서)을 이긴 것이다.

⁴*O My love, you are as beautiful as Tirzah, lovely as Jerusalem, awesome as an army with banners! (Song 6:4)*

⁴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엄위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아 6:4)

- B. Jesus is “conquered” only by His Bride’s extravagant love. Our eyes of devotion deeply touch the King’s heart. All the armies in hell cannot conquer Jesus, but the eyes of His Bride “conquer” Him when they are true to Him in times of testing.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아낌없는 사랑에 주님은 “정복” 당하시게 된다. 주님을 향한 신부의 헌신의 ‘눈’이 왕이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킨 것이다. 지옥의 모든 군대도 예수님을 정복할 수 없지만,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을 지킨 신부의 눈은 주님의 마음을 “정복”하게 된다.
⁵Turn your eyes away from Me, for they have overcome Me. (Song 6:5)
⁵네 눈이 나를 놀래니 (정복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아 6:5)
- C. Jesus describes the Bride’s maturity and devotion (6:5c-7).
 예수님은 신부의 성숙함과 헌신을 칭찬하신다. (아 6:5c-7).
- D. Jesus describes the Bride’s pre-eminence in the King’s court. Jesus’ attendants around His heavenly court are seraphim, cherubim, archangels and angels without number.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궁정안에서 신부의 귀중함과 영광을 설명하신다. 예수님의 하늘궁정에는 수없이 많은 스랍들, 그룹들, 천사장들,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
⁸There are 60 queens and 80 concubines, and virgins without number. ⁹My dove, my perfect one, is the...only one of her mother, the favorite of the one who bore her... (Song 6:8-9)
⁸왕후가 육십이요 비빈이 팔십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⁹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 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 (아 6:8-9)
- E. The Holy Spirit describes the Bride’s crown of glory (Song 6:10).
 성령님은 신부의 영광의 면류관을 말씀하신다 (아 6:10).
¹⁰Who is she who looks forth as the morning, fair as the moon, clear as the sun, awesome as an army with banners? (Song 6:10)
¹⁰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 6:10)

XII. THE VINDICATION OF THE PERSECUTED BRIDE (SONG 6:11-7:9A).

핍박받는 신부를 변호 (아 6:11-7:9A).

- A. As the Bride walks in this revelation of who she is before the Lord, she is persecuted. Mature love and commitment to serve the whole church (6:11) overcomes her (6:12).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라는 정체성의 계시를 가지고 살게 되면서, 신부는 핍박받게 된다. 그러나, 모든 교회 (아 6:11)를 섬기고자 하는 성숙한 사랑과 헌신이 신부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게 된다 (아 6:12).
- B. She receives a sincere response from some in the church (6:13a,b) yet a hostile response from others (6:13c,d).
 그 가운데 신부는 교회안에 몇몇 사람들로 부터는 진실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지만 (아 6:13), 동시에 어떤 사람들로 부터는 적대 반응도 받게된다 (아 6:13).
¹³Return, return, O Shulamite; Return, return, that we may look upon you! What would you see in the Shulamite-- As it were, the dance of the two camps? (Song 6:13)
¹³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¹⁴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 6:13-14)
- C. The Bride is vindicated by discerning saints (Song 7:1-5). The Bride is vindicated by Jesus (Song 7:6-9a).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과 (아 7:1-5), 예수님은 신부를 차례로 변호해 주게 된다 (아 7:6-9a).

XIII. THE BRIDE'S MATURE PARTNERSHIP WITH JESUS (SONG 7:9B-8:4)**예수님과 성숙한 동역을 이루는 신부 (아 7:9B-8:4)**

She walks out mature bridal partnership with Jesus which is expressed in obedience (7:9b-10). She expresses Bridal partnership in her intercession for more power (7:11-13). She expresses partnership in her boldness in public ministry (8:1-2). She expresses Bridal partnership in their full union (8:3-4).

신부는 순종을 통해 예수님과 '성숙한 신부'의 동역을 하게 된다 (아 7:9-10). 신부는 더 큰 능력을 구하는 '중보기도'에도 신부적 동역을 표현한다 (아 7:11-13). 신부는 '사역' 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주님과 동역을 표현한다 (아 8:1-2). 신부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위해 '신부의 동역'을 표현한다 (아 8:3-4).

XIV. THE BRIDAL SEAL OF MATURE LOVE (SONG 8:5-7)**성숙한 사랑의 인 (아 8:5-7)**

Jesus invites her to receive the seal of fire upon her heart and to walk with Him in holy jealous love. God is a consuming fire and desires to impart His fire into our hearts. This is His supernatural love that seals our heart. It empowers us to live without the fire of our love being quenched.

예수님은, 신부가 마음에 '거룩한 불의 인 (seal)'을 받고, 거룩한 질투의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신부를 초청하신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에, 그 불을 신부의 마음에 나눠주고 싶어 하신다. 이 불은 우리의 마음을 인치는 주님의 '초자연적 사랑'이다. 이 거룩한 '인'은, 사랑의 불을 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 해준다.

XV. THE BRIDE'S FINAL INTERCESSION AND REVELATION (SONG 8:8-14)**신부의 마지막 중보기도와 계시 (아 8:8-14)**

A. The Bride intercedes for the church (8:8-9) and for Jesus' return (8:14). In Song 8:8-9, her apostolic passion for the church is seen.

신부는 교회 (아 8:8-9)와, 예수님의 재림 (아 8:14)을 위해 중보한다. 아가서 8:8-9 에서, 교회를 향한 신부의 '사도적' 열정을 엿볼 수 있다.

B. In Song 8:10, her 3-fold confidence is as a wall (selfless motives), as a tower (her supernatural abilities to nurture) and as one with peace (emotional hindrances are removed).

아가서 8:10 에서, 신부는 자신이 '성벽'(동기), '망대'(양육할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 그리고 '화평을 얻은 자'(마음의 장애물이 제거됨)와 같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C. In Song 8:11-12, she experiences the power and enjoyment of living before His eyes instead of before the eyes of men. Her sense of importance is rooted in eternity as she has revelation of giving account before God (8:11). The Bride has a revelation of her own spiritual maturity before God (8:12).

아가서 8:11-12 에서, 신부는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사는 능력과 즐거움을 표현한다. 신부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영원 (Eternity)'이란 뿌리에 두게된다 (아 8:11). 신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성숙함'에 대한 계시를 갖게 된다 (아 8:12).

- D. Jesus' final commission to the Bride (8:13-14). The Bride's urgency is expressed in intercession. 예수님은 신부에게 '마지막 위임'(아 8:13-14)을 부여하시고, 신부는 긴박함으로 중보하게 된다.

¹³*You who dwell in the gardens (the Bride), the companions listen for your voice-- Let Me (Jesus) hear it!* ¹⁴***Make haste, my Beloved (Jesus), and be like a gazelle or a young stag on the mountains of spices. (Song 8:13-14)***

¹³너 동산에 거한 자야 (주님의 신부)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예수)로 듣게 하려무나
¹⁴나의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아 8:13-14)

¹⁷***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Rev. 22:17)***

¹⁷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느도다 (계 22:17)

Session 5 God's Love is Better than the Wine of this World (Song 1:2)

세상의 포도주 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랑 (아 1:2)

I. REVIEW: UNDERSTANDING THE KISSES OF GOD'S WORD

복습: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에 대한 이해

²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Word) - For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Song 1:2)

²내게 (말씀으로)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 1:2)

A. The Bride made her request to the One with authority over the King. She said, "Let Him..." She asks the One who could influence the King in personal matters. We cry "Father,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Word." In this, we pray the prayer of faith asking for grace to love Jesus with all our heart. The commandment to love God is God's first priority in our lives.

신부는 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분께 간구한다. "그로 하여금... (영어역)" 다시말해 신부는 직접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께 요청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게 입맞추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 달라는 믿음의 기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이다.

³⁷Jesus said to him,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³⁸This is the first and great commandment. (Mt. 22:37-38)

³⁷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³⁸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7-38)

B. The Word of God is what proceeds from God's mouth. For 3,000 years, rabbis have referred to the "kisses of the mouth" in this verse as the "kiss of the Torah".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한다. 지난 3000 년 동안, 랍비들은 이 구절에 있는 "입맞춤"을 "토라의 입맞춤"으로 해석해 왔다.

³That He might make you know that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man lives by every word that proceeds from the mouth of the LORD. (Deut. 8:3)

³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하려 하심이니라 (신 8:3)

C. The theme of the Song is the Bride's cry for the kiss of God's Word to touch the deepest place in her heart. This refers to encountering the Word in the deepest and most intimate way. In other words, the Word as it reveals the King's emotions for His Bride and awakens our heart in the 3-fold love of God (love from God then for God which overflows to others).

아가서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이 심령 깊은 곳까지 임하기를 간구하는 신부의 부르짖음으로, 가장 깊고도 친밀하게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은 신부를 향한 왕이신 예수님의 감정을 보여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3 가지를 깨워준다 (하나님께 받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른 이들에게 흘러나가는 사랑).

II. THE SUPERIOR PLEASURES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 은혜안에 있는 탁월한 즐거움

- A. After asking the Father for the kisses of God's Word. She gives her reason for wanting the kisses of the Word. She speaks directly to Jesus in the second person, "For Your love (affection) is better than wine." We can use the word "because" in place of the word "for." She is saying that experiencing Jesus' affection is better than the wine of this fallen world.

주님의 말씀의 입맞춤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서, 신부는 간구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된다. 신부는 삼위일체의 제 2 격이신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말한다, "주님의 사랑 (애정)이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애정을 경험하는 것이 이 타락한 세상의 포도주 (즐거움)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²*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for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Song 1:2).*

²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 1:2).

- B. She uses the wine metaphor because wine "exhilarates" the heart. Wine, in the context of this marriage metaphor is "the drink of earthly celebration." It is the drink of gladness that makes people happy. It speaks of the intoxicating things of this world, both good and bad.

신부는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데, 이것은 포도주가 사람의 "기분을 들뜨게" 하기 때문이다. 혼인에서 사용되는 포도주는 "세상의 축하주"를 상징한다. 포도주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기쁨'의 술이다. 이것은 세상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것들을 말한다.

1. There is the "good wine" of God's blessing and also the "bad wine" of our sin. She is saying more than, "Your love is better than sin." That is obvious. She is saying, "Experiencing Your love is better than all the other privileges in this life.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선한 포도주"가 있는가 하면, 죄악을 말하는 "악한 포도주"도 존재한다. 신부는 "주의 사랑이 죄악 보다 더 낫습니다"라는 것을 넘어선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주의 사랑이 죄악보다 나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신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들보다도 더 나은 것입니다."

2. The good blessings of God in our circumstances include financial increase, favor in relationships, physical health, new spheres of influence in ministry, etc. The wine speaks of the best experiences that we can have in the natural realm (in this age).

우리가 사는 환경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들 중에는 물질의 축복, 인간관계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사역의 축복 등등이 있다. 여기에 나온 '포도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말한다.

- C. As wonderful as God’s blessings are, they are not to be the primary focus of our heart. Many experience God’s blessing in the increase of finances or prominence, etc. without their hearts being enlarged in the love of God. Many who increase in God’s blessing in their circumstances often gradually decrease in their love for Jesus (Rev. 2:4-5).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 축복들도 좋지만, 그런 것들에만 우리의 마음이 쏠려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보다는 물질이나 명성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 환경적인 축복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차 식어지게 된다 (계 2:4-5).
³You have persevered...and have labored for My name’s sake...⁴Nevertheless I have this against you, that you have left your first love. ⁵Remember therefore from where you have fallen; repent and do the first works, or else I will...remove your lampstand. (Rev. 2:3-5)
³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3-5)
- D. The Bride introduces the priority that the “superior pleasures” of gospel have in her life. This reveals her theology of her life and her pursuit of holiness.
신부는 삶에서 복음의 “탁월한 즐거움”이 가지는 우선순위를 소개한다. 이것은 신부의 ‘삶의 신학’과 ‘거룩의 추구’를 드러낸다.
²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for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Song 1:2)
²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 1:2)
²...with the kisses of His mouth- for Your love is more delightful than wine. (Song 1:2, NIV)
²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기쁨을 주는 구나 (아 1:2, NIV 역)
- E. “Is better than” or “is superior to” or “is more delightful than” points to the superior pleasures that come from growing in revelation of God’s heart (affection). These superior pleasures are in contrast to the inferior pleasures of sin. God frees us from the dominion of the inferior pleasures of sin by allowing us to experience superior pleasures that are more powerful.
“더 나은,” “보다 우월한” 또는 “더 기쁨을 주는” 하나님 마음 (애정)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자라나는 데서 오는 ‘탁월한 즐거움 (기쁨)’을 지적한다. 이 탁월한 즐거움들은 ‘열등한 죄의 즐거움’과 대조를 이룬다. 하나님은 열등한 죄의 즐거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더 강력하면서도 탁월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신다.
- F. There are many different categories of pleasures that we are to celebrate under the leadership of Jesus. There are physical, emotional, and mental pleasures. God is the author of these. God made us spiritually, physically and emotionally hungry or needy. We long for happiness. We yearn deeply for pleasure because we are designed by God to be pleasure seekers. This in itself is not sinful; finding our pleasure in unrighteousness is what is sinful.
예수님의 리더십 아래 축하해야 하는 즐거움의 종류는 다양하다. 즐거움에는 육적, 감정적, 정신적 즐거움들이 있다. 이것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굶주리게, 또는 갈급하게 만드셨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갈망하며, 즐거움을 깊이 갈망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즐거움 자체가 죄악은 아니다. 불의한 데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죄악인 것이다.

- G. God created the human spirit with seven longings that draw us to Him and reflect His glory in us. These longings are common in all of us. They give insight into the way God designed our spirit. Each longing is a reflection of God's personality. We are made in His image, thus, we have these longings. We feel delight because He is filled with delight, we have happiness because He has happiness. (see the book: *7 Longings of the Human Heart* by M. Bickle and Deborah Hiebert).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반영하는 '7 가지의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셨다. 모든 사람이 이 갈망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갈망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각각의 갈망은 하나님의 인격을 반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이 갈망들을 소유한다.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은 주님이 기쁨으로 가득찬 분이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주님이 행복을 느끼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7 가지 갈망하는 마음” – 순전한 나드, 참조).
- H. They are the longing for the assurance that we are enjoyed by God, the longing to be fascinated, the longing to be beautiful, the longing to be great, the longing for intimacy without shame, the longing to be wholehearted and passionate, and the longing to make a deep and lasting impact.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확증을 얻고 싶은 갈망, 매력적이고 싶은 갈망, 아름답게 되고 싶은 갈망, 위대하게 되고 싶은 갈망, 부끄럽없이 친밀감을 누리고 싶은 갈망, 마음을 다하고 열정적이고 싶은 갈망, 깊고도 영원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갈망, 이것이 바로 인간의 7 가지 갈망이다.
- I. They are cravings put into us strategically by God. They will never ever go away. The reason food is so good is because we were created to be hungry. The reason God satisfies us with pleasure is because He created a hunger for pleasure in us. They each have an element of delight, pain and ache as they woo us into God's presence. The enemy uses these cravings to woo us into darkness as well. When these longings are not touched in the grace of God they leave us empty; they leave us with pain, mourning, and dissatisfaction. God created us with a “God shaped vacuum” (gnawing emptiness) in our heart that can only be filled by God.
이 갈망들은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우리 안에 넣으신 갈망들이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굶주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이유는, 우리안에 즐거움을 위한 ‘굶주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기쁨과 고통, 아픔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 갈망들 하나 하나 모두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한다. 하지만, 원수도 이 갈망들을 사용해 우리를 흑암으로 인도하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안에서 찾지 않으면, 이 갈망들은 우리에게 허무함과 고통, 슬픔, 그리고 불만족만을 안겨주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안에 만드셨다.

- J. Satan counterfeits the pleasures that God created so that he might draw us away from God. Sin produces immediate pleasure. No one sins out of obligation. We sin because we believe that it will provide a pleasure that is superior to obeying God. The power of temptation rests on a deceptive promise that sin will bring more satisfaction than living for God, thus, it is referred to as the deceitfulness of sin or as deceitful lusts.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즐거움의 모조품들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 죄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준다. 의무감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죄를 짓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월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유혹의 힘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죄가 더 큰 만족을 줄 거라는 ‘거짓 약속’을 주기 때문에, ‘죄의 유혹’ 또는 ‘유혹의 욕심’이라 불린다.

²²***Put off...the old man which grows corrupt according to the deceitful lusts... (Eph. 4:22)***

²²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엡 4:22)

¹³***Lest any of you be hardened through the deceitfulness of sin. (Heb. 3:13)***

¹³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히 3:13)

- K. The greatest “pleasures” that we can experience are spiritual ones. These are best experienced by encountering Jesus as the Bridegroom God. This intoxicates our heart and makes us lovesick. God does not call us to holiness so that He can test us by keeping us from a life of pleasure. Holiness is not drudgery. It is a call to pleasure that is perfect and eternal.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은 ‘영적’ 즐거움이다. 신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즐거움의 ‘절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취하게’ 만들며, ‘사랑앓이’를 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것은, 삶의 즐거움을 없애는 시험을 주시게 위해서가 아니다. 거룩함은 지루하고 따분한 고역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즐거움으로의 초대다.

¹¹***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Your right hand are pleasures forevermore. (Ps. 16:11)***

¹¹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 16:11)

- L. The Bride develops the theme of the superior pleasure in God throughout the Song. 신부는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탁월한 즐거움’이라는 주제를 전개한다.

³***I sat down in His shade with great delight, and his fruit was sweet to my taste. (Song 2:3)***

³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아 2:3)

- M. Sin is pleasurable and sin appears to be the most pleasurable thing that the human spirit can experience until we experience the full truth of the gospel. The superior pleasures of the Spirit, are far more powerful than the inferior pleasure of sin. God’s main strategy in producing a holy people and restoring the first commandment to first place in the generation in which the Lord returns is to introduce into our experience the superior pleasures of the gospel.

복음의 충만한 진리를 맛보기 전까지는 죄가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성령님이 주시는 ‘탁월한 즐거움’은, 열등한 죄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대에 첫계명을 최우선 순위로 회복시키고, 거룩한 백성들을 소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요 전략은, ‘탁월한 복음의 즐거움’ 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다.

- N. The End-Time saints will come up victorious over the Antichrist singing about Jesus as they marvel at His greatness. The martyrs are victorious in love because their love never diminished in the midst of temptation and persecution.
 마지막 때 성도들은 주님의 위대함을 보며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며,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순교자들은 ‘사랑의 승자들’이다. 유혹과 핍박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기 때문이다.
²*I saw...those who have the victory over the beast (Antichrist)...standing on the sea of glass...*
³*They sing...saying: “Great and marvelous are Your works...” (Rev. 15:2-3)*
²또 내가 보니 ... 짐승 (적그리스도)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³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계 15:2-3)
- O. This truth is seen later in the song when Jesus says that the waters of temptation and persecution cannot quench or drown God’s love in us as we truly experience it. Our experience of God’s love is not to be quenched nor drowned by the flood of condemnation or compromise. Many have a quenched heart in which their ability to experience God’s love has been drowned.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은 ‘유혹과 핍박의 물’에 꺼지거나 엄몰될 수 없다는 부분이 아가서 후반부에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이 ‘죄책감’이나 ‘타협’이라는 ‘홍수’에 꺼지거나 엄몰되서는 않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엄몰’되어, 능력을 상실한 채, 꺼진 심령으로 살아간다.
⁷*Many waters cannot quench love, nor can the floods drown it. If a man would give for love all the wealth of his house, it would be utterly despised. (Song 8:7)*
⁷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찌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 8:7)
- P. Paul spoke of experiencing Jesus as surpassing any privilege in this age.
 바울은 이 시대의 모든 특권을 능가하는 경험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 말했다.
⁸*I count all things loss for the excellence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for whom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and count them as rubbish, that I may gain Christ... (Phil. 3:8)*
⁸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 3:8)
- Q. The reward of a lover is the power to love. A lover does twice as much as the worker and does not care for any reward except for the power to love. Do you know what happens when the worker becomes a lover? They throw away the check list! The lover does not need a check list and every now and then a worker becomes a lover and it is a glorious thing to watch.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연인)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연인은 일꾼보다 같은 일을 갑절로 해내면서도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외에는 그 어떠한 보상도 원치 않는다. 일꾼이 연인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업무 목록표를 아예 던져 버리고 쳐다 보지도 않을 것이다! 연인은 스스로 자원하기 때문에 따로 목록표를 일일이 체크할 필요가 없다. 나는 주변에서 이렇게 가끔씩 일꾼이 연인으로 바뀌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데,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다.
- R. We are wise to exert our strength for the rest of our life to answer the question, “How much better is the affection of God than the wine of other blessings?”
 우리는 남은 인생동안 힘을 다하며 다음의 질문에 현명하게 답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삶에 있어 다른 ‘축복들의 포도주’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III. AFFECTION BASED OBEDIENCE: MOTIVATED BY SATISFACTION IN JESUS

애정에 기초한 순종: 예수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

- A. “Affection-based obedience” is obedience that flows from experiencing Jesus’ love (affection). We understand He has affection for us and we experience an impartation of it back to Him. It is the strongest kind of obedience because it results in the deepest and most consistent obedience. A lovesick person will embrace and endure anything for the sake of love.
 “애정에 기초한 순종”은 예수님의 사랑 (애정)을 경험하면서 흘러나오는 순종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순종의 형태로 ‘가장 깊고도 지속적인 순종’의 결과를 낳는다. ‘사랑앓이’를 하는 사람은 사랑을 위해 그 어떠한 고난도 다 감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 B. “Obedience by faith” or obedience without feeling God’s presence is still required in God’s Word. In other words, we must continue to obey God when we do not feel like it.
 “믿음의 순종,”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순종도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잘 나와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할 지라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 C. “Fear-based obedience” or “shame-based obedience” is obedience that flows from fear of being put to shame or the fear of suffering negative consequences. This is biblical. However, it is not enough to motivate us to consistently resist the pleasures of sin for many years. In other words, it is not the most effective approach to obedience.
 “두려움에 기초한 순종,” 또는 “수치심에 기초한 순종”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또는 부정적인 대가를 치를 것 같은 두려움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이다. 이것도 성경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가를 치를 것 같은 두려움이 죄를 저항하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시말해, 순종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법은 아니라는 뜻이다.
- D. Experiencing God is more effective in motivating us to resist sin than the fear of consequences. Why? Because the temptation to experience the immediate pleasure of sin is usually more powerful than the fear of punishment. This fear of sin’s consequences does not overpower the tendency in our hearts to sin. Instead, it will cause us to sin in secret, in more creative ways. We sin because we enjoy the pleasure it brings. We sin when our heart is hungry and unsatisfied with God. Our struggle for holiness must be set in context to our pursuit to live satisfied in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대가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죄를 저항하는 데 더 효과적인 동기를 부여해준다. 이유는? 죄의 순간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유혹이 징계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죄의 대가에 대한 두려움은 죄를 짓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다. 오히려, 이 두려움은 우리가 더 다양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이 주는 ‘쾌락’을 즐기기 때문이다. 우리의 심령이 굶주림에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 ‘거룩한 삶’을 위한 우리의 씨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려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 E. Picture giving a homeless boy a ticket for a vacation by the sea in which he would stay at a resort hotel, eat excellent food and sleep on a clean bed. Imagine the hungry little boy placing the ticket in his cardboard box hidden under the shelter that he sleeps in to keep out of the rain and cold. Instead of enjoying the hotel, he continues to eat rotten meat that he gathered from the trash.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고아에게 멋진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 호텔에 머물면서 별미를 즐기고 깨끗한 침대에서 잘 수 있는 휴가 티켓 (쿠폰)을 준다고 상상해보자. 그런데 그 아이가 비와 추위를 피하며 움추리고 자는 판자상자 밑에다 그 티켓을 그냥 아무데나 내던져 놓았다고 가정해 보자. 리조트 호텔과 멋진 바다를 즐기기는 커녕, 그 소년은 계속해서 이곳 저곳 쓰레기통을 뒤적거리며 썩은 음식만 먹고 살게 될 것이다.
- F. C. S. Lewis said: “We are half-hearted creatures fooling about with alcohol and sex and ambition when infinite joy is offered to us. We are like an ignorant child who wants to go on making mud pies in a slum because we cannot imagine what is meant by an offer of a holiday at the sea.” 미국에서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였던 씨에스 루이스 (C. S. Lewi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앞에 영원한 기쁨이 주어졌음에도, 우리는 술과 섹스, 야망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는 냉담한 피조물이다. 우리는 이 무지한 아이와 같이 빈민가를 전전 궁궁하며 쓰레기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멋진 바닷가에서 보낼 수 있는 휴가를 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G. That’s the choice we make when we are tempted with sin. It looks as if it will satisfy us, when in fact it is spoiled meat. The pleasures of God are a banquet set before us, a table of spiritual delights that can deliver us from the emptiness of seeking pleasure in sin. The way to free the heart from the domination of sin is by delighting in God. Encountering Jesus is a superior pleasure that transcends anything that sin can offer us.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사실은 그것이 ‘썩은 음식’인데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우리앞에 놓인 ‘잔치상’으로, 죄의 헛된 즐거움을 찾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영적 즐거움’의 잔치상이다. 죄의 심령을 자유케 하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죄가 주는 그 어떠한 즐거움도 초월하는 ‘탁월한’ 즐거움이다.
- H. Holiness has often been presented in a negative way with endless lists of threats and warnings of the consequences of sin. The Word of God teaches about the consequences of deliberate, sinful rebellion. The Bible is full of don’ts and prohibitions, but these laws and rules were never designed by God to supernaturally transform the human heart. 그동안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소개할 때, 죄의 대가에 대한 끝도 없는 ‘위협들과 경고들’을 주는 부정적 방법으로 소개해 왔다. 하나님 말씀은 의도적으로 악한 반항 (대적)에 대한 대가를 보여준다. 성경은 ‘하지 말라’ 는 금지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율법과 규칙들이 우리의 심령을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I. The approach of many is to only use shame and fear to motivate people into keeping a list of dos and don’ts. But in the end, the allure of the immediate pleasure of sin is often more powerful than the fear of long-term consequences. Yes, we must continue to present the consequences of sin, but we must do so realizing that this alone is not sufficient. Something more is needed. Warning people about the social and spiritual consequences of sin does not often cause them to reject pornography, greed, lying and cheating. 다수의 목회자들과 리더들은 사람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목록을 지키게 하기위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사용하는 접근방식을 택한다. 하지만 결국은 순간적인 죄의 즐거움에 대한 유혹이 장기간 치르게 될 대가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력하게 되어있다. 물론 계속해서 죄의 대가들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별한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죄로 인한 사회적, 영적 대가를 경고해 준다고 해서 그들이 포르노와 탐욕, 거짓말과 간음등을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J. Moses had experienced the pleasures of the flesh that accompanied the riches and power of his position in Egypt, but he chose greater riches. He experienced something more pleasurable and beautiful than Egypt, something supernaturally attractive and altogether satisfying. As you press into the pleasures of holiness, like Moses, you will discover that none can fill the soul like Jesus.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부와 권력을 갖추는 육적 즐거움을 경험했었지만, 결국 그것보다 더 ‘큰 부’를 택하게 된다. 애굽보다 더 즐겁고 아름다우며, 초자연적으로 끌리면서,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는 특별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모세와 같이 ‘거룩함의 즐거움’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²⁴*By faith Moses...²⁵choosing rather to suffer affliction with the people of God than to enjoy the passing pleasures of sin, ²⁶esteeming the reproach of Christ greater riches than the treasures in Egypt; for he looked to the reward. (Heb. 11:24-26)*

²⁴믿음으로 모세는 ...²⁵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²⁶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부)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히 11:24-26)

¹⁸*I consider that the sufferings of this present time are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which shall be revealed in us. (Rom. 8:18)*

¹⁸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롬 8:18)

¹⁷*Our light affliction, which is but for a moment, is working for us a far more exceeding and eternal weight of glory... (2 Cor. 4:17)*

¹⁷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후 4:17)

IV. GOD LOVES US IN THE SAME WAY THAT GOD LOVES GOD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 A. At the Last Supper, Jesus emphasized that the measure of the Father’s love (affection) for Jesus is the same measure of His love for His people. Jesus emphasized this three times (John 14-17). This single truth gives every believer the right to view themselves as “God’s favorite.”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애정)만큼 주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3 번이나 강조하셨다 (요 14-17 장). 이 진리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 (총애 받는 자)”로 바라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⁹*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abide (live) in My love. (Jn. 15:9)*

⁹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9)

²³*That the world may know that You...have loved them as You have loved Me. (Jn 17:23)*

²³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3)

²⁶*I declared Your name...that the love with which You loved Me may be in them... (Jn 17:26)*

²⁶이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이다 (요 17:26)

- B. The ultimate statement about our worth and value is that Jesus has the same measure of love (affection) towards us that His Father has towards Him.
우리의 소중함과 가치를 말해주는 궁극적 선언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애정)만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 C. The way that the Father loves Jesus is the only accurate measure in which we can understand how Jesus feels about us. God's love is a powerful reality that includes deep desire, enjoyment, pleasure and longing. It is not a sterile religious idea devoid of passion. Ponder the vast implications of how much the Father loves Jesus. Such a truth had never been spoke before.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정도’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느끼시는 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확한 ‘척도’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갈망과 즐거움, 기쁨과 열망을 담은 강력한 실재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정이 메마르고 차가운 종교적 개념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함축하고 있는 방대한 의미를 잠시 숙고해보자. 이러한 진리가 언급된 적은 없었다.
- D. Oh! the mystery of the vastness of the ocean of God's love for us. The gospel is a call to live in the vast ocean of divine love. We will know the pleasure of loving God in the way that God loves God as we are loved in the way God loves God.
 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사랑의 신비를 보라! 복음이란 방대한 바다와 같은 거룩한 사랑 안에 사는 삶으로의 초대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알게 될 것이다.
17You being rooted and grounded in love, 18may be able to comprehend...the width, length, depth and height-- 19 to know the love of Christ which passes knowledge... (Eph. 3:17-19)
 17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 (엡 3:17-19)
- E. The disciples were sincere but yet still spiritually immature. Jesus' affirmations of love were spoken to weak believers that He knew would betray Him that very night (Mt. 26:31). They would feel great condemnation and shame. God felt great passion even for these ambitious immature young apostles who would betray Jesus that very night. Jesus knew that the only thing what would stabilize them was by knowing how God felt about them. This the strongest revelation that can touch the human heart.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실한 마음을 지니기는 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이었다. 예수님은 그 날밤,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아셨음에도, 그 연약한 자들 (제자들)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는 말씀을 하셨다 (마 26:31). 제자들은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을 겪게 될 참이었다. 그 날밤,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들, 미숙하고 어릴뿐만 아니라, 야망이 가득찬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전혀 식지 않았다. 그 상황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시는 지를 알려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다. 인간을 감동시키는 계시들 중 가장 강력한 계시가 바로 이 계시이다.
- F. Jesus gave them the revelation of His love to prepare them to love God under the pressures of condemnation, disappointment, temptation, disillusionment, persecution and their future service.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주셔서, 죄책감과 실망, 유혹과 핍박, 그리고 장래의 사역에서 받게 될 압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그들을 준비시키셨다.
- G. Jesus knew they would be devastated with disappointment when the Pharisees and Romans seemed to win by killing John the Baptist and Jesus. Their movement seemed to be over. In the days to come they would be beaten and thrown in prison. How could God still be with them?
 바리새인들과 로마인들이 침례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죽이면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 제자들은 실망감으로 억장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 ‘예수와 그 제자들의 복음 운동’은 마치 끝난 것처럼 보였다. 가까운 장래에 그들은 고문받고 투옥될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을까?

- H. We best win the battle against temptation by enjoying God. The best way to overcome sin is in experiencing that His love is better than wine or in being satisfied in God. Turning the Song of Solomon into devotional prayer is how we experience this.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가서를 경건의 기도로 바꾸어야 한다.
- I. We must make it a priority to meditate on the truths about God’s emotions for us. This is important to our emotional health. We are transformed most as we understand how God feels about us, especially in our weakness. ***This revelation causes us to run to Him instead of from Him.*** It causes us to have confidence in His love and to open our spirit to Him in our weakness. Many sincere believers seek God with a condemned heart or a closed and guarded spirit.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진리의 말씀들의 묵상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마음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연약함이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시는 지를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 계시는 주님의 사랑안에 확신을 갖게 해주며,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열게 해 준다. 사실, 수많은 진실한 신자들이 죄책감과 굳게 닫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
- J. I wrote a book called Passion For Jesus, thus, I am often asked, “How can we have more passion for Jesus?” It takes God to love God, or it takes the power of God on our heart to love God back. When God wants to empower us to love Him, He reveals Himself as One who loves us. We love (enjoy or pursue) Him because we understand that He first loved (enjoy or pursue) us.
 내가 저술한 책중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란 책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더 갖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먼저 자신을 드러내신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즐거워하고, 좇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즐기시고, 좇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¹⁹***We love Him because (we understand that) He first loved us. (1 Jn. 4:19)***

¹⁹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이라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요일 4:19)

Session 6 God's Superior Love: How God Feels about Us (Song 1:2)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 1:2)

I. REVIEW: THE SUPERIOR PLEASURES IN THE GRACE OF GOD

복습: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는 탁월한 즐거움들

A. The Bride referred to the “superior pleasures” of the Word. This reveals her theology related to holiness. She points to the superior pleasures that come from growing in revelation of God’s heart (affection). God created us with 7 longings that draw us to Him and reflect His glory in us.

신부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언급했다. 이것은 ‘거룩’에 관한 신부의 신학을 나타낸다. 신부는 ‘하나님의 마음 (애정)’에 대한 계시에서 오는 우월적 즐거움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열망들, 즉,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을 반영하는 일곱가지의 열망들을 창조하셨다.

²*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for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Song 1:2)*

²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 1:2)

B. In this session, we will look at seven principles of “Jesus’ love that is better than the wine.” These are foundational principles that are essential in helping us understand God’s affection for us in our weakness (this 8 chapter love Song develops these principles in the Bride’s journey). It is not difficult to imagine God loving perfected believers in heaven. The difficulty comes with believing that He has affection for weak and broken people in this age.

이 단원에서, 우리는 “포도주보다 나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7 가지 원칙을 알아 볼 예정이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가운데서도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정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본 원칙들이다 (전체 8 장의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는 신부의 여정을 통해 이 원칙들을 발전시킨다). 천국에 가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연약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거라고 믿는 일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¹*Behold what manner of love the Father has bestowed on us... (1 Jn. 3:1)*

¹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요일 3:1)

C. God loves us in the same way that God loves God. The Father’s love (affection) for Jesus is the same measure of His love for His people.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⁹*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abide (live) in My love. (Jn. 15:9)*

⁹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9)

²³*That the world may know that You...have loved them as You have loved Me. (Jn 17:23)*

²³아버지께서 ...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3)

D. We love God because we understand that God first loved us.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¹⁹*We love Him because (we understand that) He first loved us. (1 Jn. 4:19)*

¹⁹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9)

II. FOUNDATIONAL PREMISE: SPIRITUAL IMMATUREITY IS NOT REBELLION

기본 전제: 영적 미성숙은 대적(반항)이 아니다

- A. God feels different emotions related to how people respond to Him. Some live confused without knowing whether God is mad, sad or glad when relating to them. We do not want to think God is mad when He is delighting over us, thus living in condemnation. Nor do we want to think He delights in us if He is grieved because of our compromise, thus living in presumption.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주님은 여러 감정을 느끼신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슬퍼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알지도 못한 채, 혼란한 심정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거라 생각하며, 헛된 죄책감 속에 살기를 우리는 원치 않을 것이다. 또,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타협하는 부분을 주님이 슬퍼하심에도,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기뻐하실 거라 확신하며 사는 것도 원치 않을 것이다.

- B. We receive God's righteousness and favor because of what Jesus did on the cross not because of what we do (Rom. 3:21-31). It is necessary to sincerely repent to receive God's saving grace.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은총'을 받는다 (롬 3:21-31).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실한 회개라 필요하다.

- C. Repentance is a change of the attitude of the heart that turns *from sin* and *to God* according to the "light of understanding" that we have at each season of our spiritual journey. Repentance is breaking our agreement with darkness and agreeing with God in our thoughts, words and deeds. 회개란, 신앙 여정의 매 계절마다, 우리가 "아는 만큼의 빛"에 따라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심령의 태도 변화를 말한다. 회개란, 흑암을 따르던 것을 깨고,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 D. Spiritual immaturity is not the same as rebellion. Many are confused about this. At times they look the same outwardly yet inwardly they arise from very different heart responses. Our actions do matter to God, however, God looks at our heart more than our actions.

그러나, 영적 미성숙은 대적과는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가지를 혼동한다. 때때로, 이 두가지가 겉으로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마음의 근원은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도 보시지만, 행동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

- E. A genuine lover of Jesus sincerely pursues to obey Him with a willing spirit. A sincere yet still immature believer repents in each area of failure that they receive light on. The rebellious says "No" to God without immediate plans to obey. Pre-meditated sin is sin that is planned beforehand. This is much more serious to God than sinning in our spiritual immaturity.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 (연인)'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려 한다. 아직 성숙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주님이 빛으로 조명하시는 '실패 (타협)의 영역'을 회개한다. 그러나, 대적하려는 사람은 즉각적인 순종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NO"라고 대답한다. 그와 더불어, 머릿 속에 생각하고 있던 죄를 짓는 사람은 이미 계획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미숙함 가운데 잘 모르고 짓는 사람의 죄보다 하나님께는 훨씬 더 심각한 죄가 된다.

⁴¹The spirit indeed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Mt. 26:41)

⁴¹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 26:41)

- F. Our repentance, obedience and love for God are sincere even while they are weak and flawed. Weak love is not false love, therefore, Jesus values our love for Him even when it is weak.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회개와 순종,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하고, 금방 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진실한 것이라는 것이다. 연약한 사랑은 절대 거짓 사랑이 아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연약한 사랑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신다.
- G. The sincere intention to obey God is distinct from the attainment of mature obedience. The pursuit of full obedience is different than attaining it. The Lord is pleased with us from the time we repent (by setting our heart to obey Him) which is long before our obedience matures. As genuine lovers of God we do not immediately attain to all that we seek to walk in.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은 성숙한 순종을 달성한 것과는 다르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 달음질하는 것과, 달성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이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기뻐하신다. 물론 우리의 순종이 성숙해 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소요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해서 금방 성숙해 지는 것은 아니다.
- H. The believer who sins, shows their sincerity by quickly repenting and renewing their war against that sin. Sincere repentance is not the same as attaining “sinless perfection” in this life. Do not write yourself off as rebellious if in fact you are spiritually immature.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속히 회개하고, ‘죄와의 전쟁을 선포’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진실성을 보여야 한다. 물론, 진실로 회개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부여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영적 미숙함을 주를 대적하는 것으로 치부하지는 말라.
- I. A hypocrite is somebody who says one thing but does not pursue or seek to obey it. Struggling in weakness (immaturity) is not the same thing as being a hopeless hypocrite (rebellious).
위선자란,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 쫓을 의지나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자를 가리킨다. 비록 연약 (미성숙)하지만 싸워나가는 자는, 아예 포기하여 가망성을 잃은 위선자 (대적자)와는 다르다.
- J. God delights in the sincere desire or cry in our spirit to obey Him. Our sincere desire to obey God is a substantial beginning of our victory over sin. It is part of God’s work in you.
하나님은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한 갈망과 부르짖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은 죄를 이기는 ‘승리의 초석’이 된다. 이러한 갈망을 갖게되는 것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이다.
- K. God does not confuse spiritual immaturity with rebellion (the OT law spoke of clean and unclean animals: sheep and swine which both become stuck in the mud). The illustration of clean and unclean animals helps us understand this because both sheep and swine become stuck in mud. 하나님은 대적과 영적 미성숙을 혼동하지 않으신다. (구약 율법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했다: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양과 돼지).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의 예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양 (정한 동물)과 돼지 (부정한 동물) 둘 다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 L. If we confuse this, we will bring others under condemnation. This can injure their faith. This is the opposite of the conviction of the Spirit, which gives us confidence to go deep in God. 이것을 혼동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들을 죄책감에 빠뜨릴 수 있게 되며, 그들의 믿음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확신을 얻어 하나님 안에 더 깊이 가게 하는 결과와는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

- M. God viewed the spiritual immaturity of the apostles very differently than the rebellion of the Pharisees. David seemed to commit more serious sins than Saul, but God’s favor continued with David. Why? When David sinned his heart was wounded because he grieved God’s heart. He cared more about his relationship with God than the consequences of getting caught. When Saul sinned he planned to continue in it until caught and confronted. He only gave an outward show of repentance as he continued in rebellion (1 Sam. 15:22-23).

주님은 ‘제자들의 영적 미성숙함’을 ‘바리새인들의 대적’과 아주 다르게 보셨다.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더 심각한 것처럼 보였음에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끊이지 않았다. 이유는?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도 마음이 아팠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사울은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잡힐 때까지 계속 죄를 지으려 했다. 실제로는 계속 대적하면서 겉으로만 외적 회개를 보였던 것이다 (삼상 15:22-23).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Ps. 23:6)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시 23:6)

- N. God’s mercy gives us confidence that we can have a new beginning with God as a first class citizen after we repent. We are defined by God’s passion for us, receiving the gift of righteousness, and by our sincere heart cry to be a wholehearted lover of God.

하나님의 자비로 회개한 후, 곧바로 우리는 다시 ‘일등 시민’으로 하나님과 새출발 할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에 의해서, 의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는 진정한 마음의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다.

- O. We “push delete” after we have sincerely repented. Jesus paid the price that we might stand before God with confidence of having His favor. This is very different from “pushing delete” on our need to understand the process and mindset that contributed to a stronghold of sin in our life.

진정으로 회개한 후,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삶에 존재하는 죄의 ‘견고한 진’들의 생성절차와 근원을 찾아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것 (내적 치유, 축사 사역 - 역자주)과는 매우 다르다.

- P. Our identity is as a genuine lover of God. Guilt says that our actions are wrong. Shame says we (our whole personhood) are wrong. **Question:** are you a slave of sin who struggles to love God or a lover of God who still struggles with sin? Many define themselves by their failure. Because of Jesus, we are much better in God’s sight than the worst thing we have done.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연인)’이다. 죄책감은 우리의 행동이 틀렸다고 지적한다. 수치심은 우리 (우리의 인간됨)가 틀렸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 싸우고 있는 죄의 노예인가 아니면, 죄와 씨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연인) 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를 보고 자신을 정의한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역사로 인해, 우리는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더 나은 자들이다.

III. PRINCIPLE #1: GOD LOVES AND BLESSES UNBELIEVERS

원칙 #1: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 A. God loves unbelievers even when they rebel against Him and have no regard for Him (Mt. 5:45). 불신자들이 하나님에게 전혀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마 5:45).

¹⁶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Son that whoever believes... (Jn. 3:16)***

¹⁶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⁸***God demonstrates His love...in that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Rom. 5:8)***

⁸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

- B. God blesses evil people. We are not to mistake His blessings on them as His approval of them.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축복하신다. 그러나,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해서, 주님이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신다는 뜻은 아니다.

⁴⁵***Makes His sun rise on the evil and the good...sends rain on the just and unjust. (Mt. 5:45)***

⁴⁵...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마 5:45)

- C. God is angry at their rebellion and refuses to forgive those who will not repent (Esau, Saul, etc.).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며, 회개치 않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에서, 사울, 등등).

²²***Many will say to Me in that day, 'Lord, Lord, have we not prophesied in Your name...?'²³ 'I will declare to them,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Mt. 7:22-23)***

²²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²³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22-23)

IV. PRINCIPLE #2: GOD ENJOYS AND DELIGHTS IN IMMATURE BELIEVERS

원칙 #2: 하나님은 미성숙한 성도들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 A. God loves unbelievers, yet He only enjoys believers. Jesus immediately rejoices over us at the time of our repentance. He smiles over us when we begin the growth process with sincere repentance, long before we attain spiritual maturity.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랑하신다. 그러나, 오직 믿는 자들만을 즐거워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영적 성숙을 달성하기 아주 오래전 부터,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한 성장과정을 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미소를 지으신다.

⁴***What man...having a hundred sheep...does not leave the ninety-nine...and go after the one...? ⁵When he has found it, he lays it on his shoulders, rejoicing...⁶he calls together his friends...saying to them,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my sheep which was lost!''⁷There will be more joy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Lk. 15:4-7)***

⁴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⁵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⁶...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⁷...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눅 15:4-7)

- B. Jesus feels compassion over the prodigals on the day they repent. God revealed His enjoyment of the prodigal son by the father giving him the best robes (Lk. 15:22). This newly repentant yet immature prodigal son had many areas of his life that still needed transformation.

예수님은 탕자들이 회개하는 날,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보이신다. 가장 값비싼 의복을 그 아들에게 입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나타내셨다 (눅 15:22). 물론, 회개하며 돌아온 탕자는 아직 미숙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¹⁸I will...say to him, "Father, I have sinned..." ²⁰He arose and came to his father. When he was still a great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had compassion, and ran and fell on his neck and kissed him. ²²The father said to his servants, "Bring out the best robe and put it on him, and put a ring on his hand and sandals on his feet..." (Lk. 15:18-22)

¹⁸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²⁰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²²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눅 15:18-22)

- C. God enjoys us even in our immaturity. He delighted in David on the day of his repentance.

하나님은 우리의 미성숙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뻐 하신다. 주님은 다윗이 회개한 날 그를 기뻐하셨다.

¹⁹He delivered me (David) because He delighted in me... (Ps. 18:19)

¹⁹...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 하셨도다. (시 18:19)

- D. Our most sincere efforts to love God are flawed. We are lovely to God even in our weakness.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금이 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연약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다.

⁵I am dark (in my heart), but lovely (to God because of Jesus)... (Song 1:5)

⁵내가 비록 (마음이) 검으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우니 ... (아 1:5)

- E. Jesus walked in the anointing of gladness more than any man in history. Gladness is at the center of His personality. Many think of God as being mostly mad or sad when they relate to Him. 예수님은 역사상 그 어떤 인물보다도 ‘즐거움의 기름부음’으로 사셨던 분이다. 즐거움은 주님 마음 속 가장 중심에 자리 잡은 감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노로 가득차신 분, 또는 슬픔에 잠긴 분만으로 잘못 생각하며 관계한다.

⁹Your God, has anointed You with the oil of gladness more than Your companions. (Heb. 1:9)

⁹...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주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히 1:9)

- F. God delights in showing us mercy. He wants us confident that He enjoys us (even in our weakness) as we walk in sincere repentance. Then we run to Him instead of from Him.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진정 회개하며 살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길 바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달아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게 될 것이다.

¹⁸He does not retain His anger forever, because He delights in mercy. (Mic. 7:18)

¹⁸...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 7:18)

²⁴I am the LORD, exercising lovingkindness, judgment...for in these I delight. (Jer. 9:24)

²⁴여호와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 (렘 9:24)

- G. God gives a repentant believer a new beginning as a “first class citizen” each time they repent.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다시 “일등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새 출발을 허락하신다.

²²*Through the LORD’s mercies we are not consumed, because His compassions fail not.*

²³*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Lam. 3:22-23)*

²²여호와와 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²³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애 3:22-23)

- H. God remembers and understands our weaknesses far more than we do. He does not discipline us to the degree that we deserve nor does He change the way He feels about us in our weaknesses.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알고 기억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징벌을 가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감정 (사랑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¹⁰*He has not dealt with us according to our sins, nor punished us according to our iniquities.*

¹¹*For as the heavens are high above the earth, so great is His mercy toward those who fear Him...¹⁴For He knows our frame; He remembers that we are dust. (Ps. 103:10-14)*

¹⁰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¹¹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¹⁴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 103:10-14)

- I. Summary: God smiles over our life in a general sense, while He deals with particular sins in us. Several areas of immaturity do not define our entire relationship with God. We are defined by God’s passion for us, receiving the gift of righteousness and by our heart cry to obey Jesus. 요약: 하나님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특정 영역의 죄를 다루시는 동안에도,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며, 미소 지으신다. 우리 안에 있는 미숙한 영역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의의 선물,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의 부르짖음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한다.

V. PRINCIPLE #3: GOD’S ENJOYMENT IS NOT THE SAME AS HIS APPROVAL

원칙 #3: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은 무조건적 승인(동의)이 아니다

- A. The fact that God enjoys us does not mean He overlooks the areas in us that need transformation. God’s enjoyment of a believer is not the same as His approval of all that they do. He corrects areas that He disapproves of so that He might remove all that hinders love (holiness) in us.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한 영역들을 그대로 간과하신다는 의미를 말하지는 아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허락하는 것과는 다르다. 주님은 잘못된 영역들을 교정하신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 안에 ‘사랑 (거룩함)’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 하는 것이다.

¹⁰*He (disciplines us) for our profit, that we may be partakers of His holiness. (Heb. 12:10)*

¹⁰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히 12:10)

- B. God has tender patience for a season with believers who do not repent. They must not confuse His patience with His approval. Jesus gave Jezebel and her disciples in Thyatira time to repent.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성도들을 일정기간 온유함으로 인내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승낙’으로 혼동해서는 안된다. 예수님은 두아디라에 있던 이세벨과 그 제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²¹*I gave her (Jezebel) time to repent of her immorality...²²*I will cast her into a sickbed, and those who commit adultery with her into great tribulation, unless they repent... (Rev. 2:21-22)**

²¹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²²...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계 2:21-22)

¹¹*Because the sentence against an evil work is not executed speedily, therefore the heart of the sons of men is fully set in them to do evil. (Ecc. 8:11)*

¹¹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 8:11)

- C. When we neglect to honestly and thoroughly confront sin in our heart we are not loved less by God but we do suffer loss in several ways. We minimize our ability to experience the joy of our salvation, the spirit of revelation, godly fellowship and to receive eternal rewards.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정직하고 온전하게 직면하려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덜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여러 면에서 손실을 입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즐거움과 계시의 영, 거룩한 친교와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최소화 시켜 버리게 된다.

- D. God patiently suffers long with us in His love as He works to lead us to repentance.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다.

⁴*Do you despise the riches of His goodness, forbearance, and longsuffering, not knowing that the goodness of God leads you to repentance? (Rom. 2:4)*

⁴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롬 2:4)

⁴ *Love suffers long and is kind...⁷ bears all things...endures all things. (1 Cor. 13:4-7)*

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 ⁷ 모든 것을 참으며 ...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 13:4-7)

VI. PRINCIPLE #4: GOD'S DISCIPLINE IS NOT THE SAME AS HIS REJECTION OF US

원칙 #4: 하나님의 훈육은 거절이 아니다

- A. God's correction is not His rejection, rather it is proof of His love. God hates the sin yet delights in the person He disciplines.

하나님의 교정은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증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 하시지만, 교정받는 자를 기뻐하신다.

¹²*Whom the LORD loves He corrects, just as a father the son in whom he delights. (Prov. 3:12)*

¹²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 3:12)

⁶*Whom the LORD loves He chastens, and scourges every son whom He receives... (Heb. 12:6)*

⁶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히 12:6)

- B. Jesus rebukes yet loves believers that are in need of repentance.
 예수님은 회개가 필요한 자들을 책망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¹⁹***As many as I love, I rebuke and chasten. Therefore be zealous and repent. (Rev. 3:19)***
¹⁹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 3:19)
- C. To be disciplined means God cares and has not given up on us. It is a terrible thing to “get away with” sin long term because that means God is giving that person over to their sin. God’s discipline is proof that He has not given up on us (Rom. 1:24-28).
 교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장기간 같은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죄를 계속 짓게 놔두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교정하신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표이다 (롬 1:24-28).
²⁴***God gave them up to uncleanness, in the lusts of their hearts... (Rom. 1:24)***
²⁴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욱되게 하셨으니 (롬 1:24)
³²***When we are judged, we are chastened by the Lord, that we may not be condemned with the world. (1 Cor. 11:32)***
³²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1:32)
- D. God did not give up on His people Israel when even when they were in a season of disobedience.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³⁷***For their (children of Israel) heart was not steadfast with Him, nor were they faithful in His covenant. ³⁸But He, being full of compassion, forgave their iniquity, and did not destroy them. Yes, many a time He turned His anger away, and did not stir up all His wrath; ³⁹For He remembered that they were but flesh, a breath that passes away... (Ps. 78:37-39)***
³⁷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이스라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라
³⁸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시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발하지 아니하셨으니 ³⁹저희는 육체 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시 78:37-39)

VII. PRINCIPLE #5: GOD IS GRIEVED OVER THE PERSISTENT SIN OF HIS PEOPLE

원칙 #5: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짓는 백성들의 죄를 보고 슬퍼 (근심)하신다

- A. Jesus will vomit lukewarm believers out of His mouth. This does not speak of God casting them away, but of Him feeling sick at heart or grieved over their lives.
 요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입에서 토해 내실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은 버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시며, 아파하고 슬퍼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¹⁶***Because you are lukewarm...I will vomit you out of My mouth. (Rev. 3:16-17)***
¹⁶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계 3:16)
³⁰***And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Eph. 4:30)***
³⁰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 (엡 4:30)
¹⁹***Do not quench the Spirit. (1 Thes. 5:19)***
¹⁹성령을 소멸치 말며 (살전 5:19)

- B. God feels the pain of those He disciplines and continues to consider them as His dearly beloved. 하나님은 교정받는 자들을 보시며 가슴 아파 하시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스럽게 보신다.

⁹In all their affliction He was afflicted...in His love and in His pity He redeemed them; and He bore them and carried them all the days of old. (Isa. 63:9)

⁹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 그 사랑과 그 긍휼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사 63:9)

⁷I have given the dearly beloved of My soul into the hand of her enemies. (Jer. 12:7)

⁷...내 마음의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렘 12:7)

- C. When we neglect to thoroughly confront sin in our heart we are not loved less by God but we do suffer loss in several ways. We minimize our ability to experience the joy of our salvation, the spirit of revelation, God's power, fellowship with God and others, and receiving eternal rewards. We can only fulfill our highest calling and destiny in this age and the age-to-come by walking in faithful obedience and with a history of diligently seeking God. Faithfulness does not earn our calling for us but it positions us to receive more grace that we might enter into it. The Spirit calls us to diligence that we might enter into our fullness of authority in this age and the age-to-come.

우리가 죄를 온전히 대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여러 면에서 손실을 입히게 된다. 구원의 즐거움과 계시의 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의 친교,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능력을 최소화시켜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충성된 순종과 하나님을 정직하게 구하는 삶을 통해서 만이,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

¹¹We also pray always for you that our God would count you worthy of this calling, and fulfill all the good pleasure of His goodness and the work of faith with power, (2 Thes. 1:11)

¹¹ 이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살후 1:11)

- D. We must be confident that God in His love for us will manifest His zeal or jealousy over us. God jealously requires that we live in wholehearted obedience. He zealously insists on that which deepens our relationship with Him and results in our greatness.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과 거룩한 질투를 보이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마음을 다하는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주님이 열렬히 주장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가지며 놀랄 만큼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⁵Do you think the Scripture says in vain, "The Spirit...in us yearns jealously"? (Jas. 4:5)

⁵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약 4:5)

VIII. PRINCIPLE #6: SPIRITUAL DISCIPLINES DO NOT EARN US GOD'S FAVOR

원칙 #6: 영적 훈련들이 하나님의 은총(FAVOR), 호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 A. Spiritual disciplines (prayer, fasting, meditation, etc.) are ordained by God as a necessary way to posture our heart to freely receive more grace. These activities do not earn us God's favor. The power is in the "bonfire of God's presence" not in our cold hearts that are positioned before it. 영적 훈련 (기도, 금식, 묵상 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도와준다. 이 훈련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훈련들이다. 그렇지만, 영적 훈련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더 큰 은총 (favor)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능력은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 임재의 모닥불"안에 있는 것이지, 그 앞에 갖다놓는 우리의 '차가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 B. God gives to our heart on the basis of how much we hunger for relationship with Him not on how much He loves us (Mt. 5:6). God honors the value we put on the relationship by giving us more according to our spiritual hunger (Gal. 6:8) but He does not love us more. God will not enjoy an obedient believer more in a billion years than He does now (Mal. 3: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에 따라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사모하는 만큼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마 5:6). 다시말해, 우리의 '영적 갈급함'에 따라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와 주님과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 (갈 6:8).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과 같이 순종하는 성도를 10 억년이 지나도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워 하신다 (말 3:6).

IX. PRINCIPLE #7: MATURITY ALLOWS US TO RECEIVE MORE (NOT BE LOVED MORE)

원칙#7: 영적 성숙을 통해 주님께 더 사랑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더 얻게 된다

- A. God loves us all yet He entrusts a greater measure of power to the mature. He determines the measure of power that He has planned for each to walk in. This measure is different for each believer (Mt. 25:15). Our obedience positions us to walk in whatever that full measure is.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성숙한 자에게 더 많은 능력을 위임하신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하신 만큼의 능력을 결정하신다. 달란트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마 25:15). 그러나, 순종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준다.

- B. People with greater power in ministry or influence in business are not loved more by God. He will entrust more to us as we mature because it will not damage us nor others. The gifts of the Spirit are given to us by faith (Acts 3:11-12; Gal. 3:5). They are not earned by our discipline. However, our spiritual maturity provides added protection from the counterattack of Satan (Lk. 14:30-32) on those operating in the anointing. Four things increase as we experience more of the Holy Spirit's power (God's zeal, Satan's rage, man's demands, our emotional capacities).

사역이나 비즈니스에서, 더 뛰어난 능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사랑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짐에 따라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실 것이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다. 참고로, 성령의 은사들은 믿음을 통해 얻는 것이지 (행 3:11-12; 갈 3:5), 영적 훈련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은 기쁨부음으로 사역하는 영역에 대한 사단의 반격으로 부터 우리자신을 더 보호해 주게 된다 (눅 14:30-32). 성령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함에 따라 다음의 네가지도 증가하게 된다 (하나님의 열심, 사단의 분노, 사람들의 요구, 감정의 수용력).

Session 7 *The Fragrance of Jesus (Song 1:3)*

예수님의 향기 I (아 1:3)

I. REVIEW: JESUS' LOVE IS BETTER THAN THE WINE OF THIS FALLEN WORLD

복습: 타락한 세상의 포도주보다 나은 예수님의 사랑

A. The theme of the Song is the Bride's cry for the kiss of God's Word to touch the deepest place in her heart. This refers to encountering the Word in the deepest and most intimate way. In other words, the Word reveals the King's emotions for His Bride and awakens our heart in the 3-fold love of God (love from God then for God which overflows to others).

아가서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이 심령 가장 깊은 곳까지 감동시켜 주기를 바라는 신부의 부르짖음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가장 친밀한 방법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신부의 부르짖음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신부를 향한 왕의 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3 가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준다 (하나님에게 받는 사랑, 하나님에게 드리는 사랑, 타인에게 흘러나가는 사랑)

²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for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Song 1:2)*

²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 1:2)

B. She experiences the superior pleasure of encountering Jesus. His love (affection) "is better than" or "is more delightful than" (NIV) the inferior pleasures of sin (the wine of this fallen world). 신부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최상의 즐거움'을 경험한다. 주님의 사랑 (애정)은 (이 타락한 세상의 포도주인) 죄의 열등한 즐거움보다 "더 낫다," 또는 "더 즐겁다" (NIV역).

C. "Affection-based obedience" is obedience that flows from experiencing Jesus' affection for us and then giving it back to Him. It is the strongest kind of obedience. It results in the deepest and most consistent obedience. A lovesick person endures anything for love.

"애정에 기초한 순종"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애정을 경험하고 다시 그 사랑을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사랑의 교환'을 통해 흘러나오는 순종으로, 가장 강력한 순종의 형태다. 결과적으로, 가장 깊고 지속적인 순종을 낳게 된다. '사랑함으로 병이난 자'는 그 사랑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수하기 때문이다.

D. "Duty-based obedience" is obedience that does not feel God's presence. God's Word requires that we obey God even when we do not feel inspired to do so.

"의무감에 기초한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의무감에 의해 하는 순종이다. 이런 상태에서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 "Fear-based obedience" or "shame-based obedience" is obedience that flows from the fear of being put to shame or the fear of suffering negative consequences. This is biblical. It is not enough to motivate us to consistently resist the pleasures of sin for many years.

"두려움에 기초한 순종," 또는 "수치심에 기초한 순종"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내지는 부정적 대가를 치를 것 같은 두려움에 의한 순종이다. 이것도 성경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데에는 매우 비효과적인 방법이다.

II. THE GOOD PERFUME OF CHRIST JESUS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³*Because of the fragrance of Your good ointments (perfumes, NIV), Your Name is ointment (perfume, NIV) poured forth; therefore the virgins love You. (Song 1:3)*

³네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 (주)를 사랑하는구나 (아 1:3)

A. The fragrance of a rose comes from its internal properties and qualities. In a similar way, the King's perfume in the Song speaks symbolically of His internal life or what He thinks and feels. God's perfume speaks of His thought life and emotional make-up, especially His affection for His people. The Bride enjoys the sweet perfume of God's affection. When perfume is in the air it can powerfully stir our heart. We feel its impact without being able to see it or take hold of it. 장미의 향기는 그 내부의 속성에서 나온다. 마찬가지로, 아가서에 나오는 왕의 향기는 '내면의 삶', 또는 '생각과 감정들'을 상징적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향기'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 특별히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애정을 말한다. 주님의 신부는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즐긴다. 주님의 향기를 맡게 될 때, 우리는 마음까지 강력하게 흔들리게 된다. 볼 수 있고 손에 짚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기가 지닌 엄청난 영향력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B. Paul spoke of the fragrance of Jesus. It is figurative for the knowledge of God. It is also literal. The fragrances around God's Throne are surely awesome. All heaven can smell them forever.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향기'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렇지만,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 날리는 향기는 분명히 굉장한 것이다.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다양한 향기들을 영원토록 음미하게 될 것이다.

¹⁴Now thanks be to God who always leads us in triumph in Christ, and through us diffuses the fragrance of His knowledge in every place. (2 Cor. 2:14)

¹⁴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후 2:14)

C. Its use of perfume in the Song is reasonable since it speaks of love in context to a bridal metaphor. She is saying, "Because of Your perfumes my heart is stirred. If a scientist was to express excitement in God, they might write, "Because You are so brilliant, my heart is stirred." 아가서에서는 신부의 사랑을 말하고 있기에 '향기'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신부는 "주의 향기로 나의 마음이 동하나이다"라고 말한다. 만약, 과학자가 하나님께 감격을 고백하려 했다면 다음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주님께서 명철하심으로 나의 마음이 동하나이다."

D. The Bride is saying, "Because of the fragrance of Jesus' good perfumes (His internal qualities) two significant things will occur throughout history.

신부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 (주님의성품)로 인해"라고 고백하는 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역사의 실재를 담고 있다.

- E. First, God will pour Jesus' Name forth or He will exalt and reveal it in the nations. God has chosen to pour forth only one Name. Why? Because Jesus' life is a good perfume before God. She understood that Jesus' name will ultimately be the supreme reality over all the earth.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쏟아 내실 것이다. 의역하면,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한 이름'만을 높이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결국 온 땅에 걸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신부는 잘 알고 있다.

⁹Therefore God also has highly exalted Him and given Him the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 ¹⁰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Phil. 2:9-10)

⁹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¹⁰...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 2:9-10)

1. When God pours forth Jesus' name, He openly reveals it or draws attention to His beauty or character. God will highly exalt Jesus' name by filling the earth with it.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쏟아 내실 때, 공개적으로 주님의 아름다움, 또는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온 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우시면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실 것이다.

¹⁴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Hab. 2:14)

¹⁴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합 2:14)

2. God will pour forth Jesus' name in the Church by filling it with the knowledge of Jesus.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교회를 채우시면서 그 이름을 쏟아 내실 것이다.

¹¹He Himself gave some to be apostles, some prophets...¹³till we all come to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Eph. 4:11-13)

¹¹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¹³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 (엡 4:11-13)

- F. Second, we will love Jesus more as God pours forth or reveals the beauty of His name to us.
 두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다.

III. WE LOVE JESUS MORE AS THE KNOWLEDGE OF GOD IS Poured FORTH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쏟아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

- A. The Church will love Jesus as the Father pours forth or reveals more of the beauty of His name. The Bride knows that the beauty of Jesus will cause all believers (virgins) to love Jesus. God's name is like good perfume. Its mystery, beauty and wonder powerfully impact us.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이 지닌 아름다움을 교회에 쏟아내거나 드러내실 때, 교회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모든 성도들 (처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을 신부는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다운 향기'와도 같다. 그 이름의 비밀, 아름다움과 기이함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³Your Name is ointment (perfume) poured forth; therefore the virgins love You. (Song 1:3)

³네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 하는구나 (아 1:3)

B. The virgins speak of the daughters of Jerusalem in the Song. They are genuine yet immature believers who seek Jesus throughout the Song but are never fully committed as the Bride is. All the Church will eventually become extravagant lovers of Jesus even if not so until eternity. 아가서에 나오는 ‘처녀들’은 예루살렘의 여자들 (딸들)을 말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로, 아가서에 걸쳐 계속 예수님을 찾지만 신부만큼 주님께 헌신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모든 교회는 이 땅에서 그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는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C. She understands how God changes the human heart. There is only one “perfumed name” that effectively transforms us. Do you see Jesus’ name is a “perfumed name” that can change the most broken and spiritually dull person to an extravagant lover of God? If you do, then you will do anything to know more about that Name. This is the only Name that causes us to love God.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부는 잘 알고 있다. 우리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향기로운 이름” 하나 뿐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상한 심령과 영적으로 둔감한 자를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자로 바꿀 수 있는 “향기로운 이름”이라는 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더욱 알고자 할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이다.

²In that day (End-Times) the Branch of the LORD (Jesus) shall be beautiful... (Isa. 4:2)

²그 날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와의 싹 (예수)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사 2:4)

D. When God reveals God to the human spirit it exhilarates us. There is nothing more powerful or pleasurable than when God reveals God to the human spirit. To understand Jesus more is to love and enjoy Him more. Our zeal for Jesus is strengthened by receiving the knowledge of God. This motivated Paul to suffer loss and endure hardship.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드러내실 때, 우리 마음은 들뜨게 된다. 이보다 더 강력하고도 즐거운 일은 없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은 그분을 더 사랑하고 즐거워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받게 될 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도 더 뜨거워지게 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

⁸I count all things loss for the excellence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Phil. 3:8)

⁸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빌 3:8)

E. Jesus declares the Father’s name (personality) to awaken our hearts to love God. We will love Jesus with the love which the Father loves Him. Loving Jesus in the overflow of the Father’s affection for Jesus is our inheritance, our destiny. There is nothing more glorious than loving God by the power of God. The Bride will love Jesus just as the Father loves Jesus.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성품)을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 (애정)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요,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런 특권은 없다.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²⁶I have declared to them Your name, and will declare it, that the love with which You loved Me may be in them, and I in them. (Jn. 17:26)

²⁶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6)

- F. Jesus the “ultimate psychologist” gives us insight on how the human heart works. He explained to Simon that when people experience much forgiveness, they overflow with much love.
 “최고의 심리학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심리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죄사함을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받은 만큼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고...
⁴⁷I say to you, her sins, which are many, are forgiven, for she loved much. But to whom little is forgiven, the same loves little.” (Luke 7:47)
⁴⁷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눅 7:47)
- G. Satan accuses God in people’s hearts as he convinces them that God is like a cruel father. He tells many they are rejected by God so they run from God instead of to Him in weakness.
 ‘하나님은 잔인무도한 아버지다’라고 사단은 사람들을 설득하며 하나님을 참소한다. 사단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거절한다는 속임수를 통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달아나게 만든다.
- H. The Christian life is a life of being loved and enjoyed by God. This is more exhilarating than any pleasure, position, or possession. She understands the impact of encountering God’s emotions.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사랑 받고 귀여움 받는 삶이다.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명성, 부유함보다도 더 생동력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삶이다. 하나님의 마음 (감정)을 직접 맛보는 경험이 주는 강력함을 신부는 잘 알고 있다.
- I. The revelation of God’s affections militates against our pride and religious formalism. It causes us to grow in gratitude instead of pride and it renews our love so we do not merely go through the motions or mechanics in our spiritual life.
 ‘하나님의 애정에 대한 계시’는 우리 안에 교만이나 종교적 율법주의와는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 교만 대신 감사의 마음을 주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해 주고, 신앙생활이 단순한 종교적 활동이나 종교적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도와준다.
- J. I wrote a book called Passion For Jesus, therefore, I am regularly asked, “How do we grow in passion for Jesus?” The answer is simple and straight forward. We do this by understanding the passion of God’s heart for us. The revelation of God’s desire empowers us to desire God. If you want to love God more then fill your mind with truths related to His love (affection) for you.
 저술한 책들 중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받는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어떻게 하면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단순하고도 간단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이해하면 된다. 하나님의 열망에 대한 계시를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열망하고 갈망하게 되는 권능을 입게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면,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 (애정)을 나타내는 진리들로 심령을 채우라!
- K. The whole earth is currently full of the glory or beauty of Jesus. It takes the spirit of revelation to see the perfume or glory of God which is manifested in the natural in many places.
 온 땅은 이미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차 있다. 우리는 계시의 영을 통해 세상 모든 곳에 자연을 통해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향기, 또는 영광을 볼 수 있다.
³One (seraphim) cried to another and said: “Holy, holy, holy is the LORD of hosts;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Isa. 6:3)
³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 6:3)

- L. David lived with a spirit of revelation so he saw God's beauty even when he looked at the sky. 계시의 영으로 살았던 다윗은 하늘을 바라 볼 때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¹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²Day unto day utters speech, and night unto night reveals knowledge...⁴Their line has gone out through all the earth... (Ps. 19:1-4)

¹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 ²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⁴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 19:1-4)

- M. Throughout the Song the perfume of God is imparted to the Bride. His perfume becomes her perfume. The turning point in the Song is in Song 4:16. The Bride prays for winds to blow on the garden of her heart that God's perfumes would be imparted to her, that she would feel like God feels. We may study the progression of God's perfume in the Bride throughout the Song. She discerns His perfumes and they are imparted to her in a progressive way.

아가서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향기는 신부에게 점차적으로 전달된다. 하나님의 향기는 곧 신부의 향기가 된다. 아가서의 전환점은 아가서 4:16 이다. 신부는 '마음의 정원'에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향기가 전달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어한다.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신부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신부는 하나님의 향기를 분별하며, 그 향기들은 점진적으로 신부에게 전달된다.

¹⁶Awake, O north wind, And come, O south! Blow upon my garden, that its spices may flow out. Let my Beloved come to His garden and eat its pleasant fruits. (Song 4:16)

¹⁶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 4:16)

IV. THE SWEET PERFUME OF GOD'S PERSONALITY- 5 VERBS

달콤한 하나님의 인격의 향기 - 5 가지의 동사

- A. Jesus emphasized the sweet perfume of the Father's affection and personality (Lk. 15:20). This is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yet concise statements of God's emotional make up in Scripture. We rest in the God who sees, feels, runs and embraces and kisses our heart.

예수님은 달콤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정과 성품의 향기를 강조하셨다 (눅 15:20). 이 본문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가장 종합적이면서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본문중의 하나이다. 우리를 바라 보시고,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며, 달려오셔서 안으시고, 입맞추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²⁰And he arose and came to his father. When he was still a great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had compassion, and ran and fell on (embraced) his neck and kissed him. (Lk. 15:20)

²⁰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눅 15:20)

- B. The father saw the prodigal son – God's view of His people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보았다 –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
- C. The father felt compassion for the prodigal son – God's tenderness for His people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보고 측은히 여기셨다 –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
- D. The father ran towards the prodigal son – God's action and initiative for His people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달려가셨다 –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과 개시

- E. The father embraced the prodigal son – God’s affection for His people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안으셨다 –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
- F. The father kissed the prodigal son – God’s desire for nearness with His people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입맞추셨다 – 그분의 백성과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

V. APPLYING THESE TO OUR LIVES

신앙생활에 적용

- A. First, we learn these truths. Informing our intellect is significant but it is only a starting point. No one would go to a famous restaurant to merely study the menu. It is not enough to be a connoisseur of the Song of Solomon, we must allow this book to fill our heart.
먼저, 우리는 아가서의 진리들을 공부해야 한다. 우리의 지성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유명한 레스토랑에 단지 메뉴만 연구하기 위해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보석을 감정하듯, 아가서를 감정하는 ‘감정가’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다. 심령을 아가서로 가득 채워야 한다!
- B. Second, these become revelation in our heart as we speak them back to God. We must engage in long and loving meditation on the Song with a hungry and honest heart before God. If we are to receive the full benefit of the Song, we must turn it into an on-going affectionate prayerful dialogue with Jesus. It is not enough to only study the Song without going to the next step of turning it into a prayer dialogue. The language of the Song must get into our prayer life and thought life before it will transform our emotions.
두번째, 배운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고백할 때, 계시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배고픔과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아가서를 오랜 시간 음미하는 마음으로 묵상해야 한다. 아가서가 주는 유익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아가서 내용 하나 하나를 예수님과 의 지속적인 애정과 기도의 대화로 바꾸어야 한다. 기도의 대화로 바꾸는 단계 없이 아가서를 공부 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다.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아가서의 언어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생각 가운데 깊이 들어 와야 한다.
- C. I have about 10 phrases that have become deeply personal to me. In my early days, I wrote them on postcards to use when I drove or took a walk. I slowly whispered them to Jesus. For example, “Father, let Him kiss me with His Word” or “Spirit, sustain me, refresh me” (Song 1:2; 2:5).
개인적으로 내게는 깊이 자리 잡은 아가서의 구절들이 약 10 개 정도 된다. 초창기에는, 운전이나 산책할 때 보기 위해 구절들을 엽서에 써서 다니기도 했다. 이 구절들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천천히 속삭이곤 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주의 말씀으로 내게 입맞추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세요” (아 1:2; 2:5).
- D. Confess that His affections are better than the wine of this fallen world. Declare that the fragrance of His good perfumes (the personality of God) make you love Him.
주님의 사랑이 ‘타락한 세상의 포도주’보다 낫다고 고백해 보라.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의 성품)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든다고 선포해보라.
- E. Take time to journal by writing down your thoughts, prayers and meditations as you “pray-read” through the Song. This will help you to capture the truths that the Lord puts on your heart.
시간을 들여 저널을 기록하되, 아가서를 “기도하면서 읽을” 때에 떠오르는 생각들, 기도들, 묵상들을 기록하도록 하라. 주님이 당신 마음에 주시는 진리들을 붙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Perfume of God in the Song of Solomon

아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향기 II

I. THE FRAGRANCE OF JESUS IN THE SONG

아가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향기

- A. In Song 1:3, she sees the reality of Jesus' fragrance as good perfume pointing to His emotions. 아가서 1:3 에서, 신부는 주님의 마음이 '아름다운 향기'같다고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향기의 실재를 보게된다.
- B. In Song 1:13-14, she develops her experience of the Song 1:3 fragrance in a more specific way with myrrh and henna blooms and in an abundant way with bundles and clusters (Song 8:14). 아가서 1:13-14 에서, 신부는 몰약의 향낭과 고벨화 송이, 다발과 군집과 같이 풍부하게 아가서 1 장 3 절의 향기를 세분화하여 전개시킨다 (아 8:14).
- C. In Song 2:3, Jesus has the refreshing scent of apples as in Song 8:5 아가서 2:3 에서, 예수님은 (아가서 8:5 과 같이) 상쾌하게 하는 '사과의 향기'를 가지셨다.
- D. In Song 2:12-13, Jesus proclaims his own fragrance to woo the Bride. God woos the Bride by the fragrance of His son. She decides to go to the mountain. 아가서 2:12-13 에서, 예수님은 신부에게 구애하기 위해 자신의 향기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향기로 신부에게 구애 하신다. 그리고, 신부는 '산'으로 갈 결심을 하게된다.
- E. In Song 3:6, Jesus is as perfumed with myrrh, frankincense and fragrant powders (pomegranates are implied in the apples in Song 2:3, 5) and cedar (implied in Song 3:9; 8:9). 아가서 3:6 에서, 예수님은 몰약과 유향과 각종 향품 (석류는 아가서 2:3, 5의 사과안에 함축되어 있다)과 백향목 (아가서 3:9; 8:9에 함축되어 있음)의 향기와 같다.
- F. In Song 4:6, she agrees to embrace suffering as the mountain of myrrh and the hill of frankincense (tokens of Song 8:14). 아가서 4:6 에서, 신부는 몰약의 산과 유향의 동산 (아가서 8:14 의 증표)에서 오는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
- G. In Song 5:13, Jesus' fragrance is found in His cheeks as beds of spices and banks of scented herbs and in His lips as lilies that drip with myrrh (2:12-13 smells like figs and grapes). 아가서 5:13 에서, 예수님의 향기는, 향기로운 꽃밭과 풀언덕과도 같은 뺨과,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 (아 2:12-13 무화과와 포도와 같은 향)이 푹푹 떨어지는 입술에서도 발견된다.

II. THE FRAGRANCE OF THE BRIDE IN THE SONG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의 향기

- H. The Bride drenched in fragrance is a result of the Mountain of Spices (Song 8:14). 향기로운 산에 머물렀던 결과로, 신부는 향기에 흠뻑 젖게된다 (아 8:14).
- I. In Song 1:12, the Bride is first aware of the imparted fragrances that are manifested through her. 아가서 1:12 에서, 신부는 자신에게 부여된 향기를 처음으로 감지하게 된다.

- J. In Song 2:1, the Bride's identity is in Jesus' fragrance (lily/rose).
아가서 2:1 에서, 신부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향기 (백합화/수선화) 안에 있다.
- K. In Song 2:2, we see Jesus' first affirmation of the Bride's fragrance.
아가서 2:2 에서, 신부의 향기를 확증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 L. In Song 2:16; 4:5; 6:3; and 7:2, the Bride is like a lily.
아가서 2:16; 4:5; 6:3 과 7:2에서, 신부는 백합화와 같다.
- M. In Song 4:3, the fragrance of the believer is as pomegranates (Song 6:7)
아가서 4:3 에서, 성도의 향기는 석류 (아 6:7)와 같다.
- N. God's vineyard with the Song 8:13 gardens (Song 2:16; 6:3, 11; 7:2, 12-13) includes gardens, a valley, walnuts, grapes, pomegranates (Song 7:12), mandrakes (Song 7:13) and other fruits.
아가서 8:13 의 정원 (동산) (아 2:16; 6:3,11; 7:2, 12-13)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포도원은 정원, 골짜기, 호두, 포도, 석류 (아 7:12), 합환채 (아 7:13), 그리고 다른 실과를 모두 포함한다.

Session 8 The Bride's Life Vision (Song 1:4)

신부의 삶의 비전 (아 1:4)

I. INTRODUCTION

소개

- A. In this session, we will look at Song 1:4, as the Bride describes her spiritual goals and life vision. 이 단원에서 신부는 자신의 영적 목표와 삶의 비전을 제시한다 (아 1:4).

⁴Draw me away! We will run after You. The King has brought me into His chambers. We will be glad and rejoice in You. We will remember Your love more than wine. (Song 1:4)

⁴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마22:3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간구)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 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 1:4)

- A. Review: Song 1:2-4 sums up the main themes and theology for the Song as the progression of holy passion. She cries for the kisses of God's Word knowing that Jesus' affection is better than anything this world has to offer. She declares the re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good perfumes of Jesus and then declares her life vision as one who wants to be drawn near to Jesus in intimacy and to receive grace to run with Him and the Body of Christ in ministry.

복습: 아가서 1:2-4의 구절은 아가서의 주제와 신학을 '거룩한 열정을 위한 과정'으로 요약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낫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신부는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을 부르짖는다. 신부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의 실제와 효과를 선포하고 나서,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갈망하며, 은혜를 받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섬기며 달음질 하고자 하는 삶의 비전을 선언한다.

- B. In Song 1:2-4, the Bride speaks in three different ways

아가서 1:2-4에서, 신부는 세가지를 말한다

1. In Song 1:2a, she speaks to the Father, "Let Your Son kiss me with His Word."
아가서 1:2 초반부에,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한다. "주의 말씀으로 당신의 아들이 내게 입맞추게 해 주세요"
2. In Song 1:2b-4, she speaks to Jesus saying,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Because of Your perfume, Your name will be poured forth and the virgins will love You." She asks Jesus to draw her to Himself in intimacy and to receive grace to run with Him in ministry.
아가서 1:2 후반부부터 4 절까지, 신부는 예수님께 고백한다. "주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주의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주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주를 사랑하나이다." 신부는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갈망하며, 주의 은혜로 사역을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3. In Song 1:4c, she speaks to Jesus with others who are diligently running with her.
아가서 1:4 후반부에, 신부는 같이 충실하게 달려가는 다른 이들과 함께 예수님께 고백한다.

II. THE EXPRESSION OF HER FERVENCY: 2-FOLD LIFE VISION

신부의 열심을 나타내는 표현: 삶의 비전 2 가지

- A. Her 2-fold life vision expresses her goals in the form of a prayer to God. A life vision is one that our short and long term goals for our family, vocation and ministry fit into. The NAS translates this as “draw me after You.” The words “after You” modifies “draw me” in many Bible translations. In the NKJ the “after You” modifies the verb “running.”

신부는 두 가지 삶의 비전을 또는 자신의 목표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형태로 표출하고 있다. 삶의 비전이란 가정, 직장, 사역에 관련된 단기적, 장기적 목표를 말한다. NAS 성경역본은 “주를 따라 가도록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번역하고 있다.

⁴Draw me away! We will run after You. (Song 1:4)

⁴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 가리라 (아 1:4)

- B. She prays, “Jesus, draw me away.” She longs to be drawn close to God’s heart in deep intimacy as an extravagant worshiper who loves God with all her heart.

신부는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 이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적 예배자로서, 깊은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이다.

³⁷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Mt. 22:37)

³⁷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 22:37)

- C. She prays, “We will run after You.” The ‘we’ refers to running with Jesus and His people. Being drawn to God is singular but running with Him is plural. She longs to serve people in ministry partnership with Jesus and those who love Him. Running represents a life of service motivated by compassion for people. It involves obedience in action, reaching out to others, and stepping out in faith. We run behind Jesus who sets the pace and in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신부는 “우리가 주를 따라 달려가리라”라고 기도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함께 달려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가까이 인도하심은 단수형이지만, 주님과 함께 달려감은 복수형이다. 신부는 예수님과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달려간다’는 것은 공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대변한다. 이것은 행위가 뒤따르는 순종이며, 타인을 돌보며, 행하는 믿음의 삶이다. 우리는 그 속도를 정하시는 예수님 뒤에 서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달려간다.

³⁹The second is like i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Mt. 22:39)

³⁹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 22:39)

- D. The balance is to have passion for Jesus and compassion for people. There is a constant tension throughout our entire spiritual journey between “drawing” and “running.” At the beginning, most are focused on running in ministry without being drawn in intimacy.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람들을 향한 공허의 마음’을 갖는 삶이다. 신앙생활 하는 일생 동안 우리는 “가까이 인도 받는 것” 그리고 “달려가는” 사이에서 오는 지속적 갈등을 겪게 된다. 초기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친밀감 없이 사역에 ‘달음질’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1. **Because running brings conflict, rejection, and persecution, many soon burn out even as the maiden did in Song 1:5-7. Some overreact, determining to focus only on being drawn without any vision to run in ministry.**
달려가는 가운데 충돌과 거절, 핍박은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아가서 1:5-7 에 나오는 처녀들처럼, 많은 이들은 얼마가지 않아 ‘영적 탈진’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달려가는 사역의 비전도 없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 가는 것에만 집중하기도 한다.
 2. **As Jesus answered her prayer to “be drawn to Him” in intimacy, she temporarily refused to “run in ministry” (Song 2:8-13). She lost the balance of these 2 tensions. Jesus answers both parts of her prayer related to her life vision throughout the 8 chapter love Song. 친밀감을 위해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받기를 원하는” 신부의 기도를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 이 본문에서 신부는 사역에 “달려가는 일”을 일시적으로 거부하게 된다 (아 2:8-13). 그래서 처음에 신부는 영적 균형을 잃어 버리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체 8 장의 아가서를 통해, 신부의 삶의 비전에 대한 이 두 가지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신부를 인도해 가신다.**
- E. **We are to both be drawn and run in each season. It is not enough to be only drawn near to God’s heart in intimacy. Nor is it enough to only run in ministry. The Lord often emphasizes one over the different spiritual seasons in our lives. We are not to totally neglect either in any session. Do not be afraid of what others say when the Lord emphasizes one in a specific season in God.**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 계절과 시기에 맞게 친밀함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며, 동시에 달려가야 한다. 친밀함을 위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 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그렇다고, 사역에 바빠 쫓겨 달려가기만 하는 것은 더 더욱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적 계절에 따라 어느 한 쪽을 더 강조하시기도 하신다. 그렇지만, 그 계절에 있더라도 다른 한 쪽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참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계절에 한 쪽 면을 더 강조하신다면, 특별히, 주님과 친밀감의 계절에 거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판단하는 말이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 깊이 거하라고 충고해 주고 싶다.
- F. **The general order of the Kingdom is to first be drawn in intimacy and then to run in ministry in the overflow of our close relationship with Jesus. The First Commandment focus to love God with all our heart empowers us to much more effectively walk out the Second Commandment focus to relate to and serve others. The 2-fold life vision of the Bride speaks of the two Great commandments (Mt. 22:37-40) and the Great Commission (Mt. 28:19-20). Our life vision should always contain both aspects of “drawing and running”.**
하나님 나라의 일반적인 질서는 먼저 친밀함 가운데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흘러 넘치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것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을 통해 권능을 받게 되면, 둘째 계명인 타인을 관계를 맺고 섬기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신부의 두 가지 삶의 비전은 바로 ‘큰 계명’ (마 22:37-40)과 ‘지상 최대 명령’ (마 28:19-20)을 담고 있다. 우리의 삶의 비전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친밀감과 달려감”의 측면을 항상 담고 있어야 한다.

- G. I was taught to write out my life vision at about age 18. A life vision is established regardless of our occupation, family status, economic status, etc. I determined to be ***an extravagant worshipper of God and an anointed deliverer of people*** so as to fulfill the two Great Commandments in loving God and people (Mt. 22:37-39). I wanted to learn the Scripture and learn to live in the Spirit as an extravagant worshipper of God and an anointed deliverer of people.

나는 개인적으로 18세 때, 삶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 삶의 비전은 직업이나, 가정환경, 부유함 등과는 상관없이 성립된다. 나는 하나님의 헌신적인 예배자가 되고, 사람들을 흑암에서 건져내는 기름부음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 (마 22:37-39)을 성취하리라 결단했다. 나는 하나님의 헌신적인 예배자로, 또, 사람들을 흑암에서 건져내는 기름부음 받은 자로 살기 위해, 성경을 배우고, 성령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했다.

¹⁸***Where t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Pr. 29:18)***

¹⁸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자히 행하거니와 ... (잠 29:18)

¹⁸***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Pr. 29:18, KJV)***

¹⁸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거니와 (잠 29:18, NKJV역)

- H. The components of a focused life include having an overall life vision with life goals in each of the main areas of our life such as our ***spiritual life*** (prayer time, fasting days, Bible study, etc.); ***relationships*** (family, friends, etc.); ***vocation*** (marketplace calling); ***ministry*** (in the church, outside the church); ***economic*** (earning, spending, giving, saving, investing); ***physical*** (exercise, health, diet, etc.); and ***rest*** (recreation, vacation, play, entertainment, sports, etc.).

초점이 있는 삶은 삶의 모든 영역, 즉,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 금식, 성경공부 등); 인간관계 (가족, 친구 등); 직업 (일터의 부르심); 사역 (교회 안과 밖); 재정 (소득, 지출, 현금, 저축, 투자); 몸(운동, 건강, 음식 등); 그리고 나머지 (레크리에이션, 휴가, 놀이, 문화생활, 스포츠 등)와 같은 삶의 주요 영역들마다 삶의 목표가 있는 총체적 삶의 비전을 갖는다.

- I. We must have an action plan for each long and short-term goal in every area of our life (long-term goals are over 10 years and short-term goals are from 3 months to 3 years). We must have a schedule for each action plan to help us focus or prioritize our time.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단기적, 장기적 목표 (단기적 목표는 3개월에서 3년, 장기적 목표는 10년 이상 되는 것)를 세워 행하는 행동 계획 (액션 플랜)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각 행동계획에 맞는 스케줄을 만들어, 주어진 시간을 우선 순위화하며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한다.

III. THE GROWTH OF FERVCENCY: THE CHAMBER EXPERIENCES

열정의 성장: 침궁의 경험

⁴Draw me away! We will run after You. The King has brought me into His chambers... (Song 1:4)

⁴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 가리라 ... (아 1:4)

A. The King's chamber is a bridal chamber. It refers to the times that she develops her secret life in God. We all have a secret history in God where Jesus draws us to Himself especially in His Word. The times in the chamber form and fashion our inner man. It is the times that the Lord woos and warns us and promises and confronts us so that we grow in the Spirit. The King's chamber is a time of preparation that we might love and obey Jesus with all our heart as He fashions us for future tasks to run with Him in active service.

‘왕의 침궁’은 신부의 ‘침궁’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삶’을 개발해 나가는 시간들을 말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신 ‘은밀한 삶의 간증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침궁’에서의 시간들을 통해, 속 사람이 형성되고 자라나게 된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구애하시고, 경고하시며, 약속을 주시며, 대면하셔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자라나게 하신다. 왕의 침궁은 장래의 소명을 우리가 힘차게 주님과 함께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속 사람을 빚으시는 시간이다. 이것은 곧,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준비시켜 주는 시간을 의미한다.

B. The young Bride asked the Lord to draw her (take the initiative to help her) and Jesus answered by carrying her into His chambers. He responds by carrying or bringing her into His chambers.

어린 신부는 주님 곁으로 가까이 인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예수님은 신부를 침궁으로 인도하사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주님은 신부를 ‘침궁’으로 인도하신다.

⁴He brought me to the banqueting house.... (Song 2:4)

⁴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아 2:4)

C. Jesus described the good shepherd as carrying the lost sheep on His shoulders of grace.

예수님은 어깨에 잃었던 양을 데리고 오는 은혜의 목자를 ‘선한 목자’로 평하셨다.

⁵And when he has found it, he lays it on his shoulders, rejoicing. (Lk. 15:5)

⁵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눅 15:5)

D. The chamber experiences refer to the times that God carries us to Himself by granting us unusual experiences in the Spirit (revelations, encounters and impartations). Two examples of my personal “chamber experiences” surprised me as a new believer. I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n Feb. 1972 without any prior understanding of it and without seeking it. I also experienced a vision of the Judgment seat of Christ in Oct. 1978 that I did not seek.

침궁의 경험은, 성령님 안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 (새로운 계시와 만남, 임파테이션: 나누어주심)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주께로 가까이 인도하시는 시간들을 말한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나는 이런 “침궁의 경험”을 두번이나 경험하면서 놀라게 되었다. 성령님에 대한 이해나 갈급함도 없었을 때였기 때문이다. 1972년 2월에 난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1978년 10 월에는 내가 소원한 기도도 아니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보는 환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

IV. THE CERTAINTY OF FERVENCY: THE PROPHETIC ASSURANCE

열정의 확실성: 예언적 확증

- A. The Bride declares to the daughters of Jerusalem with the bold resolution and the certainty of faith that together they would, “Be glad and rejoice in God and remember His love through all the seasons of life.” This was her resolute confession of faith through each season in life.

신부는 예루살렘의 여자들 (딸들)에게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삶의 모든 계절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 이 고백은 삶의 다양한 계절을 통과 하는 여정 가운데 신부가 확고하게 붙잡은 결단의 신앙고백이었다.

4The King has brought me into His chambers. We will be glad and rejoice in You. We will remember Your love (affection) more than wine. (Song 1:4)

⁴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 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 (애정)이 포도주에서 지남 (을 기억하리라) 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 1:4)

- B. We will be glad and rejoice in Jesus and remember His love in three ways. First, we rejoice in and remember His tender mercy in our weakness as we refuse condemnation. Second, we rejoice in and remember His excellencies and exhilarating affections that are superior to the wine of sin. Third, we rejoice in and remember His leadership over our lives in times of difficulty and testing.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가지 면에서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 먼저, 죄책감에 사로 잡히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부어 주시는 주님의 온유한 자비를 기억하며 기뻐해야 한다. 둘째, 죄의 ‘포도주’보다 월등하신 주님의 아름다움과 감동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기뻐해야 한다. 셋째, 고난과 연단의 시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리더십을 기억하며 기뻐해야 한다.

11We also rejoice in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Rom. 5:11)

¹¹...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롬 5:11)

- C. This faith confession in times of despair and testing is an expression of spiritual warfare as we declare that God is good and the devil is a liar. This confession of faith foreshadows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We will use these very words on the great Wedding Day.

절망과 연단의 시기 가운데서 고백하는 이 신앙고백은 선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마귀의 속임수를 공표하는 ‘영적 전쟁의 표현’이 된다. 이 신앙고백은 어린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들을 장차 올 위대한 혼인 날에 하게 될 것이다.

7Let us be glad and rejoice and give Him glory, for the marriage of the Lamb has come, and His wife has made herself ready. (Rev. 19:7)

⁷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계 19:7)

V. REMEMBERING CAUSES US TO LOVE GOD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준다.

- A. The goodness of Jesus' love powerfully causes us to love Him. When the Church remembers Jesus' love and goodness it awakens our heart in the 3-fold love of God (love from God, then for God which overflows to others). The Bride understands how God changes the human heart. 선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기억할 때, 세가지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령을 깨우게 된다 (하나님께 받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타인에게 흘러 넘치는 사랑). 신부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 시키는지를 잘 알고 있다.

4We will remember Your love more than wine. Rightly do they love You. (Song 1:4)

4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 1:4)

- B. The Bride is showing the way to maintain the fervency she received in the chamber experiences. In the chamber experiences we receive personal encouragement and assurances in God. It is not enough to have these experiences. God holds us accountable to remember them and to act on them by setting our soul to agree with what God spoke to us in these times.

신부는 '침궁의 경험'을 통해 받은 열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보여준다. 침궁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격려와 확신을 얻는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 받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 책임이 주어지게 된다.

- C. We engage in spiritual warfare by proclaiming God's Word as darkness assaults our heart. We must renew our mind as we refuse to lose anything that God gave us in the chamber experiences. 흑암이 우리의 마음을 맹렬히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영적전쟁에 임해야 한다. 침궁의 경험을 통해 얻은 은혜들을 하나라도 잃어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늘 갱신하고 새롭게 해야 한다.

- D. There are two dimensions of gladness. First, the gladness that is by faith that requires the setting of the heart to remain in agreement with the confession of our faith in difficulty. Second, is the gladness by overflow that automatically rises up in our heart. She refers to both dimensions here.

즐거움에는 두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고백을 지키며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다. 다른 한가지는,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솟구쳐 올라오는 즐거움이다. 신부는 여기서 이 두가지 즐거움을 다 고백하고 있다.

- E. The gladness that is by faith remembers Jesus' love and refuses to draw back. We must regularly re-align our soul to God's Word. There is a place to set our soul to be glad by faith.

믿음에서 오는 즐거움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에 맞춰 살아야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1. In difficult circumstances, we actively rejoice in God and confess His loving leadership instead sinking in anxiety. We declare that we glad in His good leadership. In the darkness of the midnight hour, we remember the revelation He gave us in His chambers.
 삶의 고난 속에서 걱정과 염려에 빠져들지 말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의 리더십을 고백해야 한다. ‘깊고 어둔 밤중’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침공에서 받았던 계시와 은혜들을 기억해야 한다.
4His banner (leadership) over me was love. (Song 2:4)
 4... 그 사랑이 내 위에 기 (리더십)로구나 (아 2:4)

28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Rom. 8:28)
 28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2. In temptation, actively rejoice in God and confess that His affections and promises are better than the wine of this fallen world.
 유혹이 다가올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과 약속이 타락한 ‘세상의 포도주’보다 낫다고 고백하라!
24By faith Moses...²⁵choosing rather to suffer affliction...than to enjoy the passing pleasures of sin²⁶...for he looked to the reward. (Heb. 11:20-30)
 24믿음으로 모세는...²⁵도리어 ... 고난 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²⁶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 11:20-30)

3. In failure, we confess His love as we believe in His tender mercy instead of wallowing in condemnation. We will not accept the accusations of the enemy. Satan tells many they are rejected by God so they run from God instead of to Him in weakness.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될 때에도, 죄책감 속에 휩싸이지 말고, 온유한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 원수의 참소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한다고 믿게 하여, 많은 연약한 자들을 주님으로 부터 도망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 F. In difficult circumstances, temptation and failure, we declare that the Lord is good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1 Chr. 16:34, 41; 2 Chr. 5:13; 7:3, 6; 20:21; Ezra 3:11; Jer. 33:11; Ps. 52:1; 100:5; 106:1; 107:1; 117:2; 118:1-4, 29; 138).
 고난과 유혹, 실패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주님의 자비 (인자하심)를 선포해야 한다 (대상 16:34, 41; 대하 5:13; 7:3, 6; 20:21; 스 3:11; 33:11; 시 52:1; 100:5; 106:1; 107:1; 117:2; 118:1-4, 29; 138).
11They sang responsively...giving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toward Israel.” (Ezra 3:11)
 11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선하시므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 하시도다 (스 3:11)

Session 9 Dark in Heart but Lovely to God (Song 1:5)**심령은 검으나 하나님께 사랑스런 (아름다운) 존재 (아 1:5)****I. OUR JOURNEY BEGINS WITH THE PARADOX OF GRACE: DARK BUT LOVELY**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은혜의 역설로 시작된다: 검으나 아름다운 존재

⁵*I am **dark** (in my heart), but **lovely** (to God), O daughters of Jerusalem, like the tents of Kedar, like the curtains of Solomon. **Do not look upon me, because I am dark...** (Song 1:5-6).*

⁵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심령이) 검으나 (하나님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⁶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 (아 1:5-6)

A. The Bride's spiritual journey begins with a spiritual crisis common to every sincere believer as seen in her 2-fold confession of faith (Song 1:5). I refer to this as the "paradox of grace" because as she discovers her sin she also knows that she is lovely to God. The Holy Spirit allows her to see her sinfulness as well as her loveliness to God. This describes a sincere yet weak believer.

신부의 신앙 여정은 (아 1:5)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대조되는 신앙고백과 같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영적 위기'로 시작되는데, 나는 이것을 "은혜의 역설"이라 부른다. 신부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신부가 죄성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진리를 신부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 이런 어린 신부는 순수하고 진실하지만 아직까지 연약한 자들을 가리킨다.

B. It is essential for our spiritual growth to see that we are lovely as we see more of our sinfulness.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truths causes us to grow in confidence and gratitude in our relationship with Jesus.

우리의 죄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될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진리를 인식하는 일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 안에 넣을 때, 우리는 확신과 감사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더 자라게 될 것이다.

1. Some streams in the body of Christ focus on the darkness of our heart or on how sinful we are. To emphasize this without emphasizing how lovely we are to God destroys our confidence before the Lord and produces shame driven believers. They are sincere in their repentance but are emotionally paralyzed in their relationship with Jesus by shame.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에는, '검은' 우리의 마음 즉,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진리를 강조하지 않고, 우리의 악함만을 강조하게 되면,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확신을 파괴하게 되며, 수치심에 이끌리는 삶을 낳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한 후에도, 수치심으로 인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2. We walk in the light in different measures. We are to walk in the fullness of the light that we have as God dwells in the fullness of the light that He has. As we walk in the light, God increases it so that we see more of the darkness that is in our heart. Our most sincere efforts to love God are flawed and fragile. Those who sincerely seek to obey Jesus need not fear that they will be disqualified from their calling because of weakness. We are lovely to God even in our weakness. He is tender towards us in our spiritual immaturity. 사람들은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양 만큼의 ‘빛’가운데 걷는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때 그 때 주어진 만큼의 충만한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은 더 환한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추실 것이며, 그로 인해, 전에는 보지 못했던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둠의 영역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 아무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금이 가고 깨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진실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아닐 거라는 생각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할 때에도 인자하신 분이시다.

C. Jeremiah had revelation of the depth and deceitfulness of sin in the human heart. We have a greater capacity for sin than we comprehend. No one fully grasps the depth of our unperceived areas of sin. They are below the surface like hidden fault lines before an earthquake.

예레미야는 인간의 죄악의 깊이와 거짓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의 영역의 깊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걸으려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땅 속 깊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갈라져 있는 단층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죄의 영역들은 ‘표면 아래’ 우리 심령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⁹***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desperately wicked; who can know it? (Jer. 17:9)***

⁹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렘 17:9)

²²***Put off...the old man which grows corrupt according to the deceitful lusts. (Eph. 4:22)***

²²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엡 4:2)

D. Paul, as a mature apostle described himself as chief among sinners. This was not an exaggerated statement with false humility. The more light we have, the more we see the darkness in our heart. 성숙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 표현한 바 있다. 이것은 그가 그릇된 겸손으로 과장하고자 한 말이 아니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빛을 심령 안에 품고 살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흑암’의 영역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¹⁵***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of whom I am chief. (1 Tim. 1:15)***

¹⁵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딤후 1:15)

E. Knowledge of our weak flesh is an important aspect of the truth about who we are, although it is not the whole truth of who we are. God knows about the depth of our sin before we are saved. He does not discover our sin because we do. He is aware of it when He declares His love for us. God did not over commit Himself to love us without first understanding the gravity of our sin.

비록 우리 존재성의 전부를 나타내는 진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인정하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 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지금 발견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지금 발견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선포하실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기로 헌신한 분이시다.

- F. We are sometimes surprised when we sin. At such times, we can be overwhelmed with grief. We think that because we are surprised by our sin then surely God must also be surprised. If He is surprised with the new information about us then we fear that He may want to renegotiate our relationship with Him or that He is reconsidering His love for us.
 죄를 짓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놀라기도 한다. 그래서 슬픔에 잠길 수도 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은 나 자신에 대해 놀랐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셨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나와 관계를 재고하지는 않으실까,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 G. To consistently grow spiritually requires that we know that we are lovely to God while we are in the process of discovering the darkness of our heart. God’s motivation to love us comes from within His heart not from our promises to never fail in a given area. He does not want us relating to Him on the presupposition that we motivate Him to take an interest in us. I have seen people who for many years emphasize only the darkness of their heart. They are extremely sincere in their repentance. They do not enter into the enjoyment or delight that God feels for them.
 그러나, 지속적인 영적 성숙을 거듭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검은 마음’을 발견하면서도,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동기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우리의 약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관계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검은 마음’에만 치중하는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지켜 보아왔다. 이들은 회개도 지나칠 정도로 진실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 H. They do not experience “the love that is better than wine.” They have a sincere heart but a closed spirit before God. A closed spirit says, “Jesus, I love You but please forgive me and do not reject me. I swear I will never do this sin again.” In other words, they continually negotiate their relationship with God while they worship Him. The issue is one of understanding God’s affections and in what way He imparts beauty to us in the grace of God so that we can say, “I am dark, but lovely. I know I sin but You are ravished over me.” This is a powerful place of confidence. It empowers us to run to God instead of from Him when we stumble.
 그들은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순수하고 진실하지만 하나님 앞에 닫힌 심령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닫힌 심령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거절하지 말아 주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라고 고백한다. 다시 말해,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주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협상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아름다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나는 검으나, 아름다운 자입니다.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주님이 나로 인해 마음이 빼앗기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 강력한 확신을 주게 된다.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질 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게 권능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

II. WHY WE ARE BEAUTIFUL TO GOD EVEN IN OUR WEAKNESS: FOUR REASONS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이유 4 가지

- A. We received the gift of righteousness: Our loveliness comes by receiving the gift of righteousness or the same beautiful righteous garments that Jesus possesses. Sinful people are made lovely in God's sight because of what Jesus did not because of what we do.

의의 선물: 우리의 사랑스러움은 ‘의의 선물’을 받는 데서, 또는 예수님이 소유하신 아름다운 ‘의의 옷’을 받았다는 데서 온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은, 인간 스스로 선하거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역사로 인한 것이다.

¹⁷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old things hav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have become new. ¹⁸Now all things are of God, who has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Jesus...¹⁹God was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not imputing (counting) their trespasses to them...²¹For He made Him who knew no sin to be sin for us,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2 Cor. 5:17-21)

¹⁷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¹⁸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 ¹⁹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 ²¹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후 5:17-21)

- B. We have a willing spirit: At the new birth, the Holy Spirit put a “Yes, in our spirit” to God. We agree to change our behavior before the change actually occurs. The “yes” in our spirit to God is beautiful to Him. Each movement of our heart to God is the work of the Spirit in us called a willing spirit. David prayed to be sustained by a willing spirit.

자원하는 심령 (순종의 마음): 거듭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불어 넣으신다. 행동으로 순종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순종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마음’은 주님께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움직임은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다.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붙들린 바 되기를 기도했다.

¹²Restore to me the joy of Thy salvation, and sustain me with a willing spirit. (Ps. 51:12, NAS)

¹²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 51:12)

⁴¹The spirit indeed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Mt. 26:41)

⁴¹... 마음 (심령)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 26:41)

- C. The nature of God's personality: Our beauty is related to God's emotional make up. The very affections and passions in God's heart determine how He feels towards us. Beauty is in the eyes of the beholder. It is because of the heart of the Beholder, that we are beautiful to God. If God was mostly angry, we would not be beautiful in His sight by virtue of having a willing spirit. The way He views people flows out of what is in His heart. His point of view is what determines who and what is beautiful. If someone else were looking at the exact same information about us, they would not call us beautiful. God views things very differently than man does.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다양한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애정과 열정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잘 보여준다. 아름다움은 바라보는 자의 눈에 있다. 우리를 사랑과 열정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은 평상시에 분노의 감정으로 사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고 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를 바라 보시는 주님의 관점은 주님의 마음에서 흘러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가에 따라 아름다움의 대상이 결정되게 된다. 만약, 다른 사람이 주님처럼 우리의 깊은 속까지 다 안다면, 우리를 보며 아름답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⁷Do not look at his appearance...for the LORD does not see as man sees; for man looks at the outward appearance (performance), but the LORD looks at the heart. (1 Sam. 16:7)

⁷...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능력)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삼상 16:7)

⁷“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unrighteous man his thoughts; let him return to the LORD, and He will have mercy on him...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⁸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says the LORD. ⁹“For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Isa. 55:7-9)

⁷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히 여기시리라 ...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⁸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⁹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 55:7-9)

- D. Our eternal destiny as Jesus' bride: God sees us through the lens of who we are and how we will live for billions of years in the grace of God as the enthroned Bride with Jesus. This is a significant part of who we are in God's sight.

영원한 신부의 부르심: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10억년 동안 (영원토록) 살게 될 '신부의 모습'을 우리 안에 보신다. 주님의 영원한 신부. 이 부르심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말해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III. PETER EARLY STRUGGLES: DARK BUT LOVELY OR WEAK BUT WILLING (MT. 26:41)

베드로의 초창기 싸움: 겹이나 아름다우니, 연약하지만 자원하는 심령 (마 26:41)

- A. Jesus warned Peter that he would deny Him (Lk. 22:31-34). Later that evening in the garden of Gethsemane, Jesus gave Peter a significant 2-fold description of how the heart of the redeemed operates in God's grace. Jesus told Peter that his spirit was willing but his flesh was weak.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경고하셨다 (눅 22:31-34). 그러나 겻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구속 받은 자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셨다. 그것은 '심령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에 대한 것이다.

⁴¹The spirit indeed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Mt. 26:41)

⁴¹...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 26:41)

- B. Peter stumbled because of his “weak flesh” yet he longed to obey God with a “willing spirit.” Most Bible translations use the phrase “the flesh is weak.” However, the NIV translated the phrase “the flesh is weak” as “the body is weak.” Jesus was referring to the principle of sin operating in Peter’s heart, not his fatigue because it was late at night.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한 육신”으로 걸려 넘어졌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열망했다. 예수님은 밤이 늦어 피곤한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일반적인 죄성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 C. What is God thinking and feeling about us when we discover the weakness of our own flesh? This is essential in understanding the grace of God. This is where the crisis of our faith begins.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질문이다. 믿음의 위기가 이 문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IV. PETER’S DESPAIR BECAUSE OF HIS FAILURE WHEN HE DENIED THE LORD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실패에 절망한 베드로

- A. Why did Peter go fishing? He was not fishing because the apostolic team ran out of money soon after Jesus’ death (this is only 8 days after the crucifixion). They had enough money that Judas stole from the fund without being caught. They fished all night, thus we know Peter was not fishing for recreation.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를 아는가? 예수님의 죽음 후 바로 (십자가의 사건 8 일후) 사도들의 재정난을 돕기 위해 다시 자신의 직업전선에 뛰어든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가룟 유다가 훔친 돈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밤을 맞으며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은 베드로가 여가를 즐기기 위해 낚시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³Peter said, “I am going fishing.” They said to him, “We are going with you also.” They went out and immediately got into the boat, and that night they caught nothing. (Jn. 21:3)
³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 21:3)
- B. Peter was resigning from his God given leadership role as an apostle to return to the family fishing business. He was changing back to his former occupation. An occupation that he had been successful at before Jesus called him to apostolic leadership. Why? If he could not stay faithful to Jesus before the pressure of a young servant girl, then how would he stay faithful for a lifetime? He was saying, “I can be faithful to God as a fisherman without the added pressures of being faithful as an apostle.”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도적 리더십’의 역할을 포기하고 자신의 집안 사업으로 돌아간 것이다. 자신의 본래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다. 예수님의 사도 (제자)로 부름 받기 전 성공적으로 잘 나가던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린 여종의 압력에도 견디지 못해 불충을 보인 자가 어찌 일생 동안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사도로서 충성해야 하는 압력을 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편하게 어부로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 C. He didn’t feel qualified to be an apostle. His heart was wounded by his failure in denying Jesus three times. Peter felt that he disappointed Jesus. He could not face the Lord because of this. When we feel this way, we run from God instead of to Him.
베드로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면서 자신의 실패에 상처 받았고,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렸다는 실패감에 사로잡혔다. 주님을 다시 볼 면목이 없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달려가기 보다는, 도망가거나 떠나버리게 될 것이다.

- D. In the crisis of discovering our sinful flesh, some determine that it is too painful to reach for the highest things in God if they believe they will constantly fail. As those who have a high vision to love God with all our heart, we face coming short many times. Some would rather resign once than face failing over and over. In other words, they lower their vision so they do not feel the pain of failing. It is easier to settle for living with a “second class relationship” with God rather than face the pain of failure that goes with having a high vision of loving God with all our heart. 죄의 육신을 발견하는 위기 속에서, 어떤 이들은 실패감 속에 사로잡혀 고통을 겪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될 거라 단정지어 버린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고귀한 비전을 가진 자들도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 실패를 맛보느니, 차라리 자신의 비전과 부르심을 아예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비전을 낮춰 고통이나 실패를 느끼지 않으려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귀한 비전’을 가지면서 실패의 고통을 겪기보다는, 차라리 주님과 “이등 시민의 관계”를 가지며 안주하며 사는 것이 더 쉬워 보이기 때문이다.
- E. Such people become accustomed to a second rate relationship with the Lord. It is not because they do not love Him any longer. It is because they cannot face relating to God with so much shame. The truth is that we do not have to live with this shame in the grace of God.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와의 이등 시민의 관계에 적응하면서 거기에 익숙해 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런 수치심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할 면목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부끄럼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 F. They imagine that God is angry, disappointed, grieved and even exasperated with them. They give up on walking in wholehearted obedience and devotion to Jesus and live in condemnation.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화가나고, 실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슬퍼하시면서 심지어는 짜증 나셨을 거라는 상상도 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순종과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포기하고 죄책감속에 살게 된다.
- G. Jesus asked Peter the same question, three times. He said, “Do you love Me?”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 하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¹⁵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He said to Him,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He said to him, “Feed My lambs.” ¹⁶He said to him again a second time, “Simon...do you love Me?” He said to Him,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He said to him, “Tend My sheep.” ¹⁷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Simon...do you love Me?” Peter was grieved because 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And he said to Him,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Jn. 21:15-17)
¹⁵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 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¹⁶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¹⁷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 (요 21:15-17)

- H. When God asks us a question, it is not because God needs information. Why was God asking Peter this question? He wanted Peter to discover information about himself. The Lord already knows that Peter loves Him. But He wants Peter to have confidence in his sincere love for Jesus. Jesus was calling Peter back into the same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Him that Peter had before he denied Jesus. The Lord was revealing to Peter how much Peter loved Jesus.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실 때는, 주님이 모르는 정보를 얻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은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안에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라셨다.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가졌던 예전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를 부르신 것이다.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드러내고 계셨다.
- I. The Lord was in essence saying, “Peter, You DO love Me. In the garden 8 days ago. I told you that you had weak flesh and a willing spirit. You didn’t believe your flesh was weak. You need to understand that you DO have a willing spirit. You DO have a ‘yes in your spirit’ to Me. I saw it in you before you stumbled. When I see you, I don’t only see your weak flesh, I also see your sincere love for Me. I saw your willing spirit when I first called you and I still see it in you.”
주님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8일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네게 육신이 약하나 자원하는 심령을 가졌다고 말했잖니. 네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네가 깨닫지는 못했지만, 네게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내게 순종하려는 ‘심령’을 가지고 있단다. 네가 걸려 넘어지기 전에 나는 네 안에 그 심령을 보았단다. 내가 너를 바라볼 때, 연약한 육신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도 본단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을 때 네 안에 보았던 자원하는 심령을 난 지금도 여전히 본단다.”
- J. Jesus sees our willing spirit more than we do. The Lord was breaking shame from Peter’s heart for three denials of his faith. Jesus washed his spirit with these three questions. Jesus wanted Peter to say, “I love God.” Shame is broken off of Peter as he is restored to confidence in God.
예수님은 우리 보다 우리 안에 있는 자원하는 심령 (순종의 마음)을 훨씬 많이 보신다. 이 본문에서, 주님은, 세 번 부인하면서 쌓여버린 베드로의 수치심을 철저히 깨부수고 계셨으며, 세 번의 문답을 통해 베드로의 영혼을 온전히 씻겨 내셨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신을 회복하면서 베드로의 수치심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V. THREE STAGES OF VICTORY

영적 승리의 3 단계

- A. First, our sincere intention to obey God: The first step to spiritual victory is our sincere desire to obey God. Our sincere intentions must be distinguished from mature attainment of obedience. Our intentions are where our victory begins. The Spirit is the author of such sincere desires (not the devil, nor our flesh). Part of how God measures and defines our life is by these intentions. He rejoices in them. Some measure their life only by their attainments, resulting in condemnation.
첫 단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 영적 승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을 갖는 것이다.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는 성숙한 순종을 실제로 달성한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순종의 의도가 영적 승리의 첫걸음이 된다.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을 주시는 분은 (마귀도, 우리의 육신도 아닌) 성령님이다. 우리의 삶을 측정하고 정의하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방법도 바로 이러한 의도들을 통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기뻐 하신다. 스스로 달성한 업적만을 보며 자신들의 삶을 측정하는 사람들은 죄책감에 빠지기 쉽다.

- B. Second, partial breakthrough yet with a continued struggle: We are victorious on a regular basis yet still war with our flesh in a particular area of our life (Rom. 8:2-13; Gal. 5:16-17).
두번째 단계는, 부분적인 돌파구를 마련. 그러나, 아직도 계속되는 싸움은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지만 아직 특정 영역에서 육신과의 싸움을 계속한다 (롬 8:2-13; 갈 5:16-17).
- C. Third, substantial breakthrough with transformed desires: Our desires are dramatically changed so that we rarely even struggle in a previous area of sin (Rom. 6:14-23).
세번째 단계는, 변화된 갈망과 함께 중대한 돌파구를 경험한다: 우리의 갈망이 극적으로 변화되면서, 특정 영역에서의 죄와의 씨름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롬 6:14-23).

VI. THE JOURNEY TO HOLY PASSION STARTS WITH THIS 2-FOLD REVELATION.

거룩한 열정으로 가는 여정은 두 가지의 계시로 시작된다.

⁵I am dark (in my heart), but lovely (to God), O daughters of Jerusalem, like the tents of Kedar, like the curtains of Solomon. Do not look (stare, NAS) upon me, because I am dark... (Song 1:5-6).

⁵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심령이) 검으나 (하나님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 찌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⁶내가 일광에 짝어서 거무스름 할 찌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아 1:5-6).

- A. The crisis the young bride is facing in Song 1:5 is the same crisis that Peter walked through. 어린 신부가 아 1:5 에서 직면한 영적 위기는 베드로가 겪었던 위기와 유사하다.
1. Dark of heart (sinful desires): Our weak flesh is dark to God.
검은 마음 (죄의 정욕):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하나님께 검다.
 2. Lovely to God (sincere intentions to obey Jesus): Our willing spirit is lovely to God.
하나님께 아름다우니 (예수님께 진실로 순종하려는 마음):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은 하나님께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 B. Throughout the Song, the Bride teaches the daughters of Jerusalem the spiritual principles of growing in passion for God. The daughters refer to those who are spiritually immature. 아가서에 걸쳐,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자라날 수 있는 영적 원칙들을 가르쳐준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자들을 말한다.
- C. The dark tents of Kedar speak of the darkness of the flesh. They were blackened tents that were made out of the dark skins of wild goats. This analogy was easily understood in that day.
계달의 검은 장막은 ‘검고 어두운 육신’을 말한다. 계달의 장막은 야생 염소들의 검은 가죽으로 만들어 검은 색을 띤 장막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비유를 쉽게 이해했다.
- D. The curtains of Solomon were the white curtains in the holy place in the Temple. They speak of the inward work of grace in her life. The beauty of these curtains was not seen by all in the outer court but only by the priests who could go into the holy place.
솔로몬의 휘장은 성막 안 성소에 있던 휘장이었다. 솔로몬의 휘장은 신부의 삶에 있는 ‘내적 은혜의 역사’를 말한다. 이 휘장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오직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만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 E. She is saying, “I am like dark tents on the outside, but inside I am beautiful like the curtains of Solomon in the holy place.” Outwardly, people see her as the dark tents of Kedar. Inwardly, God sees that she is lovely like the white curtains of Solomon.
신부는 말하기를 “겉모습은 검은 장막 같을지라도, 안은 성소 안에 있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신부의 겉모습 만을 보며 사람들은 계달의 검은 장막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적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빛나는 휘장과 같은 신부의 모습을 보신다.
- F. She cries that “the sun has tanned me”. In Solomon’s book, Ecclesiastes, he often wrote of “living life under the sun.” It means living life in the natural realm. She is speaking of the impact of being born under the sun or born in the natural weakness of sin. Natural life has impacted her and darkened her, as it has every other person born in Adam.
신부는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 라고 말한다. 솔로몬의 책,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태양 아래 사는 삶” 을 자주 언급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사는 삶’ 을 의미한다. 신부는 태양 아래, 또는 ‘죄의 연약함 가운데 태어나 사는 삶’에서 받게 되는 영향력을 말하고 있다.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렇듯,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신부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며, 신부를 검게 만든 것이다.
- G. She asks the people not to look at her and wag their head to shame her saying, “You are dark of heart.” She says, “Yes, I am human and I have sinned greatly in my life this fallen world.”
신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흘겨보며 “너는 마음이 검잖아” 라고 고개를 흔들며 수치심을 부추기지 말라고 부탁한다. 신부는 “그래, 나도 사람이기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았어.” 라고 대답한다.
- H. She asks them to not stare at her (v. 6). She was overwhelmed with the darkness of her heart.
신부는 그들에게 자신을 흘겨보지 말라고 부탁한다 (6절). 신부는 이미 자신의 검은 마음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VII. HOW THEN SHALL WE LIVE?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A. Many have sincerely repented yet lack confidence that they are beautiful to God because of what Jesus did for them and what the Holy Spirit has done in them by imparting a willing spirit.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회개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역사와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존재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 B. Others have seen the truth of our loveliness to God and sometimes live presumptuously by claiming God’s beauty without seeking to live in sincere repentance and wholeheartedness.
그런가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름답다는 진리만을 붙들고 진정한 회개나 마음을 다하는 삶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염치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 C. The issue is how is she going to relate to God when she discovers her own sinfulness? How are you going to relate to God when you discover you have weak flesh, a dark heart? What we do in this crisis is a very important part of our spiritual life.
문제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연약한 육신과 검은 마음을 발견했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이 영적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을 좌우한다.

- D. Many run from God instead of to Him in this spiritual crisis because they misunderstand how they look to God. They make the same mistake that Peter initially made. They resign, they give up and they get entrenched into a mindset of shame (stronghold of shame).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부터 멀리 달아나 버린다. 이들은 베드로가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치심 (수치심의 견고한 진)에 휩싸여 살게 된다.

- E. A life of shame leads to a life of sin. If you feel dirty before God then you will live dirty. The Lord does not want us to resign ourselves to a second class status. There is nothing more powerful in the earth than a woman who feels loved along with feeling clean and full of dignity. Such a woman is tenacious in love. She is powerful. God is raising up a corporate Bride that will feel clean, desired, dignified, pursued and delighted in.

그러나, 수치심의 삶은 죄의 삶을 가져오게 된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추한 자라 느낀다면, 추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 주님은 우리가 ‘이등 시민’으로 강등하기를 자처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여인의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자신이 깨끗하고 고귀하며, 사랑 받고 있다고 느끼며 사는 여인의 삶이다. 이런 여인은 끈질긴 사랑을 갖고 사는 강력한 여인이 된다.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순결하게 보시며, 나를 사모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며, 좇으시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느끼는 주님의 신부를 그리스도 지체 안에 세우고 계신다.

Session 10 Her Journey Begins With Spiritual Crisis (Song 1:5-11)

신앙 (영적)의 위기로 시작되는 신부의 여정 (아 1:5-11)

I. THE BRIDE'S JOURNEY BEGINS: THE PARADOX OF GRACE: "DARK, BUT LOVELY" 여정의 시작: 은혜의 역설: "검으나, 아름다우니"

⁵I am dark (in my heart), but lovely (to God), O daughters of Jerusalem, like the tents of Kedar, like the curtains of Solomon. Do not look upon me, because I am dark... (Song 1:5-6).

⁵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심령이) 검으나 (하나님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⁶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 (아 1:5-6)

A. The Bride's spiritual journey begins with a spiritual crisis common to every sincere believer as seen in her 2-fold confession of faith (Song 1:5). I refer to this as the "paradox of grace" because as she discovers her sin she also knows that she is lovely to God. The Holy Spirit allows her to see her sinfulness as well as her loveliness to God. This describes a sincere yet weak believer.

신부의 영적 여정은 아가서 1:5 에 나오는 신앙고백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신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위기로 시작된다. 나는 이것을 "은혜의 역설"이라고 표현한다. 왜냐하면, 신부가 자신의 죄를 발견함과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도 보게 하신다. 순수하고 진실하지만, 아직 연약한 신자의 모습이다.

B. We are beautiful to God even in our weakness for four reasons. First, our loveliness comes by receiving the gift of righteousness (2 Cor. 5:17-21). Second, at the new birth, the Holy Spirit put a "Yes, in our spirit" to God. Each movement of our heart to God is His work in us called a willing spirit. (Ps. 51:12 NAS; Mt. 26:41). Third, our beauty is related to God's emotional make up. The very affections and passions in God's heart determine how He feels towards us. Beauty is in the eyes of the beholder. God views things very differently than man does (1 Sam. 16:7; Isa. 55:7-9). Fourth, God sees us through the lens of our eternal destiny as the Bride of Christ.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이유에는 4 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는 '의의 선물'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고후 5:17-21). 둘째, 거듭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심령'을 넣으신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 모두 '자원하는 심령'을 심어주신 성령님의 역사이다 (시 51:12; 마 26:41). 셋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다. 즉, 하나님의 애정과 열정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을 말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은 바라보는 자의 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와 전혀 다르게 보신다 (삼상 16:7; 사 55:7-9). 넷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 보실 때, 우리의 영원한 부르심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신다.

C. We must understand the three stages of our victory in Christ. First, our sincere intention to obey God is where our victory begins. Second, we have a partial breakthrough yet with a continued struggle. We are victorious on a regular basis yet still war with our flesh in particular areas (Gal. 5:16-17). Third, is a substantial breakthrough with transformed desires (Rom. 6:14-23).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적 승리의 3 단계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바로 승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부분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만, 아직 계속되는 싸움속에 산다. 전반적으로 승리의 삶을 누리지만, 특정 영역에서 육신과의 싸움을 계속한다 (갈 5:16-17). 마지막으로 세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변화된 열망을 통해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한다 (롬 6:14-23).

II. HER SPIRITUAL CRISIS: REJECTION AND SHAME

신부의 영적 위기: 거절감과 수치

“Do not look (stare NAS) upon me, because I am dark... My mother’s sons were angry with me; they made me the keeper of the vineyards, but my own vineyard (heart) I have not kept. ⁷Tell me, O You (Jesus) whom I love, where you feed Your flock, where You make it rest at noon. For why should I be as one who veils herself by the flocks of Your companions? (Song 1:6-7)

⁶내가 일광에 짝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마음)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⁷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예수)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아 1:6-7)

A. She describes 5 different pressures related to her spiritual crisis in Song 1:6-7. She feels ashamed by those staring at her because of her failure; being rejected by her angry brothers; being overworked by being made to keep other vineyards; allowing her own vineyard (heart) to not be kept with fresh love for Jesus; and for serving Jesus at a distance.

신부는 아가서 1:6-7에서 영적 위기로 인해 받는 다섯 가지 압박을 기술한다. 실패로 인해 주위 사람들은 그녀를 흘려보고, 화난 오빠들에게는 거절당하고, 다른 이들의 포도원은 지키지만, 자신의 포도원(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신선한 사랑을 유지하지 못해 멀리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수치심 속에 살게 된다.

B. She describes her brothers as her “mother’s sons”. Throughout the Song (1; 6; 3:4, 11; 8:2, 5) the mother speaks of the Church since we are born of God through the agency of the Church by the Spirit. Paul and others wrote of the Church and its leaders and the New Jerusalem as a “mother” (Gal. 4:19, 26; 1 Thes. 2:6-7). Those who do God’s will are His mother and brothers (Mt. 12:46-50). God is our father and the church is spoken of as our mother. Jesus,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was born from the seed of a woman (Gen. 3:15). Redeemed Israel was represented as a “mother” that gave birth to Jesus the man-child (Rev 12:5).

신부는 자신의 오빠들을 ‘어미의 아들들’이라 표현한다. 아가서 전체에 걸쳐 (아 1:6; 3:4,11; 8:2, 5), ‘어미’는 교회를 뜻한다. 성령님의 역사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통해 거듭나게 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과 여러 성경 기자들은 교회와 지도자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어미’라 표현했다 (갈 4:19, 26; 살전 2:6-7).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어미요 형제라 (마 12:46-50)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교회는 어머니로 표현된다. 교회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여인의 씨앗’을 통해 태어나셨다 (창 3:15). 구속받은 이스라엘은 인자 (Son of Man)이신 예수님을 낳은 ‘어미’로 대표되었다 (계 12:5).

C. The sons were angry at her youthful zeal. They speak of older spiritually dull leaders who do not appreciate fervent young believers. Why? First, zealous believers bring conviction to spiritually dull believers (who often simply dismiss true spiritual zeal as legalism). Second, the untempered zeal and pride of zealous believers often make spiritually dull leaders angry. Our zeal must be seasoned with wisdom and humility. It is common for those with new fervency for Jesus to be self-absorbed and prideful in the way they call others to be wholehearted. Some exalt themselves and condemn others who do not express devotion to God in the same way they do.

그 아들들은 신부의 열정에 화가 났다. 이 아들들은 늙고 ‘영적으로 무딘’ 율법주의적 또는 종교적 지도자들로, 영적으로 열정적인 젊은이들을 좋아 하지 않는다. 이유는? 첫째, 열정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딘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이들은 영적 열정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영적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 둘째, 절제하지 않는 열정과 그들의 교만이 영적으로 무딘 지도자들을 종종 화나게 만든다. 그렇기에, 우리의 열정은 지혜와 겸손으로 다듬어 져야 한다. 이제 막 새롭게 예수님을 향한 열정에 불이 붙은 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교만에 빠져들어, 다른 이들에게 자기처럼 전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부담을 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기 교만에 빠져 자신 처럼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우를 범하게 되기도 한다.

- D. She was mistreated by the angry sons who overwork her by taking advantage of her fervency by giving her many responsibilities in different vineyards (plural). She burns out spiritually. Burn-out doesn't come from hard work as much as from a religious yoke, which speaks of working without connecting with the Holy Spirit in the work. Embracing too many responsibilities out of the fear of man and the desire to be noticed by others leads to burn out.

그녀의 열정을 이용해 화난 아들들은 포도원들을 그녀에게 떠맡기며 과도하게 일을 부과하고 학대한다. 그 속에서 그녀는 영적으로 탈진해 버리게 된다. 영적 탈진은 과도한 일보다는 성령님과 교통없이 일하는 '종교적 멍에'에서 더 크게 오게 된다.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과 주목을 받으려는 심정으로 과도하게 많은 책임을 떠 맡는 것이 영적 탈진의 주원인이 된다.

- E. She kept other vineyards, but did not keep her own vineyard (or heart). Our first responsibility before God is our own personal walk with Jesus. Originally, what she wanted most were the kisses of His Word. However, as time goes by her vineyard or the garden of her heart was choked by the weeds of spiritual coldness, sin, and shame. Taking care of her own vineyard means nurturing her personal communion with God and doing His will.

어린 신부는 다른 이들의 포도원은 지켰으나, 정작 자신의 포도원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갖는 우리의 최우선적 책임은 '인격적인 예수님과 동행'이다. 원래 신부가 가장 바랐던 소원은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포도원 즉, '마음의 정원 (동산)'이 영적 냉랭함과 죄, 그리고 수치심이라는 '잡초'로 인해 숨을 쉬지 못하게 되었다. 자신의 포도원을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키워 나가면서 그분의 뜻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y made me the keeper of the vineyards, but my own vineyard I have not kept. (Song 1:6)

6...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 1:6)

- F. She feels the pain of serving Jesus at a distance. This happens when we serve without connecting with the Holy Spirit. She feels like the veiled woman who served the Shepherd at a distance.

신부는 멀리서 예수님을 섬기는 아픔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주님을 섬기면서 성령님과 교통이 없을 때 일어난다. 마치 멀리서 얼굴을 가리운 채 목자 (예수님)를 섬기는 여인과 같은 신세가 된 것이다.

“Tell me, O You (Jesus) whom I love, where you feed Your flock...For why should I be as one who veils herself by the flocks of Your companions? (Song 1:7)

7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예수)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아 1:7)

1. In the ancient world, women veiled themselves when working with strangers who they were unfamiliar with. Why should I serve down the road and not near to You like I used to? These two issues speak of living at a distance from the Shepherd that she so loves.

고대에, 여인들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과 일할 경우 얼굴을 베일로 가리웠다. “왜 예전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목자 (예수님)를 멀리서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신부의 아픔을 말한다.

2. She wants to be with Him wherever He is. She lost the sweetness in her communion with God. She longs for the kisses of His Word and the chamber experiences with the Lord.

신부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를 잃어 버리게 된 것이다. 계속해서, 신부는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 그리고 주님과의 '침공'의 친밀한 경험을 열망한다.

III. HER DESPERATE CRY TO HAVE MORE OF JESUS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자 하는 신부의 필사적 부르짖음

⁷Tell me, O You (Jesus) whom I love, where you feed Your flock, where You make it rest at noon. For why should I be as one who veils herself by the flocks of Your companions? (Song 1:7)

⁷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예수)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아 1:7)

A. In the midst of this crisis, she cries out with a desperate prayer. She remembers the kisses of His Word and her chamber experiences. She asks the great Shepherd for counsel, “Tell me, where do you feed Your flock?” We can only offer this desperate cry if we have confidence that we are lovely to God even in our weakness.

영적 위기 속에서도, 신부는 필사적인 기도를 하며 부르짖는다. 신부는 주의 말씀의 입맞춤과 침공의 경험을 기억한다. 신부는 ‘위대한 목자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양떼 먹이는 곳을 알려주세요.”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사랑스럽다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1. She still loves Him and cries out, “Tell me, O You whom I love”. She knows that she failed in her weak love. Weak love is not false love. She is still a genuine lover of God. She is not a hopeless hypocrite as the enemy wants her to believe. She has confidence that her love is real even in her crisis and spiritual dullness.

신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부르짖는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내게 고하라.” 신부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연약한 사랑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랑이 거짓 사랑은 아니다. 신부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정한 연인이다. 원수가 참소하며 신부를 속이려 해도, 신부는 전혀 가망이 없는 위선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신부는 자신의 연약한 사랑이 신앙의 위기와 영적 무감각 속에서도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2. She did not say, “Tell me, since I am a helpless hypocrite.” She cries out, “I know I am a lover of God.” This is similar to when Peter cried out,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though I have just betrayed You.”

신부는 “가망없는 이 위선자에게 고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았다. 신부는 “내가 하나님의 연인이라는 것을 난 잘 압니다”라고 외친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하다. “주님, 내가 주를 배반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B. She is desperate to encounter Jesus. Ministry activity and even promotion is not enough. She wants to know where He feeds His flock. This is an expression of her prayer, “Draw me away.”

신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증에 목말라 한다. 이 갈증은 더 큰 사역이나 승진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신부는 주님이 양떼를 먹이시는 곳을 알기 원한다. 이것은 “나를 주곁으로 가까이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신부의 기도 표현이다.

- C. At noon, or in the heat of the day a sheep will lie down if its stomach is full. God wants us to rest in the midst of the heat of the day or the pressure of this life by connecting with Him, not just working for Him. Sheep will only lie down at noon when they are full.
 양은 배가 부르면 정오나 날이 한창 더울 때 눕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만을 원하시지는 않는다. 주님과 친교를 통해, ‘한창 더운 날’ 즉, 삶에서 받는 압력들 속에서도 주님안에 안식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양은 배가 부를 때에만 정오에 눕게 된다.
²***He makes me to lie down in green pastures... (Ps. 23:2)***
²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시 23:2)
- D. She offers her prayer in the language of the shepherd. “Where will You satisfy me under the heat of the pressures of the day?” She longs to be satisfied again with Jesus or to rest at noon. She is saying: “I have been fed by others, but now I want You to feed me. Where will You satisfy the cry of my spirit?”
 신부는 목자의 언어를 사용해 기도한다. “이 한창 더운 낮 시간에 어디서 나를 만족시켜 주시렵니까?” 신부는 정오에 안식하기를 즉, 예수님으로 다시 만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른 이들이 나를 지금까지 먹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먹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갈증을 어디서 만족시켜 주시렵니까?”
- E. Jesus longs that we would pray this prayer. He does not want us to give up and give in to a spiritually dull life in God. He does not want us to write ourselves off as a hopeless hypocrite. It pleases Him when we cry out, “Feed my heart like You used to? I am a veiled woman. I am serving at a distance. My own vineyard has weeds in it. Many things are going wrong. I am failing and the people are angry. I need to touch You whom I love.” Regardless what it costs her, she wants the fire of intimacy with God to consume her again. She wants Him to feed her again. She cries out to recover her “first love”.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신다.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거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에 굴복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망없는 ‘위선자’나, ‘부적합한 자’로 취급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예전처럼 내 심령을 먹이시옵소서. 내가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었나이다. 멀리서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의 포도원에는 잡초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잘못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패를 보면서, 사람들은 내게 화를 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외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불’이 다시 자신 안에서 소멸하는 불과 같이 불타게 되기를 신부는 바라고 있다. 주님이 다시 영적으로 자신을 먹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신부의 부르짖음이다.

IV. JESUS' GLORIOUS ANSWER: SEVEN ESSENTIAL STATEMENTS

예수님의 영광스런 대답 7 가지

⁸*If you do not know, O fairest (most beautiful) among women,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flock, and feed your little goats beside the shepherds' tents. (Song 1:8)*

⁸여인 중에 어여쁜 (가장 아름다운)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 1:8)

A. Jesus hears her desperate prayer (Song 1:7) and personally answers her (Song 1:8-11). He gives her seven statements that answer where she can find Him. First, He affirms her as beautiful in His eyes, then gives a 3-fold answer (1:8b,c,d) and then a 3-fold affirmation (1:9-11). She responds with great gratitude (Song 1:12). A vital part of the theology of holy passion is found in Jesus' answer. This is the first revelation of Jesus to the Bride on her journey. He shows Himself as the "wonderful counselor" or the Shepherd who gives her practical counsel in how to go forward in her weakness.

신부의 필사적인 기도를 들으신 (아 1:7) 예수님은 신부에게 대답하십니다 (아 1:8-11). 주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7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주님은 신부가 주님께 아름답다는 확증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 (8절)과 함께 사랑의 확증 (아 1:9-11)을 세 부분으로 나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는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 1:12). '거룩한 열정'을 위한 신학적 필수 요소가 예수님의 대답 안에서 발견된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신부에게 자신의 첫번째 모습을 보여주신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모사' (wonderful counselor) 또는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신다.

B. He addresses the Bride as, "O fairest of women." The word "fair" is translated in most other versions of the bible as "beautiful" (NAS/NIV). Jesus is saying, "O most beautiful of women." He is saying, "I know there are weeds in your garden and that you serve Me at a distance, but I see the cry in your heart to love Me." He woos her heart with the beauty she possesses in Him. 예수님은 신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중에 어여쁜 자야" (fairest of women). 'fair'이란 단어는 대부분의 성경번역에서 '아름다운, 어여쁜' (beautiful)으로 번역되어 있다 (NAS/NIV 역). '여인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야' (O most beautiful of women)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 (마음의) 동산에 잡초가 자라고, 멀리서 나를 섬기지만, 나를 사랑하는 네 마음의 부르짖음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님 안에 소유한 신부의 아름다움으로 신부의 마음을 구애하고 계신다.

C. Jesus starts by saying, "If you do not know." His answer shocks many people. We would expect a rebuke. He knows our garden isn't being kept and that we serve Him at a distance, however, we are most beautiful to Him. He calls us beautiful even in the midst of our disorientation and failure. We might be unlovely to the angry sons but we are most beautiful to Him. We may despise ourselves but we are most beautiful to Him. He speaks to her shame and rejection.

예수님은 "네가 아직 모르고 있었다면 사실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우리는 보통 주님의 책망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동산' (마음)을 잘 돌보지 않고 멀리서 주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신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실패의 구렁이 속에 있을 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난 아들들에게는 밋게 보여도, 주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경멸해도, 우리는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수치심과 거절감을 느끼던 신부에게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셨다.

- D. Jesus calls her the most beautiful woman. This in light of the different women of the earth or the false religions who despise Jesus. He is not comparing her to a mature apostle. He looks at us in light of the 5-6 billion people on earth who have no interest in Jesus. We care intensely about Jesus and have the gift of righteousness. This is beautiful in God's eyes.
 예수님은 신부를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부르신다.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여인들' 즉, 예수님을 경멸하는 '거짓 종교들'과 비교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성숙한 사도들과 비교하신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50-60 억의 사람들과 비교해 우리를 보신다. 우리는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며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눈에 이들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는 없다.
- E. In Song 1:4e, the Bride taught the virgins, "We will remember His love." Jesus is causing her to remember His love in answering her by telling how He views her in her weakness. Jesus first speaks to our heart in our crisis by calling us, "most beautiful." Then He gives us instructions. 아가서 1:4 후반부에서,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다음을 가르쳐 줬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리라." 신부의 연약함을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 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신부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끔 하셨다. 영적 위기속에서, 주님은 먼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자"라고 인자하게 부르신 다음,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가르쳐 주신다.
- F. Jesus' 3-fold answer for where He feeds His flock and establishes us in intimacy with Go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ody life. All three answers relate to life in the Body as well as answering the three most powerful temptations that are common to all.
 주님이 양떼를 먹이시고 친밀한 관계를 세우시는 곳에 대해 예수님은 세가지로 대답하신다. 주님은 '그리스도 지체의 삶'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신다. 이 세가지 대답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지체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지 말해 준다.
- ⁸If you do not know, O fairest (most beautiful) among women,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flock, and feed your little goats beside the shepherds' tents. (Song 1:8)***
⁸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 1:8)
1. Commitment to Body life (v. 8c): refuse unsanctified isolation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헌신함 (8절): '고립됨'을 거절한다
 2. Commitment to servant ministry (v. 8d): refuse unsanctified idleness
 섬김의 사역에 헌신함 (8절): '나태함'을 거절한다
 3. Commitment to spiritual authority (v. 8e): refuse unsanctified independence
 영적 권위에 헌신함 (8절): '독립적인 태도'를 거절한다
- G. Drawing is singular because it is intimacy. Running is plural because it is ministry. God does not want us running in ministry in isolation, idleness or with an independent spirit.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 가는 것은 개인적 친밀감을 말하기 때문에 '단수형'을 사용한다. 그렇지만, 달려가는 것은 사역을 말하기에 '복수형 (우리)'을 사용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하며 함께 달음질하는 데 있어, 고립이나 나태함, 독립적 정신으로 하길 원치 않으신다.

H. First, is commitment to Body life as we refuse unsanctified isolation (Song 1:8c). He tells her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flock, or get involved in the fellowship of the Body. The ‘footsteps of the flock’ is the place where all the sheep walk with God. The Lord says follow in the place where the Body walks. He is saying, “Get back into fellowship, do not over-react to the angry brothers who judge and mistreat you.” Much isolation from the Body is not motivated by a desire to seek God but by rejection, bitterness and shame. The devil wants us in isolation to destroy us.

첫째, 우리는 부정적인 고립을 거절하며, ‘몸된 지체의 삶’에 헌신해야 한다 (아 1:8). 주님은 신부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을, 즉, 지체의 교제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신다. ‘양떼의 발자취’는 모든 양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주님은 신부에게 지체가 동행하는 곳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지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렴, 너를 판단하고 학대하는 화난 이들에게 너무 과민반응할 필요가 없단다”라고 말씀하신다. 지체로부터 자신을 고립 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절감과 쓴뿌리, 그리고 수치심에서 나온 것이다. 마귀는 우리를 고립시켜 파괴하기를 원한다.

²⁵***Not forsaking the assembling of ourselves together as is the manner of some... (Heb. 10:25)***

²⁵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 (히 10:25)

I. Second, take care of your God given responsibilities as we refuse unsanctified idleness (Song 1:8d). We are to feed the little flock that God sets before us. Jesus will give us more of Himself as we take on the responsibility to feed the young ones or the little flock that God sends to us.

둘째, 우리는 부정적인 나태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 1:8).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떼를 먹여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어린 자들, 또는 양떼들을 먹이는 책임을 다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더 드러내실 것이다.

J. Third, submit to spiritual authority by refusing unsanctified independence (Song 1:8e). She serves the Body beside the tents of the true shepherds. Jesus wants us to have an open spirit to the shepherds (leaders) that He places us under. The spirit of lawlessness is abounding (Mt. 24:12). God knows that every leader that He has ever placed over you or ever will is an imperfect leader. We find Jesus in deep ways as we relate to imperfect leaders. God uses imperfect shepherds to temper us and to reveal the unsettled things in our heart. When we see the faults of the imperfect leaders that God has put over us we are tempted to resist dwelling by their tents with a teachable spirit. Submission is about humility and having an open spirit to authority.

셋째, 우리는 부정적인 독립을 거부하며, 영적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아 1:8). 신부는 진정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지체를 섬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위임하신 목자들 (리더들)을 향해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세운 또는 세우실 리더가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신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리더들과 관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목자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드러내신다. 이들의 부족함이나 흠을 보게 될 때, 과연 우리가 배우는 자세로 그들의 장막 곁에 남아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험도 받게 된다. 그러나 순종은, 겸손이며 권위에 대한 열린 마음을 말한다.

- K. **Summary:** Jesus' 3-fold answer touches 3 main temptations in the Body. First, is the temptation to isolation and bitterness when we feel rejected or mistreated by the angry sons and when we feel shame related to our sin. We are to stay in fellowship as God's way to heal us. Second, is the temptation to selfishness and fear. Jesus wants us to take care of the little ones. We find Jesus best in the context of serving others. Third, is the temptation to resist spiritual authority.

요약: 예수님의 세가지 대답은 지체 안에 머물면서 오는 세가지의 주된 유혹 (시험)을 다루고 있다. 첫번째 시험은 우리가 화난 아들들에게 거절받고, 학대받고, 죄로 인한 수치심을 느낄 때, 쓴 뿌리를 가지고 고립하고 싶은 유혹이다. 이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지체안에 머무는 것이다. 둘째는, 이기적인 마음과 두려움에 대한 유혹 (시험)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신다. 타인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잘 발견하게 된다. 세째는 영적 권위를 따르지 않으려는 유혹 (시험)이다.

V. HER SINCERITY IS RE-AFFIRMED BY THE LORD

신부의 진심을 재확인 시켜 주시는 주님

*⁹I have compared you, **My love**, to My filly among Pharaoh's chariots. ¹⁰Your cheeks are lovely with ornaments, your neck with chains of gold. ¹¹We will make you ornaments of gold with studs of silver. (Song 1:9-11)*

⁹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¹⁰네 두 뺨은 땅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¹¹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 1:9-11)

- A. In Song 1:9-10, He compares her to 3 things that reaffirm the loveliness of her sincerity and willing spirit before God. Then He gives her a promise in Song 1:11. The first thing He does is to speak to her heart to affirm her by calling her "My love." He speaks with love to her heart again. 아가서 1:9-10 에서, 주님은 신부를 세가지에 비유하신다. 하나님 앞에 신부가 소유한 진실한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지를 재확인시켜 주신다. 먼저 주님은 신부를 '내 사랑아'라고 부르시며 말씀하신다. 사랑으로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 B. God sees her sincere and strong desire to follow Jesus in righteousness. She is as a filly among Pharaoh's chariots.

의로운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진실하고도 강력한 신부의 바램을 하나님은 잘 아신다. 신부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

*⁹I have compared you, **My love**, to My filly among Pharaoh's chariots. (Song 1:9)*

⁹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아 1:9)

1. A filly is a horse. The horse is a symbol of strength and power. The context speaks of her strength in righteousness. Pharaoh's chariots had the greatest and most trained, skilled horses in the earth. He likens her strength to them.

준마는 말이다. 말은 힘과 강인함을 상징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 (義)'로 가지게 되는 신부의 힘을 말한다. 바로의 준마들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말들로 잘 조련된 노련한 말들이었다. 주님은 신부의 힘을 이 준마들에 비유하셨다.

2. “Among Pharaoh’s chariots” speaks of the finest and strongest war horses in the world. The horses of Egypt were well known throughout the world in those days. Pharaoh had the most highly skilled and trained horses in the earth. Pharaoh chose the very best horses of all the horses of Egypt to pull his own chariot. Pharaoh’s own chariot had the best of the best horses. Pharaoh had thousands of horses in his great stables and the one that pulls his personal chariot is the best one. Solomon as the wealthiest man in the world bought many of Pharaoh’s horses. He was one of the few that could afford them.

“바로의 병거 가운데” 라는 표현은, 이 말들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면서 강인한 전투용 말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애굽의 말들은 당대에 가장 유명한 말들이었다.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고도로 숙련되고 조련된 말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바로는 그 말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말들을 뽑아 자신의 병거를 끌게 했다.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들은 최고 중의 최고였다. 거대한 마구간에 수 천마리의 말들을 사육하면서 바로 자신의 병거에 준마를 사용했다. 솔로몬 왕은 그 당시 세계 최고 갑부로서, 바로의 수많은 말들을 사들였다. 솔로몬 왕은 바로의 말들을 살 수 있는 몇몇 안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 C. Our emotions are attractive to Him. He has touched our emotions with His Spirit. The emotional dimension of her life has been touched by God with her sincere devotion for Jesus.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끌린다. 주님은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신다.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진실한 헌신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신부의 마음을 만져 주신다.

¹⁰Your cheeks are lovely with ornaments, your neck with chains of gold. ¹¹We will make you ornaments of gold with studs of silver. (Song 1:10)

¹⁰네 두 뺨은 땡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¹¹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아 1:10-11)

1. The cheeks speak of emotion throughout the Song. They reveal anger and joy, etc. When we look at somebody’s cheeks, we can tell if there is joy in their heart or if there is anger or sadness. The emotions of a person are expressed through the cheeks.

아가서 전체에 걸쳐, 뺨은 감정을 말한다. 뺨 (또는 얼굴)은 분노나 기쁨같은 사람의 감정, 심리상태를 드러낸다. 사람의 뺨을 통해 그 사람이 기쁜 지, 화가 났는지, 슬픈 지를 파악할 수 있다. 사람의 감정은 뺨을 통해 표현된다.

2. The ornaments are created by the skillful work of an artist to beautify its object. Jesus is the artist that has worked to beautify us (Isa.61:3). Though God sees lust and anger in us, He also sees passion growing in us for Him. God is saying, “Your emotions are lovely, I have skillfully worked in you a “Yes!” for My Son. That moves the very heart of God.

‘장식용 사슬 (땡은 머리털)’은 물건을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가의 노련한 작업을 통해 탄생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예술가이시다 (사 61:3). 주님은 우리의 정욕이나 분노를 다 아시지만, 예수님을 향해 자라나는 우리의 열정 또한 보신다. “네 마음이 아름답구나, 내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네 안에 아름답게 작업해 왔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감동하신다.

- D. God sees her submission to divine authority and her resolute will to obey Jesus.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과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결단의 의지를 보신다.

¹⁰Your cheeks are lovely with ornaments, your neck with chains of gold. We will make you ornaments of gold with studs of silver. (Song 1:10-11)

¹⁰네 두 뺨은 땡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¹¹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아 1:10-11)

1. The neck speaks symbolically of the will. The Bible speaks of people that are stiff-necked, which means a stubborn or rebellious person. The neck also speaks of godly submission. The neck is what turns the head as it chooses which way to go, right or left. When a King triumphed over another nation, the conquering general put his foot over that defeated king's neck which spoke of submission.
‘목’은 상징적으로 ‘의지’를 말한다. 성경은 목이 ‘뻣뻣한’ 사람들에게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고집센, 또는 반항적인 사람들을 뜻한다. 목은 ‘거룩한 복종’을 말하기도 한다. 우리는 목을 사용해 고개를 원하는 방향으로 돌린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 정복한 장군은 패배한 왕의 목을 위에서 발로 누르게 되는 데, 이것은 굴복하라는 것을 뜻했다.
2. The chains of gold speak of royal authority. Only a king had chains of gold. In those days, few people could afford a chain of gold besides a King. A chain of gold was rare and expensive because it was only worn by royalty. A chain of gold with the king's emblem on it was worn by the prince as he walked through the town.
‘금사슬’은 왕족의 권위를 말한다. 오직 왕족만이 금사슬을 소유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왕 이외에 금사슬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금사슬은 귀하면서도 값비싼 물건이었기에, 오직 왕족들만이 금사슬을 차고 다녔다. 특별히, 왕의 상징이 새겨진 금사슬은 왕자가 마을들을 지날 때,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차고 다녔던 귀중품이었다.

VI. THE LORD'S PROMISE TO FINISH THAT WHICH HE BEGAN IN US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 시작하신 것을 마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We will make you ornaments of gold with studs of silver. (Song 1:11)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 (장식)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 1:11)

- A. Ornaments of gold speak of divine character. She will be Christ-like in her golden character. This speaks of believers purified with fire (Mal. 3:1-4). Studs of silver speak of redemption. She will be used to bring redemption to other people. She will be equipped to deliver others.
‘금장식’은 ‘거룩한 인품’을 말한다. 신부는 정금과 같은 인품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불의 연단’을 통해 정결케 된 자들을 말한다 (말 3:1-4). ‘은박’은 ‘주님의 구속’을 말한다. 신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속’을 가져다 주는 데 사용될 것이다. 사람들을 속박에서 건져내기 위해 신부는 주님께 양육받게 될 것이다.
- B. “We will make you” is a Divine promise to complete His work in her. He is still answering her question from v.7, “Where will You feed me?” God promises to work something special in her. He will make us into a person who fully chooses divine character (gold) and is equipped with silver to deliver others (silver). He promises us victory in the areas we have stumbled and we will be an agent of redemption to others.
“우리가 너를 위하여 ... 만들리라”는, 신부안에 시작하신 역사를 주님께서 완성 하시겠다는 ‘거룩한 약속’이다. 주님은 7 절에 “나를 어디서 먹이실 겁니까?”라는 신부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신부에게 특별히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다. 정금과 같은 거룩한 인품을 택하는 자 (금)가 되도록, 또 사람들을 속박에서 건져내는 ‘은’이 되도록 주님은 신부를 양육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삶의 영역에서도 승리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시며,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속역사의 ‘요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말씀 하신다.

Session 11 The Bridal Paradigm: Foundational Truths (Song 1:12-17)

신부의 패러다임 (영성): 기초 진리 (아 1:12-17)

I. REVIEW AND OVERVIEW OF SONG 1:5-17

아가서 복습과 개관 1:5-17

A. The Bride asked Jesus, “Where will You feed me?” (1:7). He gave her a 7-fold answer declaring her beauty (1:8a) then gives her a 3-fold instruction (1:8b,c,d) and a 3-fold affirmation (1:9-11). 신부는 예수님께 묻는다, “저를 어디서 먹이시렵니까?” (아 1:7). 주님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7 가지로 대답하신다 (아 1:8). 그리고는, 세가지 교육 (아 1:8)과 세가지 사랑의 확증 (아 1:9-11)을 주신다.

B. She gives a 3-fold response as she is fed by Jesus at His table (1:12-14). She is confident in Jesus’ love even in her weakness as her heart was dark and like a vineyard not kept (1:5-7). 주님의상에서먹이시는예수님께신부는세가지로응답한다(아1:12-14).신부는마음이어두워자신의 ‘포도원’을 잘 돌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안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¹²While the King is at His table, my spikenard sends forth its fragrance. ¹³A bundle of myrrh is my Beloved to me...¹⁴My Beloved is to me a cluster of henna blooms... (Song 1:12-14)

¹²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¹³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¹⁴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언제나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아 1:12-14)

C. Then she receives increased revelation of God’s love for her and her beauty to God (1:15). The Bride gives a 5-fold response. She sees Jesus as handsome (beautiful God), the one she loves (my Beloved) and pleasant as He leads her life to rest now and then to eternal glory (v. 16-17). 신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보시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를 더 많이 받게 되면서 (아 1:15) 5 가지로 주님께 응답한다. 신부는 멋진 예수님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자신에게 쉼을 주시며, 영원한 영광으로 삶을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 (아 1:16-17).

I. MEDITATION ON THE CROSS: GOD’S LOVE AND OUR BENEFITS (SONG 1:13)

십자가에 대한 묵상: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누리는 유익(아 1:13)

¹³A bundle of myrrh is my Beloved to me, that lies all night between my breasts. (Song 1:13)

¹³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아 1:13)

A. She receives revelation of Jesus’ love and provision for us in going to the cross (Rom. 3-8). 신부는 십자가를 통해 받은 유익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받게된다 (롬 3-8).

- B. Myrrh is an aromatic gum resin produced by various trees and shrubs in India, Arabia, and East Africa. It was very expensive and used in making perfume (Prov. 7:17), the holy anointing oil to burn incense (Ex 30:23) and in preparing a body for a funeral (Jn. 19:39-40). It has a bitter taste. The three wise kings brought myrrh to Jesus' birth as a prophetic symbol of His death (Mt. 2:11). On the cross, Jesus was offered myrrh (Mk. 15:23). It speaks of Jesus' death (Ps 45:8). 몰약은 인도, 아라비아와 동아프리카에서 다양한 나무와 관목에 의해 생산되는 향기로운 고무질 점성의 삼출물이다. 몰약은 값비싼 용품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향수를 만들고 (잠 7:17), 거룩한 기름 부음의 오일로 분향을 태우며 (출 30:23), 또 사람을 장사 지내는 데 사용되었다 (요 19:39-40). 몰약은 아주 쓴 맛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선물 중의 하나가 몰약이었는데, 이것은 그분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예고한 것이었다 (마 2:11). 십자가에서 몰약을 받으신 예수님 (막 15:23). 이것은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의지를 뜻한다 (시 45:8).
- C. Myrrh speaks of the fragrant yet bitter reality of embracing death to our fleshly ways. 몰약은 향품이지만 육신의 죽음을 받아 들이는 고통스런 실재를 말한다.
- D. Esther's beauty preparations included bathing in myrrh and other perfumes (Esth. 2:12). Myrrh is referred to 8 times throughout the Song. (Song 1:13; 3:6; 4:6, 14; 5:1, 5, 13). 에스더의 단장이 나오는 본문을 보면, 단장의 한 과정으로 몰약과 다양한 향수로 목욕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다 (에 2:12). 몰약은 아가서에 8 번에 걸쳐 나온다 (아 1:13; 3:6; 4:6, 14; 5:1, 5, 13).
- E. Some wealthy women in the ancient world went to bed with a bundle or large necklace of myrrh to provide fragrance through the night. Solomon gave her this extravagantly expensive gift. 고대에 일부 부유층 여성들은 몰약이 담긴 커다란 목걸이를 그대로 목에 건 상태로 잠을 잤다. 몰약의 향기가 밤새도록 방을 가득 채우게 하기 위해서 였다. 솔로몬은 솔람미 여인에게 이 값비싼 선물을 선사했다.
- F. The Bride proclaimed that Jesus was like a bundle of myrrh that lay on her heart through the night. The cross was King Jesus' extravagantly expensive gift to His Bride. Jesus' death was an "abundant offering." It speaks of what He endured because of us love for us. It reveals how valuable we are to Him. Our value is seen in what Jesus endured for us. The fact that we exist is statement of our value. Add to that, the fact that the God of Genesis 1 became human and was crushed by the wrath of God to make the way to have an eternal relationship with us. 신부는 밤새도록 마음에 남아있는 '몰약 향낭'같은 예수님을 선포했다. 십자가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에게 주신 너무나도 값진 선물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주님의 "아낌없는 사랑의 헌신"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인내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계시해 주는 사건이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과 고난의 인내를 통해 우리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소중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1 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누리기 위한 길을 여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사건이다.
- G. The myrrh lay all night on her heart. The night speaks of the nighttime of her temptation and/or trials as well as carrying the idea of consistency. It rests on her heart all the time. 몰약은 '밤새도록' 신부의 마음에 남아있다. '밤'은 신부의 일편단심과 함께, 유혹과 시험의 밤을 말한다. 몰약은 항상 신부의 마음 안에 남아있다.

- H. We will forever marvel at the Lamb slain for our sins (Rev. 5:8-12). When we really see who He is and what He did, for all of eternity our hearts will be awed and overwhelmed with gratitude. For endless ages, we will see Jesus as a “bundle of myrrh” that will lie on our hearts.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죽임 당하신 어린양을 보며 영원토록 그 감격을 금치 못하게 될 것이다 (계 5:8-12).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될 때,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함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목)에 걸쳐진 ‘몰약 향낭’ 이신 예수님을 영원히 만나게 될 것이다.
- I. We are to carry it in our heart all through the day and night. We are to continually remember His love as we meditate on the cross (Song 1:4d). The most obedient and worshipful saints think the most on the cross. It is their constant meditation and confession. We will never grow weary of meditating on it. If it becomes boring to us, it is only because we have not understood it.
우리는 밤낮으로 마음에 ‘몰약향낭’을 담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아 1:4). 가장 순종적이며, 가장 깊은 예배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보면 역시 십자가를 가장 많이 묵상한다. 십자가는 그들의 지속적인 묵상과 고백의 주제이다. ‘십자가에 대한 묵상’은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만약 십자가가 삶에서 지루해 졌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II. REVELATION OF JESUS’ BEAUTY AND DELIGHTFULNESS (SONG 1:14)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기쁨에 대한 계시 (아 1:14)

- A. Jesus was to her as a cluster of beautiful and fragrant henna flowers in full bloom. A henna is a shrub or a small tree with fragrant flowers. Jesus is as a cluster of henna flowers to those with revelation of His heart. He is not the burdensome and boring God that religion falsely proclaims. 신부에게 예수님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고벨화 송이’ 같다. 고벨은 향기로운 꽃을 지닌 관목이다. 주님의 마음에 대한 계시를 지닌 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벨화 송이 같은 분이다. 우리 주님은 종교가 거짓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부담되고 지루한 하나님이 아니다.

¹⁴*My Beloved is to me a cluster of henna blooms in the vineyards of En Gedi. (Song 1:14).*

¹⁴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아 1:14)

- B. Jesus’ commandments are not burdensome and His yoke is easy as we understand Him in truth. 예수님의 명령들은 부담을 주는 명령들이 아니며, 그분의 멍에는 진리를 바로 이해하면 쉬운 것이다.

³*And His commandments are not burdensome. (1 Jn. 5:3)*

³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 5:3)

³⁰*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Mt. 11:30)*

³⁰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30)

- C. Jesus’ personality is as a “cluster” of blooms. He is more than one flower but a cluster. This emphasizes the diversity and abundance of the beauty He possesses. The vineyards of En Gedi were well known for their abundant fragrance. Jesus has fragrance that is beyond all others. 예수님의 성품은 만발한 꽃들의 ‘송이 (다발)’와 같다. 꽃 한송이가 아니라 송이 (다발)인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소유하신 다양하고 풍성한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엔게디 포도원은 당시 풍성한 향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갖고 계신다.

¹⁶*Yes, He is altogether lovely. This is my Beloved, and this is my friend! (Song 5:16)*

¹⁶...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아 5:16)

- D. We must tell the whole earth the truth of Jesus, who is as a “cluster of henna blooms.” They will repent much easier if they understand the truth. We must preach about the beautiful God who is filled with kindness. He is a fragrant and sweet God who intoxicates us with Good News. 우리는 ‘만발한 고벨화 송이’와 같은 예수님의 진리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이 진리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은 더 쉽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크신 인자함을 지니신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해 설교해야 한다. 주님은 좋은 소식 (복음)으로 우리를 ‘취하게’ 만드시는 향기롭고 달콤한 하나님이다.

⁴Or do you despise (minimize) the riches of His goodness, forbearance, and longsuffering, not knowing that the goodness of God leads you to repentance? (Rom. 2:4)

⁴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최소화하느뇨) (롬 2:4)

III. THE BRIDE FEASTS AT THE KING’S TABLE: HER WORSHIP ARISES (SONG 1:12)

왕의 상에서 잔치를 즐기는 신부: 향기롭게 올라가는 신부의 경배 (예배) (아 1:12)

- A. God has provided a table for us (1 Cor. 10:21) in which we feed on the cross and its benefits that come because we receive the gift of righteousness (2 Cor. 5:21). The Bride sits with Jesus at His table to feed on the truths related to her salvation. These truths cause her worship to ascend as fragrance. This parallels the truths that the prodigal son discovered when he returned home to sit at the Father’s table (Lk. 15:20-28). The second revelation of Jesus expresses the Father’s heart.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잔치상을 준비하셔서 (고전 10:21), 십자가를 통해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의의 선물 (고후 5:21)을 통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신부는 그 상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구원에 대한 ‘진리의 양식’을 먹게 된다. 이 진리를 통해 신부는 향기처럼 올라가는 경배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된다. 이 진리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상에 함께 앉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탕자의 비유’와 병행되는 진리이다 (눅 15:20-28). 예수님에 대한 두번째 계시는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이다.

¹²While the King is at His table, my spikenard sends forth its fragrance (perfume). (Song 1:12)

¹²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아 1:12)

- B. Her worship ascends to God as the fragrance of spikenard (perfume). Spikenard is literally a “spike of nard”. Nard was an eastern plant from India used to make expensive perfumes. ‘나도 기름 (향수)’의 향기와 같이 신부의 경배는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 감송 (나도)은 이름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나도 (감송)는 인도가 근원지인 동양식물로 값비싼 향유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 C. What Jesus feeds us produces a worship that spontaneously ascends from our spirit like perfume.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통해 ‘영적 향유’와 같은 경배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된다.

- D. The Lord enjoys the fragrance arising from our spirit as we focus on the provision of His table. We are the fragrance of Christ to God. This is manifest in those filled with gratitude and love. 주님의 상에서 주시는 양식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안의 깊은 곳에서 부터 솟아 오르는 향기와 같은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그리고, 이 향기는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 ¹⁴Thanks be to God who...through us diffuses the fragrance of His knowledge in every place. ¹⁵For we are to God the fragrance of Christ among those who are being saved and among those who are perishing. ¹⁶To the one we are the aroma of death leading to death, and to the other the aroma of life leading to life. And who is sufficient for these things? (2 Cor. 2:14-16)***
- ¹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¹⁵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¹⁶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고후 2:14-16)
- E. In Luke 7, a prostitute ran into the house of Simon the Pharisee. She broke the vial of perfume upon Jesus’ feet. The perfume that filled the room speaks of the fragrance Jesus saw in her love.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달려 들어간 한 창녀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녀는 주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린다. 그 방을 가득 채운 향기는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을 담은 향기였다.
- F. In the presence of the enemies of our soul, we can feed on the Lord’s table. If we neglect to feed our spirit at the King’s table, then our spirit starves as shame and guilt weigh us down.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상에 놓인 양식들을 즐길 수 있고 즐겨야 한다. 왕의 상에 있는 영적 양식으로 우리 자신의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짓눌려 ‘영적인 아사’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 ⁵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my cup runs over. ⁶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Ps. 23:5-6)***
- ⁵...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⁶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 23:5-6)
- G. We are to reckon or to see ourselves as those who stand before God in the same righteousness that Jesus possess (2 Cor. 5:21). We offer ourselves to God as those alive and free from the judgment of our sin. We present ourselves alive to God by saying, “Thank you for making me alive by giving me Your righteousness.” Do not come as beggars filled with condemnation.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고후 5:21). 우리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자들로, 살아있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체사로 드려야 한다. “주의 의로 나를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주께 드려야 한다. 죄책감에 휩싸여 구걸하는 ‘거지’처럼 주님께 나아가지 말라.
- ¹¹Likewise...reckon yourselves (see yourself) to be dead indee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¹³present yourselves to God as being alive from the dead.... (Rom. 6:11-13)***
- ¹¹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¹³...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롬 6:11-13)
- ¹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Rom. 8:1)***
- ¹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1)

- H. What kind of fragrance is coming forth from your spirit before God? Does God smell the fragrance of confidence and gratitude? Many can say, “I am dark in my heart” but lack the understanding to say, “I am lovely to God.” Our perfumed worship arises though the day, as we say, “I love You.” We say, “Thank you that You love me. I love so You, Jesus.”
당신에게는 어떤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가? 확신과 감사의 향기가 올라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검은” 부분에만 치중하여 “나는 하나님께 사랑스럽다” 라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며 산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때 우리의 향기로운 예배 (경배)가 주님께 상달되게 될 것이다.
- I. Jesus is a great King who has victory over all His enemies. The King speaks to us with affection. We trust that His plan will prevail because He is a King. The One that says, “I love you,” is the same One who reigns as King over all created order. He has the authority to establish that which His love has determined. His plan will prevail because He is the great King.
왕이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통치하는 왕이시기에 그분의 모든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신뢰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다름아닌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사랑으로 결단한 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가장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계획은 성취되게 되어 있다.
- J. **Summary of her three responses (Song 1:12-14):** First, her life is filled with spontaneous worship and adoration that arises as spikenard as she feeds at the King’s table (1:12). Second, she constantly meditates or feeds on the love Jesus has for her and what He accomplished for her as He endured the myrrh of the cross (1:13). Third, she sees His beauty and delightfulness (1:13).
신부의 세가지 반응 요약 (아 1:12-14): 첫째, 신부는 왕의 상에서 영적 양식을 먹으며 나도기름의 향기와 같이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경배와 예배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아 1:12). 둘째, 신부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몰약’ 인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시면서 성취하신 역사를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영적 공급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아 1:13). 셋째, 신부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 (아 1:13).

IV. REVELATION OF GOD’S LOVE FOR HER AND HER BEAUTY TO GOD (SONG 1:15)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안에 있는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 (아1:15)

¹⁵**Behold, you are fair (beautiful), My love! Behold, you are fair (beautiful)! (Song 1:15)**

¹⁵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아름답고) 어여쁘다(아름답다) ... (아 1:15)

¹⁵Behold, you are beautiful...My love ... (아 1:15, NAS/NIV역)

- A. In this passage, we see two foundational truths in the bridal paradigm. First, her beauty to Him in the grace of God and the revelation of His affection for her as the one He calls, “My love”. She has presented herself with confidence in Jesus’ love even in her immaturity (Song 1:12-14). This foundational truth equips us to receive more truth about our beauty to God.
이 본문에서, 우리는 신부의 패러다임에 대한 2가지 근본진리를 엿볼 수 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지니게 되는 신부의 아름다움과, 두번째는 ‘내 사랑’이라고 신부를 부르시는 주님의 애정에 대한 계시다. 신부는 영적 미성숙함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안에 확신을 갖는 모습을 보여왔다 (아 1:12-14). 이 근본 진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닌 아름다움에 대한 진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시켜 준다.

- B. We are beautiful to God even in our weakness for four reasons. First, our loveliness comes by receiving the gift of righteousness (2 Cor. 5:17-21). Second, at the new birth, the Spirit put a “Yes, in our spirit” to God. Each movement of our heart to God is His work in us called a willing spirit. (Ps. 51:12; Mt. 26:41). Third, our beauty is related to God’s emotional make up. The tender affections and passions in God’s heart determine how He feels towards us. Beauty is in the eyes of the beholder. God views things very differently than man does (1 Sam. 16:7; Isa. 55:7-9). Fourth, God sees us through the lens of our eternal destiny as the Bride of Christ.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계절 내내 하나님께 아름다운 존재이다. 첫째, 우리의 사랑스러움은 ‘의의 선물’을 통해 온다 (고후 5:17-21). 둘째, 거듭날때 성령님은 우리안에 하나님께 순종’ 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넣어 주셨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순종의 마음은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다 (시 51:12; 마 26:41). 셋째, 우리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지니신 마음들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과 열정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의 눈을 보여준다. 아름다움은 바라보는 자의 눈에 있다. 대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과 매우 다르다 (삼상 16:7; 사 55:7-9). 넷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영원한 부르심을 통해 보신다.

- C. Each believer is one that Jesus calls, “My love.” He chose to love and pursue each one of us. Every believer can confess, “I am the disciple the Lord loves and His favorite one.”

예수님은 믿는 자 한사람 한사람을 ‘내 사랑’이라고 부르신다. 예수님은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좇기로 결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자 (총애)입니다”

⁹**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Jn. 15:9)**

⁹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요 15:9)

²⁰**Peter...saw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who had leaned on His breast... (Jn. 21:20)**

²⁰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 (요 21:20)

- D. When we feel loved and beautiful in the grace of a beautiful God, then our heart is exhilarated. We will spiritually grow the fastest and deepest as we confidently confess, “Because of Jesus, I am beautiful to God, even in my weakness.” The Bride taught the virgins to remember His love.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사랑받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벅차오르게 된다. “예수님 때문에, 난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라는 확신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신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가르친다.

⁴**We will remember Your love more than wine. (Song 1:4)**

⁴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것을 기억하리라) (아 1:4)

- E. The Bride's spiritual journey begins with her 2-fold confession of faith (Song 1:5). I refer to this as the "paradox of grace" because as she discovers her sin she also knows she is lovely to God. Without revelation, when we see our sin we only feel dirty and ashamed. As long as we feel ashamed we will continue to do shameful things. A person that feels dirty will live dirty. An immature believer that feels beautiful and loved by Jesus will run to Him not from Him. 신부의 여정은 두 가지의 신앙고백으로 시작 되는데 (아 1:5) 난 이것을 '은혜의 역설'이라 부른다. 신부는 죄성을 가진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이 아름다운 존재라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 우리 자신이 더럽고 추한 존재로만 느껴지게 된다. 우리가 추한 존재라고만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추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며 살게 될 것이다. 자신이 더럽다고 느끼는 사람은 말 그대로 더럽게 살게 된다. 그러나, 미숙하지만 자신이 주님께 아름다운 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고 주님께 달려가게 된다.
- F. The more we see God's heart for ourselves, the more we see His ravished heart for others. God wants us to also see the beauty of the corporate Church. In relational difficulty, we must remember God's love (Song 1:4d) in knowing that He is ravished for all Christians (Song 4:9).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더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지닌 아름다움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복잡한 인간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사로잡힌 하나님의 마음 (아 4:9)을 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아 1:4).
- G. **Review:** in an introductory way, she confessed, "I am dark in my heart but lovely to God" (1:5). Then Jesus said, "You are beautiful, You are My love and your cheeks are lovely" (1:8a, 1:9b, 10). Then she sees Jesus as beautiful (1:12-14). Now He emphasizes, "You are beautiful" (1:15). **복습:** 도입부분에서, 신부는 "나는 마음이 검으나 하나님께 사랑스러우니 (아름다우니)" (아 1:5) 라고 고백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어여쁘다 (아름답다), 내 사랑, 네 두뺨은 사랑스럽구나"라고 대답하셨다 (아 1:8, 1:9, 10). 그 후, 신부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아 1:12-14). 또다시 맞장구를 치듯 주님은 신부에게 "아름답다"라고 거듭 강조하신다 (아 1:15).

V. THE BRIDE HAS EYES LIKE A DOVE

비둘기의 눈을 가진 신부

¹⁵***Behold, you are fair (beautiful), My love! Behold, you are fair! You have dove's eyes. (Song 1:15)***

¹⁵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름답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 1:15)

- A. In the Scripture, a dove is a picture of the Holy Spirit. There are several implications to this. 성경에서 비둘기는 보통 '성령님'을 상징한다. 여기서는 몇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B. **Single-minded:** a dove has no peripheral vision. It only sees straight ahead. It is not distracted by what is happening at its right or left. To have dove's eyes is to have a good eye (single-minded). **일편단심:** 비둘기는 주변 시야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정면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에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 쉽게 말해, 비둘기의 눈을 소유한다는 것은 '좋은 눈 (한 마음을 품는 것)'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²²***The lamp of the body is the eye. If your eye is good, your body will be full of light. (Mt. 6:22)***

²²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마 6:22)

- C. Loyalty: a dove will mate once in their life. If their mate dies, they never mate again. This speaks symbolically of loyalty. (**Note**: it is NOT disloyal for one to marry if their spouse dies).
충실함: 비둘기는 평생 한 짝만을 두고 산다. 짝이 죽으면, 다른 짝을 찾지 않는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충실함을 말한다. (참고- 배우자가 죽어 재혼하는 것을 불충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 D. The impact of seeing herself as beautiful to God in v. 15, is having greater singleness of vision. 15 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름답다’ 라는 계시를 가진 신부는 그에 힘입어 더 커다란 비전을 지니게 된다.
- E. The Holy Spirit is the ultimate One with “dove’s eyes.” He is single minded and loyal to Jesus. We ask the Spirit to give us “dove’s eyes.”
 ‘비둘기의 눈’을 가진 궁극적인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한 마음을 품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충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께 ‘비둘기의 눈’을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 F. Perspective: we want the Spirit’s perspective of Jesus and of our life. We to see Jesus as henna blooms or as fragrant and beautiful and to be single-minded in our obedience and in our faith in God’s grace that we would be confident by refusing all condemnation.
관절: 우리는 성령님의 관점으로 예수님과 우리 삶을 보아야 한다. 고벨화 송이와 같은 예수님, 향기롭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보며 일편단심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켜 모든 정죄를 거부하고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VI. HER WORSHIP AND FAITH: HER 5-FOLD RESPONSE

신부의 경배와 믿음: 다섯가지 응답

¹⁶*Behold, You are handsome, my Beloved! Yes, pleasant! Also our bed is green. ¹⁷*The beams of our houses are cedar, and our rafters of fir. (Song 1:16-17)**

¹⁶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멋있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¹⁷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 1:16-17)

- A. The Bride’s 5-fold response to the revelation of being loved and beautiful to God (1:15) is to see with dove’s eyes. She sees Jesus as handsome (the beautiful God), as the one she loves (Beloved) and pleasant as He leads her life to rest and security now and eternal glory in the age-to-come. 하나님께 사랑 받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계시 (아 1:15)와 비둘기의 눈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된 신부는 기쁨으로 예수님께 화답한다. 신부는 예수님을 ‘어여쁜 자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하는 자’ ‘삶을 안식과 평강으로 인도하는 분’ ‘다가오는 시대에는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 ‘화창한 (즐거우신) 분’으로 고백한다.
- B. She proclaims to Jesus, “You are handsome, my Beloved.” In other words, You are the beautiful God and I love you. The more she sees of Jesus’ beauty and the more she loves Him, the more spiritual pleasure she has in her walk with God (v. 16). This is described more in Song 2:3-5. When we see Jesus as beautiful and pleasant, then full obedience seems much more reasonable. 신부는 예수님께 “나의 사랑하는 분, 당신은 멋지십니다.” 라고 고백한다. 다시말해,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 신부는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더 큰 영적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16절). 아가서 2:3-5 은 이것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름다운 분, 즐거운 (화창한) 분으로 보게 될 때,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을 더 쉽게 납득할 수 있게 된다.

- C. Jesus promised us that we would have fullness of joy or that it would be pleasant and enjoyable to walk with God as we obey Him and abide in His love. We do this as we continue in an on-going dialogue (1:12-17). Our spirit can know this joy even when circumstances are difficult.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기쁘고 즐거우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데 동행이 될 거라는 약속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주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아 1:12-17). 주위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지라도,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⁹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abide in My love. ¹⁰If you keep My commandments, you will abide in My love, just as I have kept My Father's commandments and abide in His love. ¹¹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My joy may remain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full. (Jn. 15:9-11)

⁹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¹⁰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¹¹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니라 (요 15:9-11)

VII. ABIDING IN JESUS' LOVE: REST, CONFIDENCE AND GLORY (SONG 1:16-17)

예수님의 사랑안에 거하는 신부: 안식과 확신, 그리고 영광 (아 1:16-17)

¹⁶You are handsome, my Beloved! Yes, pleasant! Our bed is green (couch is luxuriant, NAS). ¹⁷The beams of our houses are cedar, and our rafters of fir. (Song 1:16-17)

¹⁶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¹⁷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 1:16-17)

- A. Abiding in Jesus' love brings her abundant rest and confidence in her life (1:16). The Bride is resting on a "luxuriant couch" or a bed that is green. Green fields were sometimes referred to as luxuriant fields or those with profuse growth. The couch of the Lord is plush, green and filled with life. It is not a desert (parched land). Our confidence is to be abundant as a luxuriant couch. 예수님의 사랑안에 거하면서, 신부는 풍성한 안식과 삶의 확신을 회복하게 된다 (아 1:16). 신부는 '비옥한 침상,' 또는 '푸른 침상'에서 안식하고 있다. '푸른 땅'은 때때로 '비옥한 땅', 또는 풍성한 성장을 주는 땅을 의미한다. 주님의 침상은 호화롭고, 푸르르며, 생명이 가득찬 침상이다. 광야 (바싹 매마른 땅)와는 대조된다. 이 비옥한 침상과 같이, 우리의 확신은 풍성함으로 넘쳐야 한다.
- B. The couch of the Lord speaks of our rest and confidence in the grace of God in two ways. 주님의 침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되는 안식과 확신을 두가지로 말해준다.
1. ***The rest of forgiveness:*** we experience this with the assurance that we are forgiven as a free gift in Jesus. We rest in receiving forgiveness because of the cross (2 Cor. 5:17). 죄사함 (용서)의 안식: 예수님 안에 값없는 선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으로 우리는 안식한다 (고후 5:17).

2. *The rest of intimacy*: we experience this as we pursue intimacy with God. There is no rest until we conclude the highest purpose of our life is intimacy with God. Our intimacy with God includes the wisdom of obeying Jesus' leadership. Augustine wrote, "Man does not rest until he finds his rest in God." We only find our ultimate purpose for life in being wholehearted in our love for God. Many with the assurance of forgiveness still strive to find purpose and a life of greatness that has no regrets at the Judgment Seat of Christ.
- 친밀감의 안식: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추구하면서 안식을 누린다. 삶의 제일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친밀감의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지혜를 담고 있다. 성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때만이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죄사함의 확신만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날 후회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 아직도 삶의 목적을 찾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다.
- C. There is no fear of condemnation now nor fear of regret as we stand before the Lord on the last day. Living in the Bridal paradigm leads us to confidence in our love for God and in the wisdom of our choices to obey even as the Church calls us religious and the world calls us foolish.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정죄의 두려움도, 후회의 두려움도 없어야 한다. 신부의 패러다임으로 살면, 교회가 우리를 종교적이라고, 또는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할 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
- D. We will live forever in relationship with God and in a house filled with beauty and strength. She refers to "our bed/couch" because it comes only in deep union of salvation (1 Cor. 6:17).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하며 아름다움과 능력이 가득찬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신부는 "침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오직 '구원'이라는 깊은 연합을 통해 나온 표현이다(고전 6:17).
- E. She said that the beams of their houses were of cedar, and their rafters were of fir (1:17). Beams and rafters provide the structure for a house. The structures of a house are hidden. Cedar and fir were the most permanent, expensive, beautiful and fragrant building material made of wood in Solomon's day. Cedar and fir trees were used in building the Temple, so that its structures would not decay. Wood in the Temple is a picture of humanity. 신부는 그들의 '집'이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 되어 있다고 말한다 (아 1:17). 들보와 석가래는 집의 뼈대 구조를 잡아준다. 집의 뼈대 구조는 겉에서 보이지 않는다. 백향목과 잣나무는 솔로몬 시대 당시 건물의 목재로 사용 되었는데, 뛰어난 내구성과 아름답고 향기로운 목재로 매우 값비싼 나무였다. 백향목과 잣나무는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어 그 구조의 부패를 오랫동안 막아 주었다. 성전에 쓰인 목재는 '인류'를 상징한다.

- F. God is building an enduring house. Our dwelling with the Lord is strong, permanent and durable. Jesus became a man so that He could provide a permanent house for His Bride. Our house in God is strong. It will last forever. It is beautiful. We will dwell together with Jesus in beauty and strength forever. She sees the house as “our house” or their dwelling place together forever. 하나님은 영원한 집을 짓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처소는 강하고 영원하며 내구성이 매우 뛰어난 처소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기에, 주님의 신부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실 수 있게 되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튼튼한 집이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튼튼한 집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신부는 그 집을 ‘우리의 집’ 또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처소라 고백하고 있다.

¹⁹You are...members of the household of God...²² in whom you also are being built together for a dwelling place of God in the Spirit. (Eph. 2:19-22)

¹⁹...너희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²²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2:19-22)

⁵You...are being built up a spiritual house... (1 Pet. 2:5)

⁵너희도 ...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벧전 2:5)

Session 12 *The Bride's Identity in God's Love (Song 2:1-7)* 하나님의 사랑안에 있는 신부의 정체성 (아 2:1-7)

I. THE BRIDE'S UNIQUE SPIRITUAL IDENTITY: HER 2-FOLD CONFESSION 신부의 영적 정체성: 두가지 고백

A. The Father promised to give Jesus an eternal companion as His inheritance (Eph. 5:31-32; Rev. 19:7-9). A Bride who would voluntarily choose to be equally yoked to Jesus in love, is the great prize of all the ages that Jesus awaits. Our heart is God's most precious possession. Jesus would only die in order to possess human affections. The reason we were created and redeemed is to love Jesus with all our heart as His inheritance and thus, to bring Him joy and pleasure.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영원한 동반자'를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엡 5:31-32; 계 19:7-9).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사랑의 멍에'를 자원함으로 지려는 신부야말로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신 최고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재산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 예수님은 죽음을 감당하셨다. 우리가 창조되고 구속받은 이유도 '주님의 기업'으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함이다.

B. The Bride is pictured as a beautiful rose that longs to fully love Jesus and a pure lily that longs to fully obey Him. First, she is made beautiful and pure by His own righteousness and then it is worked into her heart by the Holy Spirit. The Bride is the rose. The rose and the lily speak of the same person. Jesus identifies the lily as the Bride in the next verse (Song 2:2).

여기서, 신부는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장미',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기를 바라는 정결한 '백합화'로 그려진다. 주님은 먼저, '주님의 의'로 신부를 아름답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신부 안에서 일하신다. 신부는 '장미'이다. 여기서 장미와 백합화는 신부를 말한다.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 신부를 '백합화'에 비유하신다(아 2:2).

'I am the rose of Sharon, and the lily of the valleys. (Song 2:1)

'나는 사론의 수선화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아 2:1)

C. In poetic language, the Bride declares the uniqueness of her identity as Jesus' inheritance. She presents herself to God with this 2 fold confession which reflects that she feels desired by God and clean before Him. This revelation follows the foundational truths seen in Song 1:12-17. The Bride's first confession was, "I'm dark, but lovely" (Song 1:5). She understood that she was beautiful to God even in her weakness. Then Jesus affirmed her beauty (Song 1:8, 15).

신부는 시적 표현을 사용해 '예수님의 기업'인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한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 신부는 이 두가지 고백을 사용하는 데, 이 계시는 아가서 1:12-17 에 나타난 근본 진리를 따른다. 신부의 첫번째 고백은 "나는 검으나, 아름다우니" 였다 (아 1:5). 신부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아름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고백후에, 예수님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다시 확증시켜 주셨다 (아 1:8, 15).

D. *The rose is chosen for its color, beauty and fragrance (as the chief of flowers). The rose of Sharon is used to illustrate how beautiful God will make the wilderness (Isa. 35:1-2).*

장미는 그 색과, 아름다움, 그리고 향기때문에 '꽃중의 꽃'으로 선택되었다. '사론의 수선화 (장미)'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얼마나 아름답게 바꿔 놓으실 지를 설명하는데 사용 되기도 했다 (사 35:1-2).

E. She now sees that she is Jesus' inheritance or the rose that intoxicates and captures His heart. There is only one prize that He longs for. To be THE inheritance the Father has promised Him is indescribable. Our hearts are changed as we confess, "I am the inheritance You promised Jesus." 신부는 자신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취하게 만드는 장미', 즉 '예수님의 기업'이라는 진리를 알게 된다. 주님이 사모하는 상급은 딱 한 가지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한 '기업'인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되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약속한 바로 그 기업입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은 변화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F. We must pray to receive revelation that we are the inheritance the Father promised the Son. God has made a great investment in us by choosing us to be the one rose He is cultivating for Jesus.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이다"라는 계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 '예수님을 위한 장미'가 되게 하시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셨기 때문이다.

17 That the Father of glory, may give to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that you may know... what are the riches of the glory of His inheritance in the saints... (Eph. 1:17-18)

¹⁷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¹⁸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엡 1:17-19)

G. She sees herself in the purity of a lily that grows in a dark valley. A lily speaks of purity. The valley speaks of the low and dark places in this fallen world. God only has one lily in the valley of this fallen world. The Church is unique in being the only people who have been made pure in God's sight as a gift and then seek to fully walk it out. She has darkness in her heart (Song 1:5). 신부는 자신을 '어두운 골짜기에서 자란 정결한 백합화'로 본다. 백합화는 '정결'을 뜻한다. '골짜기'는 비천하고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타락한 세상을 말한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의 '골짜기'에 한 송이의 백합화를 두셨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로 정결케 되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백성들로, 주님께는 매우 특별한 존재이다. 물론, 신부는 여전히 '검은 심령'을 가지고 살지만 말이다 (아 1:5).

H. First, she feels clean, innocent and pure before God because of Jesus' death on the cross for her. The Church is the pure lily among all the thorns of the false religions of this world. Second, the true Church seeks to fully walk in this purity which is our birthright in God.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가득한 '가시들'과 같은 '거짓 종교들' 가운데 거하는 '정결한 백합화'이다. 진실한 교회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상속권'인 정결함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 가도록 힘쓰는 교회이다.

I. God sees us beautiful in His sight for four reasons. First, we received the gift of righteousness (2 Cor. 5:17-21). Second, we have a willing spirit imparted to us at the new birth (1 Jn. 3:9; Mt. 26:41). Third, the nature of God's personality or His emotional make up determines how He sees us and feels towards us (Isa. 55:7-9). Fourth, our eternal destiny as Jesus' bride for billions of years affects how God sees us now.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데에는 네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는 의의 선물을 받았다 (고후 5:17-21). 둘째, 우리는 거듭날 때 자원하는 심령을 받았다 (요일 3:9; 마 26:41). 셋째, 하나님의 성품 즉, 주님이 일반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시는 지에 따라 결정된다 (사 55:7-9). 넷째, 하나님은 수십억년 동안 (영원토록) 예수님의 신부로 살게 될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 보신다.

1. We are as pure virgins who are made clean by the gift of righteousness (2 Cor. 11:2-3). This relates to how we carry our heart in our quest to be holy and in our failure to do so. **We stand in the truth as we refuse condemnation.**
우리는 의의 선물로 정결케 된 ‘순결한 처녀’와 같다 (고후 11:2-3). 이 정체성은 거룩함을 위한 여정에 꼭 필요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삶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죄책감을 거부하고 이 진리위에 굳게 서야 한다.
 2. We are those He longs for. He chose us as His eternal partner, as His bride. This relates to how we carry our heart in our pursuit of our ultimate importance. We must stand in the truth that we have great importance in being desired by God as we refuse rejection. 주님이 간절히 사모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들이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동반자, 주님의 신부로 택하셨다. 이 진리는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가치를 깨닫는 데에 꼭 필요한 진리이다. 거절감을 거부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대상이라는 진리위에 굳게 서야 한다.
- J. Our primary identity (value/success) is found in who we are in our intimacy with God. Our intimacy with God consists of being loved by God and in being a lover of God. I confess, **“I am loved (by God) and I am a lover (to God/others) therefore, I am successful.”**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 (가치/성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라는 진리가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며, (하나님/타인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 K. The Lord declares that we are the rose and lily before Him. This breaks shame and a sense of failure and inferiority in us. This confession redefines our life. It defines our true success.
주님은 우리를 ‘장미’, ‘백합화’로 선포하신다. 이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과 실패감, 열등감을 제거해 주며, 우리 삶의 진정한 성공을 재정의 해준다.
- L. We find our identity or success in being desired by God and in loving Him instead of seeking our primary value in how much we accomplish or the impact we make. We stand in the truth that we are most successful because we are desired by God and love Him as we refuse fear of failure.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성공을, 달성한 업적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통해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사모하는 존재’라는 진리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통해 찾아야 한다. 실패의 두려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진리위에 서야 한다.
- M. We measure the success of our life by how much we grow in intimacy, meekness and revelation. We must agree with God’s definition of success which is opposite of the world’s.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변화, 그리고 계시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면서 삶의 성공 여부를 측정해야 한다. 세상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성공여부를 가려야 한다.
- N. Many believers agree with lies about what success is. They feel like a failure and thus, they live aimless. We have no need to imitate the success of the world or be intimidated by its opinions.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적 성공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 그래서, 실패감 속에 목표와 목적을 상실한 채로 살아간다. 우리는 결코 세상적인 성공을 모방할 필요도 없으며, 세상적인 견해들에 압박을 받을 필요도 없다.

- O. The power of our life is found in being aware that we live before a God who cares about the smallest movements of our heart toward Him. He esteems, remembers and rewards them. The Lord deeply values the effort we make in cultivating a responsive heart of love to God. The power of Paul's vibrant heart was found in the revelation that he felt well known by God. 주님을 향한 아주 조그마한 (순종의) 마음의 움직임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권능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을 기억하시고, 칭찬하며, 상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조금씩 가꾸어 나가는 우리의 노력을 주님은 매우 높게 평가하신다. 사도 바울이 지녔던 열정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의 마음)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계시에서 비롯된 것이다.

¹¹*We are well known to God... (2 Cor. 5:11)*

¹¹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워졌고... (고후 5:11)

- P. This revelation and pursuit is at the beginning of her spiritual journey. Notice that there are 7 more chapters in this love Song. Thus, this revelation is essential in the beginning of our journey. 이 계시와 삶의 추구는 그녀의 영적 여정의 시작이다. 아가서에는 7 개의 장이 더 남아 있다는 것에 주의하라. 그러므로 이 계시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다.

- Q. We are unique in our value to God. Note: there is only one rose and one lily in God's purpose. The NIV says, "I am a rose and a lily" instead of THE rose and lily as most translations say.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 이다. 참고: 하나님의 목적에는 오직 한송이의 장미와 한송이의 백합화만이 있다.

II. JESUS AFFIRMS THE BRIDE'S UNIQUE VALUE AND BEAUTY (SONG 2:2)

신부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확신시켜 주시는 예수님 (아 2:2)

- A. Jesus affirms her confession by declaring that He sees her in the uniqueness of a pure lily. 예수님은 신부를 '정결한 백합화'로 귀하게 여긴다고 선포 하시면서, 신부의 고백을 확신시켜 주신다.

²*Like a lily among thorns, so is My love among the daughters. (Song 2:2)*

²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아 2:2)

- B. Thorns speak of sin because they came forth as the result of the curse of Adam's sin (Heb. 6:8). '가시'는 죄를 뜻한다. 가시는 아담의 죄, 곧 그 저주의 결과로 나왔기 때문이다. (히 6:8)

¹⁷*Cursed is the ground for your sake...¹⁸ Thorns it shall bring forth for you... (Gen. 3:17-18)*

¹⁷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¹⁸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 낼 것이라 (창 3:17-18)

III. HER UNDERSTANDING OF HIS UNIQUE VALUE AND BEAUTY (SONG 2:3A)

예수님의 특별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게되는 신부 (아 2:3)

- A. The Bride declares Jesus' unique glory in being like an apple tree among the trees. In other words, of all the men of the earth, Jesus alone is a refreshing apple tree to the human heart. 신부는 뛰어난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을 '수풀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선포한다. 다시말해, 이 땅의 모든 남자들 중에, 예수님만이 홀로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사과 나무'라는 것이다.

³*Like an apple tree among the trees of the woods, so is my Beloved among the sons. (Song 2:3a)*

³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아 2:3)

- B. The apple tree speaks of that which refreshes.
‘사과 나무’는 ‘시원케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⁵Refresh me with apples, for I am lovesick. (Song 2:5)
⁵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음이니라 (아 2:5)
- C. She understands that that Jesus is the most refreshing Person that exists.
신부는 이 땅에서 자신을 가장 상쾌하게 해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²You (Jesus) are fairer than the sons of men...God has blessed You forever. (Ps. 45:2)
²왕(예수님)은 인생(인자들)보다 아름다와 ...그러므로 하나님은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시 45:2)
- ¹⁶Yes, He is altogether lovely. This is my Beloved, and this is my friend... (Song 5:16)**
¹⁶...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아 5:16)
- D. The trees of the woods speak of the great men of the earth who tower over others as lofty trees.
‘숲의 나무들(수풀)’은 다른 나무들보다 우뚝 솟은 나무들로, 이 땅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을 말한다.
¹²The day of the LORD of hosts shall come upon everything proud and lofty...¹³on all the cedars of Lebanon that are high and lifted up, and on all the oaks of Bashan... (Isa. 2:12-13)
¹²대저 만군의 여호와와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¹³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삼수리 나무와 (사 2:12-13)
- ¹⁰Behold, a tree in the earth, and its height was great. ¹¹The tree (reign of Nebuchadnezzar) grew and became strong...¹⁴ He (angel) cried, ‘Chop down the tree... (Dan. 4:10-14)**
¹⁰...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¹¹(네브갓네살 통치때)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¹⁴그 (천사)가 소리 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 (단 4:10-14)

IV. SPIRITUAL REST AND ENJOYMENT IN JESUS (SONG 2:3B-4)

예수님 안에 누리는 영적 안식과 즐거움 (아 2:3-4)

- A. We rest under Jesus’ shade as we feed at His table. We cannot rest in our achievements. We rest in His shade, not ours. There is only one tree that can give us shade. We cannot produce it so as to refresh ourselves. We will not be refreshed if we relate to God on the basis of our maturity. 주님의 상에서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늘’ 아래 안식한다. 우리가 성취한 업적을 보면서도 우리가 안식할 수 없다. 우리의 그늘이 아닌, 주님의 그늘 아래 안식해야 한다.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무는 ‘주님의 나무’밖에 없다. ‘새롭게 되는 심령’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우리 자신의 외적 성숙도를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새롭게 될 수 없다.
³I sat down in His shade with great delight, and His fruit was sweet to my taste. (Song 2:3b)
³...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아 2:3)
- B. We can experience great delight as we feast on His Word at Jesus’ table. It is our inheritance to be able to testify of experiencing, “great delight,” and “sweet fruit” in our fellowship with God. 우리는 예수님의 잔치 상에서 말씀을 먹으며 커다란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커다란 기쁨”과 “달콤한 실과”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며 기쁨이다.

- C. The sweet fruit is the result of relating to Jesus as our beautiful Bridegroom King and receiving revelation of His Word. Dead and cruel religion is bitter to our taste. Enjoying God is essential to a consistent maturity. To grow consistently for decades, we must enjoy fellowship with God. ‘달콤한 실과’는 아름다운 신랑이요, 왕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주님 말씀에 대한 계시에서 오는 열매를 말한다. 죽어버린 종교, 잔인한 종교들은 우리의 ‘입맛’을 쓰게 한다. 지속적인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기본이다. 수십년에 걸친 지속적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겨야 한다.
- D. We can know the superior pleasures of the Word. There is no greater pleasure available to the human spirit than when we feel enjoyed by and have the power to enjoy Him and to feed on His Word with revelation. We can persevere through many great difficulties with such delight.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뛰어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능력’으로 말씀에 대한 계시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이 기쁨으로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다.
- E. She asked, “Where will You feed your flock?” (Song 1:7). She had been eating at the King’s table (Song 1:12). She feeds on God’s love and Word. The Bride celebrates at Jesus’ table as she overflows with the truths as seen in Song 1:12-2:3. 신부는 “어디서 양떼를 먹이십니까?”라고 주님께 물었다 (아 1:7). 주님은 왕의 상에서 신부를 먹이셨다 (아 1:12).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양식을 먹었다. 신부는 그 상에서 아가서 1:12-2:3 에 나오는 진리들로 풍성한 잔치를 벌이고 있다.
- F. We feed on the Word in the presence of our enemies (sin, disappointment, difficulty, etc.). 우리는 원수 (죄, 실망, 고난 등등)의 목전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⁵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Ps. 23:5)
⁵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시 23:5)
- G. We are called to feast at God’s banqueting table. The fulfillment of this occurs at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Rev.19:7). The communion table prophetically points to this. This is translated by some as the “house of wine” or the place where God’s wine flows. The wine house of celebration refers to rejoicing in the love of God by the power of the Spirit.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잔치 상’에 초대받았다. 이 잔치의 완성은 ‘어린양의 혼인잔치’에서 성취된다 (계 19:7). 성찬 (식)상도 상징적으로 이것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포도주의 집” 또는, ‘하나님의 포도주가 흐르는 곳’으로 해석한다. 향연이 벌어지는 포도주의 집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맘껏 즐기는 곳을 의미한다.
⁴He brought me to the banqueting house, and His banner over me was love. (Song 2:4)
⁴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아 2:4)
- H. The Lord is the One who brings us to His table or banqueting house or to where we celebrate His love. The King brought the Bride into His chambers (Song 1:4). Jesus carries those who lose their way to the path of life (Lk. 15:3). God’s sheep often resist before they embrace this. 주님의 상이 있는 잔치 집, 즉, 주님의 사랑을 맘껏 즐기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왕은 신부를 침궁으로 인도했다 (아 1:4). 예수님은 길을 헤매이는 자, 잃어버린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눅 15:3). 안타깝게도, 길을 잃고 헤매이는 하나님의 양들 중에는 이 진리를 거부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 I. Jesus has a plan to bring us to the “celebration of His love” in the banqueting house. He brings us to the table us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ways because He is jealous to remove everything that hinders love in us. Sometimes we follow His leadership to the table voluntarily as He brings us by the sweetness of the Word to us, or by giving us dreams or visions or by the joy of a new friendship. Sometimes He disciplines us or hems us in by shutting doors that frustrate our plans. 예수님은 잔치집을 “주님의 사랑을 축하”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상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주님은 긍정적, 부정적 방법을 모두 동원하신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달콤한 말씀을 통해, 꿈이나 환상을 통해, 또는, 새로운 우정의 기쁨을 통해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의 리더십을 따르며 주님의 상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문들을 닫으시고 우리의 계획들을 좌절 시키셔서, 우리를 꺾달달 못하게 훈련시키시며 주님의 상으로 인도하기도 하신다.

V. **JESUS’ BANNER OVER HER LIFE: HIS LOVING LEADERSHIP (SONG 2:4)**
신부의 삶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깃발: 사랑의 리더십 (아 2:4)

4He brought me to the banqueting house, and His banner over me was love. (Song 2:4)

4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아 2:4)

- A. The wise and loving leadership of Jesus brings confidence to us. In the ancient world, an army would march in battalions under a specific flag or banner. Each unit had their own banner. 예수님의 현명한 리더십, 사랑의 리더십은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준다. 고대의 군대는 특정한 기, 또는 깃발을 들고 대대적 행진을 벌였다. 작은 단위의 소부대들도 자신들의 깃발을 가지고 있었다.
- B. The banner over our life is Jesus’ loving leadership. It is manifest in various ways. First, this banner speaks of our confidence in God’s mercy. The banner over our life is not rejection when we fail. We confess, “I am beloved of God even when I fail.” Second, the banner speaks of Jesus’ ability to overrule the negative circumstances in our life to work everything for our good (Rom. 8:28). The banner over us is not neglect. Third, the banner over us is the love of God that exhilarates our heart and not the false comfort that comes from sin. 우리 삶 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깃발’은 ‘사랑의 리더십’으로, 삶의 여러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먼저, 이 깃발은 하나님의 자비로 갖게되는 ‘확신’을 말한다. 우리가 실패할 때, 주님이 주시는 깃발은 절대 거절감이 아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 받는 자입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해야 한다. 둘째, 이 깃발은 우리 삶의 부정적인 환경도 바꾸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한다 (롬 8:28).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깃발을 절대 무시해서는 않는다. 세째, 이 깃발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가 주는 ‘거짓된 위안’이 아니다.
- C. We confess that Jesus is THE apple tree that refreshes us in our failure and pain and that His banner over our life is His wise and loving leadership in temptation and while under pressure.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 “예수님은 나의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나를 새롭게 하시며, 유혹과 삶의 압박 가운데서도 ‘지혜롭고 사랑스런 리더십’이라는 깃발을 내 위에 세우시는 ‘사과나무’입니다.”

VI. THE BRIDE CRIES OUT FOR GREATER INTIMACY WITH GOD (SONG 2:5)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신부의 부르짖음 (아 2:5)

- A. The Bride cries out for a greater intimacy with God. The more we understand Song 1:12-2:4 the more our appetite for God increases. The Lord is answering her prayer “*draw me*” (Song 1:4). 신부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싶어 부르짖는다. 아가서 1:12-2:4 의 뜻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더 증가되게 된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소서” (아 1:4) 라는 신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⁵*Sustain me with cakes of raisins, refresh me with apples, for I am lovesick. (Song 2:5)*

⁵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음이니라 (아 2:5)

- B. As the apples speaks of the refreshing of Jesus (Song 2:3), so the raisins speak of the ministry of the Spirit since they are dried grapes. Grapes symbolically point to the wine of the Spirit. In other words, she cries, “Sustain me with more of the Spirit and refresh me with more of Jesus.” ‘사과’가 시원케 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처럼, 마른 포도인 ‘건포도’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한다. 포도는 상징적으로 ‘성령님의 포도주’를 말한다. 다시말해, 신부는 “성령님을 더 부어 주셔서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더 내게 임하셔서 나를 시원케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다.

- C. She has a clear life vision to experience as much as God will give the human spirit in this age. God is deeply pleased when we live lovesick. The revelation of God’s affection for her has produced a new painful hunger of love to have more of God. When we touch this, we can never go back to “business as usual” in our walk with God. She is ruined.

신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누리고 싶은 삶의 비전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앓이’를 하며 사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신다.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가, 그녀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고통스러운 만큼의 ‘배고픔 (목마름)’을 창출해 냈다. 이것을 일단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 예전의 “평범했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된다. ‘예수님의 사랑’ 속에 폭 빠져 들게 되기 때문이다.

- D. Two different aspects of spiritual lovesickness.

영적 사랑앓이의 두가지 측면.

1. “Feelings of love” – She feels loved by God in such a strong way. In this, she is empowered with strong feelings of love for God. We love to feel love for God. “사랑의 감정들”-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사랑의 권능을 입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낌을 좋아한다.
2. “Spiritual hunger pains” – When God awakens a new vision in us to seek for the fullness of walking in the Spirit, He does not immediately satisfy it. It is a painful, desperate, even agonizing hunger. Lovesickness will not be satisfied with anything less than persevering. These desperate hunger pains are proof that we have been touched by God. “영적 굶주림의 고통들” –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도록 새로운 비전을 일깨워 주실 때, 그것을 쉽게 충족시켜 주시지는 않는다. 그것을 통해 생기는 배고픔은, 고통스럽고도 절박하며, 심지어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까지 느낄 정도의 굶주림이다. ‘사랑앓이’의 해법은 오직 인내 밖에 없다. 우리에게 절박한 굶주림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증거를 나타낸다.

³*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⁴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Matt. 5:3-4)*

³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⁴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 5:3-4)

VII. EXPERIENCING GOD'S 2-FOLD EMBRACE (SONG 2:6)

하나님의 품으심 (포옹) 경험하기 (아 2:6)

⁶His left hand is under my head, and His right hand embraces me. (Song 2:6)⁶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아 2:6)

- A. The Bride understands God's 2-fold activity in her life, the right and left hand of God. 신부는 자신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두가지 활동을 잘 알고 있다. 이 두가지 활동은 하나님의 '왼손과 오른손'을 말한다.
- B. The left hand of God speaks of the activity of God that we cannot see. It is under the head therefore, it is out of view. The Lord does many things for us that we do not see. He withholds and releases many things to bless, provide and protect us. He spares us from troubles and pains that we are not ever aware of in this age. For example, we have been delivered from accidents we did not discern. Other examples include God preparing one's future spouse in an unseen way. 하나님의 '왼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활동과 역사를 말한다. 왼손은 머리 밑에 감춰져 있기에 볼 수가 없다.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많은 영역들 가운데 일하신다. 축복과 공급, 보호를 위해 많은 것들을 묶어 놓기도 하시고, 풀기도 하신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전혀 알 수도 없는 여러 문제들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신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고위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며, 보이지 않게 우리의 장래의 배우자를 예비하시기도 하신다.
- C. The right hand of God speaks of the visible or discernable activity of God. The idea is that Solomon stood in front of the Bride to embrace her. She can see and feel it. This speaks of the "sweet" manifest presence of God that can be felt and discerned. At times, we feel our heart tenderized by the working of God's right hand. 하나님의 '오른손'은 보이는 하나님의 활동과 역사를 말한다. 솔로몬이 신부앞에 서서 신부를 안으려는 모습을 생각해 보자. 신부는 솔로몬을 보고,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달콤한"임재의 경험을 말한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오른 손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VIII. THE HOLY SPIRIT GUARDS US IN STRATEGIC SPIRITUAL SEASONS (SONG 2:7)

전략적인 영적 계절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 (아 2:7)

⁷I charge you, O daughters of Jerusalem, by the gazelles or by the does of the field, do not stir up nor awaken love until it pleases. (Song 2:7)⁷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 2:7)

- A. The Holy Spirit has ordained strategic seasons in each person's spiritual life. There are seasons, where He desires to establish our heart in new and deep revelations of His heart. Many do not see the necessity of dedicating seasons of their life to go deep in God and His Word. John was told to eat the scroll or to understand God's word in an unusually deep way (Rev. 10:9-11).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은 때때로 전략적인 계절들을 위임하신다. 이 계절 가운데, 성령님은 '주님의 마음에 대한 새롭고 깊은 계시'를 우리 안에 확립하고자 하신다. 하지만, 이렇게 삶의 한 계절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말씀안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을 한 번 보라. 그는 인봉책을 먹도록, 다시말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도록 지시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다 (계 10:9-11).

- B. The Spirit's agenda for the Bride in this season was to awaken lovesickness and to go deep in the Word. She is resting in Jesus' shade, feeding on apples and grapes at the wedding table.
이 계절동안 성령님은, 신부 안에 주를 향한 사랑앓이를 일깨우고, 말씀에 깊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끄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 신부는 예수님의 그늘 아래 안식하며, 잔치상에 있는 '사과와 포도'로 자신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킨다.
- C. The Spirit solemnly charges other believers to not disrupt or disturb the Bride in this season by their opinions and judgments. We can trust Jesus to disturb us when it is time to change seasons. This is seen clearly in Song 2:8. The daughters of Jerusalem represent believers who lack discernment of the various operations of the Spirit and the different seasons in God.
이 계절동안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신부를 깨우거나 방해하지 말아 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영적 계절이 바뀔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알아서 직접 우리를 깨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아 2:8 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성령님의 다양한 활동과,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계절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신자들을 말한다.
- D. Solomon charged them by the gazelles or by the does of the field (Song 2:7). "By the gazelles" or "by the does of the field" speaks of the importance of gentleness and sensitivity in relating to the young Bride in this season. A gazelle or doe is easily startled. Many are easily distracted from the Word of God. The saints must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gentle sensitivity in relating to others in different seasons.
솔로몬은 '노루와 들사슴'으로 그들에게 부탁한다 (아 2:7). '노루'와 '들사슴'은, 이 영적 계절에 머물고 있는 어린 신부를 사람들이 온유하고, 민감하게 대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노루나 사슴은 쉽게 놀라는 동물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쉽게 시선을 빼앗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영적 계절에 있는 사람들을 온유함과 민감함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인식해야 한다.
- E. This is illustrated well by Jesus correcting Martha who was so easily distracted as she sought to bring her sister Mary into the same mindset (Lk. 10:38-42). Mary took serious the call to cultivate the ability to respond to God in love with extravagant devotion. Mary has chosen that good part (v. 42). We must choose this part. No one can choose it for us. Jesus forever settled the debate about the importance of sitting at His feet by calling it the "one thing needed" and the "good" way to live. Her decisions had eternal implications.
이것에 대한 좋은 예는 베다니 마리아의 이야기다. 동분서주하며 주의산만했던 마르다. 동생 마리아를 자기와 같이 만들려던 마르다를 예수님은 교정하신다 (눅 10:38-42). 마리아는 주님 발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낌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해 나가는 부르심을 신중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나온다 (42절). 우리도 이 '좋은 편'을 택해야 한다. 우리 대신 결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은 '주의 발아래 앉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 - 역자주)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 그것을 '필요한 한가지'와 삶의 '좋은' 길이라고 표현하셨다. 이것을 통해, 여러가지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중지부'를 찍으신 것이다. 마리아의 결정은 우리의 영원한 부르심을 함축적으로 말해준다.

- F. In the phrase, “Until it pleases”, the Hebrew can be translated as it, he or she. The NAS accurately translates the phrase as “Don’t awaken love until she pleases” instead of “until it pleases.” If the Hebrew word was translated He then it would refer to the Lord being awakened or stirred to action by the daughters of Jerusalem. The Lord has no need to be awakened by the daughters of Jerusalem. The Lord has no need to be protected from harsh treatment by the gentleness pictured by the gazelles or does of the field. It is the young Bride that must be protected from distraction. Three times Jesus speaks this phrase, “Don’t arouse or awaken my love until it pleases.” (2:7; 3:5; 8:4). In 8:4, He uses the same phrase “don’t disturb her.” He embraces her like the other 2 times. However in this third reference, He omits the phrase “by the gazelles of the field” because she is no longer immature and easily tossed to and fro (Eph. 4:14).
 “내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에서, ‘내 사랑’은 히브리어로 그것, 그, 또는, 그녀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NAS 성경역본은 이 구절을 “그녀가 원하기 전까지는 사랑을 깨우지 말라”라고 정확히 번역하고 있다. “그것이 원하기 전까지는”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가’라고 번역하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주님을 깨우는 결과가 되는데, 주님은 노루나 들사슴 같이 쉽게 놀라거나, 보호받아야 하는 분이 아니다. 방해받지 말아야 할 사람은 어린 신부다. 아가서 전체를 통해, 예수님은 이 구절을 세번 반복하신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 깨우지 말라” (아 2:7; 3:5; 8:4). 8장 4절에서는 “그녀를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8장에 나오는 구절에서도, 주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부를 품으신다. 그러나, “노루나 들사슴”이라는 표현은 생략하신다. 그것은, 신부가 성숙하게 되어, 예전처럼 쉽게 놀라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엡 4:14).
- G. The Spirit has different emphases in different seasons in our life. I think of the four seasons in the natural calendar. The “spring” is where God sows new seeds of truths (revelations, challenges, invitations, etc.) into our life. The spring is new and exciting! The “summer” is where these new seeds of truth and experiences are cultivated (watered, weeded and pruned). There is growth in this season yet much labor under a hot sun. The “autumn” is the harvest season. This is when the fruit of our labors comes to maturity and when others reap the benefits of our labors. This is a season of celebration. The “winter” is a season of death. After the harvest the winter comes and all dies. The winter season prepares the ground for the next harvest time.
 삶을 사는 동안,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영적 계절을 부여 하시는데, 이것을 사계절에 비유할 수 있다. ‘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진리 (계시, 도전, 초청, 등)의 씨앗을 심으신다. 봄은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로 우리를 흥분시킨다. ‘여름’은 심겨진 진리의 씨앗들과 경험들을 가꾸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지를 치는) 계절이다. 성장의 계절이지만, 뜨거운 태양아래 많은 수고가 요구되는 계절이기도 하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 열매가 무르익고, 다른 이들이 함께 그 유익을 누리는 축화와 잔치의 계절이다. 마지막으로,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다. 추수가 끝난 후,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죽게된다. 그러나, 겨울은 다음 해의 추수를 위해 땅이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Session 13 Challenging the Comfort Zone (Song 2:8-17)

도전받는 안락의 지대 (아 2:8-17)

I. THE BRIDE'S IDENTITY AND LIFE PURPOSE: BEING JESUS' INHERITANCE

신부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 예수님의 기업이 되는 것

A. The Bride has just understood her spiritual identity and life purpose as being Jesus' inheritance that the Father promised Him. Jesus wants more than mandatory obedience. He longs for an eternal companion (Bride) who voluntarily chooses to love Him with adoring obedience.

신부는 이제 자신의 영적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수님은 의무적 순종,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다시말해, 순종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영원한 동반자 (신부)'를 갈망하신다.

B. The affections of the human heart are the most precious possession to God. There is nothing that He wants more. Jesus died to redeem and thus possess human affections.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재산은 인간이 소유한 '사랑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원치 않으신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속하시고, 인간의 사랑을 얻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C. Jesus has a specific plan or purpose for each believer. Its to bring each of us to the place of feasting at God's banqueting table. In other words, to celebrate His love for us and ours for Him. Jesus' primary goal in His leadership over our lives (His banner over us) is to lead us in a way that reveals and imparts His love to us. We are first called to remember His love (Song 1:2, 4).

예수님은 각 사람을 향한 특정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상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다시말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축하하며 잔치하기 위함이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리더십의 목표 (우리를 향한 깃발)는 그 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눠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부르심이 있다 (아 1:2,4).

⁴*He brought me to the banqueting house, and His banner over me was love. (Song 2:4)*

⁴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아 2:4)

D. She is lovesick, thus, Jesus' leadership in her life was effective. She cries out for more of Jesus.

신부가 사랑앓이를 하고 있기에, 신부의 삶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더 큰 효력을 발휘한다. 신부는 예수님을 향한 더 큰 갈급함으로 부르짖는다.

⁵*Sustain me with cakes of raisins, refresh me with apples, for I am lovesick. (Song 2:5)*

⁵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음이라 (아 2:5)

E. The Spirit solemnly charged others to not disturb her as she sat at the wedding table under the apple tree. However, the Lord is now disturbing her as the season in her life suddenly changes.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사과나무 그들 아래 혼인 잔치상에 앉아 있는 신부를 방해하지 말아 줄것을 정중히 부탁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흘러, 신부를 새로운 계절로 이끄시기 위해, 직접 신부를 깨우시게 된다.

⁷*I charge you...do not stir up (disturb) nor awaken love until it pleases. (Song 2:7)*

⁷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방해하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 2:7)

II. OVERVIEW OF SONG 2:8-17

아가서 2:8-17 개관

- A. This passage marks the beginning of a significant turning in the maiden's life. The depth her commitment as seen throughout Song 4-8 flows out of this new revelation of Jesus. He reveals Himself to her as the sovereign King over the nations (the third revelation of Jesus in the Song). She only knew Jesus as the counseling shepherd (Song 1:7-11) and the affectionate Father (Song 1:12) sitting at the table feeding her grapes and apples with love. Now she sees a different aspect of His personality as she sees Him as one who can easily leap over all mountains (obstacles).
이 본문은 솔라미 여인의 삶에 주목할 만한 '전환점'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다. 아가서 4-8 장에 나오는 신부의 깊은 헌신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통해 생기게 된다. 여기서, 예수님은 열방을 다스리는 '주권적인 왕'의 모습을 신부에게 보여주신다 (아가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세번째 계시). 신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양떼 먹이시는 '목자' (아 1:7-11)로, 잔치 상에서 사랑으로 포도와 사과를 먹이시는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로 (아 1:12)만 알아왔다. 이제, 신부는 모든 '산들 (장애물)'을 쉽게 뛰어 넘어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 즉, 새로운 면모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된다.
- B. In Song 1:4 the maiden prayed, "Draw me and we will run after You." A spiritual crisis in her life begins as Jesus now introduces the "Let us run" phase of her life. This is her second crisis as she discovers her fear. In Song 1:5-7 she faced her first spiritual crisis as she discovered her sin.
아가서 1:4 에서 솔라미 여인은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를 따라 달려가리라"라고 기도했다. 신부의 두번째 영적 위기는 예수님이 "함께 달려가자"라고 소개하시는 새로운 계절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신부는 자신의 두려움을 발견하며, 두번째 위기를 맞게 된다. 첫번째 신앙의 위기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 아가서 1:5-7 였다.
- C. Jesus called her out of the comfort zone that she might experience deep partnership with Him. She refuses to obey because of fear as she tells Him to turn and go without her (Song 2:17). 예수님은 신부에게, 머물고 있는 '안락의 지대'를 떠나 함께 깊이 동역하자고 신부를 초청하신다. 그러나, 신부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거부하고, 예수님 혼자 돌아가시라고 응답하게 된다 (아 2:17).
- D. The Lord is testing her confession that the Lord's banner (purpose) over her life is to reveal love to her then to impart it in her. The issue before her is whether she believes that Jesus' leadership is good. In other words, is it safe to obey Jesus 100% even when it is costly and painful?
자신의 삶 위의 주님의 깃발 (목적)이 사랑이며, 그 사랑을 주님이 나눠주신다고 고백하던 신부를 예수님은 시험하시게 된다. 여기서, 신부의 딜레마는 예수님의 리더십이 선하다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다시말해,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할 때 엄청난 대가와 고통이 따른다 할 지라도, 주님께 백퍼센트 순종할만큼 주님의 리더십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이다.

III. JESUS REVEALS HIMSELF TO HER AS THE SOVEREIGN KING

신부에게 주권적 왕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⁸*The voice of my Beloved! Behold, He comes leaping upon the mountains, skipping upon the hills.*

⁹*My Beloved is like a gazelle or a young stag (adult male deer). (Song 2:8-9a)*

⁸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산을 빨리 넘어 오는구나 ⁹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 (아 2:8-9)

A. The maiden receives a new revelation of Jesus as the sovereign King. She sees Him as the “Lord of all the nations” who effortlessly conquers all the difficult mountains or high places. She sees Jesus as a gazelle or a young stag who may easily leap in victory on the mountains. A gazelle or young stag (deer) has the ability to easily and quickly ascend a mountain with boundless energy. 솔라미 여인은 ‘주권적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된다. 신부는 ‘높은 산’, 즉, 고난의 산들을 쉽게 정복하시는 “열방의 주,” 예수님을 보게 된다. 여기서, 신부는 산들을 쉽게 정복하며 뛰어 넘는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 노루나 사슴에게는 무한한 에너지로 산을 쉽게 질주하며 오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B. King Jesus triumphed over all demonic powers and principalities (Eph. 1:22). He has overcome all obstacles (human and demonic). We command the “mountains of adversity” to move. The hills being smaller than mountains speak of the smaller difficulties that we face.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흑암의 세력과 정사들을 물리치셨다 (엡 1:22). 예수님은 모든 장애물 (육적인 것과 악한 것)들을 다 이기셨다. 우리는 ‘역경의 산들’에게 옮기우라고 명령할 수 있다. 산보다 높이가 낮은 언덕은, 삶에 직면하는 ‘작은 어려움들’을 말한다.

²³*For assuredly, I say to you, whoever says to this mountain, ‘Be removed and be cast into the sea,’ and does not doubt in his heart...those things he says will come to pass...* (Mk. 11:23)

²³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막 11:23)

C. Zerubbabel was to speak grace to the mountains of adversity that stood before him.

스룹바벨은 그 앞에 놓인 역경의 산들에게 ‘은혜’를 외쳐야 했다.

⁷*Who are you, O great mountain? Before Zerubbabel you shall become a plain! And he shall bring forth the capstone with shouts of “Grace, grace to it!” (Zech. 4:7)*

⁷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슥 4:7)

D. She recognizes the voice of her Beloved or the One that she loves. Jesus speaks tenderly to us in love when He calls us out of the comfort zone to join Him on the dangerous mountains of risk. Each time the Bride speaks to Jesus she calls Him “my Beloved”. When she speaks about Jesus to others she refers to Him as the One she loves. Each time Jesus speaks to the Bride in the Song, He calls her, “My love”, referencing His affection or “fair one”, referencing her beauty. The name “My love” is used 22 times in the Song. The name “Beloved” is used 22 times in the Song.

신부는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인식한다. 안락의 지대를 벗어나 위험한 ‘산들’로 함께 가자고 부르실 때, 예수님은 사랑과 인자함으로 말씀 하신다. 신부는 예수님을 가리킬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른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언급할 때도 신부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한다. 아가서에서, 예수님은 신부를 부를 때마다 애정을 표현하는 “내 사랑,” 또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어여쁜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 “내 사랑”이라는 표현은 아가서에 22 번이나 나오며,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도 22 번이나 나온다.

IV. THE WALL OF SECURITY AND PROTECTION

안전, 보호의 벽

⁹***Behold, He stands behind our wall; He is looking through the windows, gazing through the lattice. (Song 2:9b)***

⁹...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 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 2:9)

- A. Jesus is pictured as standing or as ready for action. He is usually pictured in Scripture as sitting in rest and victory with His feet upon His enemies (Ps. 110:1). When Stephen died the Lord stood up to receive him (Acts 7:55). When He stands, then powerful things are about to happen.
이 구절에서는 서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밟으시고 승리하사, 안식하며 앉아 계신 모습으로 나오신다 (시 110:1). 그러나, 스테반이 순교를 당할 때, 주님은 일어난 채로 그를 맞으셨다 (행 7:55). 예수님이 일어서 계실 때에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 B. Jesus stands behind a wall looking into the house in which the maiden sits undisturbed. Jesus is described as standing outside the door of the Laodicean church as He knocked (Rev. 3:20).
예수님은 ‘벽 뒤에 서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술람미 여인의 집을 엿보신다. 요한 계시록에서 우리는 문 밖에 서서 라오디게아 교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계 3:20).
- C. She rightly describes it as “our” wall. It is not her wall but their wall because she had been led by the Spirit’s commission to remain undisturbed at the table until He awakened her (Song 2:7).
신부는 그 벽을 “우리의” 벽이라 기술하고 있다. 주님이 신부를 깨우시기 전 (아 2:7)까지, 주님의 상에서 방해받지 않고 머무르게 해 준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었기에, 그 벽은 ‘자신의’ 벽이 아니라, ‘우리의’ 벽인 것이다.
- D. Jesus looks at her through the windows with the intention of wooing her with His gaze to draw her forth into a deeper relationship with Himself.
예수님이 ‘창문 틈 사이’로 신부를 엿보는 것은, 신부를 구애하여 더 깊은 주님과 의 관계로 인도하기 위한 시적 표현이다.

V. CALLED OUT OF THE COMFORT ZONE TO DEEP PARTNERSHIP WITH JESUS

깊은 동역을 위해 안락지대 밖으로 신부를 불러내시는 예수님

¹⁰***My Beloved spoke, and said to me: “Rise up, My love, My fair one, and come away.” (Song 2:10)***

¹⁰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0)

- A. Jesus is ready for action and deep partnership with the maiden. Therefore, He calls her to arise from her comfort and security to come away with Him to conquer the mountains of this fallen world. Jesus commissioned His Bride to work with Him as He brings the nations to obedience.
예수님은 신부와 깊은 동역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에게, 안락한 지대에서 나와, 함께 이 타락한 세상의 산들을 정복하자고 신부를 불러내신다. 예수님은 열방을 주께 복종시키는 데 신부가 함께 동역할 것을 신부에게 위임하신 것이다.

¹⁹***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Mt. 28:19)***

¹⁹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 28:19)

- B. Jesus challenges us to the mountains of total faith and obedience. These high places involve embracing difficult assignments and relationships that challenge our sense of security and comfort. She does not like the risk and heights of the mountains but wants to only sit under the shade tree eating apples with Jesus (Song 2:3).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산’이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높은 산들은 우리의 안전과 안락에 도전을 주는 산들로, 어려운 과제와 관계를 수용해야 하는 도전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신부는 그 위험과 ‘높은 산들’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그늘 아래 앉아, 사과를 즐기며 안식하기만을 바란다 (아 2:3).
- C. She doesn’t like the risks of walking by faith and the struggles of spiritual warfare. John Wimber said that faith is spelled, “R I S K”. Faith (confidence in God) is the way of the Kingdom.
신부는 ‘행하는 믿음’과, 영적 전투의 ‘위험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존 워버는 “믿음이란 ‘**RISK**’ (위험을 감수 하는것)란 글자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D. The question is, is it safe to go with Jesus out of the comfort zone? Will we miss out if we obey Him 100%? In the flesh, it seems safer to be in the boat without Jesus instead of being on the water with Him. This is one of the most practical foundational truths that all of us must live in.
신부의 고민은 “안락의 지대에서 나와 예수님과 함께 그 위험을 감행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이다. 주님께 100 퍼센트 순종하는 ‘도박’을 감행할 것인가? 육의 생각으로는, 배 밖에 나와 물위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배 안에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실제적으로 지녀야 할 진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E. She must rise if she is to experience mature partnership with Jesus. We can still go to heaven with “comfort zone Christianity”, but we will not of deep in partnership with Him. There are 7 verbs used in Song 2:8-10 to describe the process Jesus uses to awaken us to mature partnership. They include Jesus coming, leaping, skipping, standing, looking, gazing and speaking.
예수님과 성숙한 동역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안락의 지대’를 떠나야 한다. “안락한 지대에 머무르는 기독교”로도 천국에 들어 갈 수 있을 지는 모르나, 주님과 깊은 동역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를 깊은 동역으로 이끄시기 위해 예수님은 아가서 2:8-10 에서 7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오시고, 뛰어 넘으시고, 건너시고, 서시고, 보시고, 엿보시고, 말씀하신다.

VI. THE PROPHETIC SIGNS OF FRUITFULNESS

추수를 위한 예언적 징조

- A. Jesus encouraged the maiden by revealing that it was the time for the harvest (fruitfulness).
예수님은 추수 (열매)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술람미 여인을 격려하신다.
¹¹For lo, the winter is past, the rain is over and gone. ¹²The flowers appear on the earth; the time of singing has come, and the voice of the turtledove is heard in our land. ¹³The fig tree puts forth her green figs, and the vines with the tender grapes give a good smell. Rise up, My love, My fair one, and come away! (Song 2:11-13)
¹¹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¹²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¹³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가자 (아 2:11-13)

- B. He appeals to the signs of the times revealing that the season of harvest is not far away. Therefore, she must quickly learn to fully trust and obey Him now.
추수의 계절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시며, 주님은 ‘때의 징조’를 강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부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C. The Lord reminds us of His faithfulness to us in the past in the winter season. The winter season is dark with cold rains. It is a difficult time when few things grow outwardly. When we are not sure if we are going to make it, the Lord proves that His banner over us is love. Jesus reminds us of His past interventions and past faithfulness in previous days in our journey. Jesus could say, “The winter is past and the cold rains are over and gone and your heart is still alive in Me.” Jesus helps her to remember His love (Song 1:4). This is one of the main things in the Song.
주님은 ‘지난 겨울’에 보여주셨던 신실함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신다. 겨울은 차가운 비가 내리는 ‘어두운’ 계절이다. 겉으로 볼 때, 거의 모든 것이 죽은 듯한 ‘고난’의 계절이다. “삶의 고비를 과연 넘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깃발이 ‘사랑’이라는 것을 재증명해 주신다. 예수님은 ‘지난 날’에 보여주셨던 주님의 개입하심과 신실함을 지금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른다. “겨울도 지나고 차가운 비는 그쳤어도, 네 마음은 내 안에 아직도 살아 있잖니!” 예수님은 신부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신다 (아 1:4). 이것은 아가서의 핵심 내용중의 하나이다.
- D. If Jesus was faithfully with us in the past difficulties, He will also be with us in the future ones.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that Jesus will forget us as we go up the mountain with Him. We have no need to hide behind the wall.
예수님이 과거 고난의 시기에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다가오는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산’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실 거라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는 ‘벽’ 뒤에 숨을 필요가 없다.
- E. Jesus also points to the future as He highlights the prophetic signs of a soon coming harvest. We are encouraged by seeing the early stages of the Harvest. They guarantee that the full harvest is coming soon. Seeing this gives us urgency to be prepared. We don’t have years to waste.
예수님은 다가오는 추수의 예언적 징조를 강조 하시면서 미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의 징조들을 보며 격려받아야 한다. 이 징조들은 곧 ‘풍성한 수확’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을 보증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수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곧 준비해야 한다는 긴박성을 느껴야 한다. 세월을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 F. Jesus encouraged the apostles by pointing out that the harvest was ready. Peter had recently given up his fishing business. Within three years, the Jerusalem revival was to begin followed by the revivals in the Book of Acts. It was essential that they learn to fully trust and obey Jesus.
예수님은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고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어업을 내려 놓았다. 그 후 3 년이 지나기도 전에, 사도행전의 부흥이 터졌고, 그것은 곧 예루살렘의 부흥으로 이어졌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제자들에게 필수 조건이었다.

³⁵***Lift up your eyes and look at the fields, for they are already white for harvest! (Jn. 4:35)***

³⁵...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 4:35)

- G. Jesus points to the signs of the harvest. Flowers appear on the vine to signify that the harvest of grapes will soon follow. It is clear that the “flowers of revival” are budding across the nations.
예수님은 추수의 징조를 지적하십니다. 포도나무에 꽃이피는 것을 보면, 포도수확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연히 드러나는 “부흥의 꽃”이 현재 열방에 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다.
- H. The voice of the turtledove is heard in Israel at the harvest time. The fig tree puts forth the green figs just before the mature figs. The fragrance of the young tender grapes indicates the harvest.
이스라엘에는 추수의 때가 되면 산비둘기의 소리가 들린다. 무화과 나무는 무르익기 전에 푸르른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 잔잔한 포도의 향기는 수확이 가까웠음을 알린다.
- I. The time of singing associated with the harvest has begun. The greatest revival in history is around the corner. The singing has begun as houses of prayer are raising up worldwide and as days of worship (Global Day of Prayer, The Call, etc.) gather multitudes to stadiums to sing.
‘노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추수의 시작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우리 앞에 임박해 왔다. 이 ‘노래’는 전세계적으로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수많은 무리가 스타디움에 모여서 수일간 찬양하고 예배 (세계 기도의 날: Global day of Prayer, 더 콜: The Call 등등) 하면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 J. Jesus speaks tenderly to the maiden by calling her “My love and My fair (beautiful) one”. Jesus knows that she will refuse Him but she is still as beautiful to Him as when her vineyard was not kept (Song 1:7-8). We are much more motivated to obey Him when we feel loved and beautiful in His eyes. He is not speaking in a harsh judgmental tone.
예수님은 신부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아름다운) 자”라고 인자하게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부가 주님의 부탁을 거절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신부가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 (아 1:7-8)에도 그랬듯이, 주님께는 아직도 신부가 아름다운 존재이다. 주님께 우리가 사랑받고 아름답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동기를 갖을 수 있게 된다. 주님은 절대 화난 비난의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¹³*Rise up, My love, My fair one (beautiful), and come away! (Song 2:13)*

¹³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아름다운) 자야 일어나서 함께가자 (아 2:13)

VII. WE ARE SECURE BEFORE A TENDER GOD THROUGH THE CROSS OF JESUS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안전하다

¹⁴*O My dove, in the clefts of the rock, in the secret places of the cliff, let Me see your face, let Me hear your voice; for your voice is sweet, and your face is lovely. (Song 2:14)*

¹⁴바위 틈 냅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 2:14)

- A. The Lord reveals His tender affection for us even as we struggle through our fears. Jesus affirms her sincerity by calling her, “My dove.” A dove speaks of purity and loyalty. The Holy Spirit is pictured as a pure dove. Jesus knew that it was in her heart to obey Him. Jesus knows that she will compromise in Song 2:17, yet He calls her, “My dove.” He didn’t call her a deceitful snake.
우리가 두려움과 씨름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인자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신부를 “나의 비둘기”라고 부르시면서, 신부의 진실함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비둘기는 순결함과 충성을 말한다. 성령님은 ‘순결한 비둘기’로 그려진다.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신부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아가서 2:17에서 신부가 타협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나의 비둘기야”라고 신부를 부르셨고, “교활한 독사”라 하지 않으셨다.

- B. We find our safety in God's grace in two places, the cleft and the cliff. The cleft of the rock speaks of the finished work of the cross. We are to stand with confidence before God in our weakness as we present ourselves to God as we trust in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바위의 틈'과 '낭떠러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을 누린다. 바위의 틈은 완성된 '십자가의 역사'를 말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연약함 가운데서도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한다.
- C. Jesus was the spiritual Rock in Moses' day and is the rock on which the Church is built.
모세시대에 예수님은 '신령한 반석'이셨고, 현재는 '교회의 반석'이시다.
4They drank of that spiritual Rock...and that Rock was Christ... (1 Cor. 10:4)
4...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전 10:4)
18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shall not prevail... (Mt. 16:18)
18...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 D. God hid Moses in the cleft of the rock (open space in the mountain) to protect him from seeing God's face and being struck dead by the glory of God.
하나님은 모세를 (산의 넓은 지대에) 반석 틈에 숨기시,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봄으로 죽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셨다.
20You (Moses) cannot see My face; for no man shall see Me, and live... 21Here is a place by Me, and you shall stand on the rock. 22So it shall be, while My glory passes by, that I will put you in the cleft of the rock, and will cover you with My hand while I pass by. (Ex. 33:20-22)
20또 가라사대 네가 (모세)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21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위에 섰으라 22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출 33:20-22)
- E. This hiding in the cleft of the rock was a type of salvation through the cross. The cleft of the rock speaks of the "wounds" in Jesus' side that He received on the cross. We hide from the judgment of God in the cleft of the rock or in the atoning death of Jesus.
바위 (반석)의 틈에 숨는 것은 일종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었다. 바위의 '틈'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상처받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 '반석의 틈', 또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게 되었다.
- F. The "secret places of the cliff" speaks of the mystery of Jesus' resurrection. It is the ultimate secret place in which a Man ascended to God. The cliff ascends upward as the stairway up to heaven as Jacob's ladder (Gen. 28:12-17). "The secret place of the cliff" is translated as "the secret place of the stairs" (KJV) or "the secret place of the steep pathway" (NAS).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은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을 말한다. 인자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바로 그 궁극적인 은밀한 장소를 말한다. 낭떠러지는 밑에서 위로 보면, 마치 야곱의 사다리 (창 28:12-17) 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위로 쪽 벌어 있다.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은 킹제임스 역에 "계단의 은밀한 곳," NAS 역에는 "가파른 길의 은밀한 곳"으로 번역되어 있다.
- G. Jesus wants us to worship Him and not draw back from Him in times of weakness as we stand in the cleft of the rock and in the secret place of the cliff, or in the mysterious place of the resurrection. We are to stand confident in the grace of God as we ask Him for help.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반석의 틈과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 즉, 부활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장소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히 서야한다.

- H. Jesus wants to see our face and hear our voice in worship and prayer as we cry for help in our weakness. We tell Jesus that we love Him without fearing that we are hypocrites in the process. Some think that when they struggle with sin that their voice is repulsive to God and their face is ugly to Him. God wants us to run to Him in confidence, instead of from Him in condemnation.
 연약할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경배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 우리는 그 속에서 위선자가 된 듯한 두려움을 훔훔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죄와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시고, 우리를 앓중계 보실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사랑의 확신으로 주님께 달려가길 원하신다.
¹⁴***Let Me see your face, let Me hear your voice; for your voice is sweet, and your face is lovely. (Song 2:14)***
¹⁴...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 2:14)
- I. In the garden of Gethsemane, Jesus told Peter to pray in the time of temptation. Jesus prophesied that Peter would deny Jesus three times. This was due to Peter's fear and weak flesh.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세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이것은 베드로 안에 있던 두려움, 그리고 그의 연약한 육신에 기인한 것이었다.
³⁴***Before the rooster crows, you will deny Me three times... ⁴¹Watch and pray, lest you enter into temptation. The spirit indeed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Mt. 26:34, 41)***
³⁴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⁴¹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 26:34, 41)
- J. Jesus saw Peter's willing spirit even knowing that Peter would stumble that night. Jesus in essence was saying, "Pray to Me Peter. I want to hear your voice. I want to help you."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날 밤 넘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 아셨음에도, 그의 자원하는 심령을 보셨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게 기도하렴. 내가 네 음성을 듣고 싶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 K. The Lord enjoys a responsive heart. He enjoys us before we mature. She is still under the tree and behind the wall when He calls her fair (beautiful). Jesus knows our heart and sees our sincere desire to obey. He knows that our immature love will mature in time as hers does (Song 4:7).
 주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응답하는 심령을 기뻐 하신다. 아직 성숙하지는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 하신다. 예수님이 신부를 '어여쁘다 (아름답다)'라고 부르실 때에도, 신부는 여전히 '나무아래'와, '벽' 뒤에 있다. 예수님은 주님께 순종하려는 우리의 진심을 잘 아신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사랑이 성숙한 신부와 같이 성숙해지게 되리라는 것도 주님은 잘 아신다 (아 4:7).

VIII. PRAYING FOR DELIVERANCE FROM COMPROMISE

타협에서 해방되는 기도

- A. The maiden responds to Jesus' exhortation to see her face and hear her voice as she prays for deliverance. She cries out for Jesus' help to catch the little foxes of compromise in her life.
 신부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권고에 신부는 SOS 요청을 보낸다.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타협의 '작은 여우들'을 잡아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는다.
¹⁵***Catch us the foxes, the little foxes that spoil the vines, for our vines have tender grapes. (Song 2:15)***
¹⁵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나니라 (아 2:15)

- B. Foxes are cunning animals that will destroy a vineyard under cover of the night. They are not bold strong lions that attack during the day. They are small, fast and crafty and are hard to catch. 여우는 밤을 이용해 포도원을 망쳐놓는 교활한 동물이다. 대낮에 공격하는 사자만큼 담대하지는 않다. 그러나, 작고 빠르며, 교활하기 때문에 여우를 붙잡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 C. The “little foxes” in the vineyard of our heart speak of our small compromises that include fear, sinful thoughts, attitudes, words and the small yet continual misuse of time and money. This is not referring to a defiance to the Word but to her fear to “to arise” (Song 2:13). 우리 마음의 포도원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은 두려움과 죄의 생각들, 태도, 말,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계속 헛되게 사용하는 작은 타협들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안락의 지대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 하는 신부의 마음을 가리킨다 (아 2:13).
- D. Our vine refers to our fellowship with God. The tender grapes speak of her immaturity in life. She is keeping her vineyard in contrast to Song 1:6. The foxes keep destroying her fruitfulness. 마음의 포도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다. ‘영글지 않은 포도’는, 아직 미성숙한 신부의 삶을 말한다. 아가서 1:6 와는 다르게, 이제 신부는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작은 여우들은 신부의 열매들을 계속 파괴하려 한다.
- E. The maiden longs to go deep in God. She cried out that the Lord would sustain and refresh her because she was lovesick (Song 2:5). It is the little areas that hold us back from walking in the Spirit. She sees the seriousness of small areas that prevent her from going deep in God. 신부에게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 가고픈 열망들이 있다. 신부는 사랑앓이를 하는 자신에게 주님이 오셔서 힘을 돕고, 시원케 하시기를 갈망하고 있다 (아 2:5). 그러나, 신부안에는 성령의 역사를 막는 작은 영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 가는 것을 막는 작은 타협의 영역들의 심각성을 신부는 잘 알고 있다.
- F. We want more in God than just avoiding scandalous sin. We want our vineyard to be full of mature fruit. The issues of unwholesome speech, unclean thoughts and attitudes that resist servanthood and humility are the little foxes that destroy our intimacy with the Lord. Jesus is calling her out of the comfort zone, but the little foxes are destroying her vineyard. 우리는, 부끄러운 죄를 단순히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더 충만함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포도원이 ‘성숙한 열매’로 가득차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섬김과 겸손과는 반대되는 불건전한 말의 사용, 정결치 못한 생각과 태도들은 주님과 친밀감을 파괴하는 ‘작은 여우들’이다. 예수님은 신부를 안락의 지대 밖으로 불러내시지만, 아직도 ‘작은 여우들’은 신부의 포도원을 파괴하고 있다.
- G. She prayed, “Catch us the foxes”. In other words, we cannot catch them by ourselves but we cry for God’s help. She acknowledges the presence of the little foxes (her compromise) in her life and then offers continual prayer for help. The Lord is so willing to help us. 신부는 “여우를 잡아주세요”라고 주님께 기도한다. 다시말해, 우리는 그 여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삶에서 이 작은 여우들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신부는 계속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요청을 멸시치 않고,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IX. SHE EXPRESSES HER SINCERE LOVE FOR JESUS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진실한 사랑 고백

¹⁶*My Beloved is mine, and I am His. He feeds his flock among the lilies. (Song 2:16)*

¹⁶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 2:16)

A. She states her spiritual identity. She knows who she is as a lover of God. When we struggle we do not cease to be a genuine lover of God nor do we cease to be loved by God. Our face does not cease to be beautiful to God and our voice in worship does not become offensive to Him.

여기서 신부는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고백한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연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죄와 씨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연인이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진리를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 우리의 얼굴은 여전히 하나님께 아름다우며, 우리의 음성은 주님께 여전히 달콤하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절대 상처받지 않으신다.

B. She sees Jesus as her Beloved or the One she loves. She declares, “I am His.” Jesus’ ownership over her heart will eventually be seen in her life. Her heart is His or it belongs to Him. Her love for God is expressed in the midst of her stumbling. She does not feel cast aside by the Lord because of her struggle. She is not a hopeless hypocrite. Her confidence is steadfast. She cries, “I know You are mine and that am Yours. I am not drawing back.” She is sincere yet not mature.

신부는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로 표현하면서, “난 주의 것”이라고 선포한다. 이것을 통해, 신부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주권이 결국 신부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 신부의 마음은 주의 것, 즉, 주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사랑은 실패속에서도 표현된다. 죄와 씨름한다고 해서, 주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부는 ‘가망없는 위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부의 당당함은 줄어들지 않는다. 신부는, “주님은 내 것이며, 나는 주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한다. 지금까지 신부의 여정을 볼 때, 신부는 순수하고 진실하긴 하지만, 아직 성숙하지는 않다.

C. She asks Jesus to feed her several times (Song 1:7, 12; 2:4-5). Now, Jesus wants to feed her in a costly place among the lilies or in the place of her obedience and purity. Lilies speak of purity (Song 2:1-2; 5:3, 13; 6:2-3). She knows that her life purpose is to live in the purity of the lily in every area of her life and to catch all the little foxes (Song 2:1-2).

신부는 여러번 예수님께 자신을 ‘먹여달라’고 부탁한다 (아 1:7, 12; 2:4-5). 예수님은 대가가 요구되는 ‘백합화 가운데’, 즉, 신부의 순종과 정결함이 거하는 곳에서 신부를 먹이시고자 한다. 백합화는 정결함 (아 2:1-2; 5:3, 13; 6:2-3)을 말한다. 신부의 삶의 목적은, 작은 여우들을 잡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한 백합화’같이 사는 것이다 (아 2:1-2). 신부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

D. In Song 2:1, “I am the lily of the valley,” the lily is in the singular as she discovers her personal identity in the Lord. However, here the lilies are in the plural as they speak of the corporate people of God who love Jesus like she does.

아가서 2:1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요”에서, 백합화는 ‘단수형’으로, 주님 안에서 발견한 신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백합화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 자신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한다.

³³*Do not be deceived: “Evil company corrupts good habits.”³⁴ Awake to righteousness, and do not sin; for some (in the congregation) do not have the knowledge of God. (1 Cor. 15:33-34)*

³³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³⁴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회중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전 15:33-34)

X. HER PAINFUL COMPROMISE

신부의 고통스런 타협

- A. She now gives her answer to Jesus' command to arise to join Him on the mountains (Song 2:13). She refuses to rise up. Instead, she tells Him to, "Turn to leap on the mountains as a gazelle without her." She refuses to obey Him because of fear due to her immaturity not rebellion. '산'으로 주님과 함께 가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신부는 주저하며 (아 2:13), 일어나지 않았다. 주님께 "혼자 노루와 같이 산으로 돌아가세요"라고만 대답한다. 반항이 아니라, 미성숙함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다.
- 17Until the day breaks and the shadows flee away, turn, my Beloved, and be like a gazelle or a young stag upon the mountains of Bether. (Song 2:17)***
 17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 2:17)
- B. With deep sadness she acknowledges that Jesus must go and be like the gazelle of Song 2:8. At the end of the Song, she calls out for Jesus again to be like a gazelle or a young stag (Song 8:14). 슬픔에 깊이 잠긴 신부는, 예수님이 아 2:8의 '노루'와 같이 가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참고로, 아가서 끝 부분에서, 신부는 예수님께 다시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오세요'라고 기도한다 (아 8:14).
- C. She acknowledges the dark shadows in her heart. These are areas of her life that are not fully in the light. The day break comes in the morning when new light is present. It is the time when the dark shadows or the gray areas in her life are gone. 자신 안에 존재하는 '어두운 그림자'를 신부는 인정한다. 어두운 그림자는 아직 빛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삶의 영역들'이다. 아침에 해 (빛)가 뜨면서 날은 밝게 된다. 이제는 신부의 삶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나 '회색의 영역들'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왔다.
- D. She says to turn and go until the light of day breaks so as to provide her new light in a new day. 날이 밝아 새 빛이 자신에게 비출 때까지, 신부는 예수님께 혼자 돌아가라고 말한다.
- E. In Song 4:6 goes eventually obeys as she arises to go with Jesus to the mountain. In this verse, Jesus answers her prayer by catching this "fox of fear" in her life. We are created to live in the high places with Jesus in the extravagant devotion of bridal partnership. 아가서 4:6에 이르러, 신부는 산으로 함께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며 일어나게 된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신부의 삶에 있는 "두려움의 여우"를 잡으시면서 신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상한 곳'에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헌신하는 '신부'로 주님과 동역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 F. She understands that her compromise will lead to fruit in her vineyard being destroyed or in separation in her intimacy with God. Jesus turns and goes for a season. Jesus honors our voluntary decision to draw back. Our relationship with Jesus is based on voluntary love. 타협이 자신의 포도원의 열매를 파괴하는, 다시말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막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신부는 잘 알고 있다. 신부의 응답에, 예수님은 홀로 돌아가 한 계절동안 잠시 모습을 감추시게 된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려는 우리의 결정을 예수님은 존중하신다. 우리가 누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자원하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 G. The word Bether in the Hebrew means “separation.” Some Bible translations use the word “separation” instead of Bether. The mountains are the obstacles that bring separation. She acknowledges that there will be a separation as Jesus goes to “the mountains of separation.” In Song 3:1, He separates from her until she repents and cries out in obedience (Song 3:2).
 옛 히브리어 단어 베데르 (Bether)는 “분리”를 뜻한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서들은 ‘베데르’ 대신, “분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산’은 분리를 가져오는 장애물이다. 신부는 예수님이 “분리를 가져오는 산들”로 가실 때, 주님과 분리 (이별)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가서 3:1에서, 주님은 신부가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순종을 부르짖을 때까지 신부에게서 모습을 감추신다 (아 3:2).
- H. She knows that her weakness does not mean that her love for Jesus is false. She continues to call Him “my Beloved Jesus”.
 자신이 연약해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신부는 잘 알고 있다. 신부는 계속해서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예수”라고 부른다.

XI. FOUR KEY STATEMENTS OF PROGRESSION

영적 진보에 열쇠가 되는 네가지 고백

- A. There are four times in the Song where you are going to see a phrase repeated. The Lord is causing a progression of maturity to take place in her life and it is important to look over these verses in order to become familiar with it.
 아가서에 4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 성숙의 진보를 알기 위해 이 구절들을 점검해 보는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 B. The SONG describes her progression from being self-centered to being God-centered in 4 key statements. Four times through the book she changes and redefines her experience. She starts from being only self-conscious and ends up with a mature God-centeredness. We can follow her maturity throughout the SONG through these four statements which are in strategic places. They are statements of the progression of her maturity. Notice the transition from a self-centered to a God-centered focus in the 4 inheritance statements (Song 1:14; 2:16; 6:3; 7:10). In the beginning stages, her own enjoyment of Jesus is her only focus. She talks about what He is to her without much awareness of what she is to Him. In 2:16 and 6:3 and then finally 7:10, she uses this same language but changes the order to express her concern about what she is to Jesus. Jesus is her inheritance.
 아가서는 ‘자기 중심의 단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단계’로 바뀌어 가는 신부의 영적 진보를 네 번에 걸친 신부의 고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아가서 전체에 걸쳐, 신부는 네 번 정도 영적인 변화를 거듭하며, 자신의 경험을 재정의하게 된다. 이기적인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전략적인 부분에 나오는 신부의 고백들을 통해, 우리는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의 ‘성숙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수 있다. 이 고백들은 영적으로 진보해 가는 신부의 성숙함을 보여준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신부의 고백들을 참조하라 (아 1:14; 2:16; 6:3; 7:10). 초기에는, 예수님을 즐기는 자신의 기쁨에만 신부가 집중하고 있었다. 신부는 ‘자신이 주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채, ‘주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만을 표현하며 그 기쁨을 누렸다. 그렇지만, 아가서 2:16 과 6:3, 그리고 7:10 에서, 신부는 자신이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하기 위해, 같은 문장을 순서만 바꿔 고백하게 된다. 예수님은 신부의 기쁨이다.

- C. Her initial focus is **only** upon her spiritual pleasure. This is acceptable to Jesus as a beginning place in the grace of God. Her only focus is that she is loved and has an inheritance in Him. She has little regard at this stage for His inheritance in her.

처음에, 신부는 자신의 영적 기쁨과 즐거움에만 초점을 맞춘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부의 시작을 너그러이 받아 들이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랑받으며, 주님 안에 누리는 자신의 기업을 존재한다는 데에만 집중하며, 자신이 ‘주님의 기업’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¹³My Beloved is to me... (Song 1:13-14)

¹³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아 1:13-14)

- D. In her second focus she is saying, “He is mine, He belongs to me. However, I now realize that I also belong to Him.” She now adds a new dimension of His ownership of her life. She now sees the necessity of loving Him because she is His inheritance. However, it is her secondary concern at this stage of maturity.

두 번째 고백에서 신부는 “주님은 나의 것, 주님은 제게 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도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신부는 이제 자신의 삶에 새롭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자신이 ‘주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직 성숙에는 관심이 없다.

¹⁶My beloved is mine and I am His. (Song 2:16)

¹⁶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아 2:16)

- E. In her third focus she is saying the same words as in Song 2:16, however, she changes the order. She says, “I belong to Him and I continue to acknowledge that He is still mine. He belongs to me. My beloved is mine.” The third progression says the same 2 truths but the order changes. She says, “It is His agenda first and my agenda second.” She reverses the priority of her concern. His inheritance in her is now first in her heart. Her inheritance in Him is vital, yet secondary.

세 번째 고백에서 신부는 아 2:16 에 나온 말을 그대로 사용한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문장의 순서를 바꾸었다는 것이다. 신부는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제게 속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제게 속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한다. 이 세 번째 영적 진보는 동일한 두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두 번째 고백과 그 순서가 뒤바뀐다. 다시말해, 신부는 “주님의 계획이 먼저입니다, 나의 계획은 두 번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관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신부를 통해 주님이 누리는 기업이 이제 신부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었다. 주님을 통해 누리는 신부의 기업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이차적인 것이 되었다.

³I am my Beloved's and He is mine. (Song 6:3)

³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아 6:3)

- F. In her fourth and final focus she is saying, “I belong to Him and what He desires is all I focus on. The fact that His desire is for me makes me want to make sure that I am 100% His. He owns me entirely. His concerns are what I care about most.”

최종적인 네 번째 고백에서 신부는, “나는 주님께 속했고, 나의 관심사는 이제 오직 주님이 바라시는 것에만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모하신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내가 100%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사가 저의 관심사입니다.”

¹⁰I am My Beloved's and His desire is toward me. (Song 7:10)

¹⁰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 7:10)

Session 14 God's Loving Discipline (Song 3:1-5)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훈육 (아 3:1-5)

I. REVIEW OF SONG 2:8-17

아가서 2:8-17 복습

- A. The maiden received a new revelation of Jesus as the King or “Lord of all” who conquered the mountains. Jesus was like a gazelle who leapt victoriously over all the mountains (obstacles).
 솔람미 여인은 ‘산들’을 정복하신 “만유의 주,” 또는 주권적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새롭게 받았다. 주님은 모든 산들 (장애물들)을 승승장구하며 뛰어넘어 오는 노루와 같다.

⁸*The voice of my Beloved! Behold, He comes leaping upon the mountains, skipping upon the hills ⁹*My Beloved is like a gazelle or a young stag (adult male deer).* (Song 2:8-9a)*

⁸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산을 빨리 넘어 오는구나 ⁹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숫사슴)과도 같아서 (아 2:8-9)

- B. Jesus called her to rise up and come away with Him to the mountains (high places). This would involve embracing new assignments that required a new measure of faith and obedience. This challenged her security and comfort. In the maiden’s original prayer she cried to Jesus, “**Draw me away! We will run after you**” (Song 1:4). Jesus now called her out of the comfort zone to a new place in the Spirit so that she might experience a deeper partnership with Him.

예수님은 일어나 함께 ‘산 (고귀한 곳)’으로 가자고 신부를 부르신다. 더 큰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새 과제를 신부가 떠맡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안정과 안락에 도전이 온 것이다. 솔람미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첫 기도는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라” 였다 (아 1:4). 예수님은 신부가 ‘안락’의 지대에서 나와 성령의 인도로 ‘도전의 지대’로 나아가 주님과 더 깊은 동역을 맛볼 수 있도록 초청하신다.

¹⁰*My Beloved...said to me: “Rise up, My love, My fair one, and come away.”* (Song 2:10)

¹⁰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0)

- C. The maiden does not obey the call to rise up but rather tells Jesus to turn and go to the mountains without her. She does this because of her fear (spiritual immaturity not rebellion). The day break comes in the morning when new light is present and the dark areas in her life are gone.

그러나, 이 부르심에 신부는 순종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 혼자 산으로 돌아가시라고 대답한다. 신부에게 아직 두려움 (반항이 아닌 영적 미성숙)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새날 (새벽)이 밝아 새 빛이 비추게 될 때, 신부의 삶의 어둔 영역들은 사라지게 된다.

¹⁷*Until the day breaks and the shadows flee away, turn, my Beloved, and be like a gazelle or a young stag upon the mountains of Bether.* (Song 2:17)

¹⁷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트고) 그림자가 갈때에 (때까지)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 2:17)

II. OVERVIEW OF SONG 3:1-5

아가서 3:1-5 개관

- A. The Lord's response to the maiden's refusal to obey is to lovingly discipline her by causing His manifest presence to be lifted off her heart. He is not angry at her but jealously wants her to share His values as a mature Bride that she might walk in deeper partnership with Him.

신부의 불순종에 대해 주님은 임재를 거둬 가시는 '사랑의 훈육'을 주신다. 신부에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질투'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신부가 주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성숙하게 되어 더 깊은 동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 B. The Father loves us too much to allow us to come up short of being the glorious mature Bride of Christ. He did this for her spiritual well-being. The Lord pries our fingers off the things that hold us in bondage. The cost of obedience is high. However, the cost of disobedience is higher. To neglect to obey the Holy Spirit's leadership is costly.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신부, 성숙한 신부가 되는 데에 부족하게 되는 것을 허락치 않으신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를 속박하는 것들을 우리가 손안에 쥐고 있으면 떼어 놓으신다. 순종의 대가는 크다. 하지만, 불순종의 대가는 더욱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령의 리더십에 불순종하는 대가는 더 심각하다는 뜻이다.

- C. The Lord lifts the sense of His presence from the hearts of His beloved for several reasons. First, to alert us to the seriousness of our compromise that refuses to more deeply embrace the Holy Spirit's leadership. Second, to humble us so as to cause us to be aware of our need for Him. Third, to awaken deep hunger in us for Jesus.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서 임재를 거둬가시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성령님 리더십을 받아들이지 않는 '타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경각시켜 주기 위함이다. 둘째로, 우리를 겸손케 하사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깊은 '목마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다.

- D. We must be confident that God in His love for us will manifest His zeal or jealousy over us. God jealously requires that we live in wholehearted obedience. He zealously insists on that which deepens our relationship with Him and results in our greatness.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열심과 질투'로 나타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질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사는 삶'을 요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신다.

⁵*Do you think the Scripture says in vain, "The Spirit...in us yearns jealously"?* (Jas. 4:5)

⁵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약 4:5)

III. GOD'S DISCIPLINE IS NOT THE SAME AS HIS REJECTION OF US

하나님의 훈육은 거절이 아니다

- A. The message of the Song is that God enjoys us even in our weakness.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He approves all that we do. He corrects the areas of our life that He disapproves of so that He might remove all that hinders love (holiness) in us.

아가서의 메세지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진리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신다라는 뜻은 아니다. 주님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교정하시면서, 우리 안에 '사랑 (거룩함)'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려 하신다.

¹⁰*He (disciplines us) for our profit, that we may be partakers of His holiness.* (Heb. 12:10)

¹⁰...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훈육하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히 12:10)

- B. When the Lord disciplines us He reveals His displeasure with an area in our life. This is not the same thing as God's displeasure with us as a person. God can be displeased with a certain behavior without despising us as a person. Some mistake divine correction for divine rejection, but it is proof of His love. God hates the sin yet delights in the one He disciplines (Heb. 12:6).
우리를 훈육하실 때, 주님은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보여 주신다. 이것은 주님이 '인격체로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가?'와는 다른 문제다. 다시말해,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우리를 경멸치 않으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영역에 불쾌함을 드러내실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정을 어떤 사람들은 거절감으로 잘 못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하지만, 하나님의 교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 훈육받는 자를 기뻐하신다 (히 12:6).
- ¹²Whom the LORD loves He corrects, just as a father the son in whom he delights. (Pr. 3:12)**
¹²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교정)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 (교정)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 3:12)
- C. Jesus rebukes yet loves believers that are in need of repentance. Jesus rebukes them and calls them to repent because He loves them. Then He invites these very people to sit on His Throne. 회개가 필요한 주의 성도들을 책망 하시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 사랑하신다. 책망하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결국 그들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것이다.
- ¹⁹As many as I love, I rebuke and chasten. Therefore be zealous and repent...²¹To him who overcomes I will grant to sit with Me on My Throne... (Rev. 3:19, 21)**
¹⁹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²¹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 (계 3:19, 21)
- D. To be disciplined means God cares and has not given up on us. It is a terrible thing to "get away with" sin long term because that means God is giving that person over to their sin. God's discipline is proof that He has not given up on us (Rom. 1:24-28).
훈육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다. 장기간 죄를 "계속 범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죄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육하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된다 (롬 1:24-28).
- ²⁴God gave them up to uncleanness, in the lusts of their hearts... (Rom. 1:24)**
²⁴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롬 1:24)
- ³²When we are judged, we are chastened by the Lord, that we may not be condemned with the world. (1 Cor. 11:32)**
³²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1:32)
- E. God feels the pain of those He disciplines and continues to consider them as His dearly beloved. 훈육받는 자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깊이 사랑하신다.
- ⁹In all their affliction He was afflicted...in His love...He redeemed them... (Isa. 63:9)**
⁹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사 63:9)
- ⁷I have given the dearly beloved of My soul into the hand of her enemies. (Jer. 12:7)**
⁷내 마음의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렘 12:7)

- F. When we neglect to honestly and thoroughly confront sin in our heart we are not loved less by God but we do suffer loss in several ways. We minimize our ability to experience the joy of our salvation, the spirit of revelation, godly fellowship and to receive eternal rewards.
죄를 정직하고 온전하게 직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면에서 손실을 입게 된다. 구원의 즐거움과 계시의 영, 거룩한 친교의 경험과 영원의 상급을 받는 능력을 최소화 시켜 버리게 된다.
- G. God has tender patience for a season with believers who do not repent. They must not confuse His patience with His approval. Jesus gave Jezebel and her disciples in Thyatira time to repent. 회개치 않는 자들을 주님은 한 동안 인자함으로 인내하신다. 주님의 인내를 ‘승인하는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된다. 예수님은 이세벨과 그 제자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
²¹I gave her (Jezebel) time to repent of her immorality...²²I will cast her into a sickbed, and those who commit adultery with her into great tribulation, unless they repent... (Rev. 2:21-22)
²¹또 내가 그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²²볼찌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계 2:21-22)
- H. God patiently suffers long with us in His love as He works to lead us to repentance.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⁴Do you despise the riches of His goodness, forbearance, and longsuffering, not knowing that the goodness of God leads you to repentance? (Rom. 2:4)
⁴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롬 2:4)

IV. GOD’S MANIFEST PRESENCE IS WITHDRAWN FROM THE MAIDEN 신부에게서 임재를 거둬가시는 하나님

- A. The maiden sought God but did not find Him. This was a new experience for her. All through Song 1-2 when she sought Him she found Him in great sweetness.
신부는 하나님을 찾지만, 만날 수 없는 경험을 하게된다. 신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다. 왜냐하면, 아가서 1-2 장에서는 주님을 찾을 때마다 너무나도 달콤한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¹By night on my bed I sought the One I love; I sought Him, but I did not find Him. ²“I will rise now,” I said, “and go about the city; in the streets and in the squares I will seek the One I love.” I sought Him, but I did not find Him. (Song 3:1-2)
¹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²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아 3:1-2)
- B. There are four different “nights” in our spiritual life in which we must seek the Lord.
신앙 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밤’에는 4 종류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한다.
1. **The night hours:** we sometimes seek God in the night hours because of our godly desperation to know Him through the inconvenience of these hours.
한 밤중: 주님을 알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한 밤중에도 주님을 찾게 된다.

2. **The night of pain:** in difficult circumstances as when David ran from Saul and Joseph was in the dungeon; they did not give up by concluding God's promises were false.
환란의 밤: 사울을 피해 달아난 다윗, 감옥에 갇혔던 요셉과 같이,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는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3. **The night of temptation:** in times of failure and darkness we must continue to seek God.
유혹 (시험)의 밤: 실패와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4. **The dark night of the soul:** in the Middle Ages some spoke of the dark night of the soul indicating God's presence being temporarily withdrawn in times of obedience (Song 5:6).
영혼의 어둔 밤: 불순종으로 잠시 거뒀진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 중세시대 사람들은 '영혼의 어둔 밤' (아 5:6)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 C. The maiden was not supposed to be on her bed but on the mountains with the Lord. She was on "her bed" as contrasted to "their bed" or couch (Song 1:16; 3:7). Their partnership is disrupted.
신부가 있어야 할 곳은 '안락한 침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산'이다. 여기서 신부는 '우리의 침상' (아 1:16; 3:7)이 아닌, '나의 침상'에 있었다. 주님과 동역이 깨진 것이다.
- D. Her heart is set on loving Jesus in her struggles. She is not a hopeless hypocrite because of her fear to obey. We can continue to call Jesus "the One I love" even before we have victory in every area of our life. Sometimes we face a mountain of faith/obedience that seems out of reach. That is why it is a mountain. In between mountains are valleys. We're still lovers of God in the valley.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도, 신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가망 없는 위선자'는 절대 아니다. 아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다 거두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분"으로 부를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산'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산'이라 부른다. 산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다. 골짜기에 거할 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받는자'이다.
¹By night on my bed I sought the One I love; I sought Him, but I did not find Him. (Song 3:1)
¹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아 3:1)
- E. She continues to seek God through the familiar spiritual disciplines of prayer and meditation on the Word as she did in the past (Song 2:3-5). Now she does not feel His presence because He requires a new measure of obedience. Prayer and fasting is no substitute for obedience.
과거 (아 2:3-5)에 했던 것처럼, 신부는 익숙한 영적 훈련인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계속 찾지만, 주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다. 주님이 신부에게 새로운 차원의 (더 깊은)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도와 금식이 순종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⁴When Gideon came to the Jordan, he and the 300 men who were with him crossed over, exhausted but still in pursuit. (Jdg. 8:4)
⁴기드온과 그 좃은 자 삼백 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삿 8:4)

- F. When we feel nothing we must trust God's Word that He will draw near if we draw near Him.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할찌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
⁸*Draw near to God and He will draw near to you. Cleanse your hands, you sinners; and purify your hearts, you double-minded. (Jas. 4:8)*
⁸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약 4:8)
- ³*Who may ascend into the hill of the LORD? Or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⁴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Ps. 24:3-4)***
³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⁴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 (시 24:3-4)
- G. God requires that we stir ourselves up to take hold of Him when He hides His face from us.
 얼굴을 숨기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기를 요구하신다.
⁷*There is no one who calls on Your name, who stirs himself up to take hold of You; for You have hidden Your face from us, and have consumed us because of our iniquities. (Isa. 64:7)*
⁷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사 64:7)
- H. ***The Jer. 20:7 principle:*** in Jeremiah's youth, the Lord revealed His beauty to him and caused Him to love God. Jeremiah prophesied to the political and religious leaders of Israel. They did not receive him but put him in prison. Jeremiah then decided to quit prophesying. Then God's fire burned in him. You caused me to love You and now I am so connected to you I cannot walk away from You. In Song 1-2, the Lord connected the maiden's heart to God's love.
 예레미야 20:7 원칙: 젊은시절, 예레미야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사건후, 예레미야는 더 이상 예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하나님의 불은 그 안에서 더 깊이 타오르게 되었다.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셨기에, 이제 저는 주님과 연결된 그 끈끈한 '사랑의 줄'을 놓을 수 없어요." 아가서 1-2장에서, 주님은 신부의 마음을 사랑의 끈으로 하나님과 연결 시키셨다.
⁷*O LORD, You induced (deceived NAS/NIV) me, and I was persuaded (deceived NAS/NIV); You are stronger than I, and have prevailed.... ⁸Because the word of the LORD was made to me a reproach and a derision daily. ⁹Then I said, "I will not...speak anymore in His name." But His word was in my heart like a burning fire shut up in my bones; I was weary of holding it back, and I could not. (Jer. 20:7-9)*
⁷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 ⁸...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⁹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렘 20:7-9)

V. THE YOUNG BRIDE ADDS OBEDIENCE TO HER PRAYERS

기도하며 순종하는 신부

²“I will rise now,” I said, “and go about the city; in the streets and in the squares I will seek the One I love.” I sought Him, but I did not find Him. ³The watchmen who go about the city found me; I said, “Have you seen the One I love?” (Song 3:2-3)

²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³성중의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아 3:2-3)

- A. The maiden now arises as she was commanded to do in Song 2:10. Jesus withholds His presence to cause us to diligently seek His face and to draw us out of fear, unbelief and compromise. He holds out until we rise up and come to Him in new areas of obedience. The only safe place is in rising up in partnership with Him in faith and obedience.
이제 솔람미 여인은 아가서 2:10 에서 들은 명령에 순종하며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은 임재를 잠시 거둬 가시면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정직하게 찾게 하시며, 우리를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타협에서 끌어내 주신다. 우리가 순종하며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기 전까지 주님은 모습을 감추신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는, 믿음과 순종으로 일어나 주님과 동역하는 곳이다.
- B. The pain of losing His presence motivates her to arise off her bed and leave the comfort zone. Jesus hides His face because He knows He can produce earnestness in our hearts by hiding His face. Jesus knows that she cannot live without His presence. Our soul becomes desperate for more of God as we remember former seasons of sweetness. She adds obedience to her prayer. She understands that prayer alone will not solve her problem. It requires active obedience.
주님의 부재로 아픔을 겪은 신부는 침상에서 일어나 ‘안락의 지대’를 떠나게 된다. 예수님이 모습을 감추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열망을 끄집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다. 주의 임재없이 살 수 없는 신부의 마음을 예수님은 잘 아신다. 달콤했던 예전의 계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갈급함은 이제 절박함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신부는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기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C. She arises to go about the city among the streets and squares which is where the people interact. This is the place of risk, conflict, danger and increased spiritual warfare outside of the comfortable bed and safety of the wall (Song 1:16; 2:9).
신부는 일어나 사람들이 활동하는 ‘도시의 거리와 광장’을 돌아다닌다. 이곳은 안락한 침상과 안전한 벽 (아 1:16; 2:9) 바깥에 있는 장소로, 위험과 싸움, 그리고 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존재하는 곳이다.
- D. Jacob wrestled with God through the night (Gen. 32:24-30). Jacob refused to give up until he touched God. He is a picture of prayer that wrestles with God until the breakthrough comes. Hosea described Jacob as seeking God earnestly with tears and supplication (Hos. 12:2-6).
야곱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 (창 32:24-30).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은 돌파구가 생길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한 ‘기도의 표상’이다. 호세아는 야곱을 가리켜 ‘눈물과 간구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구한 자’로 표현했다 (호 12:2-6).

- E. A friend of mind (Michael Sullivant) had a dream of wrestling with his son who he allowed to pin him. His son smiled and said, "I won dad." My friend felt pleasure in wrestling with his son. The Lord said to him, "I allow Myself to be pinned by you because it brings Me pleasure. God's heart is delighted when we wrestle Him so that our hearts may grow in love for Jesus.
 마이클 쉘리번트라는 내 친구가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자기 아들과 씨름하면서, 아들에게 일부러 져주는 꿈이었다고 한다. 그 꿈에서 아들은 함박 미소를 지으며, "내가 아빠를 이겼다!"라고 외쳤고, 아들과 씨름하는 아빠는 즐거워 했다. 그 꿈을 통해, 주님이 내 친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와 씨름하면서 네게 져주는 게 나에게 큰 기쁨이란다" 였다. 우리가 주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이 씨름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신다.

VI. JESUS' PRESENCE RETURNS IN RESPONSE TO HER OBEDIENCE

신부의 순종으로 모습을 다시 나타내시는 예수님

"Scarcely had I passed by them, when I found the One I love. I held Him and would not let Him go, until I had brought Him to the house of my mother, and into the chamber of her who conceived me. (Song 3:4)

⁴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 3:4)

- A. She found Jesus only as she rose up to seek Him in obedience. The Lord is bound by His own affection to respond to our earnestness. He will not long refuse us. He wants us to prevail!
 순종하며 주님을 찾으러 일어났을 때, 신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 우리의 작은 열심에도 바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은 애정으로 넘치시는 분이시다. 모습을 오래 감추지 않으신다. 주님과 의 씨름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신다!
- B. ***Principle of spiritual hunger.*** If there is something in the Word that we can't live without, we will receive it in due time. However, if we can live without it, then we will go without it. If you want something in God's will so much that you can't live without it, you'll have it in due time."
 영적 갈급함의 원칙: 삶을 사는 데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해진 때에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없어도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라면, 없는 상태로 살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 하나님 뜻대로 살기위해 꼭 필요한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정해진 때에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 C. We do not have to live spiritually bored and in sin and unbelief. We can walk in the anointing to carefully obey Jesus in every area of our life even before the mountains (Ezek. 36:26).
 우리는 영적 권태와 죄악, 그리고 불신속에 살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산들' 앞에서도, 즉, 이런 삶의 영역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기름부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겔 36:26).
- D. She has a new resolution to hold on to Jesus with a determination that results from her painful season of spiritual struggle. She "never lets go of Him" throughout the remainder of the Song. 고통스런 영적 싸움의 계절을 겪은 신부는 이제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결단한다. 그리고, 남은 아가서의 여정동안 신부는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

- E. Times of spiritual turmoil sometimes birth “holy violence” in us to hold on to Jesus and to never again allow compromise to be tolerated in our lives (Mt. 11:12). She has an unquenchable resolution to do the will of God.
영적 ‘소용돌이’의 시기는, 우리 안에 “거룩한 침노”의 열매를 낳기도 하여, 예수님을 꼭 붙잡게 하며, 우리 삶에 타협이 다시는 자리잡지 못하도록 도와준다 (마 11:12). 이제, 신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위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굳은 결단을 내리게 된다.
- F. The maiden’s resolve to obey extended to even the most difficult places.
순종하고자 하는 술람미 여인의 결단은 자신이 가장 힘들어 하는 장소 (어미의 집)까지 포함한다.
“I held Him and would not let Him go, until I had brought Him to the house of my mother, and into the chamber of her who conceived me. (Song 3:4)
⁴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 3:4)
- G. She is an anointed ambassador of Jesus. She actually brings Jesus to places that He will not go without her obedience as a vehicle of the Father’s choice. At the end of the SONG she brings Jesus to all people (Song 8:2).
신부는 예수님의 기름부음 받은 ‘대사’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도구로, 신부는 순종을 통해서만 주님이 함께 하실 장소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한다. 아가서의 끝 부분에 신부는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 (아 8:2).
- H. The mother is a picture of the church. Those who do God’s will are Jesus’ mother and brother (Mt. 12:46-50). Mother Israel gave birth to the redeemed (Rev. 12:5, 17). Often the most difficult places to bring Jesus is among familiar family relationships.
어미는 ‘교회’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라 (마 12:46-50) 주님은 말씀하셨다. 어미인 이스라엘은 ‘구속받은 자들’을 낳았다 (계 12:5, 17). 또한, 예수님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곳 (사람들)은 종종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이다.
- I. Home represents the most difficult place to some because it is so familiar. A prophet has no honor in his own home. Bringing Jesus to her home is a significant manifestation of obedience to His command to arise.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족이기에,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장소가 바로 자기 식구들이다. 선지자는 자신의 집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자신 (어미)의 집’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일어나라고 명한 주님께 순종하는 신부의 결단의 행동이 어디에 까지 미칠수 있는 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J. Home also represents the place of smallness. We do not need to get on a plane before we do ministry. We can minister to the small number in our home and neighborhood.
그 외에도, 집은 자그마한 장소를 뜻한다. 비행기를 타고 멀리 선교를 가야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역은 우리 가정이나 이웃에서 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VII. THE HOLY SPIRIT GUARDS US IN STRATEGIC SPIRITUAL SEASONS (SONG 2:7)

전략적인 영적 계절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 (아 2:7)

⁷I charge you, O daughters of Jerusalem, by the gazelles or by the does of the field, do not stir up (disturb) nor awaken love until it pleases. (Song 2:7)

⁷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방해하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 2:7)

- A. The Holy Spirit speaks here. He has ordained strategic seasons in each person's spiritual life. There are seasons, where He desires to establish our heart in new and deep revelations of His heart. The Spirit's agenda for the Bride in this season was to awaken lovesickness in her as she went deep in the Word as she fed on apples and grapes at the banqueting house (Song 2:3-5). Many do not see the necessity of dedicating seasons of their life to go deep in God and His Word. John was told to eat the scroll or to understand God's Word in a deep way (Rev. 10:9-11). 이 구절을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략적인 계절'을 부여하신다. 다양한 영적 계절들을 통해, 주님의 마음에 대한 새롭고 깊은 계시들을 우리 안에 확립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 계절에서 성령님은, 신부가 주님의 잔치집 (아 2:3-5)에서 사과와 포도를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앓이를 신부안에 깨우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 다양한 영적 계절들을 지내면서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 말씀안에 깊이 들어가도록 삶을 투자해야 하는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사도 요한은 요한 계시록에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즉,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계 10:9-11).
- B. The daughters of Jerusalem represent believers who lack discernment of the various operations of the Spirit and the different seasons in God. The Spirit solemnly charges other believers to not disrupt or disturb the devoted ones with the Bride's heart in this season by their opinions and judgments. We can trust Jesus to disturb us when the seasons change as seen clearly in Song 2:8. The Spirit tells those who were insensitive to the ways of the Spirit to not disturb the Bride from this particular season of sitting at the table to be sustained and refreshed by the Word and the Spirit. Many only have one counsel; that is to seek God less and increase in ministry activity. '예루살렘 여자'들은 성령님의 다양한 운행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다양한 계절들을 '분별치 못하는' 신자들을 대표한다. 성령님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그들 자신들의 의견이나 판단으로, 현재 부여받은 영적 계절을 신부의 마음으로 지내하고자 헌신된 자들을 혼란케 하거나 방해하지 말라고 정중히 부탁하신다. 아가서 2:8 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계절이 오면 자연스럽게 직접 개입하실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이 구절에서 성령님은 성령님께 '둔감한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의 상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계절 안에 있는 신부를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는 정반대로 산다. 하나님을 더 찾기 보다는, 사역의 활동만을 넓히려 한다.
- C. Solomon charged them by the gazelles or by the does of the field (Song 2:7). By the gazelles or the does speaks of the importance of gentleness and sensitivity in relating to the young Bride in this season. A gazelle or doe has a sensitive nature and can be easily startled. Many are easily distracted from the Word. We must have sensitivity in relating to others in different seasons. 솔로몬은 '노루와 들사슴'으로 그들에게 부탁했다 (아 2:7). '노루나 사슴으로' 라는 표현은, 이 계절에 거하는 어린 신부를 온유함과 민감함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노루나 들사슴은 본래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쉽게 놀란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거하지 못하고, 쉽게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다른 영적 계절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 D. In the phrase, “Until it pleases”, the Hebrew can be translated as it, he or she. The NAS accurately translates the phrase as “Don’t awaken love until she pleases” instead of “until it pleases.” If the Hebrew was translated “He” it would refer to the Lord being stirred to action by the daughters of Jerusalem. The Lord has no need for this nor does He need to be protected by the gentleness pictured by the gazelles. It is the Bride that must be protected from distraction.
 “내가 사랑하는 자 (it)가 원하기 전까지는,”의 구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히브리어에서 it (그것), he (남성), 또는 she (여성)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미국 NAS 역은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자 (그녀)가 원하기 전까지는 깨우지 마라”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 “그 (He)”로 번역 되었다면,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주님을 깨운다?’ 주님은 누가 깨울 필요가 없는 분이며, 노루와 같이 보호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다. ‘주의산만’이 되지 않게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신부’이기 때문이다.
- E. Three times Jesus speaks this phrase, “Don’t arouse or awaken my love until it pleases.” (2:7; 3:5; 8:4). In 8:4, He uses the same phrase “don’t disturb her”. He embraces her like the other 2 times. However in this third reference, He omits the phrase “by the gazelles of the field” because she is no longer immature and easily tossed to and fro (Eph. 4:14).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까지는 깨우지 말라”라는 구를 아가서에 걸쳐 3 번 말씀하신다 (아 2:7; 3:5; 8:4). 아가서 8:4 에도, 주님은 이 구를 그대로 사용하신다. “그녀를 방해하지 마라.” 여기서도, 역시 주님은 신부를 안아주신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루와 들사슴으로”라는 표현을 생략하신다. 미숙하여 쉽게 요동하는 신부가 더이상 아니기 때문이다 (엡 4:14).
- F. The Holy Spirit’s charge is to not pressure the Bride to move on until she is prepared.
 신부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굳이 일어나야 하는 ‘부담’을 주지 말라는 성령님의 부탁이다.
- G. The Lord has each of us on a tailor made journey made for who we are and where we are going. Jesus is telling other believers to not disrupt her. He does not want her disrupted from this particular season by unsanctified mercy and false comfort that undermines the Lord’s discipline.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와, 부르심의 여정은 개인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는 다른 여정을 가진 신부에게 혼란을 안겨주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주의 영적 혼육을 약화시키는 ‘거짓 자비와 위안’으로 신부가 이 계절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주님은 바라시지 않기 때문이다.

Session 15 Revelation of Jesus' Safe Leadership (Song 3:6-11)

안전한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계시 (아 3:6-11)

I. REVIEW OF SONG 2:8-3:5

아가서 2:8 - 3:5 복습

- A. The maiden received a new revelation of Jesus as the King or “Lord of all” who conquered the mountains (obstacles). Jesus is like a gazelle who leaps victoriously over all the obstacles.
 솔람미 여인은 산들 (장애물들)을 정복하신 “만유의 주,” 또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새롭게 얻었다. 예수님은 모든 장애물들을 쉽게 정복하며 넘어 오는 ‘노루’와도 같으시다.

⁸*The voice of my Beloved! Behold, He comes leaping upon the mountains... (Song 2:8)*

⁸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산을 빨리 넘어 오는구나 (아 2:8)

- B. Jesus called her out of the comfort zone to a new place in the Spirit to experience more of Him. 예수님은 신부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안락의 지대’에서 성령이 새롭게 이끄시는 곳으로 신부를 불러 내신다.

¹⁰*My Beloved...said to me: “Rise up, My love, My fair one, and come away.” (Song 2:10)*

¹⁰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0)

- C. The maiden does not obey the call to rise up but rather tells Jesus to turn and go to the mountains without her. She does this because of her fear (spiritual immaturity not rebellion). 신부는 ‘일어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 홀로 산으로 돌아가시라고 말한다. 신부 안에는 아직 ‘두려움 (반항이 아닌, 영적 미숙)’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¹⁷*Until the day breaks and the shadows flee away, turn, my Beloved, and be like a gazelle or a young stag upon the mountains of Bethel. (Song 2:17)*

¹⁷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때에 돌아와서 베델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 2:17)

- D. When Jesus called the maiden to arise it changed certain dynamics in her relationship with Jesus. Once Jesus raises the standard of what He wants in our faith and obedience in each season of our life then we must respond or go backwards in our relationship with Him. Yesterday’s measure of obedience is not sufficient for today if we want to grow in the things of the Spirit. The Holy Spirit continually increases the light that He gives us and then makes us responsible to respond to it. He withdraws His presence if we neglect to respond so that He might get our attention.

‘일어나라’는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영적 계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더 깊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에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일단 주님과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된다. 성령 안에 우리가 오늘 더 성숙해지기를 바란다면, 어제 드렸던 순종으로는 부족하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빛을 우리 안에 증가 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은 임재를 거둬가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게 만드신다.

- E. God's manifest presence is withdrawn from the maiden. She sought God but did not find Him. This was a new experience for her.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솔라미 여인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을 찾지만, 만나지 못한다.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픔을 신부는 겪게 된다.
¹By night on my bed I sought the One I love; I sought Him, but I did not find Him. ²"I will rise now," I said, "and go about the city; in the streets and in the squares I will seek the One I love." I sought Him, but I did not find Him. (Song 3:1-2)
¹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²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아 3:1-2)
- F. Jesus' response to our disobedience is to lovingly discipline us by lifting the sense of His manifest presence from our heart. He is not angry but jealously wants a deeper partnership.
 우리가 불순종할 때, 예수님은 임재를 거둬가셔서 우리가 주님을 느낄 수 없게 하는 '사랑의 훈육'을 베푸신다. 우리에게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질투로 인해 우리에게 더 깊은 동역을 바라는 마음으로 훈육을 베푸신다.
- G. The Father loves us too much to allow us to come short of the fullness of what Jesus wants. He does this for our spiritual well-being. The Lord pries our fingers off the things that hold us in bondage. The cost of obedience is high. However, the cost of disobedience is higher. The Lord lifts the sense of His presence from our hearts to alert us to the seriousness of compromise that refuses to more deeply embrace the Holy Spirit's leadership and that we would resolve to never allow anything to get in the way of our relationship with the Holy Spirit.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이 바라시는 충만함에 우리가 못미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웰빙 (건강)'을 돌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속박들'을 떼어 주시려 한다. 물론, 순종의 대가는 크다. 그러나, 불순종의 대가는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님이 임재를 거둬가시는 것은, '성령님의 리더십'을 받아들이지 않는 타협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자각시켜, 성령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다시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우리 스스로 내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 H. When the Lord disciplines us He reveals His displeasure with an area in our life. Some mistake divine correction for divine rejection, but it is proof of His love. God hates the sin yet delights in the one He disciplines (Heb. 12:6).
 우리를 훈육하실 때, 주님은 '불쾌'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보여주신다. 안타깝게도, 주님의 교정을 거절감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주님의 교정은 '사랑의 증표'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 훈육받는 자를 기뻐하신다 (히12:6).
¹²Whom the LORD loves He corrects, just as a father the son in whom he delights. (Pr. 3:12)
¹²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교정)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 3:12)

II. OVERVIEW OF SONG 3:6-11**아가서 3:6-11 개요**

- A. This is the fourth revelation of Jesus in the Song. Jesus is revealed to the Bride as a “safe Savior”. She gains revelation of Jesus’ safe leadership as He leads us out of the wilderness of this fallen world. This does not mean that we will not have difficulties. It means we are in a place where our heart will mature in obedient, grateful, trusting love for God. She received this revelation when she “held on” to Him (Song 3:4).
이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네번째 계시가 나온다. 예수님은 신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구세주’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다시 말하면, 신부는 ‘이 타락한 세상의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예수님의 안전한 리더십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환란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감사, 신뢰와 사랑이 자라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신부가 이 계시를 얻게 된 시기는 주님을 다시 “붙잡았을” 때 였다 (아 3:4).
- B. The only safe place for our hearts is in the revelation of Jesus as the Bridegroom King who enables us to walk in 100-fold obedience and faith in facing the mountains. This will be an essential revelation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우리 심령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장애물의 산들’을 직면하면서 백퍼센트의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신랑’이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 안에 있다. 이 계시는 ‘대환란 (the Great Tribulation)’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계시가 될 것이다.
- C. The Holy Spirit asks a question (Song 3:6) then provides a 2-part answer along with an exhortation. First, He uses military language to reveal how safe we are under Jesus’ leadership (Song 3:7-8). Second, He uses a royal wedding procession to reveal His safe leadership (Song 3:9-10). The pinnacle of our salvation is in knowing Jesus as our Bridegroom King (Song 3:11).
성령님은 신부에게 질문 (아 3:6)을 던지시면서, 두 가지 권면의 답을 제공해 주신다. 먼저, 예수님의 리더십아래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지를 보여주기 위해 왕의 호위대를 나타내는 ‘군사적 용어’를 사용하신다 (아 3:7-8). 둘째, 왕의 ‘혼인 행차’를 통해 주님의 안전한 리더십을 보여주신다 (아 3:9-10). 우리 구원의 최정점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신 왕’으로 알게되는 것이다 (아 3:11).
- D. The devil lies to us about Jesus not being a safe leader. This foundational revelation prepares the Bride for the fearless and deep commitment that she walks in throughout Song 4-8.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거짓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안전한 리더십에 대한 계시는, 신부가 아가서 4-8 장의 여정을 두려워 하지 않고 깊은 헌신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초석이 된다.

III. THE HOLY SPIRIT ASKS A SEARCHING QUESTION (SONG 3:6)

탐색의 질문을 던지시는 성령님 (아 3:6)

“Who is this coming out of the wilderness (of this fallen world) like pillars of smoke, perfumed with myrrh and frankincense, with all the merchant’s fragrant powders? (Song 3:6)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이 타락한 세상의)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아 3:6)

- A. We cannot be dogmatic about who is asking this searching question. In the spiritual interpretation, I believe it is the Holy Spirit as the unnamed person who represents Jesus. On three occasions, a question is asked using the same language “who is this?” (Song 3:6; 6:10; 8:5). It is clear that the Holy Spirit is the one asking the question on two occasions (Song 6:10; 8:5).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that it is also the Holy Spirit speaking here.
이 구절의 질문을 누가 던지는 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리적으로 뒷받침할 수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영적 해석으로 보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무명의 인물’로 등장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한다. “누구인고” 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질문이 아가서에 세번정도 나온다 (아 3:6; 6:10; 8:5). 세번중 두번은, 질문을 하는 분이 성령님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아 6:10; 8:5). 이것으로 유추해 볼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 B. It is probably not the Bride asking the question, because in Song 3:11, the speaker refers to the wedding as “His” wedding. If the Bride was speaking she would refer to it as “our” wedding. Possibly, the Spirit is communicating this message through the lips of the Bride to the daughters. 질문자가 신부로 보이진 않는다. 왜냐면, 아가서 3:11에, 말하는 사람이 혼인을 “그의” 혼인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부였다면, 그 혼인을 “우리의” 혼인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아마도, 성령님이 이 메세지를 신부의 입을 통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 C. The Holy Spirit asks a question that points to the entrance of Jesus the king (v. 9) into the Eternal City after His crucifixion, resurrection and ascension. It is a question that provokes awe and wonder not perplexity. This question points to the majesty and wonder of the ascending Christ. This language describes Jesus in context to the Old Testament sacrificial system.
성령님은,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후, 영원한 성에 왕 (9절)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지적하는 질문을 하신다. 혼동을 야기하는 질문이 아니라, 놀라움과 경외심을 유발하는 질문으로, ‘그리스도의 위엄과 놀라우심’을 지적하고 있다. 구약 제사 제도에 나온 언어를 사용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
- D. Jesus came up victorious out of the wilderness of this fallen age. Israel’s 40 year journey through the wilderness is a picture of our struggle in this fallen world on our way to the promised land. In Song 8:5, the Bride comes up out of the wilderness leaning upon her Beloved.
예수님은 이 타락한 시대의 ‘거친들 (광야)’를 승리하며 나오셨다. 40년의 이스라엘 광야 여정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며 다양한 영적 싸움을 겪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가서 8:5에서, 신부는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며 거친들 (광야)에서 올라온다.

- E. Jesus ascending to heaven in God's glory is referred to here as pillars of smoke (Exod. 19:18; Isa 6:4; Rev 8:4). In the language of the tabernacle, smoke referred to the manifestation of God's presence. As the smoke of the sacrifices ascended upward as a sweet savor to God, so Jesus' sacrifice in God's fire ascended upwards like a pillar of smoke.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연기 기둥'으로 표현된다 (출 19:18; 사 6:4; 계 8:4). 성막의 용어에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 희생 번제물의 연기가 하나님께 분향 (아름다운 향기)으로 올라간 것 처럼, 하나님의 불로 예수님의 희생이 '연기 기둥'과 같이 올라가는 것이다.
⁸The Temple was filled with smoke from the glory of God... (Rev. 15:8)
⁸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 (계 15:8)
- F. The ascended Christ is described as being perfumed with myrrh and frankincense and all the merchant's fragrant powders. Myrrh speaks of Jesus' death. In the ancient world, it was a costly fragrant burial spice. Jesus was perfumed with myrrh as He died on the cross.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몰약과 유향, 그리고 각종 상인의 향품이 향기를 토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한다. 고대에, 몰약은 장사 지낼 때 사용하는 향품으로 매우 값이 비쌌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 몸에 몰약을 덮으셨다.
- G. Frankincense speaks of Jesus' fragrant intercession (Heb.7:25). As the High Priest went into the Holy of Holies with a censer of frankincense (incense), so Jesus entered the Holy of Holies in heaven with His censer filled with intercession. The golden bowls of incense at the altar in heaven speak of our prayers (Rev. 5:8; 8:3-5).
유향은 예수님의 향기로운 '중보기도' (히 7:25)를 말한다. 구약에 대제사장이 유향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중보기도로 채워진 '향'으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다. 하늘 제단에 있는 금대접의 향은 '우리의 기도'를 말한다 (계 5:8; 8:3-5).
- H. The merchant's powders speak of Jesus' commitment to us. Jesus spoke of merchants who sold everything to purchase beautiful pearls (His Bride). A merchant was scented as a result of handling (buying and selling) the perfumed powders in the marketplace. Jesus is the perfumed merchant who sold everything in His deep commitment to us.
상인의 향품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헌신'을 말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팔아 '아름다운 진주 (주님의 신부)'를 얻은 상인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상인은 향품을 취급 (사고 파는)하기 때문에 늘 향이 몸에 배어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깊은 헌신으로 모든 것을 다 팔은 '향품장사'이시다.
⁴⁵The Kingdom...is like a merchant seeking beautiful pearls, ⁴⁶who, when he found one pearl of great price, went and sold all that he had and bought it. (Mt. 13:45-46)
⁴⁵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상인)와 같으니 ⁴⁶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 13:45-46)
- I. Jesus suffered for us, how much more will He care for and protect us? His incarnation and death (v. 6) prove that He has our good in mind. During our journey in this wilderness, He protects us from our sin and all that assaults us by His death (myrrh) and His intercession (frankincense). We can risk leaving the comfort zone because He is so committed to us (merchant powders).
우리를 위해 고통 당하신 예수님께서서 하물며 우리를 돌보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는가? 주님의 성육신과 죽음 (6절)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우리 삶의 광야의 여정동안, 주님은 그분의 죽음 (몰약)과 중보기도 (유향)를 통해 우리를 죄와 흑암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락의 지대를 떠나는 '위험'을 기꺼이 감행할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헌신된 분이시기 때문이다 (상인의 향품).
³¹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³²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delivered Him up for us all, how shall He not...freely give us all things? (Rom. 8:31-32)
³¹...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³²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롬 8:31-32)

IV. THE HOLY SPIRIT'S MINISTRY OF PROTECTION (SONG 3:7-8)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아 3:7-8)

⁷*Behold, it is Solomon's couch, with sixty valiant men around it, of the valiant of Israel. ⁸They all hold swords, being expert in war. Every man has his sword on his thigh because of fear in the night. (Song 3:7-8)*

⁷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육십인이 옹위하였는데 ⁸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찻느니라 (아 3:7-8)

- A. We see the protection and security that we have in God's grace as described in military terms.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보호와 안정을,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의 호위대의 모습을 통해 엿볼 수 있다.
- B. King Solomon is a type of King Jesus in the Song. Solomon's couch or palanquin (v. 9), was a chariot used in his royal wedding processions. It was carried on the shoulders of the royal guard. Solomon's couch is the place his bride sat near him in security through the wilderness journey. Solomon's couch came through the wilderness to Shunem (the bride's city) to take her to his Jerusalem palace. The town's people saw a cloud of dust as the royal procession approached. They had never seen such a procession with valiant soldiers with swords and battle equipment.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은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솔로몬의 '연', 또는 가마 (9절)는 왕의 혼인 행차 (행렬)에 사용된 '병거'였다. 왕의 호위대가 그 병거를 어깨에 매고 행차했다. 솔로몬의 연 (가마)은 광야 여정을 지나신 신부가 주님 곁에 앉아 보호를 받으며 지낼 수 있는 '안전한 처소'다. 솔로몬의 연 (가마)은 수넴 (신부의 고향)에서 신부를 데리고 광야를 거쳐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온다. 고향 사람들은 멀리서 거대 행렬이 내뿜는, 구름과도 같이 흩날리는 먼지를 보며 왕의 행차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전신갑주로 무장한 용맹한 군인들이 호위하는 왕의 행차를 난생 처음 목격하고 있다.
- C. Solomon's couch speaks of the **"gospel couch"** or the wedding chariot. It has been prepared for us because Jesus came up victoriously out of the wilderness of this fallen world. Jesus rests on His couch with final triumph over all His enemies (Ps. 110:1-3; Eph. 1:20-22). 솔로몬의 연은 "복음의 연," 또는 '혼인의 병거'를 말한다. 이 연은 타락한 세상의 광야를 정복하며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다.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그 병거에 안식하고 계신다 (시 110:1-3; 엡 1:20-22).
²⁰*He (the Father) worked in Christ when He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seated Him at His right hand in the heavenly places, ²¹far above all principality and power... (Eph. 1:20-21)*
- ²⁰그(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 편에 앉히사 ²¹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 (엡 1:20-21)
- D. In this couch we are seated with Christ in heavenly places and will be enthroned (Rev. 3:21). 이 '병거'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졌으며, 또한 주님과 함께 좌정하게 될 것이다 (계 3:21).
⁶*Raised us up together, and made us sit together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Eph. 2:6)*
⁶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엡 2:6)

- E. The “gospel couch” provides all that we need for our hearts to be safe in our journey through the wilderness. The gospel chariot escorts us as a Bride sitting next to the King as we travel through the wilderness of this age in the protection and safety that it provides for us from sin and Satan.
“복음의 연”은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우리 심령의 ‘안전도모’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이 복음의 병거는, 왕옆에 앉은 신부로 이 시대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보호해주며 호위해 준다.
- F. Solomon had 60 valiant men surrounding his couch to defend his bride through the wilderness from the enemy. In a spiritual sense, it points to spiritual warfare. Only a king could afford the abundant security of 60 highly skilled soldiers who were experts in war.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적으로 부터 신부를 보호해 주기위해, 솔로몬은 병거 주위에 60명의 용맹한 전사들을 붙여 놓았다. 이것은 ‘영적 전투’를 말한다. 당시, 전투 전문가인 용맹한 전사들을 60 명씩이나 거느릴 수 있었던 사람은 왕밖에 없었다.
- G. The guard around the couch speaks of the Spirit’s keeping, and protecting ministry pictured in military language. Solomon’s guard pictures the Holy Spirit’s extravagant protection. These valiant warriors picture God’s extravagant protection. Solomon continues to use “tabernacle language.” There were 60 pillars of support in Moses’ tabernacle.
병거를 보호하는 ‘호위대’는, ‘성령님의 보전과 보호사역’을 군사용어를 통해 말한 것이다. 솔로몬의 호위대는 막강한 성령님의 보호를, 60 인의 용맹한 전사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준다. 솔로몬은 계속 “성막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모세의 성막은 60 개의 기둥이 지탱해 주었다.
- H. The soldiers were “men of Israel” (native born) in contrast to being mercenaries or foreign soldiers who would flee from danger because they only served for money. The men of Israel had loyal and courageous hearts in defending the king’s chariot.
솔로몬의 용사들은 (그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태생 남자들”로, 유사시 도망가 버리는 직업 군인, 또는 해외 용병들과는 대조되었다. 이스라엘 태생 전사들은 왕의 병거를 끝까지 방어하는 충성심과 용기를 지닌 자들이었다.
- I. The bride is not afraid of the enemy’s ambush as she sits in this couch because she is surrounded by valiant expert soldiers. The enemy seeks to ambush us. Jesus watches over us as depicted by the 60 valiant men surrounding us. The Spirit surrounds us in our journey.
병거에 앉아 있는 한, 신부는 적의 매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투 전문가인 용맹스런 전사들이 호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수는 우리를 매복하려 한다. 60 명의 용맹스런 전사들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시며, 성령님은 우리 삶의 여정 동안 늘 우리곁에 계신다.
- J. These soldiers all “hold swords” or are skilled in the use of a sword. They are “experts in war.” In other words, they are not novices but are seasoned warriors. Their sword was girded on their thigh to be drawn at a moments notice in contrast to a soldier who takes his sword off while sleeping. These were diligent vigilant soldiers who were ready for action because of the fear of the night which speaks of the power of darkness or the attack of the enemy (Eph. 6:12).
이 전사들은 모두 “검을가지고,” 검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들로 “전투 전문가”들이다. 다시말해, 초보자가 아닌 숙련된 전사들이다. 이들은 늘 허벅지 (허리)에 검을 차고 있어, 한순간의 명령에도 금방 검을 빼어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다. 자는 동안 검을 빼놓는 전사들이 아니며, 흑암의 세력과 원수의 공격이 오는 두려운 밤을 언제나 대비해 근면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전사들이었다 (엡 6:12).

⁸They all hold swords, being expert in war. Every man has his sword on his thigh Because of fear in the night. (Song 3:8)

⁸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아 3:8)

- K. The Holy Spirit is an expert in war knowing every scheme of Satan (Eph. 6:10-12). He uses many agencies in the grace of God. For example, He may give us a prophetic dream, open or shut a door, stir someone to intercede for us, send an angel, release the gifts of the Spirit through us, give us revelation of the Word to reveal the Father's affection or Jesus' cross to lead us to safety. His protection over us is passionate, skillful, and diligent.

성령님은 사단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신 전투 전문가다 (엡 6:10-12).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신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예언적인 꿈을 주시고, 삶에 어떤 문을 열거나 닫으시고,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중보 기도하게 하시며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님의 은사들을 풀어주시고, 말씀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애정을 보여주시고, 안전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은 열정적이고 능숙하며 신실하다.

- L. He is able to keep us from quitting or backsliding. There is no sin too difficult for Him, if we give our hearts to God and stay within the simple boundaries of scriptural principles.

주님은 우리가 자포자기 하거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으실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본적인 성경원칙의 선 (기준) 안에만 거한다면, 주님께서 처리할 수 없는 죄는 아무 것도 없다.

¹³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except such as is common to man; but God is faithful, who will not allow you to be tempted beyond what you are able, but with the temptation will also make the way of escape, that you may be able to bear it. (1 Cor. 10:13)

¹³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10:13)

²⁴Now 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stumbling, and to present you faultless before the presence of His glory with exceeding joy, (Jude 24)

²⁴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자 (유 24절)

V. JESUS' LOVING SALVATION PROVIDES US GREAT SAFETY (SONG 3:9-10)

우리의 심령에 커다란 안정을 가져다 주는 사랑스런 예수님의 구원 (아 3:9-10)

⁹Of the wood of Lebanon Solomon the king made himself a palanquin: ¹⁰He made its pillars of silver, its support of gold, its seat of purple, is interior paved with love by (for KJV) the daughters of Jerusalem. (Song 3:9-10)

⁹솔로몬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¹⁰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아 3:9-10)

- A. Our safety is described in the language of a royal wedding procession in (Song 3:9-10). The gospel couch (v. 7) is now described as a palanquin. King Jesus provides an eternal palanquin for us. Solomon made a portable chair enclosed with curtains that was carried by royal attendants.

우리의 안전은 왕의 혼인 행차 용어로 표현된다 (아 3:9-10). 복음의 연 (7절)은 가마로 표현된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마’를 제공하신다. 솔로몬은 이 가마를 직접 제작했다.

- B. Solomon specifically “made himself” a chariot to carry his queen. He designed it. Jesus Himself made the palanquin that we rest in. He had to become man to save us. He did not stay in heaven.

솔로몬은 왕비를 나를 수 있는 병거를 “직접 제작”하였다. 스스로 설계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안식할 가마를 직접 제작하셨다. 다시말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 오셨다.

- C. The gospel couch is made from the wood of Lebanon. The wood in the tabernacle was covered with gold. The wood spoke of humanity and the gold referred to deity. The cedars of Lebanon were used in building Solomon's temple which housed God's glory. The wood of Lebanon was the most beautiful, fragrant, expensive and strongest wood in Israel. The gospel was made of the strongest yet most costly flesh that ever walked the earth. Jesus came forth in perfect humanity. 복음의 연 (가마)은 레바논의 목재로 만들어 졌다. 성막에 쓰인 목재들은 도금처리가 되었다. 나무는 '인류'를 말하며, 금은 '신성'을 말한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었다. 레바논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향기로우며, 내구성이 강해 가장 비싼 목재였다. '복음'의 연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큰 대가를 치른 육체 (예수님)를 통해 만들어 졌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 D. The gospel couch was made of silver and gold. Silver speaks of redemption and gold speaks of divine character. The pillars of silver were railings around the royal seat. The support system to the couch was made of gold. The word "support" in the Hebrew is the word "the railing." Its support is of gold or our protection is established on God's infinite wisdom and great power. The Bride never need fall out of this glorious chair. '복음의 가마'는 은과 금으로 만들어 졌다. 은은 '구속'을 말하며, 금은 '거룩한(divine) 성품'을 말한다. 은기둥은 가마의 앉는 자리 주변 가로대였다. 가마를 받쳐주는 바닥 지지대는 금으로 만들어졌다. "지지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로대"를 말한다. 지지대가 금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가 보호받는다를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그 영광의 좌석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다.
- E. The gospel seat is purple which speaks of royalty and God's authority. The gospel releases the authority of Jesus through our lives as the enemy seeks to harass us. 보라색 (자주색)인 '복음의 좌석'은 왕족과 하나님의 권위 (권세)를 말한다.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려 할 때, 복음은 우리 삶에 '예수님의 권세'를 풀어준다.
- F. The interior tapestry of this palanquin (gospel) is woven by God's love for us. The interior is paved with God's passionate love for the daughters of Jerusalem or for weak people. The interior of the Gospel or its inner workings are decorated by God's love. He is gentle in His dealings. 가마 (복음)의 내부 벽걸이 융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짜여져 있다. 실내는 예루살렘 여자들, 즉,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열적인 사랑으로 장식되어 있다. 복음의 내부, 즉, 복음의 '내적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인자함으로 대하신다.
- G. The gospel was motivated by God's own eternal love for us. It was "paved with love." This speaks of Jesus' affections for us. The inner lining of the gospel chariot is paved with God's love. We feel the love of God for Jesus and for one another. God's plans are only carried out through His love for the saints. "His banner over me is love," is her confession. All that Jesus does is paved in love. This revelation causes us to grow in love in both feeling loved and having the power to love back. We are most safe when God's affections are understood. 복음의 동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사랑으로 포장된" 복음이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애정이다. 복음의 병거 내부 안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 사이의 사랑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실행된다. "나를 향한 주님의 깃발은 사랑"이라고 신부는 앞서 고백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다. 이 계시는, 우리 안에 주님과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심령의 안정을 누리게 된다.

- H. The KJV accurately translates, “FOR” the daughters of Jerusalem” instead of the NKJ which wrongly translates it “BY” the daughters. The gospel is paved with love “for” the daughters of Jerusalem, not “by” them. It is the love of Jesus for the daughters, not the love of the daughters for Jesus that is in view.

킹제임스역 (KJV)는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한’”으로 올바르게 번역했으며, 뉴킹제임스 역 (NKJV)은 “예루살렘 여자들에 ‘의한’”으로 잘못 번역되어 있다. 복음은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포장된 것이지, 그들에 “의해” 포장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예루살렘 여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지 예수님을 향한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VI. THE HOLY SPIRIT EXHORTS THE WHOLE CHURCH TO THE BRIDAL PARADIGM 모든 교회를 신부의 패러다임 (영성)으로 권고하시는 성령님

¹¹Go forth, O daughters of Zion, and see King Solomon with the crown with which His mother crowned Him on the day of His wedding, the day of the gladness of His heart (Song 3:11).

¹¹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으로 (아 3:11)

- A. We are called to see or gaze on Jesus as the Bridegroom King (Heb 12:2; Phil. 3:8; Isa. 33:17). We are to meditate on Jesus as the King crowned with all authority on His wedding day. When we see Jesus with His crown then we are not afraid of the mountains (Song 2:8-13).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신랑이신 왕’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히 12:2; 빌 3:8; 사 33:17). 우리는 혼인날에 모든 권세로 면류관을 쓰실, 왕이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한다.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산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아 2:8-13).
- B. The mother is a picture of the Church and those who do God’s will are Jesus’ mother and brother (Mt. 12:46-50). The agency He uses for our spiritual birth is the witness of a member of the Church. God is our father and the Church is spoken of as our mother.
‘어미’는 교회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라 말씀하셨다 (마 12:46-50).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교인들의 증거였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교회는 우리의 어미로 언급된다.
- C. Jesus has many crowns. The wedding crown is unique from the crown gained in conquering a nation. A wedding crown was a distinct crown. Jesus was sorrowful as He entered Gethsemane, but He knew there was coming another day of gladness. The crown is the accumulated response of the redeemed throughout history. There is no greater dignity than being among those who crown Him with our love and make His heart glad. Our greatness and dignity is found walking in the anointing to love Jesus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so that we may crown Him with our love. On that day, we will cast our crowns before Him in voluntary love. This defines our life.
예수님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면류관이 있다. 혼인 면류관은 타국을 정복해서 얻는 승리의 면류관과는 다르다. 혼인 면류관은 특별히 구별된 면류관이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슬픔에 잠기셨지만, 장차 올 새로운 기쁨의 날의 도래를 알고 계셨다. 이 면류관은 역사 속에 구속받은 자들의 구원이 축적된 면류관이다. 사랑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더 존엄한 일은 없다. 우리의 위대함과 존엄성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름부음으로 살면서, 주님께 사랑의 면류관을 씌워드리는 데에 있다. 그 날에, 우리는 자원하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면류관을 던지게 될 텐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 있다.

- D. The “mother crowned Him”. In the earthly human sense, the Church crowns Jesus as King when we respond in voluntary love to His kingship. When we love Jesus with all our heart we crown Him as our personal Bridegroom King. That is the crown He desires more than any other crown. It is the crown that makes Him glad. When we see who He is then we see who we are in Him. When the daughters of Jerusalem see their destiny then they live as the daughters of Zion. The day of His wedding is described in Rev. 19:6-8. It is the day that we fully give Him everything.
 “모친에 (모친이-역자주) 씌운 면류관.”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주님의 왕권에 우리가 자원하는 사랑으로 응답할 때,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우게 된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랑이신 왕,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운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면류관도 바로 이것이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자신들의 부르심을 올바르게 보게 될 때, ‘시온의 딸들 (여자들)’로 살 수 있게 된다. 주님의 혼인날은 요한 계시록 19:6-8 에 기록되어 있다. 그 날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될 것이다.
- E. How does Jesus feel about the coming wedding? He is glad about it. This is not a political wedding to create a political alliance with another nation. It is not a shotgun wedding.
 다가오는 웨딩 (결혼식)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가? 너무도 기뻐하신다. 이 혼인은 다른 나라와의 정치적 동맹을 위한 정략결혼이 아니다. 물론, 강제결혼은 더군다나 아니다. (자원하는 사랑을 통한 아름다운 결혼이다 - 역자주)
- ⁵*As the bridegroom rejoices over the bride, so shall your God rejoice over you. (Isa. 62:5)*
⁵...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사 62:5)

Session 16 The Cherished Heart: Equipped to Love Jesus (Song 4:1-8)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소중한 신부의 마음 (아 4:1-8)

I. REVIEW OF SONG 2:8-3:11

아가서 2:8 - 3:11 복습

A. Jesus called the Bride out of the comfort zone to the mountain tops to experience more of Him. However, she does not obey but tells Jesus to turn and go to the mountains without her.

예수님은 신부를 ‘안주하는 장소’에서 불러내시면서, ‘산’으로 올라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초청 하신다. 하지만, 신부는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께 홀로 산으로 돌아가라고 대답했다.

⁸*He comes leaping upon the mountains...¹⁰My Beloved said: “Rise up, My love...and come away...¹⁷Turn, my Beloved, and be like a gazelle...on the mountains. (Song 2:8-10, 17)*

⁸...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산을 빨리 넘어 오는구나 ¹⁰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여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¹⁷나의 사랑하는 자야 ...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 2:8-10, 17)

B. She experiences God’s loving discipline as He removes His manifest presence. She sought Him but did not find Him. The Lord is not angry but jealously wants a deeper partnership (Heb. 12:6)

주님은 임재를 거둬가시고,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육을 경험하게 된다. 주님을 찾아도, 발견치 못하게 된다. 이것은 주님의 노하심이 아니라, 더 깊은 동역을 질투하시기 까지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이다 (히 12:6)

¹*By night on my bed I sought the One I love; I sought Him, but I did not find Him. (Song 3:1)*

¹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아 3:1)

C. In Song 3:6-11, the Bride gained revelation of Jesus’ safe leadership as the Bridegroom King who could enable her to walk in 100-fold obedience in facing the mountains. She sees Jesus as the King who desires her love. We can crown Jesus with our love as King of our heart. The “wedding crown” of love makes Him glad. He desires that crown the most.

아가서 3:6-11에서, 신부는 장애물의 산들을 만났을 때, 100 퍼센트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안전한 리더십’을 가지신 신랑이신 왕,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된다. 신부의 사랑을 사모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신부는 깨닫게 된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사랑으로 면류관을 씌어 드릴 수 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랑의 “혼인 면류관”은 예수님이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면류관이다.

¹¹*Go forth, O daughters...and see King Solomon with the crown with which His mother crowned Him on the day of His wedding, the day of the gladness of His heart (Song 3:11).*

¹¹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 3:11)

II. OVERVIEW OF SONG 4:1-8

아가서 4:1-8 개요

¹*Behold, you are fair, My love...you have dove's eyes...your hair is like a flock of goats...²Your teeth are like shorn sheep...³Your lips are like...scarlet, and your mouth is lovely. Your temples...are like a piece of pomegranate. ⁴Your neck is like the tower of David...⁵Your breasts are like fawns...⁶I will go my way to the mountain...⁷You are all fair, My love, there is no spot in you. ⁸Come with Me...My spouse...look from the top of Amana...from the mountains of the leopards. (Song 4:1-8)*

¹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 무리 염소 같구나 ²네 이는 ... 털 깎인 양 ... 같구나 ³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⁴네 목은 ... 다윗의 망대 ... ⁵네 두 유방은 ...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⁶... 내가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⁷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⁸나의 신부야 너는 .. 나와 ...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 표범 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아 4:1-8)

A. After a season of divine discipline, Jesus calls the Bride fair or beautiful while she was yet maturing in her obedience and faith. In Song 4:1-5, Jesus prophetically affirms 8 “budding virtues” in the young Bride’s life. Jesus equips us in our weakness by affirmations that overpower Satan’s accusations against us (Rev. 12:10).

예수님은 거룩한 훈육의 계절이 지나고, 순종과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 가는 신부를 보시면서 ‘어여쁘다, 아름답다’고 말하신다. 아가서 4:1-5 에서, 예수님은 어린 신부의 삶에서 “피어나는 미덕” 8 가지를 예언적으로 확신시켜 주신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주님의 ‘사랑의 확신’으로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계 2:10).

B. This passage outlines 8 character traits that God wants to come forth in His Bride. The symbolism used here is developed through out the Scripture.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신부 안에 가꾸어지길 바라는 8 가지 성품이 요약되어 있으며, 여기서 사용된 상징은 아가서 전체에 걸쳐 전개된다.

Dove’s eyes: eyes of single-minded devotion and revelation

비둘기의 눈: 일편단심의 마음과 계시

Hair like goats: dedication to God

염소와 같은 머리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Teeth like shorn sheep: chewing the meat of the Word

털깎인 양과 같은 이: 고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씹는 능력

Lips like scarlet: speech that is redemptive

홍색실 같은 입술: 구속의 열매를 맺는 언어사용

Kisses of the mouth: intimacy with God

입맞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Veiled temples (cheeks/countenance): emotions impacted by the grace of God

가려진 두 뺨 (뺨/얼굴):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 받은 감정들

Neck like David’s tower: setting our will to obey God

다윗의 망대와 같은 목: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Breasts like fawns: the power to edify and nurture others

쌍태 노루새끼와 같은 두 유방: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들을 양육시킬 수 있는 능력

III. SETTING OUR HEART ON JESUS**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마음**

- A. In Song 4:1-5, we see the cherishing heart of Jesus our Bridegroom King. She responds by setting her heart to fully obey and believe His Word (Song 4:6-8).

아가서 4:1-5 에서, 우리는 신부를 소중히 아끼는 신랑이요,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신부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된다 (아 4:6-8).

- B. Jesus washes and releases His glory in the Church by cherishing us.
예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사 씻기시고, 자신의 영광을 교회에 풀어 주신다.

²⁶that He might sanctify and cleanse her with the washing of water by the Word, ²⁷that He might present her to Himself a glorious church...²⁹For no one ever hated his own flesh, but nourishes and cherishes it, just as the Lord does the church. (Eph. 5:26-29)

²⁶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²⁷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²⁹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 (소중히 여기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엡 5:26-29)

- C. God's primary method to change weak believers is to cause us to feel how much He cherishes us.

In this way, He removes the stain of our sin and shame from our heart. When we feel cherished, we become confident and bold in our love for Jesus. The power of King David's life was found in feeling loved by God. God's cherishing heart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themes in the Song.

연약한 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무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얼룩진 죄와 수치심을 제거하신다.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확신과 당당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된다. 다윗 왕의 삶의 비결은,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 받는 존재'라고 느끼는 데 있었다. 아가서에서 가장 돋보이는 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³⁵Your right hand has held me up, Your gentleness has made me great. (Ps. 18:35)

³⁵...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시 18:35)

- D. Jesus cherishes us by esteeming us as His Bride and by treating us with gentleness and affection as He affirms the budding virtues in our lives (even in our weakness when we stumble).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 삶에 '피어나는 미덕'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온유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소중한 주님의 신부로 높여 주신다.

- E. Jesus does not define our life by our struggles. He sees more than our failure. He defines us by the seeds of virtue that are in our heart and what we set our heart on, not only by what we attain.

He sees a willing spirit in us (Mt. 26:41). He defines us by our longings to love and obey Him.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내면의 싸움들을 보고 우리 인생을 정의 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 보시는 분이다. 승리한 영역들 뿐만 아니라, 심령에 심겨진 미덕의 씨앗들, 그리고 '심령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통해 우리를 정의하신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영을 보신다 (마 26:41).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을 보고 우리를 정의하신다.

- F. Seeing how Jesus defines us determines how we think and feel about ourselves. He sees the seeds of character in our life. He sees the end of our journey with clarity.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시는 예수님의 정의에 따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결정하게 된다. 주님은 우리 안에 심겨진 성품의 ‘씨앗’을 보신다. 우리 여정의 미래와 앞을 정확히 내다 보시며 우리를 대하신다.
- G. When Israel was being attacked by the mighty Midianites, Gideon hid in fear in the winepress (Judges 6). An angel appeared to him and said, “O mighty man of valor.” The Lord saw in Gideon what he could not see in himself. The Lord saw seeds of faith and courage that he was not yet operating in. The Lord named Gideon according to what he would become in the future. Gideon went on to become one of Israel’s great military leaders.
이스라엘이 막강한 미디안의 공격을 받았을 때, 기드온은 무서워 포도주 틀에 숨어 있었다 (삿 6장). 그 때, 한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했다. 기드온 자신이 볼 수 없었던 면을 주님은 기드온 안에 이미 보고 계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기드온 안에 ‘믿음과 용기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보셨다. 주님은 미래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시고 ‘기드온’이라 이름 지으셨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 되었다.
- H. Jesus called Peter the rock (the unmovable one; Matt. 16:18) knowing that he would deny Him in his fear. Peter outwardly looked like a compromiser. Peter’s instability was manifest again. The Lord saw the seeds of courage, stability and faithfulness in Peter and named him the rock.
베드로가 두려움으로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라 부르셨다 (마 16:18). 겉으로 보기에 베드로는 타협한 자요, 비겁한 자로 불안한 모습을 드러냈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 용기와 확신, 그리고 신실함의 씨앗을 보시고,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셨다.
¹¹When Peter had come to Antioch, I withstood him to his face, because he was to be blamed; ¹²for before certain men came from James, he would eat with the Gentiles; but when they came, he withdrew...fearing those of the circumcision. ¹³The rest of the Jews also played the hypocrite with him...even Barnabas was carried away with their hypocrisy. (Gal. 2:11-13)
¹¹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¹²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¹³남은 유대인들도 저희의 외식 (위선)에 유혹되었느니라 (갈 2:11-13)
- I. We see the Lord’s “editing process” in Abraham’s life saying that he never wavered in his faith. 주님은 아브라함을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라 말하시며, 그의 삶을 “조금씩” 조정해 가셨다.
²⁰He did not waver at the promise of God through unbelief... (Rom. 4:20)
²⁰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 (롬 4:20)
- J. God’s testimony of David is that he did all of God’s will and fulfilled God’s purpose. 다윗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 자라 간증하셨다.
²²He raised up David...concerning whom He testified and said, “I have found David...a man after My heart, who will do all My will...” ³⁶For David, after he had served the purpose of God in his own generation, fell asleep... (Acts 13:22, 36; NAS)
²²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 ³⁶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 (목적)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행 13:22; 36)

- K. The Lord calls sincere believers the disciples whom God loves (Jn. 13:23; 19:26; 20:2; 21:7, 20).
주님은 진실한 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이라 부르신다 (요 13:23; 19:26; 20:2; 21:7, 20).
²³There was leaning on Jesus’ bosom one of His disciples, whom Jesus loved. (Jn. 13:23)
²³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 13:23)
- L. The Devil calls us hopeless hypocrites. The enemy wears down many with accusation and condemnation. He wants us to feel like hopeless hypocrites so that we give up. He wants us to confuse immaturity with rebellion so that we give up.
마귀는 우리를 ‘위선자’라 참소한다. 원수는 많은 사람들을 참소하고 정죄하며 무너뜨린다. 스스로 ‘가망없는 위선자’로 느끼게 만들며, 미숙을 ‘반항 (대적)’으로 혼동시켜 우리를 포기시키려 한다.
- M. Many spend excessive emotional energy fighting the fires of condemnation and worthlessness. The baggage of condemnation and rejection takes a lot of energy to manage. This prevents us from effectively walking with the Lord because we are preoccupied with failure and shame.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과 자책감이라는 ‘불’과 싸우며, 시간과 정력을 지나치게 낭비한다. 죄책감과 거절감을 가지고 살면 불필요하게 많은 정력을 낭비하게 된다. 그리고, 실패와 수치심에 사로잡혀 주님과 효과적 동행을 해치게 된다.
- N. Many focus on measuring their attainment of maturity instead of being focused on setting the intentions of their heart to obey and believe. When we measure our attainment of maturity, we become vulnerable to two spiritual problems.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의 마음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성숙했는가에만 초점을 둔다. 성숙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두가지 영적 문제에 취약점을 노출시키게 된다.
1. If we measure up good, we can feel proud and thus, criticize others who fail.
결과가 좋으면, 교만이 생겨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비판할 수 있게 된다.
 2. If we fail, then we feel condemned and thus, feel like quitting.
실패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O. Our primary focus is to be on God’s emotions (beauty) and in setting the intention of our heart to fully love Him (obey and believe His Word). He will work mature victory in us in His timing.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들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자 (믿음과 말씀의 순종에) 하는 데 마음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우리 안에 성숙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¹³It is God who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o do for His good pleasure. (Phil. 2:13)
¹³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 2:13)
- P. Cherishing is the way a man changes his wife or children. All of God’s discipline occurs as He cherishes us. Parents often do not rightly interpret the budding virtues in their children. They see failure instead of the budding seeds of dedication and greatness.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남자가 그 아내와 자녀들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훈육하시는 것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 안에 피어나는 미덕을 잘 못 해석한다. 자녀들 안에 피어나는 헌신과 위대함의 씨앗을 보지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실패만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IV. WE ARE BEAUTIFUL TO GOD EVEN IN OUR WEAKNESS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

- A. Immediately after the maiden's season of discipline (Song 3:1-2), the Lord declares that she is beautiful to Him. Jesu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is revelation of her beauty by repeating it two times. The Holy Spirit blasts this divine trumpet before us, "Behold! You are beautiful and I love you. We are changed by the revelation that we are beautiful and loved with affection.

훈육의 계절 (아 3:1-2)이 끝나자마자, 주님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선포하십니다. 반복을 통해 '아름다운 신부'에 대한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앞에 '거룩한 나팔'을 불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계시로 변화된다.

'Behold, you are fair (beautiful), My love! Behold, you are fair! (Song 4:1)

'내 사랑 너는 어여쁘 (아름답)고도 어여쁘다 ... (아 4:1)

- B. The revelation that a sincere believer is beautiful to God even in their weakness is foundational to growing in God's grace. The word *fair* is translated in most Bibles as *beautiful*. This is one of the primary themes in the Song (Song 1:8, 15, 16; 2:10, 13, 14; 4:1, 7, 10; 6:4, 10; 7:1).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아름답다'라는 계시는 순수하고 진실한 자가 하나님 은혜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진리다. '어여쁘다'라는 단어는 대부분 성경에서 '아름답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가서의 핵심 주제에 속한다 (아 1:8, 15, 16; 2:10, 13, 14; 4:1, 7, 10; 6:4, 10; 7:1)

- C. The progression of the theme of our beauty through the Song of Solomon is important.

아가서에서, 우리가 소유한 아름다움에 관한 주제 전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 D. When we see Jesus as a King who is filled with gladness in loving us (Song 3:11) and who sees us as beautiful then we will arise to embrace every sacrifice. This empowers us to ascend any mountain or to face any obstacle.

우리를 사랑하사 기쁨이 충만하신 왕 (아 3:11)이시며,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보시는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아무리 힘든 '장애물의 산'을 직면해도 능히 이겨 낼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 E. Next, Jesus affirms 8 "budding virtues" in her life (Song 4:1-5). Each characteristic starts out only in seed form and then they need to be called forth with affirmation. Jesus equips us against Satan's accusations by affirming the seeds of our love and obedience that He sees in our heart.

이제, 예수님은 신부의 삶에 "피어나는 미덕" 8 가지를 확신시켜 주신다 (아 4:1-5). 각 성품은 아주 '작은 씨앗'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확증을 통한 권면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순종의 씨앗을 확증시켜 주심으로, 사단의 고소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 F. Jesus speaks blessing on 8 different aspects of her life. He gives us a new name so that we might grow up into it. Every phrase is God's poetic divine romance that aims at the heart in a specific way. These 8 virtues are reflections of the Lord's beauty imparted to us and they make Jesus glad as we love Him in these ways (Song 3:11). These eight virtues will also make our heart glad.

예수님은 신부의 삶을 8 가지 면에서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사,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 여기 본문에 나와있는 구절 하나 하나 모두가 우리의 심령을 겨냥한 하나님의 '시적인 거룩한 로맨스'다. 8 가지의 미덕은 우리에게 나눠주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한다. 우리가 그 아름다움 (아 3:11)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자신도 기쁘게 된다.

- G. The king spoke to her in agricultural language that she is familiar with since she tended goats and kept vineyards. Each symbol is interpreted by the Scripture.
 솔람미 여인은 본래 염소를 치고, 포도원을 지키는 양치기 소녀이다. 그래서, 왕은 신부에게 친숙한 ‘농경 용어’를 사용한다. 본문에 나오는 상징들은 성경을 통해 해석한다.
- H. The King tells her to go to the mountain. Up to this point, she only said yes to arise to go to the city not the mountain (Song 3:2). The Bride does not fully walk it out until Song 5-8. She has only said yes. The Lord values the yes, knowing that she will mature in time.
 왕은 여인에게 ‘산’으로 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인은 산이 아닌, 성 (도시)으로 가겠다고 대답한다 (아 3:2). 그러나 아가서 4 장 끝부분 까지, 신부는 자신이 한 말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대답만 한 것이다. 그럼에도, 주님은 점차 성숙하게 될 신부의 모습을 잘 아시기에, 신부의 대답을 높이 평가하신다.
- I. Three things work together to cause us to come to 100% commitment to obey (Song 4:6). First, she receives divine discipline (Song 3:1-2). Second, she receives fresh revelation of Jesus (Song 3:6-11). Third, she receives fresh revelation of herself in Jesus’ eyes (Song 4:1-5).
 100 % 온전한 순종을 위해, 우리의 삶에 세가지가 협력한다 (아 4:6). 거룩한 훈육 (아 3:1-2)과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 (아 3:6-11),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계시이다 (아 4:1-5).

V. EYES: SPIRITUAL UNDERSTANDING AND REVELATION (SONG 4:1)

눈: 영적 이해와 계시 (아 4:1)

¹You have dove’s eyes behind your veil. (Song 4:1)

¹... 네 눈이 비둘기 같고 ... (아 4:1)

- A. Eyes speak of spiritual insight. Paul spoke of the eyes of our understanding (Eph. 1:18). Seeing was Paul’s first priority because seeing is the doorway to growing spiritually (Phil 3:8-10; 2 Cor. 3:18). Obedience flows out of perceiving. When we see differently then we feel differently.
 눈은 ‘영적 통찰력’을 말한다. 바울은 ‘마음의 눈’을 언급했다(엡 1:18). 눈으로 보는 것은 바울의 삶에 최우선 순위였다. ‘보는 것 (깨달음)’은 영적 성장의 출입구가 되기 때문이다 (빌 3:8-10; 고후 3:18). 순종은 깨달음을 통해 시작된다. 대상을 다른 각도로 바라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변하게 된다.
- B. Dove’s eyes speak of purity and loyalty. The Holy Spirit is pictured as a dove. A dove never mates again when their partner dies. They are known for their loyalty. Dove’s eyes can not focus on two things and has no peripheral vision. This speaks of singleness of mind. Instead of being dedicated and secure in God’s love one moment then compromising or feeling condemned the next, she was single-minded. Her eyes are fixed upon Him instead of on lusts, failure or success.
 비둘기의 눈은 ‘순결’과 ‘충성’을 말한다. 성령님은 비둘기로 성경에서 그려진다. 비둘기는 짝이 죽으면 다른 짝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비둘기는 충실함으로 알려져 있다. 비둘기는 두 사물을 동시에 볼 수 없으며, ‘주변 시야’도 없다. 이것은 ‘일편단심’을 말한다. 잠깐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안정을 누리다가, 타협과 죄책감으로 괴로워 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않는 일편단심,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신부는 정욕과 실패, 또는 성공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

- C. She has humility in her revelation. She “hides” behind her veil or holds back some aspects of what God tells. Her secret life in God or her life behind her veil is private. Abundant revelation tempted Paul to pride (2 Cor. 12:7-9). Paul taught that knowledge often led to pride (1 Cor. 8:1). 신부는 겸손한 자세로 이 계시를 받아들인다. 신부는 베일뒤에 “숨는다.” 즉, 신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 있다. 베일 뒤에 가려진 삶은, 하나님 안에서의 ‘은밀한 삶’으로, 개인적인 삶의 부분을 말한다. 풍부한 계시를 가지고 있던 바울도 교만의 유혹을 받았다 (고후 12:7-9). 그는 지식이 종종 교만을 낳는다고 가르쳤다 (고전 8:1).

VI. HAIR: DEDICATION TO JESUS (SONG 4:1)

머리털: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 (아 4:1)

- A. The Bride’s hair spoke of her dedication to God. The hair of the Nazirite was an outward sign of their consecration or dedication (Num. 6). Anyone who took a Nazirite vow was not permitted to cut their hair. Samson cut his hair and thus broke his vow of dedication and therefore lost his power. Hair also speaks of the beauty of submission to God. Paul spoke of a woman’s hair as showing forth her glory and dedication to God’s authority (1 Cor. 11:5, 6, 15). 신부의 ‘머리털’은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헌신’을 말한다. 나실인의 머리털은 그들의 거룩함, 또는 헌신을 나타내는 외적 표징이었다 (민 6 장). 나실인의 맹세를 취한 자들은 머리털을 자를 수 없었다. 그러나, 삼손은 머리털을 잘라 맹세를 어겼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게 되었다. 머리털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아름다움’을 말하기도 한다. 여인의 머리털은 영광을 나타낸다고 바울은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복과 헌신을 비유로 말했다 (고전 11:5, 6, 15).

¹Your hair is like a flock of goats, going down from Mount Gilead. (Song 4:1)

¹...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아 4:1)

- B. The maiden has a majestic and stately walk as represented by a flock of goats. 무리 염소와 같이 술람미 여인은 ‘위엄스럽게’, ‘위풍당당’하게 걷는다.

²⁹There are three things which are majestic in pace, yes, four which are stately in walk...³¹a male goat also, and a king whose troops are with him. (Pr. 30:29-31)

²⁹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³¹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잠 30:29-31)

- C. We walk out our dedication with stateliness or as coming from godly wisdom with dignity. It is common for our dedication to be tainted with fleshly zeal that draws attention to self.

우리는 당당하게, 존엄을 지닌 거룩한 지혜로 주님을 향한 헌신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헌신이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 시키려는 육적 열심으로 더럽혀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 D. Her stately hair or dedication is the result of being well fed (on Scripture). The goats on Mount Gilead were abundantly fed. It was a fertile area with bountiful places where goats were known to eat in abundance. She was well fed on the love of God and the Word of God.

‘위엄이 찬’ 신부의 머리털, 즉, 신부의 헌신은 성경말씀의 ‘양식’으로 잘 채워진 결과로 나타난다. 길르앗 산에 있던 염소들은 풍성한 먹이를 먹고 살았다. 그곳은 땅이 풍성하고, 비옥해서 염소들에게 풍성한 먹이를 제공하던 유명한 곳이었다.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배부르게’ 된다.

VII. TEETH: HER LIFE IN THE WORD (SONG 4:2)

이: 말씀에 뿌리를 둔 삶 (아 4:2)

²Your teeth are like a flock of shorn sheep, which have come up from the washing, every one of which bears twins, and none is barren among them. (Song 4:2)²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아 4:2)

- A. Teeth speak of the ability to chew meat and thus to receive nourishment. Infants have no teeth to chew meat. Babes in Christ can not receive the meat of the Word (1 Cor. 3:1-2; Heb. 5:12-14). This virtue refers to her ability to receive the meat of God's Word. This 4-part description of her teeth is from an agricultural perspective. Her teeth are strong, abundant and effective. '이'는 고기를 씹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유아는 이가 없어 고기를 씹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유아들'은 고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 (고전 3:1-2; 히 5:12-14). 여기서, 고기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신부의 능력을 말한다. 농경 용어의 표현을 통해 신부의 이를 서술하고 있다. 신부의 이는 강하고, 풍성하며, 효과적이다.
- B. The wool of an unshaven sheep grows unevenly (unbalanced). Uneven wool speaks of fleshly zeal. The priests of Zadok had to wear linen garments and were forbidden to wear wool because it made them sweat (Ezek. 44:15-18). Our fleshly zeal must be under control of the Holy Spirit. 털깎지 않은 양의 양모는 골고루 자라질 않는다 (불균형). 길이가 다른 양모는 '육적 열심'을 말한다. 구약시대 사독의 제사장들은 가는 베옷을 입어야 했다. 양모는 땀을 내기 때문에 입는 것이 금지되었다 (겔 44:15-18). 육적 열심은 반드시 성령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져야 한다.
- C. To come up from the washing speaks of being cleansed from the dirt. As we eat the Word of God our teeth are like sheep that came up from the washing. The word washes us (Eph. 5:26). '목욕장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더러움에서 깨끗케 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이는 마치 목욕장에서 올라온 양과 같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씻기신다 (엡 5:26).
- D. Diligence in the Word results in an abundant impact on others. Her teeth were like a flock of shorn sheep in which every one bore twins and none is barren. Her ministry impact is fruitful without spiritual barrenness. To bear twins speaks of abundant fruitfulness. By meditating on the Word, we can keep our lives as clean as sheep who just emerged from the washing. This cleanliness of teeth speaks of her commitment to meditate on God's Word (1 Tim. 4:6-16). Song 4:1-2 describes her eyes, hair, teeth and temple as does Song 6:5-6. 말씀에 온전히 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신부의 이는 마치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과 같다. 신부의 사역은 영적 불모가 아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쌍태를 낳는다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목욕장에서 바로 나온 양과 같이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깨끗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신부의 '헌신'을 말한다 (딤후 4:6-16). 아가서 4:1-2 은 신부의 눈과 머리털, 이, 그리고 두 뺨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표현들은 아가서 6:5-6 에도 나오게 된다.

VIII. LIPS: GODLY AND ANOINTED SPEECH (SONG 4:3)

입술: 거룩과 기름부음의 언어사용 (아 4:3)

³*Your lips are like a strand of scarlet... (Song 4:3a)*

³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 (아 4:3)

- A. Her lips speak of her speech. Her words being like scarlet speak of words that bring redemption to others. The scarlet strand pictures God's redemption from the blood of Jesus. When the spies came to Jericho, Rahab placed the scarlet ribbon in her window to receive redemption (Josh. 2:21). Moses took the blood of calves with scarlet wool to sprinkle the people (Heb. 9:19). '입술'은 '언어사용'을 말하며, '홍색'과 같은 말은 사람들에게 '구속 (redemption)'을 주는 말을 의미한다. '홍색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상징한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라합은 구속함을 얻기위해 창문에 홍색줄을 달아 놓았다 (수 2:21). 모세는 홍색 양모에 송아지의 피를 묻혀 사람들에게 뿌렸다 (히 9:19).
- B. The scarlet strand must impact our lips as we speak in an edifying way (Col. 4:6). Wholesome speech is an indication of the grace of God on our lives (Eph. 4:29; Jas. 2:3). 덕을 세우는 말과 함께 이 '홍색실'은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한다 (골 4:6). 건전하면서도 덕을 세우는 언어사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함께한다는 증거다 (엡 4:29; 야 2:3).

IX. MOUTH: HER INTIMACY WITH GOD (SONG 4:3)

입: 하나님과의 친밀감 (아 4:3)

³*Your mouth is lovely. (Song 4:3b)*

³... 네 입은 어여쁘고 ... (아 4:3)

- A. In Song 1:2, the mouth was introduced in the Song in context to the kisses of His mouth which refers to intimacy with God. Our communion with Jesus is lovely to Him. In the Song of Solomon, the lips speak of speech as the mouth speaks of intimacy. The king is not being repetitive or redundant in this affirmation to the maiden. 아가서 1:2 에서, 입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말하는 입맞춤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우리가 갖는 예수님과의 교제는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럽다. 아가서에서, 입술은 우리의 언어사용을, 입은 친밀감을 말한다. 신부에게 확증을 주는 왕은 지루하게 반복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 B. When we give our love to Jesus, it often seems weak. However, God declares that it is lovely to Him, even in our immaturity. The Lord delights in the communion He has with us.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때, 그것은 마치 '연약한' 사랑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사랑이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의 친교를 기뻐 하신다.

X. TEMPLE: HER EMOTIONAL MAKE-UP (SONG 4:3)

두 뺨: 감정의 메이크업 (아 4:3)

³*Your temples behind your veil are like a piece of pomegranate. (Song 4:3c, d)*³... 너을 속의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 4:3)

A. The temples (cheeks or countenance) reveal one's emotions. The Hebrew word translated as temples can be translated as countenance or cheeks. Several translations use the cheeks instead of temples. Our emotions are expressed by our countenance or cheeks. We can see anger, joy, gladness, and sadness on the cheeks or countenance. They are windows into one's emotions.

두 뺨 (뺨 또는 얼굴)은 사람의 '감정'을 드러낸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뺨 또는 얼굴, 용모로 번역될 수 있다. 대부분 번역본들은 '뺨'으로 해석한다. 사람의 감정은 표정, 또는 뺨을 통해 표현된다. 분노, 기쁨, 즐거움, 또는 슬픔의 감정은 표정을 통해, 두 뺨을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뺨은 사람의 감정을 비추는 창문이다.

B. Her godly emotions were like a piece of sweet pomegranate. They were sweet to God. The pomegranate was a common fruit in Israel that was very sweet. They were represented on the gown of the high priest or on the ephod.

신부의 거룩한 감정들은 하나님께 마치 달콤한 '석류 한쪽'과 같다. 석류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주 달콤한 과일에 속했다. 이 거룩한 감정의 표현은 대제사장의 제의 (의복), 또는 에봇에 잘 나타나 있었다.

C. When pomegranates are broken they are red. Red speaks of her modesty, her propensity for blushing in the presence of shameful things.

석류를 반으로 쪼개 안을 보면 색깔이 붉은 홍색이다. '붉은 색'은 수치로운 행동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붉힐 줄 아는 신부의 성향과 겸손을 말한다.

D. A prostitute does not blush when acting immodestly. A red countenance speaks of one sensitive to shameful things (red from blushing). Behind her veil speaks of her hidden life in God as being modest. It is genuine and not just a show. There is a hidden life of modesty and tenderness.

매춘부는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에도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 홍색을 띤 얼굴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부끄러움에 예민하다는 것을 말한다. '베일 뒤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밀한 삶'을 말한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지내는 신부의 은밀한 삶을 말한다.

XI. NECK: HER RESOLUTE WILL (SONG 4:4)

목: 결단의 의지 (아 4:4)

⁴*Your neck is like the tower of David, built for an armory, on which hang a thousand bucklers, all shields of mighty men. (Song 4:4)*⁴네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같고 (아 4:4)

A. In Scripture, the neck often speaks of the will that can be stiff necked (resistant) or submissive. When one put his foot on the neck of a conquered enemy it symbolized their submission.

성경에서, 목은 보통 뻣뻣한 (저항하는), 또는 복종을 의미하는 '의지'를 말한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원수의 목을 발로 누르는 것은 원수의 굴복을 상징했다.

- B. The Bride's will is like the heart of David who set his heart steadfastly before God (Ps. 57:6). This is in contrast to being double-minded.
신부의 의지는 하나님앞에 확고부동한 마음을 지녔던 다윗과 같다 (시 57:6). 신부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 C. David's towers were strong and high to make them effective in defending the city of Jerusalem. Her choices were strong like the tower of David.
다윗의 망대들은 예루살렘 성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높은 곳에 위치해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다. 신부의 선택과 의지는 다윗의 망대처럼 강력하다.
- D. An armory stored weapons for war (Neh. 3:19, 25). A resolute will to obey God is like a storehouse of weapons against Satan's kingdom. A buckler was a small, round shield often worn on the arm. 1,000 shields spoke of abundant protection against the enemy. Her will was like the shields of 1,000 skilled warriors which were proven in battle. They provided protection from the enemy. This refers to the shield of faith which is used to protect us (Eph. 6:16).
병기고는 전쟁을 대비해 무기들을 저장하는 곳이다 (느 3:19,25). 하나님께 순종 하고자 하는 '결단의 의지 (뜻)'는 사단의 왕국을 대적하기 위해 준비해 놓는 병기고와 같다. '둥근 방패'는 작고 둥글며 팔에 부착하는 방패였다. 1000 개의 방패는 막강한 방어선을 구축해 원수로 부터 '안보'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신부의 '의지'는 전투에 뛰어난 1000 명의 전사들이 지닌 방패와도 같다. 원수로부터 보호와 안전을 제공한다.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믿음의 방패'이다 (엡 6:16).
- E. Our unwavering resolution to obey Jesus is an essential aspect in our spiritual victory. There is no substitute for exercising our will to say yes to God. The Lord will not violate His own boundary lines of redemption by forcing us to say yes to Him.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불굴의 결단은 영적 승리를 위해 우리가 꼭 지녀야 하는 필수요소다. 우리는 '순종의 의지'를 계속 연습해야 한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주님은 순종을 강요하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경계선을 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XII. BREASTS: ABILITY TO NURTURE OTHERS (SONG 4:5)

두 유방: 타인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 (아 4:5)

⁵*Your two breasts are like two fawns, twins of a gazelle, which feed among the lilies. (Song 4:5)*

⁵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아 4:5)

- A. Breasts speak of nurturing others as a mother nourishes her babies. Fawns are youthful animals. Her breasts are like two fawns which are twins. This speaks of a double portion, or a double ability to nurture others in giving them the milk of the Word. Breasts like fawns speak of the milk of a young mother that does not run dry. This is in contrast to an aging woman.
두 유방은, 엄마가 아기를 양육하듯, 타인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노루 새끼는 어린 동물이다. 신부의 두 유방은 '쌍태 노루 새끼' 같다. 이것은 우유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먹이며 양육할 수 있는 '갑절의 기업과 능력'을 말한다. 노루 새끼와 같은 두 유방은 마르지 않는 엄마의 모유를 말한다. 나이가 들어 모유의 능력이 없어진 여인과 다르다는 뜻이다.
- B. The maiden's ministry is likened to fawns which feed among the lilies which speak of purity. He promised to make her an ornament of silver or to be equipped in ministry (Song 1:10).
솔람미 여인의 사역은 '순결'의 백합화 가운데 꿀을 먹는 노루새끼와도 같다. 주님은 신부에게 '은 장식'을, 즉, 사역을 위해 신부를 양육해 주시리라 약속하셨다 (아 1:10).

XIII. HER COMMITMENT IS FOUNDATIONAL FOR SPIRITUAL MATURITY (SONG 4:6)

영적 성숙의 기초가 되는 헌신 (아 4:6)

“Until the day breaks and the shadows flee away, I will go my way to the mountain of myrrh and to the hill of frankincense. (Song 4:6)

⁶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 4:6)

- A. She responds to these affirmations of her beauty by embracing the cross or committing to go to the mountain of myrrh. The mountain refers to obstacles that hinder her obedience (Song 2:8-9). 신부의 아름다움을 확증시켜 주신 주님께, 신부는 ‘몰약산’으로 가겠다는, 즉, 십자가를 지겠다는 헌신으로 응답하게 된다. ‘산’은 신부의 순종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가리킨다 (아 2:8-9).
- B. Myrrh is a burial spice that is costly yet has a great fragrance. It speaks of Jesus’ death. It is only a burial spice to our flesh but it as fragrance to our spirit. It is a mountain of myrrh (not comfort). It is mountain not a small hill. Jesus ascended the mountain of myrrh in His own life when He went to the cross. We take up our cross to deny ourselves (Lk. 9:26) to ascend the mountain.
몰약은 비싸지만, 뛰어난 향기를 지닌 장례용 향품이다.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한다. 육적으로는 장사용 향품이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향기’와도 같은 것이다. 이 산은 (편안한 곳이 아닌) 몰약의 산으로, 작은 언덕 (산)과는 다르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실 때, ‘몰약의 산’을 오르셨다.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져야한다 (눅 9:26).
- C. Frankincense or incense throughout Scripture speaks of prayer (Ps.141:2; Rev. 5:8). We ascend the hill of frankincense to receive strength to ascend the mountain of myrrh. Jesus exhorted Peter to pray to receive strength to face temptation (Mt. 26:40-41). The mountain of myrrh is too difficult to ascend without living on the hill of frankincense. Our prayer life empowers our heart to embrace the cross with self denial. We can only embrace the mountain of self denial to the measure that we go up the hill of prayer.
성경에 나오는 유향, 또는 향은 ‘기도’를 말한다 (시 141:2; 계 5:8). 우리는 ‘유향의 언덕’에 올라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몰약의 산을 오를 수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마 26:40-41). 유향의 언덕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몰약의 산을 오르는 것이 벽찰수 밖에 없다. 기도생활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는 권능을 부여한다. ‘기도 언덕’의 높이에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도 차이가 나게 된다.
- D. The hill of frankincense is smaller than the mountain of myrrh. A small amount of prayer is sufficient to prepare us for a higher mountain. The impact of our prayer exceeds our efforts on the mountains. Short prayers go a long way. We get more than we deserve from our prayer life.
유향의 언덕은 몰약의 산보다 낮다. 우리는 ‘작은’ (미약한) 기도를 통해서,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 기도는 산을 오르려는 인간의 노력을 능가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짧은 기도의 능력도 오래간다.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는 기도한 것 이상의 권능을 받게 된다.
- E. The maiden makes a firm decision to leave the comfort zone to go up the mountain or to walk in all God’s will without fear. **“I will go!”** How glorious these words are to God!
이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안락 지대를 떠나 산으로 간다. 즉, 두려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며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된다. “일어나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인지 아는가!

- F. She refers to it as **“my way”**. We must follow the unique path God has chosen for us. God calls each of us on our own tailor-made journey. Our unique way to the mountain of myrrh involves difficulties unique to God’s purpose in our life.
 신부는 본문에서 “나의 길” 이라 말한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의 길을 가야한다. 사람마다 다른 여정을 정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사람을 다른 여정으로 부르신다. 몰약의 산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고난들도 따르게 된다.
- G. She commits to continue on the mountain of myrrh until all compromise is gone or until the day breaks and the shadows flee away. The shadows speak of the areas of weakness or compromise, like the little foxes (Song 2:15). The morning light brings a new day, or a new season of victory after struggling through the night. It speaks of both the day of eternity when we will live in the full presence of God and it speaks of a time of victory where we live in greater light on the earth.
 신부는 날이 밝고 그림자가 도망갈 때까지, 즉, 모든 타협이 사라질 때까지 ‘몰약의 산’에 머물겠다고 헌신한다. ‘그림자’는 작은 여우들 (아 2:15) 처럼, 연약한 부분, 또는 타협의 영역을 말한다. ‘아침햇살’은 힘겨웠던 밤의 싸움을 빛으로 승리하며 새날을 가져오는 ‘승리의 계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운데 살면서 누리게 될 ‘영원의 날 (낮)’과, 이 땅에서 영광의 빛가운데 살게될 ‘승리의 날들’을 말한다.

XIV. JESUS’ FRESH WORD OF AFFIRMATION (SONG 4:7)

새로운 확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아 4:7)

⁷You are all fair (beautiful), My love, and there is no spot in you. (Song 4:7)

⁷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름다워) 아무 흠이 없구나 (아 4:7)

- A. He calls her “beautiful” 13 times throughout the Song. He has called her “beautiful or fair” 8 times up to this point in the Song. “All fair” is translated “altogether beautiful” in the NAS. He adds the word “all” for the first time in the Song. This is because she set her heart to go to the mountain. She had only said yes. She had not yet gone to the mountain. He sees no spot in her or no area in which she consciously resists His leadership.
 주님은 신부에게 “아름답다”라는 말을 아가서에서 13번 반복하신다. 지금까지, 주님은 신부에게 “아름답다, 또는 어여쁘다”라는 말을 8번 반복하셨다. “순전히 어여쁘다”라는 말은 “전체가 아름답다”라고 NAS역에 번역되어 있다. “전체가, 순전히”라는 단어를 주님이 여기서 처음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신부가 산으로 가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신부는 결단만 했을 뿐, 아직 산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다. 주님은 신부 안에 흠이 없다고, 즉, 주님의 리더십을 의식적으로 저항하는 영역이 없다고 보신다.
- B. She does not go up the mountain until she faces the 2-fold test (Song 5:2-8). He sees her willingness to embrace the Cross. The Lord defines her in terms of her willing spirit, not in terms of her weak flesh or her maturity.
 결단은 했지만, 신부는 두 가지의 시험 (아 5:2-8)이 오기 전까지 산으로 떠나지 않게된다. 그럼에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려는 신부의 의지를 보신다. 육신의 연약함이나 성숙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 (순종의 마음)’을 보며 신부를 정의하신다.

XV. THE CALL TO SPIRITUAL WARFARE (SONG 4:8)**영적 전투로의 초청 (아 4:8)**

⁸*Come with Me from Lebanon, My spouse, with Me from Lebanon. Look from the top of Amana, from the top of Senir and Hermon, from the lions' dens, from the mountains of the leopards. (Song 4:8)*

⁸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아 4:8)

- A. The king calls her his spouse or bride for the first time in the Song. With her new commitment to go to the mountain, she is now living from her heart like the Bride. She now carries her heart as a loyal Bride. For the next 4 chapters in the Song, we see her development into mature love.
여기서, 왕은 처음으로 술람미 여인을 ‘배우자,’ 또는 ‘신부’라고 부른다. 산으로 가고자 하는 신부의 헌신으로, 술람미 여인은 이제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살게 된다. 왕의 신부라는 마음으로 살게된다. 아가서 5-8 장에서,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개발해 나가는 신부를 보게된다.
- B. Jesus' inheritance is an eternal companion that is an affection-filled Bride that will be equally yoked to Him in love. The Cross is not an end in itself. It provides Jesus with His Bride and the Father His family. The Church will live with a bridal identity in loving obedience (Rev. 22:17). 예수님의 유업은,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동일한 멍에를 지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찬 영원한 동반자, 신부다. 십자가 그 자체가 신앙의 최종선은 아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신부를,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새로운 가족을 선사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계 22:17).
- C. Jesus invites her to come with Him from the mountains of Lebanon of spiritual warfare to follow Him wherever He was to go. He calls her to follow Him to Gethsemane (Song 5:2-7). 영적전투가 치열한 레바논 산, 즉, 주님은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신부가 따라오도록 초청하신다. 주님은 신부를 ‘겔세마네’ 동산으로 초청하신다 (아 5:2-7).
- D. She now obeys the original challenge given to go to the mountain (Song 2:10, 13). Solomon called his bride to his house in the forests in the mountain range of Lebanon in northern Israel. Lebanon is filled with fragrant flowers (4:11; Hos. 14:6). Its glory is mentioned in Is. 35:2. 이제, 신부는 ‘산’으로 가야하는 도전 (아 2:10,13)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산맥 숲속 깊은 곳에 자리잡은 자신의 별장으로 신부를 초청한다. 레바논은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했던 곳이었다 (아 4:11; 호14:6). 레바논의 영광은 이사야 35:2에 잘 언급되어 있다.
- E. Lebanon is both a geographical area and a mountain range. Senir and Hermon are two different mountain peaks within the mountain range of Lebanon. Mt. Hermon is on the east side of the Jordan River. It was also called Mt. Senir by the Amorites (Deut. 3:8-9). Mt. Amana is not mentioned anywhere in the Bible, but is believed to be next to Mt. Senir and Hermon (Deut 3:9; 4:48; I Chron 5:23) which are both a part of the Hermon mountain range. 지리적으로 레바논은 산맥에 걸쳐있다. 특히, 스닐과 헤르몬은 레바논 산맥에 걸쳐있는 산봉우리다. 헤르몬 산은 요르단 강 동편에 있다. 아모리 족속은 그 산을 스닐산 이라고 불렀다 (신 3:8-9). 아마나 산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닐산과 헤르몬 산 (신 3:9; 4:48; 대상 5:23) 옆에 있었다고 전해내려 온다.

- F. She is to look from the top of Amana, Senir and Hermon” or from His point of view (heavenly perspective). If we see difficulties from only a natural point of view, then we lose heart. We must look from His point of view to prevail in spiritual warfare.
 신부는 아마나, 스닐, 헤르몬 산 정상, 즉, 주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삶의 고난들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낙심하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해, 우리는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 G. After Israel conquered the Ammonites on the east side of the Jordan River, they climbed to the top of these eastern mountains to see the Promise Land on the west side of the Jordan River. Israel had to defeat two Amorite kings (Og and Sihon) before they could climb this mountain (Deut. 3:1-11). She is a warring Bride engaged in spiritual warfare and seated in heavenly places. 이스라엘은 요단 강 동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을 정복한 후, 동편 (헤르몬) 산 정상에 올라, 요단 강 서편에 있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 이 산을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은 두 아모리 왕들 (오그와 시혼)을 정복해야 했다 (신 2:1-11). 신부는 예수님과 더불어 천상에 앉혀진 자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전사적 신부’다.
- H. There are lions and leopards on the mountaintops. She must war against lions and leopards, which are animals that devour humans. Satan is a roaring lion who seeks to devour us (1 Pet.5:8). This speaks of spiritual warfare (Eph. 6:10-12).
 산 정상에는 사자와 표범들이 살고 있다. 신부는, 사람을 잡아먹는 동물들, 사자들과 표범들을 대적하며 싸워야한다.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 ‘우는 사자’와 같기 때문이다 (벧전 5:8). 이것은 ‘영적전투’를 말한다 (엡 6:10-12).
- I. The “mountains of prey” had wild animals that stalked the people of Israel (Ps. 76:4). Habakkuk wrote of plundering the beasts on the mountains of Lebanon that made Israel afraid (Hab. 2:17). “사냥감의 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몰래 접근하는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레바논 산의 짐승들을 잔해하는 부분에 대해 기록한 바 있다 (합 2:17).

Session 17 The Ravished Heart of God (Song 4:9-5:1)

빼앗긴 하나님의 마음 (아 4:9-5:1)

I. REVIEW OF SONG 4:1-8

아가서 4:1-8 복습

A. After a season of divine discipline, Jesus surprised the Bride by calling her fair (beautiful) while she was in the process of maturing in her obedience and faith. He validated her desires to obey Him before they were manifest in her character. In Song 4:1-5, Solomon spoke of 8 aspects of the Shulamite using agricultural language. He affirmed 8 “budding virtues” in the maiden’s life. They are identified by God as desires in her heart before they are formed in her character.

거룩한 혼육의 계절이 지나고, 신부의 순종과 믿음이 성숙해지는 과정 동안에도 예수님은 신부를 ‘어여쁘다 (아름답다)’ 부르시면서 신부를 놀라게 하신다. 성품이 아직 다 자라나지는 않았지만, 순종하기 원하는 신부의 마음만을 보시고 예수님은 신부를 확증해 주신다. 아가서 4:1-5에서, 솔로몬은 농경 용어를 사용해 술람미 여인의 8 가지 성품을 칭찬해 주었다. 술람미 여인의 삶 속에 있는 8 가지 “씩트는 미덕”을 확증해 주었다. 성품이 아직 온전히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신부의 소원을 보시고 미덕들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다.

B. Our obedience begins when we set our heart to obey not just after we gain victory in an area of our behavior. After we set our heart to obey God, we declare war on areas that we struggle in. Thus, we can confidently receive His affectionate mercy and feel His pleasure in each step of the growth process. We are not content with only setting our heart to obey, we want full victory.

어떤 영역에 아직 승리를 거두지 않았더라도, 순종하고자 결단할 때 우리의 순종은 시작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결단한 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영역에 대해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성장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한 자비와 기쁨을 당당히 받고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순종의 결단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C. We are beautiful to God even in our weakness. Immediately after the maiden’s season of discipline (Song 3:1-2), the Lord declares that she is beautiful to Him. The revelation that a sincere believer is beautiful to God even in their weakness is foundational to growing in God’s grace. We are changed by this revelation.

우리는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존재다. 혼육의 계절이 지나자 마자, 주님은 신부를 ‘아름답다’고 선포하신다. 연약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답다라는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안에 성장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계시이다. 이 계시를 통해 변화되게 되기 때문이다.

¹Behold, you are fair (beautiful), My love! Behold, you are fair! (Song 4:1)

¹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름답고)도 어여쁘다 (아 4:1)

D. Her fearless wholehearted commitment (Song 4:6)

이제는 두려워 하지 않고 신부는 결단 (아 4:6)을 내린다.

⁶Until the day breaks...I will go my way to the mountain of myrrh... (Song 4:6)

⁶날이 기울고 (터오고) .. 때에 내가 몰약 산...으로 가리라 (아 4:6)

E. The Bride responds to Jesus’ affirmations by setting her heart to obey His call to come with Him to the mountains (Song 2:8-13). She now embraces the cross by going to the mountain of myrrh. She makes a firm decision to leave the comfort zone to go up the mountain saying, **“I will go!”**

신부는 ‘산으로 가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결단을 내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에 응답한다 (아 2:8-13). ‘몰약의 산’으로 가며 자신의 십자가를 끌어 안게 된다.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신부는 자신의 ‘안락의 지대’를 벗어나 ‘산’으로 가겠다는 확고부동의 결단을 내린다.

- F. She had only said yes, she had not yet gone to the mountain. She does not go up the mountain until she faces the 2-fold test (Song 5:2-8). He sees her willingness to embrace the Cross. The Lord defines her in terms of her willing spirit, not in terms of her weak flesh or her maturity. 그러나, 여기서 신부는 대답만 했을 뿐, 아직 산으로 가지는 않았다. 산으로 가기전에 신부는 두 가지 시험을 치르게 된다 (아 5:2-8). 주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는 신부의 의지를 보신다. 주님은 신부의 연약한 육신이나 성숙함이 아닌, '자원하는 심령'을 보고 정의 하신다.
- G. Jesus pours out extravagant affirmation calling her all together beautiful (Song 4:7)
예수님은 신부를 보며, "순전히 아름답다"라는 확언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신다 (아 4:7).
⁷You are all fair (altogether beautiful, NAS), My love, and there is no spot in you. (Song 4:7)
⁷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아 4:7)
- H. The Bride joins the King in spiritual warfare as He calls her His spouse for the first time in the Song. With her new commitment to go to the mountain, she now carries her heart as a loyal Bride. For the next 4 chapters in the Song, we see her development into mature love. 여기서, 신부를 처음으로 '배우자 (신부)'라고 부르시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는 '영적 전투'에 동참하게 된다. 신부는 산으로 가고자 하는 헌신을 보이면서, '충성해 나가는 신부'의 마음으로 살게 된다. 아가서 5장 - 8장에서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성취해 나가는 신부의 모습을 보게된다.
⁸Come with Me from Lebanon, My spouse...Look from the top of Amana, from the top of Senir and Hermon, from the lions' dens, from the mountains of the leopards. (Song 4:8)
⁸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아 4:8)
- I. Next, Jesus reveals His desire for His bride (4:9-10) and then affirms her godly life and fruitful ministry referred to as a flourishing garden (4:11-15). She prays for His full intervention (4:16). 예수님은 신부에게 그분의 소원을 나타 내시면서 (아 4:9-10), 활짝 번창하는 '정원 (동산)' 즉, 신부의 '거룩한 삶과 열매맺는 사역'을 확증해 주신다 (아 4:11-15). 신부는 주님의 온전한 개입하심을 위해 기도한다 (아 4:16).

II. JESUS' HEART IS RAVISHED FOR HIS PEOPLE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이 뺏기신 예수님

⁹You have ravished My heart, My sister, My spouse; You have ravished My heart with one look of your eyes, with one link of your necklace. (Song 4:9)

⁹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 4:9)

- A. This verse summarizes the Song of Solomon. Many believers do not know that God is filled with desire for them. A working definition of the ravished heart of God is: ***To be filled with emotions of joy or delight because of one who is unusually attractive*** (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이 구절은 아가서를 짧게 요약하는 구절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극히도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빼앗긴 (하나님의) 마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별히 매력적인 대상으로 인해 기쁨, 또는 즐거움이 충만한 마음 (Webster의 Collegiate 사전).
- B. The revelation of Jesus' ravished heart equips us for 100-fold obedience. The Bride's decision for radical obedience (Song 4:6) is walked out in Song 5:2-8. 빼앗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계시는 100% 순종을 위한 과정을 도와준다. 헌신적인 순종 (아 4:6)을 결심했던 신부는 아가서 5:2-8 에서 그 순종을 실천해 나아가게 된다.

- C. Our salvation involves much more than receiving a legal position of righteousness before God (2 Cor. 5:21). We must understand God's affections for us. Why? Because we will never have more passion for God than what we understand about His passion for us. We love Him because we understand He first loved us (1 Jn. 4:19). God's heart is filled with delight for His people.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법적 위치'를 소유하게 되는 것 이상을 말한다 (고후 5:21).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요일 4:19).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차 있다.

¹⁰I am my Beloved's, and His desire is toward me. (Song 7:10)

¹⁰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 7:10)

III. THE CHRISTIAN PARADIGM OF GOD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패러다임

- A. The Christian paradigm of God is founded on the revelation of God's deep emotions of love. The revelation of God as a tender Father and a passionate Bridegroom was a new idea in religious history (see William Barclay's commentary on Heb. 4).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패러다임은,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계시에서 찾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교회사에서 '인자하신 아버지', '열정적인 신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히 4 장에 관한 William Barclay 주석 참고).
- B. In Jewish tradition, what was most emphasized about God was that He is holy in the sense of being ***totally separate from sin***. They did not think of a holy God as sharing human experience. They thought of God as incapable of sharing it simply because He is God. In other words, they saw God as being "above" sharing the human dilemma by the very definition of being God.
 유대인 전통에서는, 죄와는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분'이신 하나님만 가장 강조되어 왔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랴 생각하지 않았다. 단순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다시말해, 그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딜레마나 문제를 나누기에는 너무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 정의해 버린 것이다.
- C. The Greek philosophers saw God as ***emotionally distant*** from humans. The most prominent Greek thinkers were the Stoics. They saw the main attribute of God as being apatheia, by which they meant God's ***inability to feel anything***. They reasoned that if God felt something then He might be influenced or even controlled by what He felt. They argued that those who felt sorrow or joy were vulnerable to being hurt and thus controlled by those they had feelings for. They believed that anyone who affected God's emotions would be greater than God for that moment. The Epicureans (a school of Greek philosophy) believed that the gods ***lived detached*** in eternal bliss. They lived in the intermediate world and thus, were not aware of events occurring on earth. They were therefore, totally detached from human affairs as they lived in great happiness.
 그리스 (헬라인, 희랍)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으로 보았다. 당시, 가장 뛰어난 그리스 철학자들은 스토아파 철학자들 (Stoics)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 속성을 '냉담한 감정의 소유자', 즉, 어떠한 감정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으로 정의해 버렸다. 그들의 추론은 하나님께서 만약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감정에 좌지우지 되거나, 심지어는 조정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슬픔이나 기쁨을 느끼는 자들은 상처받기 쉬운 위치에 놓이게 되며, 감정을 가진 대상들에게 조정된다는 논지를 내세웠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감정에 영향을 끼친 자는 그 순간만큼은 그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된다고 믿었다. 에피쿠로스 학파 (Epicureans; 희랍 철학 학교)들은 신들이 영원한 세계의 환희 가운데 '인간과는 분리된 삶'을 산다고 믿었으며, 신들은 '중간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믿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신들은 인간사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더없는 환희와 행복 속에 산다고 믿었다.

D. The Jews understood God as a *holy God* separated from humans; the Stoics a *feelingless god*; the Epicureans a *detached god*. In to this context of religious thought came the totally new idea of the Christian God who deliberately subjected Himself to human emotion, pain and weakness.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인간과는 ‘분리된’ 거룩한 하나님으로, 스토아 학파들은 ‘감정이 메마른’ 신으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과는 분리되어 있는’ 신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종교적 생각이 만연한 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기독교의 하나님, 인간의 감정과 고통, 연약함에 의도적으로 동참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게 된 것이다.

E. Jesus came as the One who embraced human experience and was therefore, sympathetic. 예수님은 인간의 경험과 삶을 직접 끌어 안고 오신 분으로, 긍휼 (체휼)함을 가지신 분이다.

¹⁵*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cannot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was in all points tempted as we are, yet without sin. (Heb. 4:15)*

¹⁵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 4:15)

⁸*Though He was a Son, yet He learned obedience by the things which He suffered. (Heb. 5:8)*

⁸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 5:8)

F. It was inconceivable to the religious mindset of the first century that a holy God would have capacity for tenderness, sympathy and affection, who even wrapped Himself in the garments of humanity and then experienced God’s wrath on a cross. It is difficult to realize how dramatic this Christian paradigm of God was at that time.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자함, 긍휼, 그리고 애정을 소유한 분으로 심지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다는 것은 1세기 종교, 철학자들의 사고 방식에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패러다임이 얼마나 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라.

G. The capacity to deeply love is unique to the human spirit. It distinguishes us from even the most exalted angels. Nothing in Scripture describes angels as having the capacity for affection. They have joy, but never are described as having affection. This capacity for affection brings us to unimaginable heights in God’s glory, but it can also be dangerous by bringing us to agonizing depths of perversion, if we resist God’s grace.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이 진리는 심지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장과도 우리를 구별시키는 역할을 한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사랑의 능력을 가진 천사들을 기술한 본문은 없다. 기쁨의 감정은 있지만, 애정을 가진 존재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사랑의 능력’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로 우리를 상승시켜 준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해로운 악의 꼴짜기 ‘밀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위협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

IV. JESUS’ REVELATION OF HIS LOVE FOR US (REVIEW FROM SESSION 5)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계시 (5장 복습)

A. *God loves us in the same way that God loves God:* The measure of the Father’s love (affection) for Jesus is the measure of Jesus’ love for us. This is the ultimate statement of our worth. It gives every believer the right to view themselves as “God’s favorite.”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애정)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는 우리의 ‘고귀함’을 나타내는 궁극적 선언이며, 이 진리를 통해, 모든 신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총애)을 받는자”로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⁹*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abide (live) in My love. (Jn. 15:9)*

⁹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안에 거하라(살라) (요 15:9)

- B. I refer to “affection-based obedience” as the stronger type of obedience because it flows from experiencing Jesus’ affection. It is the most consistent obedience because a lovesick person will endure anything for love. It is stronger than “duty-based obedience” (obedience when we do not feel God’s presence) or “fear-based obedience” (motivated by fear of negative consequences).
 “애정에 기초한 순종”은 그 어떤 종류의 순종보다도 강력한 순종이다. 예수님의 애정을 경험하면서 흘러나오는 순종이기 때문이다. 애정에 기초한 순종은 가장 일관된 순종의 결과를 낳는다. ‘사랑앓이’를 하는 사람은 사랑을 위해 모든 고난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순종은 “의무에 기초한 순종”(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순종)이나 “두려움에 기초한 순종”(불순종의 대가가 두려워 하는 순종)보다 더욱 강력하다.
- C. The gospel flourishes most when we understand the extravagant passions in God’s personality. It is essential to know what He has done for us on the cross and what He will do for us in the coming revival or even eternity. We need to know how He feels, or why He does what He does. 아낌없는 애정과 열정을 지니신 하나님의 인격을 이해하게 될 때, 복음은 가장 번창하게 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다가오는 부흥이나 영원의 시대에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일하심의 동기를 바로 알아야 한다.
- D. Experience of God’s affection causes us to love Him more than our own lives.
 하나님의 애정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They overcame him by the blood of the Lamb and...they did not love their lives to the death.* (Rev. 12:11)**
¹¹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1)
- E. Paul reflected on his sacrifices for God and testified that what he gave up was rubbish when compared to the glory of knowing Jesus. There is no sacrifice too great for those in love.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희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아는 영광의 상급에 비교하면 그가 포기한 것은 쓰레기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간증했다. 사랑에 빠진 자에게 그렇게 큰 희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 F. The great question is “Why is God’s heart ravished for us?” His personality is filled with loving desire. He evaluates our lives with such kindness because of the type of personality that He has. Because of who Jesus is, how He feels and how He processes life, He sees loveliness in us. 여기서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도 있다, “왜, 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빼앗겨 있는가?” 우리 주님은 ‘사랑의 열망’으로 가득찬 인격체 이시다. 주님이 인자함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소유하신 놀라운 인격 때문이다.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와는 다르게 평가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신다.

V. JESUS' PASSIONATE AFFECTION FOR HIS BRIDE

신부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과 애정

⁹You have ravished My heart, My sister, My spouse (bride); You have ravished My heart with one look of your eyes, with one link of your necklace. ¹⁰How fair is your love, My sister, My spouse! How much better than wine is your love... (Song 4:9-10c)

⁹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¹⁰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 (아 4:9-10)

- A. **My sister** – being called Jesus’ sister refers to Him becoming human (Heb. 2:11-17). He endured indescribable humiliation and suffering to be like His brethren in all things (Heb. 2:17). He descended so far and we ascend so high to meet Him as His sister (Matt. 12:49-50).
나의 누이 – ‘누이’라 부르신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한다 (히 2:11-17). 주님은 모든 것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기 위해 형용할 수 없는 굴욕과 고통을 이겨내신 분이시다 (히 2:17). 주님은 너무도 미천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 오셨고, 우리는 너무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 주님의 ‘누이’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마 12:49-50).
- B. **My spouse** – being called Jesus’ Bride speaks of His desire for affectionate partnership with us.
나의 신부 – ‘예수님의 신부’로 불린다는 것은, 우리와 사랑의 동역을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말한다.
- C. Her 2-fold identity as His sister and bride is emphasized 7 times (4:8, 9, 10, 11, 12; 5:1, 2).
주님의 누이와 신부. 이 정체성은 아가서에 7 번 강조되어 나온다 (아 4:8,9,10,11,12; 5:1,2).
- D. **With one look of your eyes** – Jesus’ heart moves with each look of devotion that we give Him. The very movement of our heart to love Him touches Him. Our obedience begins when we set our heart to obey Him, not just after we gain victory in a specific area. Thus, we can confidently receive His affectionate mercy and feel His pleasure in each step of the growth process. The glance that moves God’s heart is the gaze of loving obedience. The obedient gaze is rooted in quality decisions. The bridal paradigm is rooted in the message of the true grace of God.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 –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신 하나 하나에 감동하신다. 주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의 요동이 주님을 감동시킨다. 특정 영역에서 승리했을 때만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순종은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정이 가득하신 주의 자비를 받고 성장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쁨을 느끼며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시선은 ‘사랑스런 순종의 시선’이다. 순종의 시선은 고귀한 결단에 뿌리를 둔다. 신부의 패러다임 (영성)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라는 메시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 E. ***With one link of your necklace*** – in Scripture, the neck often speaks of the will that can be resistant (stiff necked) or submissive. The king described her neck as being like David’s towers which were effective in defeating the enemy (Song 4:4) and as a golden necklace that made her beautiful (Song 1:10). Each link of her necklace represented each individual response of obedience that she gave to him. Each decision for love that we make moves Jesus’ heart. He remembers every movement of love that our heart makes towards Him.
 네 목의 구슬 한 꿰미 – 성경에서, 목은 ‘의지’를 말하는데, 복종의 의지를 의미한다. 솔로몬 왕은 여인의 목을 표현하면서, 일찌기 원수를 효과적으로 패배시킬 수 있었던 다윗의 망대 (아 4:4), 여인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금 목걸이 (아 1:10)에 비유했다. 목걸이 한 꿰미 한 꿰미는, 신부가 주님께 드린 순종 하나 하나를 대표한다. ‘사랑의 결단’ 하나 하나에 예수님은 감동하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모두 기억하신다.
¹⁰***God is not unjust to forget your...love which you have shown to His name... (Heb. 6:10)***
¹⁰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라 ...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 6:10)
⁴²***Whoever gives one of these little ones only a cup of cold water in the name of a disciple, assuredly, I say to you, he shall by no means lose his reward. (Mt. 10:42)***
⁴²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 10:42)
- F. ***How fair is your love*** – Jesus considers our love as beautiful. Our obedience based in love beautifies us and brings great delight to Jesus.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아름답게 보신다. 사랑에 근거한 순종은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하며, 예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안겨 준다.
³***Do not let your adornment be merely outward—arranging the hair, wearing gold, or putting on fine apparel— ⁴rather let it be the hidden person of the heart, with the incorruptible beauty of a gentle and quiet spirit, which is very precious in the sight of God. (1 Pet. 3:3-4)***
³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⁴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찍지 아니할 것(아름다움)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벧전 3:3-4)
- G. ***How much better than wine is your love*** – Jesus turns around her earlier statement when she cried out “For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Song 1:2). The wine metaphor speaks of that which exhilarates the heart. Wine in the context of a marriage speaks of the drink of celebration. Scripture points to the “good wine” of God’s blessing and the “bad wine” of sin. Experiencing God’s love is better than other privileges and the best experiences we can have in this age.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 여기서 예수님은 신부가 일찌기 고백했던 “네 (주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 1:2)를 반대로 그녀에게 고백하신다. 포도주는 기분을 들뜨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을 상징한다. 혼인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축하주’를 뜻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좋은 포도주”와, 죄악을 뜻하는 “악한 포도주”를 분리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특권이나 경험보다도 월등한 영광이다.
- H. Jesus is saying, “Our love is more beautiful to Him than the splendor of His creation.” He values our love more than everything under His authority. He would not have only to cleanse creation. Jesus’ heart is filled with delight over her new decision for obedience (Song 4:6).
 예수님은 “그분이 창조한 우주만물의 장관보다도 우리의 사랑이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권세아래 있는 모든 만물보다 우리의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다. 순종하려는 신부의 결단을 보시는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가득차 있다 (아 4:6).

VI. JESUS' PLEASURE OVER HER HEART (HER THOUGHTS, WORDS AND DEEDS)

신부의 마음 (생각, 말, 행실)을 보며 즐거워 하시는 예수님

¹⁰*How much better than wine is your love, and the scent of your perfumes than all spices! ¹¹Your lips, O My spouse, drip as the honeycomb; honey and milk are under your tongue; and the fragrance of your garments is like the fragrance of Lebanon. (Song 4:10-11)*

¹⁰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¹¹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 4:10-11)

A. **The scent of your perfumes** – refers to her mind being filled with God's Word. As the invisible fragrance of perfume expressed the inner quality of a plant, so our thoughts are the scent of our inner life. Our intentions to obey God and our meditation on the Word arise as fragrance to God. 네 기름의 향기 –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신부의 마음'을 가리킨다. 보이지 않는 향기가 식물의 내적 품질을 표현하듯, 우리의 생각은 '내면의 삶의 향기'를 나타낸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도와, 말씀의 묵상은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간다.

¹⁴*Thanks be to God who always leads us in triumph in Christ, and through us diffuses the fragrance of His knowledge...¹⁵*For we are to God the fragrance of Christ... (2 Cor. 2:14-15)**

¹⁴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¹⁵ 우리는 ...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후 2:14-15)

B. **Than all spices** – rare spices were used as expensive gifts. The queen of Sheba gave spices to King Solomon (2 Kings 10:2). The wise men brought spices to Jesus because they believed He was a king (Mt. 2:11). Spices were used in the priestly sacrifices and offerings (Ex. 30:23-24).

각양 향품보다 – 귀한 향품들은 값비싼 선물로 사용되었다. 시바 여왕은 값비싼 향품들을 솔로몬 왕에게 선물로 주었다 (왕하 10:2).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다양한 향품들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 2:11). 향품들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희생번제물에도 사용되었다 (출 30:23-24).

C. **Your lips drip as the honeycomb** – speaks of her words as being sweet like honey when spoken to God in worship and prayer (Song 2:14) and when blessing others by feeding and sustaining them. Her redemptive lips or words were described as being like a strand of scarlet (Song 4:3). Honey is like that which delights the heart and is sweet to the taste. The production of honey requires much time and hard work from the bees.

네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 하나님께 경배와 기도를 드리면서 (아 2:14), 또, 다른 이들을 먹이고 목양하며 축복하면서 나타나는 신부의 '고백과 말'이 하나님께 꿀과 같이 달다는 것을 뜻한다. 신부의 '구속적' 입술과 말은 '홍색 실' 같다고 앞에서 기술되었다 (아 4:3). 꿀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달콤한 맛을 낸다. 그러나,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꿀벌들의 엄청난 시간 투자와 고된 수고가 요구된다.

1. **O My spouse** – Jesus notices every word of love to Him that is spoken from His Bride.

내 신부야 – 예수님은 신부가 주님께 말하는 사랑의 고백을 다 아신다.

2. ***Honey and milk are under your tongue*** – two foods that described the prosperity of the Promise Land and that are used to feed babes (1 Peter 2:1). The recurring theme of speaking for the edification of others is prominent in Scripture (Eph. 4:29; Col. 4:6). The phrase “under his tongue” refers to the private thoughts. The mouth full of deceit has trouble “under its tongue” (or in his heart; Ps.10:7). The Bride has truth “under her tongue” (in her heart) as she speaks expressing agreement with what she really thinks. What she thinks and speaks are in unity and thus, sincere.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 ‘약속의 땅’의 번성 (꿀)과, 또 유아를 위해 사용되었던 양식 (젖) (벧전 2:1)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주제로 성경에 잘 나타나 있다 (엡 4:29; 골 4:6). “혀 밑에는”이라는 구는 ‘마음과 생각’을 말한다. 거짓이 가득찬 입은 “혀 밑에” (즉, 마음에) 문제가 있다 (시 10:7). 그러나, 신부는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면서 “혀 밑에” (마음에) 진리를 품고 산다. 생각과 말이 일치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하다.

- D. ***The fragrance of your garments is like the fragrance of Lebanon*** – refers to the Bride’s deeds as being fragrant before God. Garments speak of the Bride’s acts of obedience (Rev. 19:7-8). Jesus warns us to “keep our garments” lest we end up with the shame of a life without service for God (Rev. 16:15). Jesus counseled the Laodicean church to buy from Him “white garments” so they would be clothed so that the shame of their nakedness would not be exposed (Rev.3:18). Mt. Lebanon was known for its fragrant cedar trees and flowers. This is in contrast to a life of spending our time and money mostly on ourselves. Paul spoke of receiving financial service from the Philippian church as a sweet smelling aroma well pleasing to God (Phil. 4:18).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신부의 ‘행실’을 가리킨다. 의복은 신부의 ‘순종적 행실’을 말한다 (계 19:7-8). 예수님은 우리가 “의복을 보전”할 것을 경고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마감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계 16:15).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으로부터 “흰 의복”을 사서 입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것을 권고하셨다 (계 3:18). 레바논 산은 향기로운 백향목과 꽃들로 유명한 곳이었다. 다시말해, 우리 자신만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삶과는 대조 되는 삶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 후원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달콤한 향기’와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빌 4:18).

VII. THE BRIDE’S EXTRAVAGANT DEVOTION TO JESUS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신부의 헌신

¹²***A garden enclosed is My sister, My spouse, a spring sealed up, a fountain sealed.* (Song 4:12)**

¹²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 4:12)

- A. ***A garden enclosed*** – was a private garden (not open to the public). It was enclosed with a fence to keep animals from polluting it. The purpose of a king’s garden was to provide pleasure and rest in contrast to most gardens used for growing food. It was costly and required much work from many servants to cultivate. The Church is God’s garden (1Cor.3:6-9; Song 6:2, 3; 2:16).

잠근 동산 – 이 동산은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사적 소유의 동산 (정원)이다. 이 동산은 야생 동물들이 와서 오염시키지 않도록 울타리가 쳐있는 ‘잠근동산’이다. 왕의 정원은 곡물을 키우는 일반 정원과는 다르게, 왕에게 심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원을 가꾸는 데에는 엄청난 돈과 노동력이 필요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정원 (동산)이다 (고전 3:6-9; 아 6:2; 2:16).

- B. To live as an “enclosed garden” or “sealed spring or fountain” means to shut ourselves off from the defilement of sin and compromise. In locking our heart to compromise, we become a place of pleasure for our King. A water supply without a covering was considered defiled (Num. 19:15). “잠근 동산,” 또는 “덮은 우물, 봉한 샘”으로 산다는 것은, 죄악과 타협의 더럽힘으로 부터 자신을 차단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협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왕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처소’가 된다. 고대에, 두껍이 없던 우물은 부정한 (더러운) 물로 간주되었다 (민 19:15).
- ¹⁵*Every open vessel, which has no cover fastened on it, is unclean. (Num. 19:15)*
¹⁵무릇 뚜껑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민 19:15)
- C. *Aspring and fountain sealed up* – speaks of an undefiled water supply (not polluted by animals). In Israel, springs of water were rare and thus, provided a valuable water source to help a garden grow abundantly. It is rare and precious to God for us to live as a spring sealed up.
 덮은 우물과 봉한 샘 – 이것은 (동물들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물의 공급을 말한다. 이스라엘은 우물이 귀했으며, 우물은 식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정원에 귀한 수자원을 제공했다. 우리가 ‘덮은 우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하다.
- D. Job made a covenant with his eyes to not gaze on anything unholy (Job 31:1). In doing this, he lived by carrying his heart as “an enclosed garden.”
 읊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무 것도 쳐다보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웠다 (욥 31:1). 이렇게 함으로, 읊은 “잠근 동산”으로 마음을 보전하며 살았다.

VIII. A DESCRIPTION OF THE YOUNG BRIDE’S FRUITFULNESS

젊은 신부의 열매에 대한 그림

¹³*Your plants are an orchard of pomegranates with pleasant fruits, fragrant henna with spikenard, ¹⁴ spikenard and saffron, calamus and cinnamon, with all trees of frankincense, myrrh and aloes, with all the chief spices. (Song 4:13-14)*

¹³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¹⁴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아 4:13-14)

- A. She is described as an orchard filled with pleasant fruits, fragrant plants, many trees and chief spices. This speaks of her abundant fruitful life and ministry. Fruit refers both to godliness which is to have a vibrant heart in God (Rom. 6:22; 7:4-5; Gal. 5:22; Eph. 5:9; Heb. 12:11; 13:15; Jas. 3:18) and to our ministry to others (Jn. 4:36; Rom. 1:13; 15:28; Phil. 1:22; Col. 1:5-6).
 신부는, 각종 즐거움을 주는 과일, 향기로운 식물, 나무와 귀한 향품으로 가득찬 ‘과수원’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신부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과 사역’을 말한다. ‘과일’은 하나님 안에 기록함을 품는 살아있는 심령 (롬 6:22; 7:4-5; 갈 5:22; 엡 5:9; 히 12:11; 13:15; 야 3:18)과 타인을 위한 사역 (요 4:36; 롬 1:13; 15:28; 빌 1:22; 골 1:5-6)을 가리킨다.

- B. Pomegranates (v. 13a) and pleasant fruits (v. 13b) are sweet and speak of having a pleasant impact on others. Fragrant henna with spikenard (v. 13c) speaks of the precious and costly work of the Spirit in our life. Spikenard and saffron, calamus and cinnamon (v. 14a,b) speak of the diverse graces seen in her ministry. With all trees of frankincense (v. 14c) speaks of a ministry of prayer. Myrrh and aloes (v.14d) speak of the cross and death to self. With all chief spices (v. 14e) speaks of grace imparted to others through her ministry (2 Cor. 2:14-16).
 석류 (13절)와 아름다운 과일 (13절)은 달콤하며, 다른 이들에게 끼치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말한다. 향기로운 고벨화와 나도초 (13절)는 우리 삶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귀하고도 풍성한 ‘역사’를 말한다. 나도와 번홍화, 창포와 계수 (14절)는 신부의 사역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를 말한다. 각종 유향목 (14절)은 ‘기도’ 사역을 말한다. 몰약과 침향 (14절)은 십자가와 자신을 부인하는 ‘죽음’을 말한다. 모든 귀한 향품 (14절)은 신부의 사역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는 은혜’를 말한다 (고후 2:14-16).

IX. A 3-FOLD DESCRIPTION OF THE HOLY SPIRIT’S MINISTRY IN THE BRIDE’S LIFE 신부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세가지 그림

¹⁵ *A fountain of gardens, a well of living waters, and streams from Lebanon. (Song 4:15)*

¹⁵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 4:15)

- A. The Bride is described as having three sources of water which refer to the different ways in which we experience the Spirit in our lives. A believer is described as a tree planted by water (Ps. 1:3). A hardened heart is pictured as being dry (Isa. 1:30). Jesus promised that we would be as a well of living water (Jn. 4:14; 7:38). The fountain is the indwelling Spirit. The well speaks of our history in God. The streams are like the Holy Spirit coming upon us from the high places.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부는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 이 경로들을 말하는 ‘물의 원천’에는 세가지가 있다. 믿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 1:3). 굳어진 마음은 ‘메마름’을 말한다 (사 1:30). 예수님은 우리가 ‘생수의 우물’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요 4:14; 7:38). ‘샘 (분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한다. ‘우물’은 하나님 안에 살아온 우리의 역사를 말한다. ‘시내’는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는 성령님과 같다.
- B. *A fountain* is a hidden source of water that is below the surface. This speaks an inward source of supply or the indwelling Christ (Col. 1:27). The gardens are plural (in contrast to the singular enclosed garden; v. 12) speaking of the anointing of God that brings blessing to others.
 샘 (분수)은 땅속 밑에 감춰져 있는 수자원이다. 이것은 내적 공급원, 즉,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한다 (골 1:27). 여기 동산들은 ‘복수형’ (12절 잠근 동산이 단수형인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말한다.
- C. *A well* speaks of the capacity to store water, so as to draw on when needed. Welled water is water that is stored up that provides a supply in dry times. This refers to our personal history in God that we draw on from our past experiences. This speaks of a past stored up source of supply.
 우물은 물을 저장하여 필요할 때마다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물은 건조기에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원천으로 저장된 물이다. 이것은 우리 과거의 경험에서 끌어내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역사’로, 공급원을 저장한 ‘과거의 은혜’를 말한다.

- D. **Streams** speak of an outward flow of water. A stream is above the ground and a spring is below the ground. Streams speak of an energetic flow of water. These streams flow from the mountains or high places of Lebanon, thus, they speak of the Holy Spirit “water supply” coming from on High. This speaks of an **outward source of supply** (Acts 8:18).

시내는 외부로 흐르는 물이다. 시내는 땅 위에 있으며, 샘은 땅 밑에 있다. 시내는 활력적으로 흐르는 물이다. 이 시내물은 산위에서, 또는 레바논의 고지대에서 흘러 내려온다. 그래서, 높은 곳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급원인 성령님의 “물”로, 외적 공급원을 말한다 (행 8:18).

X. HER CRY FOR INCREASED ANOINTING

갑절의 기름부음을 소망하는 신부의 부르짖음

¹⁵*Awake, O north wind, and come, O south! blow upon my garden, that its spices may flow out. Let My beloved come to His garden and eat its pleasant fruits... (Song 4:16).*

¹⁶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 4:16)

- A. She now has enough confidence in God’s goodness to offer a 2-fold prayer. She prays for both the north winds of adversity and the south winds of blessing. She knew that both played a strategic role in her becoming a fragrant garden for God’s pleasure.

신부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두가지 기도를 드리게 된다. 신부는 ‘역경과 고난’의 북풍과 ‘축복’의 남풍이 함께 자신에게 불게 되기를 기도한다. 신부는 자신이 하나님께 즐거움을 선사하는 ‘향기로운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북풍과 남풍 모두가 전략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B. **Awake, O north wind** – this speaks of the bitter cold wind of testing and difficulty. This prayer is answered in Song 5:3-7 as she goes through what I call “the ultimate 2-fold test”.

북풍아 일어나라 – 북풍은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으로, ‘연단과 고난’의 바람을 말한다. 이 기도는 나중에 아 5:3-7 에 나오는 “2 가지의 궁극적 시험”으로 응답되게 된다.

- C. **Come, O south wind** – her second prayer is that Jesus send the refreshing winds of blessing to mature her. Only God has the wisdom to know the right combination of the north and the south winds that are necessary in each season of our life. Only God knows our makeup and destiny.

남풍아 오라 – 신부의 두번째 기도는 성숙케 하는 상쾌한 ‘축복’의 바람을 보내달라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지혜로 우리 삶의 각 계절에 필요한 북풍과 남풍의 조화를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구조와 부르심을 알고 계신다.

- D. **Blow upon my garden** – she wants the garden of her heart and ministry to be deeply affected. Deep pockets of our unperceived pride, ambition, and anger, etc. are uncovered to us as we work under difficult circumstances. **That its spices may flow out** – she desires to be filled with God’s fragrant Presence. In other words, she wants to grow in love.

나의 동산에 불어서 – 신부는 자신의 ‘마음과 사역의 동산’이 더 깊이 영향받게 되기를 바란다.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우리의 교만과 야망, 분노 등이 고난를 거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향기를 날리라 – 신부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임재로 채워지기를 소원한다. 다시말해, 신부는 주님의 사랑안에 자라고 싶어한다.

- E. ***Let my Beloved come to His garden*** – is the transition from her garden to His garden. She desires to be totally God's. She wants an anointing of consecration. She sees her life and ministry as "His" garden instead of hers. Jesus has an inheritance in the church (Eph. 1:18). This is the turning point in the Song. For the first 4 chapters it was her inheritance, from now on it is His. ***Let my Beloved eat its pleasant fruits*** – that Jesus might enjoy what the Spirit has worked in her.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 여기서 '신부의 동산'이 '주님의 동산'이 되는 '대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제 신부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며, 거룩한 헌신을 위한 '기름부음'을 바란다. 신부는 '자신의 삶과 사역'을 자신의 것이 아닌 "주님의" 동산으로 본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누리시는 기업을 갖고 계신다 (엡 1:18). 이 구절이 아가서의 전환점이다. 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신부의 기업'을 말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기업'을 말하게 된다.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 신부 안에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즐기시게 되기를 바란다.

XI. JESUS ENJOYS HIS INHERITANCE WHICH IS A BRIDE

주님의 기업인 신부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예수님

I have come to My garden, My sister, My spouse; I have gathered My myrrh with My spice; I have eaten My honeycomb with My honey; I have drunk My wine with My milk. Eat, O friends! Drink, yes, drink deeply, O beloved ones! (Song 5:1).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아 5:1)

- A. The bride now lives under Jesus' full ownership. Nine times He says "My," depicting His ownership of her life and ministry: My garden, My sister, My spouse, My myrrh, My spice, My honeycomb, My honey; My wine, My milk.
신부는 이제 예수님의 온전한 리더십과 주권아래 살게 된다. 신부의 삶과 사역의 주권을 묘사하기 위해, 예수님은 "나의"라는 소유격을 9 번 (영어역)이나 사용하셨다: 내 동산,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몰약, 나의 향, 나의 꿀송이, 나의 꿀, 내 포도주, 내 젖.
- B. ***I have come to My garden*** – Jesus answers her prayer from Song 4:16 where she asked Him to come and eat. Jesus comes to take full possession of her life as His inheritance in the 2-fold relationship of sister and spouse.
내 동산에 들어와서 – 신부가 아 4:16 에서, 주님께 들어와 드시라고 드렸던 기도에 예수님은 응답하신다. 예수님은 누이와 신부의 두가지 관계를 통해, '자신의 기업'으로 신부의 삶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 신부의 마음안에 들어 오신다.
- C. ***I have gathered My myrrh with My spices*** – Jesus gathers what the Spirit has worked through the church. My myrrh speaks of the time in which we follow Jesus by embracing the cross. My spice speaks of the impartation of grace in her life.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 예수님은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거두어 들이신다. '나의 몰약'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간을 말한다. '나의 향재료'는 신부의 삶에 거하는 '은혜의 나눔'을 말한다.
- D. ***I have eaten My honeycomb with My honey*** – Jesus is feasting on the fruit of a mature church. She asked Him in 4:16 to come and eat. Jesus enjoys what the Spirit has released in the Church. Honey speaks of delightful food that Jesus may feast on from her life.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 예수님은 성숙한 교회의 열매를 잔치 하신다. 신부는 아가서 4:16 에서 '오셔서 드세요'라고 주님께 간청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교회에 풀어주신 것을 즐기신다. '꿀'은 예수님이 신부의 삶을 잔치 하시는 '즐거운 양식'을 말한다.

- E. ***I have drunk My wine with My milk*** – Jesus celebrates the love that the Bride has for Him. Wine is for celebration and milk is for strength. Jesus celebrates her love and is delighted by it.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사랑을 주님은 축하 하신다. 포도주는 축하주이며, 젖은 강건함을 위한 양식이다. 예수님은 신부의 사랑을 축하 하시며, 그 사랑으로 기뻐하신다.
- F. ***Eat, O friends! Drink, yes, drink deeply, O beloved ones!*** – Jesus wants the Church to enjoy the fruitfulness of mature believers. These beloved friends are other believers. Paul wrote of death working in him so that life would flow to others (2 Cor. 4:10-12). He embraced difficulties that God’s spices would bless God and others. She is as a living sacrifice that the Lord Himself feasts on (Rom. 12:1) and feeds to the Church. We can strengthen and nourish others with the grace.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 예수님은 교회가 ‘성숙한 자들의 열매’를 즐기게 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을 말한다. 바울은 자신을 부인하는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을 기뻐한 바 있다 (고후 4:10-12). 주어진 고난을 받아 들였기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게 되었다. 신부는 주님이 잔치를 벌이고 교회를 먹이는 ‘산제사’와도 같다 (롬 12:1). 우리는 주의 은혜로 타인들을 강건케하고 양육시킬 수 있다.
- G. ***Summary:*** of Jesus’ 5 activities in Song 5:1. He gathers myrrh, eats honeycomb, drinks, and then He offers her as a feast for others to partake of. He comes into His garden (5:1a) or draws near to her. He gathers His myrrh with spice (5:1b) or uses what the Spirit has worked in her. He eats His honeycomb with honey (5:1c) or feasts on the fruit of her maturity. He drinks His wine with milk (5:1d) or celebrates her maturity and is delighted by it. He invites His friends to eat (5:1e) or wants the church to enjoy the fruitfulness of mature believers.
 요약: 아가서 5:1 에 나오는 예수님의 활동 5 가지. 주님은 몰약을 거두고, 꿀송이를 먹고, 마시며, 신부를 다른 이들이 동참하여 즐길 수 있는 ‘잔치’로 제공하신다. 주님은 ‘자신의’ 동산에 오신다, 즉, 신부에게 가까이 임하신다. 주님은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신다, 즉, 주님은 성령이 신부 안에 하신 역사의 열매를 사용하신다. 주님은 주의 꿀송이와 꿀을 드신다, 즉, 신부의 성숙의 열매를 잔치하신다. 주님은 주의 포도주와 젖을 마신다, 즉, 성숙한 신부를 축하하시고 기뻐하신다. 주님은 친구들을 잔치로 초대하신다, 즉, 주님은 교회가 성숙한 자의 열매를 보며 기뻐하고 즐기게 되기를 바라신다.

Session 18 The Ultimate 2-Fold Test Of Maturity (Song 5:2-9)

성숙을 위한 궁극적 시험 2가지 (아 5:2-9)

I. REVIEW: THE BRIDE'S CRY FOR THE INCREASE OF GOD'S PRESENCE IN HER LIFE

복습: 삶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신부의 부르짖음

A. The Bride prayed for both the north winds of adversity and the south winds of blessing to come to the garden of her heart that the spices of grace might flow in her life. She had the confidence to pray for the bitter **north winds** of testing which come in the 2-fold test of Song 5:3-7.

신부는 '역경'의 북풍과 '축복'의 남풍이 '마음'의 동산에 임하기를, 그래서 은혜의 향기가 삶에 날리게 되기를 기도했다. 신부는 확신으로 차가운 북풍의 시험을 기도했는데, 이것은 아가서 5:3-7에 나오는 시험 2가지 중에 하나로 응답된다.

¹⁵*Awake, O north wind, and come, O south! blow upon my garden, that its spices may flow out. Let My Beloved come to His garden and eat its pleasant fruits... (Song 4:16).*

¹⁵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 4:16)

B. This is the time when the garden of her heart becomes His garden. She sees her life as "His" garden instead of hers. Jesus has an inheritance in His people (Eph. 1:18). This is the turning point in the Song. In the first 4 chapters, her focus is on her inheritance. In the last 4 chapters it is on being His inheritance. Jesus enjoys His inheritance in her as she lives under His ownership. Nine times He says "My" to depict His ownership in Song 5:1 and six times in Song 5:2.

이제는 신부의 마음의 동산이 '주님의 동산'이 되는 시간이다. 신부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동산이 아니라 '주님의' 동산으로 보게 된다.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 누리시는 기업을 소유하고 계신다 (엡 1:18). 아가서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1장부터 4장까지 신부의 초점은 '자신의 기업'에 있었다. 5장부터는 신부의 초점이 '주님의 기업'이 되는 데 맞추어져 있다. 신부가 주님의 주권아래 살게 되면서, 예수님은 신부를 통해 당신의 기업을 즐기시게 된다. 주님은 그분의 주권을 묘사하기 위해 "나의"라는 소유격을 아가서 5:1에서는 9번, 아가서 5:2에서는 6번 사용하신다.

¹*I have come to My garden, My sister, My spouse; I have gathered My myrrh with My spice; I have eaten My honeycomb with My honey; I have drunk My wine with My milk. (Song 5:1).*

¹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나의)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나의)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아 5:1)

II. JESUS CALLS HER TO THE FELLOWSHIP OF SUFFERING (SONG 5:2)

고난의 참예로 신부를 초청하시는 예수님 (아 5:2)

²*I sleep, but my heart is awake; it is the voice of my Beloved! He knocks, saying, "Open for Me, My sister, My love, My dove, My perfect one; for My head is covered with dew, My locks with the drops of the night." (Song 5:2)*

²내가 잘찌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도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 5:2)

- A. Jesus reveals Himself as one who suffered in Gethsemane. He calls us to join Him in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Phil. 3:10). She responds in obedience (Song 5:3-5) which is followed by a 2-fold test. First, Jesus tests her by withdrawing His presence from her (Song 5:6). Second, He allows the spiritual authorities to mistreat her (Song 5:7). She responds in love (5:8).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고난’을 겪는 모습으로 신부에게 나타나신다. 예수님은 주님과 더불어 고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빌 3:10). 신부는 순종으로 응답하며 (아 5:3-5), 두 가지 시험을 치르게 된다. 먼저, 예수님은 신부에게서 자신의 임재를 거둬가신다 (아 5:6). 두번째로, 영적 권위자들이 신부를 혹사시키는 것을 그대로 놔두신다 (아 5:7). 이 두가지 시험에 신부는 사랑으로 응답하게 된다 (아 5:8).

¹⁰***That I may know Him...and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Phil. 3:10)***

¹⁰내가 그리스도와 ...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빌 3:10)

- B. Jesus calls the Bride to intimacy by coming to her as the “Jesus of Gethsemane” with His hair covered with the dew (drops of the night) because of enduring the long night in Gethsemane.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나긴 밤을 지새어 밤이슬이 머리털에 가득한 “겟세마네의 예수”의 모습으로 신부에게 다가와, ‘고난의 주님’을 친밀하게 알 수 있도록 신부를 초청하신다.

- C. Jesus calls her to open her heart “for Him” in order to experience new depths in God. He is now taking full possession of her heart for Himself as He declared in Song 5:1. Jesus knocks on the door of her heart in answer to her prayer for the north winds in Song 4:16. The knock refers to God’s initiative and desire to bring us forward in new dimensions of the Spirit. Opening the door speaks of entering a new measure of communion with God.

예수님은 신부가 “주님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안에 새로운 깊이를 경험하도록 초청하신다. 주님은 아 5:1에서 공포하신 것처럼, 주권으로 이제 신부의 마음전체를 소유하게 되신다. 아가서 4:16에, ‘북풍’을 기도한 신부의 기도응답으로 예수님은 신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도요, 갈망을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더 깊이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²⁰***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dine with him, and he with Me. (Rev. 3:20)***

²⁰불찌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 D. She sleeps or rests with confidence in God as the north wind is about to come. Jesus knew the “rest of faith” as He slept in the storm (Mt. 8:23-27). Her heart is awake to spiritual things as she walks in obedience. We are to be spiritually awake (1 Thes. 5:6; Rom. 13:11; Eph. 5:14).

북풍이 불어올 때, 신부는 하나님 사랑 안에 확신을 가지고 안식하게 된다. 폭풍이 휘몰아 칠 때 예수님이 잠잠히 주무시고 계셨던 것처럼 (마 8:23-27), 이미 주님은 “믿음의 안식”을 잘 알고 계신다. 순종의 삶을 사는 신부는 이제 영적인 것들에 예민한 심령으로 깨어 살게 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살전 5:6; 롬 3:11; 엡 5:14).

- E. She hears His voice again as in Song 2:8. Jesus reveals Himself again to her as her Beloved. The voice of the Bridegroom is what John the Baptist heard as he became a voice

곧, 신부는 아 2:8에서 처럼,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된다. 예수님은 ‘신부의 사랑하는 자’로 모습을 다시 드러내신다. ‘신랑의 음성’은 침례 (세례)요한이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을 때 들었던 음성이다.

²⁹***The friend of the Bridegroom...rejoices because of the Bridegroom’s voice. (Jn. 3:29)***

²⁹...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 (요 3:29).

F. Jesus empowers her to open to Him by calling her four names that describe different facets of her intimate relationship with Him and that gives her confidence in His love.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신부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신부에게 주 사랑으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예수님은 4 가지 이름으로 신부를 부르신다. 이것을 통해, 신부는 주님께 마음을 여는 권능을 받게 된다.

²*He knocks, saying, “Open for Me, My sister, My love, My dove, My perfect one...” (Song 5:2).*

²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도 (아 5:2)

1. **My sister** – signifies His identification with her humanity. He endured indescribable suffering to be like His brethren in all things (Heb. 2:11-17).
나의 누이 – 신부와 같은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기 위해 형용할 수도 없는 고난을 이겨내셨다 (히 2:11-17).
2. **My love** – reminds her of His tender love for her. ‘Grace motivation’ is to be motivated by love and gratitude instead of fear and judgment. “Affection-based obedience” is the strongest type of obedience because it flows from experiencing Jesus’ affection. It is the most consistent obedience because a lovesick person will endure anything for love.
나의 사랑 – 이것은 신부를 향한 주님의 인자한 사랑을 상기시켜 준다. ‘은혜의 동기’는 두려움이나 심판이 아닌, 사랑과 감사로 동기부여된 것이다. “애정에 기초한 순종”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순종이다. 예수님의 애정을 경험함으로써 흘러나오는 순종이기 때문이다. ‘사랑앞이’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위해 모든 역경을 참아낸다. 그래서, 이 순종은 가장 ‘일관된’ 순종이라 할 수 있다.
3. **My dove** – speaks of her singleness of mind and loyalty. The Spirit is pictured as a dove. A dove never mates again when their partner dies. They are known for their loyalty. Dove’s eyes can not focus on two things and has no peripheral vision. This speaks of singleness of mind without compromise. Her eyes are fixed on Him.
나의 비둘기 – 이것은 신부의 ‘일편단심’과 ‘충성’을 말한다. 성령님은 비둘기로 비유된다. 비둘기는 짝이 죽으면 다른 짝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비둘기들은 충실함으로 잘 알려져 있다. 비둘기는 한 번에 두 사물을 볼 수 없으며, 주변 시야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것은 타협하지 않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말한다. 신부의 눈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
4. **My perfect one** – her intentions are to perfectly obey God. Perfect refers to being mature. She has mature obedience. Before this test (Song 5:2) and after it (Song 6:9), Jesus refers to her as His perfect one because she refuses all compromise.
나의 완전한 자 – 신부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성숙하게 되는 모습을 가리킨다. 신부의 순종은 성숙하게 된다. 이 시험을 치르기 전 (아 5:2)과 후 (아 6:9)에서, 예수님은 모든 타협을 거부하는 신부를 ‘완전한 자’라고 칭찬하신다.

III. THE BRIDE RESPONDS TO JESUS IN FULL OBEDIENCE (SONG 5:3-5)

100%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님께 응답하는 신부 (아 5:3-5)

³*I have taken off my robe; how can I put it on again? I have washed my feet; how can I defile them? ⁴*My Beloved put His hand by the latch of the door, and my heart yearned for Him. ⁵*I arose to open for my Beloved, and my hands dripped with myrrh...on the handles of the lock. (Song 5:3-5)***

³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⁴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⁵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아 5:3-5)

A. The Bride arises in obedience to open her heart to Jesus. His first words to her after this time of testing make it clear that she responded in obedience (Song 6:4-5). We are covered with Jesus' robe of righteousness (Isa. 61:10; Zech. 3:1-5). Our righteousness or robe is as filthy rags (Isa. 64:6). She took off her defiled garments and put on His garments of righteousness. She refuses to wear her garments or to live in compromise. She declares, "How can I put on my robe again".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신부는 순종하며 일어난다. 시험이 지난 후,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첫 마디는 신부가 순종으로 응답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아 6:4-5).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의복으로 덮혀져 있다 (사 61:10; 속 3:1-5). 우리 자신의 의나 의복은 '더러운 옷'과 같다 (사 64:6). 신부는 자신의 더러운 옷을 벗고 주님의 의의 의복을 입었다. 신부는 자신의 옷을 다시 입고 싶어하지 않는다. 타협하며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다. 신부는 선포한다, "어찌 다시 (나의 옷)을 입겠으며."

¹⁰*He clothed me with the garments of salvation...with the robe of righteousness... (Isa. 61:10)*

¹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 (사 61:10)

¹⁴*Put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make no provision for the flesh... (Rom. 13:14)*

¹⁴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3:14)

⁶*All our righteousnesses are like filthy rags; We all fade as a leaf... (Isa. 64:6)*

⁶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파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 (사 64:6)

B. She washed her feet. Jesus told Peter that he was clean, except that he needed his feet to be cleansed (Jn. 13:6-14). This spoke of his need for daily spiritual cleansing. She refuses to defile her feet through compromise (Song 5:3d). The NIV translates this as if she compromises by refusing to get out of bed. The context is clear that she is now relating to Jesus in obedience.

신부는 발을 씻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발이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요 13:6-14). 이것은 매일의 삶에 필요한 '영적 정화'를 뜻한 것이다. 신부는 타협으로 다시 발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 5:3). 미국 NIV역은 이것을 마치 신부가 침대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타협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신부가 순종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 C. The hand of God releases grace on the latch and lock of her heart (Acts. 11:21-23). She refers to Jesus as her Beloved or the One she loves. Her heart yearns with love for Jesus as she instantly arises to open the door to the Jesus of Gethsemane. Earlier she refused to arise (Song 2:13, 17).
하나님의 ‘손’은 신부의 마음의 ‘걸쇠와 문빗장’에 은혜를 풀어주신다 (행 11:21-23). 신부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 신부는 ‘겔세마네의 예수님’께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갈급해진다. 예전에 이와 비슷한 초대가 있었을 때, 신부는 예수님께 올바르게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 2:13, 17).
⁴My Beloved put His hand by the latch of the door, and my heart yearned for Him. ⁵I arose to open for my Beloved, and my hands dripped with myrrh, my fingers with liquid myrrh, on the handles of the lock. (Song 5:4-5)
⁴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걸쇠)으로 손을 들이밀때 내 마음이 동하여서 5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뜬구나 (아 5:4-5)
- D. Jesus putting His hands by the latch refers to helping her unlock the door of her heart. The lock on her heart speaks of her thoughts and emotions that affect her decisions.
예수님이 ‘걸쇠’에 손을 들이미시는 것은, 신부가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도와 주시기 위해서다. 신부의 ‘마음의 문빗장’은 결단에 영향을 주는 ‘생각들과 감정들’을 말한다.
- E. Her hands and fingers drip with myrrh the flowed like liquid on the lock of her heart. This speaks of the abundant grace to help her embrace the difficulty of the coming 2-fold test. Myrrh was a fragrant burial spice. It speaks of death to self and the commitment to embrace the cross. There is no such thing as liquid myrrh. Her fingers dripping with myrrh speak of the activity of working faith as she fulfills her commitment to go up the mountain of myrrh (Song 4:6).
‘몰약의 즙’이 손과 손가락 사이에 흐르며, 신부의 마음의 문빗장에 액체처럼 흐른다. 이것은 다가오는 두가지 시험의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풍성한 은혜’를 말한다. 몰약은 장사를 지내는 데 사용되는 향품이었다. 이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죽음과 십자가를 지는 헌신을 말한다. 몰약의 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몰약이 손가락 사이에 흐른다는 것은, 신부가 몰약의 산으로 가려고 헌신할 때 역사하는 ‘믿음의 행위’를 말한다 (아 4:6).

IV. FIRST TEST: JESUS WITHDRAWS HIS PRESENCE FROM HER (SONG 5:6)

첫번째 시험: 신부에게서 임재를 거둬가시는 예수님 (아 5:6)

⁶I opened for my Beloved, but my Beloved had turned away and was gone. My heart leaped up when He spoke. I sought Him, but I could not find Him; I called Him, but He gave me no answer. (Song 5:6)

⁶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려도 응답이 없었구나 (아 5:6)

- A. The Lord hides Himself from the Bride on two occasions in the Song (Song 3:1-2; 5:6). He withdraws His presence while she walks in full obedience in Song 5:6-7. Therefore, this season is different from the discipline she received in Song 3:1-2 because of her disobedience.
주님은 아가서에서 두번에 걸쳐 신부에게서 모습을 감추신다(아 3:1-2; 5:6). 이 본문에서, 주님은 신부가 100%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려 할 때 임재를 거둬가신다. 이 계절은 신부가 불순종의 결과로 받았던 아 3:1-2의 훈육과는 다르다.
- B. In Song 5, Jesus calls her “My perfect one” (v. 2) because of her obedience to open her heart to Him as her heart yearns (v. 4) and leaps (v. 5) because she is lovesick (v. 8).
아가서 5 장에서, 예수님은 신부를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부르시는데 (2절), 이것은 사랑으로 병이난 (사랑앓이를 하는) 신부가 (8절) 주를 갈급하고 (4절), 사모하며 (5절) 주께 마음을 여는 ‘순종’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 C. Her greatest desire is to experience God’s presence (Song 1:2-4; 2:3-6). Feeling loved by God and feeling love for God is the most powerful pleasure we can experience.
 신부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아 1:2-4; 2:3-6).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 중 가장 크고 강력한 즐거움이다.
¹*The LORD came to Abram...saying, “...I am your exceedingly great reward.” (Gen. 15:1)*
¹이 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 나는 ...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 15:1)
- D. Jesus promised to never leave or forsake us (Heb. 13:5). However, He sometimes withdraws the discernable feelings of His manifest presence to test us and to bring our love to maturity as she prayed in Song 4:16. This is not because of sin, nor is it an attack of the devil. God sometimes hides His face from the obedient to draw out the yearning of their heart for Him in greater ways.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히 13:5). 그러나, 신부가 아가서 4:16에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지니게 하기 위해, 때때로 임재를 거둬 가시는 시험을 주신다. 이것은 죄로 인한도 아니요, 마귀의 공격도 아니다. 때때로, 주님을 향한 더 큰 갈급함을 유도해 내기 위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감추기도 하신다.
⁵ *For He Himself has said,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Heb. 13:5)*
⁵...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히 13:5)
- E. Some Catholic contemplatives in the Middle Ages spoke of “the dark night of the soul” referring to seasons of divine testing for those walking in obedience to God. This is not a Biblical term but a term referring to times of when they could not sense His presence. This phrase was originated by St. John of the Cross in the 16th century. Most Protestants do not have any theology for this.
 중세 카톨릭 신자들 중에서, 임재 (관상)기도 했던 사람들은 “영혼의 깊고 어둔 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오는 ‘거룩한 (신적) 시험의 계절’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시기를 가리켜 사용된 용어였다. 이 구절은 16세기에 살았던 성 십자가의 요한 (St. John of the Cross)이란 사람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의 뜻에 대한 신학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 F. Job was a righteousness man when he was afflicted then established an intimacy with God
 욥은 고난을 겪고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확립했을 때, 의로운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⁸*The LORD said to Satan,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that there is none like him on the earth, a blameless and upright man, one who fears God and shuns evil?” (Job 1:8)*
⁸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 1:8)
⁵*I have heard of You by the hearing of the ear, but now my eye sees You. (Job 42:5)*
⁵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욥 42:5)
- G. She seeks Him even more fervently by calling out to Him but she can not find Him. This season of divine silence is part of His training by causing our love for Him to mature. In the time of testing our confession of faith must remain constant, “His banner over me is love” (Song 2:4).
 본문에서, 신부는 더욱 열심히 주를 찾지만, 만나지 못한다. 이 ‘거룩한 (신적) 침묵의 계절’은 주를 향한 사랑을 자라게 하기 위해 받는 훈련이다. 시험의 계절에서도, 우리 믿음의 고백은 한결 같아야 한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깃발은 사랑입니다” (아 2:4).

V. SECOND TEST: THE BRIDE IS PERSECUTED AND REJECTED (SONG 5:7)

두번째 시험: 핍박받고 거절당하는 신부 (아 5:7)

⁷The watchmen who went about the city found me. They struck me, they wounded me; the keepers of the walls took my veil away from me. (Song 5:7)

⁷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아 5:7)

A. The watchmen and the keepers of the walls speak of the leaders or spiritual authorities who guard the walls of God's city to protect His people. They strike and wound her. They wound her because she had a genuine relationship with them before they rejected and persecuted her. A stranger can publish accusation against you, but only a friend can wound you. Being wounded in the house of friends is part of God's pattern that even Jesus endured (Ps. 55:12-21).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 (행순 하는 자들)'은,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벽을 지키는 '리더들,' 즉, '영적 권위자'들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신부를 치고 상처를 준다. 그들이 신부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신부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이다. 전혀 모르는 자가 당신을 정죄하고 참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정작 당신과 가까운 친구들이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집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예수님도 겪으셨던 경험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훈련의 일부다 (시 55:12-21).

B. The leaders taking away her veil speaks of removing her spiritual covering therefore, her place of function in the body (1 Cor 11:10).

리더들이 신부의 '옷'을 취해간다는 것은, 신부의 영적 커버링, 즉, 지체를 섬기는 신부의 역할과 기능을 거둬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전 11:10).

VI. HER RESPONSE OF HUMILITY AND LOVE (SONG 5:8)

겸손과 사랑으로 반응하는 신부 (아 5:8)

A. Her humility is seen in her teachable spirit to the immature Daughters of Jerusalem.

신부의 겸손은 미숙한 예루살렘 여자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대하는 데서 나타난다.

⁸O daughters of Jerusalem, if you find my Beloved...tell Him that I am lovesick! (Song 5:8)

⁸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 5:8)

B. She is lovesick for Jesus instead of offended at Him for allowing this 2-fold test.

신부는 두 가지의 시험을 주신 주님께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여 병이 나게 된다.

⁶Blessed is he who is not offended because of Me (Jesus). (Mt. 11:6)

⁶누구든지 나(예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마 11:6)

- C. The Bride's 2-fold life vision was experiencing His presence and running with Him in ministry (Song 1:4). Many of her promises from God are based on this. Thus, all seems lost. The issue is whether she will obey Jesus without feeling His presence and when circumstances are difficult. Does she seek God primarily for her comfort or will she obey God for His sake? The Lord longs for a people who will obey Him regardless of what is happening in their lives. This is the primary issue in being Jesus' inheritance. He wants a Bride equally yoked in love.
- 신부의 삶의 비전 두 가지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역에 주님과 함께 매진하는 것이었다 (아 1:4).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약속들도 이 비전과 연관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신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여기서, 이슈는 신부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순종할 것인가? 주님은 삶의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순종할 사람들을 찾으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업'이 되는데 있어 나타나는 주된 이슈가 바로 이것이다. 주님은 '사랑으로 주님과 동일한 멍에를 지는 신부'를 바라신다.
- D. The Bride's 7 crisis in the Song include: the crisis of sin (1:5-6); the crisis of fear (2:8-9); the crisis of Divine discipline (3:1); the crisis of total obedience (4:6,16); the crisis of Divine withdrawing (5:6); the crisis of rejection in the church (5:7); and the crisis of persecution and division (6:13).
-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의 위기 7가지: 죄의 위기 (아 1:5-6); 두려움의 위기 (아 2:8-9); 거룩한 (신적) 훈육의 위기 (아 3:1); 온전한 순종의 위기 (아 4:6, 16); 주님의 부재로 인한 위기 (아 5:6); 교회 안에서 겪는 거절감의 위기 (아 5:7); 그리고, 핍박과 분열의 위기 (아 6:13).

Session 19 The Bride's Response To The 2-fold Test (Song 5:8-6:5)

두 가지 시험에 대한 신부의 반응 (아 5:8-6:5)

I. REVIEW: THE BRIDE'S CRY FOR THE INCREASE OF GOD'S PRESENCE IN HER LIFE

복습: 삶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신부의 절규

A. The Bride prayed for both the north winds of adversity and the south winds of blessing to come to the garden of her heart that the spices of grace and God's presence might flow in her life.
신부는 역경의 북풍과 축복의 남풍이 모두 심령의 동산에 불어 '은혜의 향기'와 '하나님의 임재'가 삶에서 날리게 되기를 기도했다.

¹⁶*Awake, O north wind, and come, O south! blow upon my garden, that its spices may flow out. Let My Beloved come to His garden and eat its pleasant fruits... (Song 4:16).*

¹⁶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 4:16).

B. This is one of the greatest prayers for mature love and dedication in Scripture. The prayer is that God would do whatever it takes to cause our spices to come forth or for love for God and others to grow.
이 기도는 성경에 나온 성숙한 사랑과 헌신을 위한 기도 중 가장 위대한 기도이다.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날리도록,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타인을 향한 사랑이 성숙해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 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C. This is the turning point in the Song. The Song of Solomon has two main sections. First, Song 1-4 is focused on receiving our inheritance in God. Second, Song 5-8 is focused on God receiving His inheritance in us. The answer to the prayer for the north winds comes in Song 5:3-7.
아가서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아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아가서 1-4장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아가서 5-8장은 우리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풍을 위한 기도의 응답은 아가서 5:3-7에 나오게 된다.

D. The Lord calls the Bride to intimacy by coming to her as the "Jesus of Gethsemane" (Song 5:2) and asking her to open her heart "for Him" to experience new depths of intimacy with Him.
주님은 "겻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신부에게 찾아오면서, 더 깊은 차원의 친밀감을 경험 하도록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신부를 초청하신다.

1. She responds in obedience (Song 5:3-5) which is followed by a 2-fold test. First, Jesus tests her by withdrawing His presence from her (Song 5:6). Second, He allows the spiritual authorities to mistreat her (Song 5:7).

신부는 순종으로 응답하며 (아 5:3-5), 두가지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먼저, 예수님은 신부에게서 임재를 거둬가신다 (아 5:6). 그리고, 주님은 신부가 영적 권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로부터 혹사 당하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신다 (아 5:7).

2. She responds with deep love for Jesus (Song 5:8). We must go through the door of Song 5:2-9 to grow in love (Song 5:9-6:13) and fruitful ministry (Song 7:1-8:4).

이에 대해 신부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응답한다 (아 5:8). 사랑의 성장 (아 5:9-6:13) 과 열매맺는 사역 (아 7:1-8:4)을 위해, 우리는 아가서 5:2-9의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 E. Will we seek God if He withholds the things we deeply desire? Will we be His when we cannot feel His presence? Will we love and trust Him when we are disappointed by circumstances? We must work our “faith muscle” as the way to re-align our heart so as to grow in love in difficulty. 우리가 진정으로 아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둬 가신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주위 환경으로 낙심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는 “믿음의 근육”을 길러, 고난 가운데서도 심령을 주님께 다시 맞추며, 사랑의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
- F. When we do not feel His presence or when circumstances are difficult, our first tendency is to be depressed or to complain. In the process of prayer we ask the question “why we feel this way”. In this, we re-align our hearts with the truth that we are His inheritance and are in it for love.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또는 주위환경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우울해지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사랑의 성장을 위해 이러한 ‘성장통’을 겪는다는 진리를 심령에 거듭 새겨야 한다.

II. OVERVIEW OF SONG 5:8-6:5

아가서 5:8-6:5 개관

- A. In difficulty, the Bride expresses her love for Jesus (Song 5:8-16). She is lovesick instead of offended at God. We confess, Jesus, I am in it for love because You are beautiful (Song 5:8-10). 고난 가운데서도, 신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다 (아 5:8-16). 하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향해 ‘사랑앓이’를 하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예수님, 제가 처한 고난은 사랑의 성장을 위한 것임을 압니다. 주님이 아름다우심으로 주님이 저의 목적입니다” (아 5:8-10).
⁸*O daughters of Jerusalem, if you find my Beloved...tell Him I am lovesick!* (Song 5:8)
⁸예루살렘 여자들아 ...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 5:8)
- B. She responds to God in love and to others in humility by asking for help from the daughters of Jerusalem who are less spiritual. (She does not despise the church that wounded her). 신부는 영적으로 아직 더 미성숙한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겸손을 보이며,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한다 (신부는 자신에게 상처 준 교회를 경멸하지 않는다).
- C. The immature daughters ask her two questions. First, “Why do you love Him so much?” (Song 5:9). He took His presence from you (v. 6) and let the leaders wound you (v. 7). Then after hearing her answer they ask the second question, “How can we know Him like you?” (Song 6:1). 미숙한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그가 누구이길래 그렇게 사랑하는가? (아 5:9). 그는 네게서 임재를 거둬갔고 (6절), 리더들이 너를 상처주게 그냥 놓아두지 않았는가 (7절)”. 그러나, 그들은 예상치 못했던 대답을 신부로부터 듣고, 두번째 질문을 던지게 된다. “너처럼 우리도 그를 만날 수 있겠는가?” (아 6:1).
- D. Jesus responds to the Bride with extravagant love by revealing what He thought about her during her struggle (Song 6:4-10). 예수님은 고난의 씨름 (시험)을 하는 신부를 바라보며 느낀 마음과 생각을 아낌없는 사랑의 말로 신부에게 표현하신다 (아 6:4-10).

III. FIRST QUESTION: WHAT IS IT ABOUT HIM THAT MAKES YOU LOVE HIM? (SONG 5:9)

첫번째 질문: 그가 누구이길래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가 (아 5:9)

What is your Beloved more than another beloved, O fairest (most beautiful) among women?

What is your Beloved more than another beloved, that you so charge us? (Song 5:9)

9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가장 아름다운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 5:9)

- A. The spiritually immature daughters ask the Bride questions throughout the Song. They see that she is lovesick for Jesus in the midst of her difficulties instead of being filled with complaints and depression. Her deep love for Jesus provokes them more than her wisdom or giftedness. We are made beautiful to others by our love more than by our wisdom or power (1 Pet. 3:3-4).
영적으로 미숙한 예루살렘 여자들은 아가서 전체에 걸쳐 신부에게 여러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불평과 우울함으로 가득찬 신부가 아닌,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병난 신부를 지켜보고 있다.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깊은 사랑이 신부의 지혜나 은사보다도 그들을 더욱 자극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나 능력보다는, ‘사랑’을 통해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 졌다 (벧전 3:3-4).
- B. The “controversy” created by the watchman (Song 5:7) does not cause the daughters to draw back from the Bride. They call her the “fairest” or “most beautiful” (Song 5:9). They deeply respect her as they see her devotion and purity. This is in contrast to how the Saul-type leaders (watchmen) evaluated her. Saul could not see the spiritual beauty in David.
‘행순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논쟁” (아 5:7)은 신부를 바라보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들은 신부를 “극히 어여쁜” 또는 “가장 아름다운” 자라 부르게 된다 (아 5:9). 그들은 신부의 헌신과 순결을 보고, 신부를 깊이 존경하게 된다. 이것은 ‘사울형’의 리더들 (행순하는 자들)이 신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사울은 다윗의 영적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
- C. “What is your beloved more than another?” They saw that Jesus has the power to awaken love in the Bride in the midst of severe trials or “Why are you so loyal to Him? What do you know about Him, that we don’t know?” The daughters do not understand this kind of dedication.
“너의 사랑하는 자가 다른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신부가 처한 극한 시련가운데서도, 신부 안에 있는 사랑을 깨워주는 특별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왜 그렇게 그에게 충성하는가? 그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알려달라!”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의 극단적인 헌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 D. The daughters had “other beloveds” that were more important to them than Jesus. The other loves in the lives of believers include people, friends, ministry, money, leisure, pleasure, power, prominence, and comfort, etc. Many born again people love these things more than Jesus.
예루살렘 여자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연인”이 존재한다. 믿는 자들의 삶에 있는 다른 연인이란, 사람, 친구, 사역, 물질, 여가, 쾌락, 권력, 유명세, 안위 등과 같은 것이다. 많은 거듭난 자들이 예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
- E. The definition of spiritual maturity is when Jesus becomes the first Beloved of our soul. The Holy Spirit is restoring the First commandment to first place in the Body of Christ worldwide.
영적 성숙은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첫 사랑’이 될 때 정의 된다. 성령님은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 ‘첫계명’을 ‘최우선 순위’로 회복하고 계신다.

- F. The same question is repeated for emphasis. It expresses their earnest desire to know the answer. We see the sincerity of their question in Song 6:1, because they ask a follow up question. 같은 질문이 반복 되면서 강조되고 있다. 질문을 반복한다는 것은 답을 듣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들이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 질문인 아가서 6:1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G. The most important question is the one Jesus asked, “Who do you say that I am?” (Mt. 16:15). Pharaoh asked Moses this question, “Who is the Lord that I should obey Him?” (Ex. 5:2).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 16:15). 바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출 5:2).
- H. Passion for Jesus is the most powerful dimension of any ministry (2 Cor. 2:14-17). Do people seek you out to show them how to walk in the devotion that they see in you? This can be part of your life vision to so show forth devotion to Jesus in difficulty that people want to know what you know and how you carry your heart. 모든 사역의 가장 강력한 차원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다 (고후 2:14-17). 사람들이 당신 안에 있는 ‘주를 향한 헌신’을 보고 도와 달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지키며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사람들이 당신의 삶 가운데 보며 배울 수 있도록 비전을 세워보라.

IV. THE BRIDE’S ANSWER: THE MAJESTIC SPLendor OF JESUS (SONG 5:10-16) 신부의 응답: 위엄한 광채의 예수님 (아 5:10-16)

- A. The Bride answers the question by proclaiming Jesus’ beauty. The Spirit uses metaphors of the human body to convey 10 attributes of God’s personality. Each attribute has two descriptions. 신부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질문에 답한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인격의 속성 10 가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체 각 부분들을 비유로 사용하신다. 각각의 속성은 두 가지로 기술된다.
- B. Song 5:10-16 is one of the most powerful revelations of Jesus in Scripture. She starts with a general statement of His beauty, develops ten attributes and then gives a summary statement. 아가서 5:10-16 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계시들 중 가장 강력한 계시를 보여주는 본문에 속한다. 신부는 먼저, 주님의 아름다움을 한 문장으로 진술하고 나서 10 가지 속성을 전개한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 요약문을 다시 진술한다.

¹⁰My beloved is white (dazzling, NAS)...and chief among ten thousand. ¹¹His head is like the finest gold; His locks are wavy...¹²His eyes are like doves...¹³ His cheeks are like a bed of spices...His lips are lilies...¹⁴His hands are rods of gold...His body is carved ivory...¹⁵His legs are pillars of marble...His countenance is like Lebanon...¹⁶His mouth is most sweet, Yes, He is altogether lovely. This is my Beloved, and this is my friend... (Song 5:10-16)

¹⁰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눈부신, NAS역)...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 ¹¹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 ¹²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 ¹³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 입술은 백합화 같고 ... ¹⁴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 ¹⁵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 ¹⁶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아 5:10-16)

1. His head – His sovereign leadership over all
그의 머리 – 만물위에 계신 주님의 주권적 리더십
2. His locks – His dedication to God and the Church
그의 머리털 –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 (신부된 그의 백성)에 대한 헌신
3. His eyes – His infinite knowledge, wisdom, understanding, discernment
그의 눈 – 주님의 무한한 지식과 지혜, 통찰력과 분별력
4. His cheeks – His diverse emotional makeup
그의 뺨 – 주님의 다양한 감정들
5. His lips – His word
그의 입술 – 주님의 말씀
6. His hands – His divine activity
그의 손 – 주님의 거룩한 (신적) 활동
7. His body – His tender compassion
그의 몸 – 주님의 인자한 긍휼의 마음
8. His legs – His walk and administration of His purposes
그의 다리 – 주님의 목적을 위한 걸음과 운영
9. His countenance – His impartation to His people
그의 형상 – 주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심
10. His mouth – Intimacy with Him
그의 입 – 주님의 친밀함
11. He's altogether lovely – His comprehensive beauty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 주님의 종합적 아름다움
12. He is my Beloved and my Friend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친구다

C. She is lovesick because she focuses on Jesus instead of being preoccupied with her 2-fold test. She overcomes her self-focus by going deep in searching out Jesus' beauty. Revelation of these attributes will bring stability to our heart when we go through the storms of life.

신부가 '사랑앓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두가지 시험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부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므로, 자신에게 또는 문제에 초점맞추는 것을 극복한다. 우리가 주님의 속성들에 대한 계시를 얻게될 때, 인생의 '폭풍우'를 지나면서도 심령에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

D. When I am in turmoil I read books on the attributes of God such as, The Existence & Attributes of God (Steven Charnock), Knowledge of the Holy (AW Tozer), Knowing God (JI Packer) and The Pleasures of God (John Piper). I wrote several books on the personality of God (Passion for Jesus, the Pleasures of Loving God, After God's Own Heart).

삶이 혼란스러워 질 때 나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루는 책들을 읽곤 하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들. 부흥과 개혁사 출간 예정 (편집자 주.) (The Existence & Attributes of God, Stephen Charnock)', '거룩한 분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알자. 생명의 말씀사) (Knowledge of the Holy, AW Tozer)',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JI Packer)',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 (The Pleasuer of God, John Piper)' 등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에 대한 주제로 내가 저술한 책들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연인을 사랑하는 즐거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등이 있다.

V. THE MAJESTIC BEAUTY OF JESUS (SONG 5:10-16)

광대한 아름다움을 지니신 예수님 (아 5:10-16)

- A. She starts by making a general statement about Jesus' beauty (Song 5:10). In her difficulty, she refers to Jesus as her Beloved or the one she loves. The NIV translates "is white" as "is radiant". He is ruddy or red. This is a reference to His humanity. Jesus is chief among ten thousand is a metaphor denoting that Jesus is incomparably superior to all others.

신부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일반적 진술을 내놓으며 시작한다 (아 5:10). 고난 가운데서도 신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자신이 사랑하는 분으로 언급하고 있다. NIV 역은 "희고도"를 "빛나는" "눈부신"으로 번역한다. 그분은 '붉으시다'. 이것은 인성을 지니신 주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만 사람위에 뛰어나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보다 비교도 안될만큼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¹⁰*My Beloved is white and ruddy, chief among ten thousand. (Song 5:10)*

¹⁰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나다 (아 5:10)

- B. Jesus' head speaks of His sovereign headship over all creation (Eph.1:21). It is like finest gold to her. Gold speaks of divine nature. Finest speaks of the highest degree of quality and excellence. 예수님의 '머리'는 모든 창조물 위해 계신 주님의 '주권적 권위'를 말한다 (엡 1:21). 그것은 신부에게 정금과 같다. 금은 '거룩한 (신적) 성품'을 말한다. '정 (금)'이란 품질과 수준에 있어 최고를 말한다.

¹¹*His head is like the finest gold... (Song 5:11)*

¹¹머리는 정금같고 (아 5:11)

- C. Jesus' locks (hair, NIV) speaks of His dedication to God and His people. The Nazarite's vow forbid one to cut their hair because it was an outward sign of their dedication to God (Num. 6).

예수님의 '머리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헌신'을 말한다. 나실인의 맹세를 한 자들은 자신들의 머리털을 자를 수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외적 표징으로 보이는 헌신을 뜻했기 때문이다 (민 6장).

¹¹*His locks (hair) are wavy, and black as a raven. (Song 5:11)*

¹¹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아 5:11)

1. His hair is "wavy and black as a raven" or his dedication is as vigorous as one with youthful energetic zeal. The wavy hair and black hair of a young man in the prime of life is in contrast to an old man whose thinning and graying hair has lost its vitality and fullness. In other words, Jesus' consecration to God and His people is eternally vigorous. 주님의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즉, 주님의 헌신은 청년의 열정과 열심을 지닌 자 만큼 왕성하다. 인생의 황금시기에 있는 청년의 고불고불하고 검은 머리는, 활력과 그 솟을 잃어버리고, 가늘고 흰머리카락을 지닌 노인과 대조된다. 다시말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거룩한 헌신은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불타는 '역동적인 열정의' 헌신이다.
2. Hair also speaks of the beauty of submission to God. Paul spoke of a woman's hair as showing forth her glory and dedication to God's authority (1 Cor. 11:5, 6, 15). 머리털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아름다움'을 말하기도 한다. 바울은 여인의 머리털을 영광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아름다움으로 말한 바 있다 (고전 11:5, 6, 15).

- D. Jesus' eyes speak of His ability to see or His omniscience (infinite knowledge, wisdom and discernment). His eyes being like doves speaks of singleness of vision (Song 1:15; 4:1). 예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즉, 주님의 전지 (全知) (무한한 지식, 지혜, 그리고 분별력)를 말한다. 비둘기와 같은 주님의 눈은 '일관된 비전'을 말한다 (아 1:15; 4:1).
- ¹² ***His eyes are like doves by the rivers of waters washed with milk, and fitly set. (Song 5:12)***
¹²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아 5:12)
- E. Jesus' cheeks reveal His emotional make-up including His passions and pleasures. Our emotions are expressed in our cheeks. They are windows into one's emotions enabling us to discern if a person has joy, sadness or anger. Jesus' emotional life is like a bed of spices. Banks of scented herbs speaks of the extravagant amount and diversity of fragrance of His affections. 예수님의 '뺨'은 주님의 열정과 즐거움을 포함한 '주님의 감정들'을 말한다. 우리의 감정은 뺨에 노출된다. 뺨은 우리 감정의 창문과도 같아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지, 슬퍼하는지, 화가 났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 예수님의 감정은 '향기로운 꽃밭' 같다. 향기로운 풀 언덕은, 풍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향기를 지니신 주님의 '애정'을 말한다.
- ¹³ ***His cheeks are like a bed of spices, like banks of scented herbs. (Song 5:13)***
¹³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아 5:13)
- F. Jesus' lips speak of His words which are sweet and pure like lilies. They contain myrrh which refers to exhortations to embrace death to self. 예수님의 '입술'은 달콤하면서도 백합화 같이 순전한 주님의 '말씀'들을 말한다. 입술은 '몰약'을 담고 있는 데, 이것은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권고를 말한다.
- ¹³ ***His lips are lilies, ripping with liquid myrrh. (Song 5:13)***
¹³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툭툭 떨어진다 (아 5:13)
- G. Jesus' hands (or arms, NIV) refer to His works and activities. He has all power (omnipotent) so He can accomplish anything He pleases. Rods of gold speak of divine character. 예수님의 '손'은 (또는, 팔, NIV 역) 주님의 '역사와 활동들'을 말한다. 주님은 전능하시라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황금 노리개는 '거룩한 (신적) 성품'을 말한다.
- ¹⁴ ***His hands are rods of gold set with beryl. (Song 5:14)***
¹⁴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아 5:14)
- H. Jesus' body (or belly, KJV) speaks of His tender compassion. In Song 5:4 she says "My heart yearned," and is translated here as body. It speaks of deep feelings or tender compassions. Jesus' compassion is rare like ivory (and requires skill like carved ivory). 예수님의 '몸' (또는, 배, KJV 역)은 주님의 인자한, '공허의 마음'을 말한다. 아가서 5:4에서, 신부는 "내 마음이 동하여서 (열망하여)"라고 말하는 데, 여기서는 '몸'이라고 번역되었다. 이것은 깊은 감정, 또는 인자한 공허의 마음을 말한다. 예수님의 공허한 마음은 상아와 같이 귀한 것이다 (아로 새긴 상아처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
- ¹⁴ ***His body is carved ivory inlaid with sapphires. (Song 5:14)***
¹⁴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듯하구나 (아 5:14)

- I. Jesus' legs refer to His walk or the administration of His purposes. The legs provide the forward motion of the body. The way Jesus fulfills His purposes and proceeds in His plans are like pillars of marble. Pillars speak of strength, orderliness, and beauty. Marble was a strong and permanent type of building material. Jesus' ways are strong, lovely, permanent, established and orderly. 예수님의 '다리'는 주님의 목적을 위한 주님의 '걸음과 운영'을 가리킨다. 다리를 통해 몸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예수님이 주님의 목적들을 성취하고, 계획들을 운영하는 방법은 마치 화반석 (대리석) 기둥 같다. 기둥은 힘, 질서, 아름다움을 말한다. 화반석 (대리석)은 건물을 지을 때 단단하고 영구적인 재료로써 사용되었다. 예수님의 방법은 강하고, 사랑스러우며, 영구적이며, 세우는 것이며, 질서 정연한 것이다.

¹⁵His legs are pillars of marble set on bases of fine gold. (Song 5:15)

¹⁵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아 5:15)

- J. Jesus' countenance speaks of His impartation of glory to His people. David prayed, "Lord lift up the light of your countenance on us." This was a prayer for manifestations of God to come to His people. Lebanon is symbolic of that which is stately and honorable (Song 4:8, 11, 15). 예수님의 '형상'은 주의 백성들에게 나눠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말한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 (형상)을 들어 우리에게 비취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기도였다. 레바논은 '장엄함과 고귀함'을 상징한다 (아 4:8, 11, 15)

¹⁵His countenance is like Lebanon, excellent as the cedars. (Song 5:15)

¹⁵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아 5:15)

- K. Jesus' mouth is associated with intimacy with His people throughout the Song. In Song 1:2, the mouth was introduced in the Song in context to the kisses of His mouth which refers to intimacy with God. His mouth is distinct from His words as signified by His lips (Song 5:13). Intimacy with God is most sweet because nothing delights her heart more than this. 예수님의 '입'은 아가서 전체를 통해, 그분의 백성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아가서 1:2 에서, 입은 아가서에서 처음으로 주님의 입맞춤으로 나오는 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리킨다. 주님의 입은, 말씀을 나타내는 주님의 입술과는 구별된다 (아 5:13).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가장 달콤한 것이다. 이것보다 신부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¹⁶His mouth is most sweet... (Song 5:16)

¹⁶입은 심히 다니 (아 5:16)

- L. Jesus is altogether lovely. This is a summary statement. The One she loves is the One she calls her friend. He is not only radiant in His majesty but He humbled Himself to be our friend. 예수님은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이것은 전체 요약문이다. 신부가 사랑하는 분은 신부가 '친구'라고 부르는 분이다. 주님은 광대함으로 광명하게 빛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분이시다.

¹⁶Yes, He is altogether lovely. This is my Beloved, and this is my friend, O daughters of Jerusalem! (Song 5:16)

¹⁶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로다) (아 5:16)

VI. SECOND QUESTION: WHERE IS HE THAT WE MAY SEEK HIM WITH YOU? (SONG 6:1)

두번째 질문: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 6:1)

Where has your Beloved gone, O fairest among women? Where has your Beloved turned aside, that we may seek Him with you? (Song 6:1)

1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 6:1)

A. The conversation that began between the Bride and the daughters in Song 5:8 is continuing. Here the daughters see the Bride's intimacy with Jesus and conclude that she knows something about Jesus that they do not know. Therefore, they ask a second question, "Where is your Beloved that we may seek Him like you do?" We want to know Him like you do. We want what you have.

아가서 5:8 에서 시작된 신부와 예루살렘 여자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진다. 여기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예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신부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 그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무언가를 신부가 알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진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즉, 우리도 너와 같이 주님을 알게 되길 원한다. 네가 가진 것을 우리도 갖게 되길 바란다는 뜻이다.

B. The Bride's answer in Song 5:10-16, cause the daughters to change the question from "What is He?" to "Where can we find Him?" They are no longer content to serve Jesus at a distance. They ask the same question the Bride asked in Song 1:7, "Where does Jesus feed His flock?"

아가서 5:10-16 에서 준 신부의 대답을 듣고, 예루살렘 여자들은 "그가 누구이길래?"라는 질문에서 "그가 어디있는가 우리도 찾으리라"라는 질문으로 바꾸게 된다. 그들은 더이상 멀리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부가 아가서 1:7 "예수님께서 그의 양떼를 어디서 먹이시는가?" 라고 했던 질문을 신부에게 하게된다.

C. The daughters refer to Jesus as "your Beloved" because He is not yet their Beloved. They continue to see her as a godly person filled with God's Presence. "O fairest among women?"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에게 예수님을 "너의 사랑하는 자"라고 언급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직 '그들의 사랑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신부를 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자'로 본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른다.

D. The daughters of Jerusalem want to seek Jesus with the Bride (Song 6:1d). The Bride's proclamation of Jesus' beauty stirs them to seek after Jesus with passion. They are now willing to let go of their "other beloveds". We all have "other beloveds" until we see Jesus' splendor.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와 더불어 예수님을 찾고 싶어한다 (아 6:1).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신부의 고백이 이들을 감동시켜, 열정을 지닌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만든다. 이제 그들은 "다른 연인들"을 기꺼이 내려 놓으려 한다. 찬란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다른 연인들"을 지니고 살게 된다.

E. The Bride's testing results in the lives of others being dramatically changed. We never know who is watching us as we love Jesus in our difficulties. The Holy Spirit is raising up lovesick messengers who know Jesus in a way that will change the expression of Christianity in the whole earth and prepare the Bride to be strong in love in the End-Time pressures (Rev. 15:2-4).

결국, 신부의 시험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한결같이 사랑할 때,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성령님은 전 세계에 기독교의 표현을 바꾸고, 마지막 때 다가 올 '압력' 속에서도 사랑이 충만한 신부들을 예비시킬 '메신저 (주의 사자들)', 예수님을 깊이 '사랑앓이' 하는 메신저들을 일으키고 계신다 (계 15:2-4).

VII. THE BRIDE ANSWERS THE SECOND QUESTION (SONG 6:2-3)

두번째 질문에 대한 신부의 대답 (아 6:2-3)

²*My Beloved has gone to His garden, to the beds of spices, to feed His flock in the gardens, and to gather lilies. I am my Beloved's, and my Beloved is mine. He feeds His flock among the lilies. (Song 6:2-3)*

²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 (모으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느니라 (아 6:2-3)

A. Jesus is in His Church and is building it. The Bride teaches them where they can find Jesus in an intimate way. Jesus dwells in His garden to gather and feed His people. His garden (singular) speaks of the worldwide Church which is made up of local churches or the gardens (plural).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셔서 교회를 계속 세우신다. 신부는 어디서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 예수님은 ‘그분의 동산 (교회)’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고 먹이신다. 주의 동산 (단수형)은 ‘지역 교회들,’ 또는 동산들 (복수형)로 이루어진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말한다.

¹⁸*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Mt. 16:18)*

¹⁸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B. The Bride declares, “My Beloved has gone to the beds of spices” (Song 6:2). The beds (plural) are within His one garden (The Church). There is one Church in the earth, but there are many diverse beds of spices. Spices speak of manifestations of grace. Each ministry is a unique spice. Each “spice bed” in the garden has a rich fragrance of Christ. Jesus loves the whole Church.

신부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라고 선포한다 (아 6:2). ‘꽃밭’ (복수형)은 주님의 동산 (교회) 안에 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는 하나지만, 다양하고 향기로운 꽃밭들 (지역 교회들과 사역들)이 존재한다. 향기 (향품)는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를 말한다. 사역 하나 하나 독특한 향기를 지닌다. 동산에 있는 “향기로운 밭” 하나 하나 모두 그리스도의 풍성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신다.

C. Jesus’ cheeks are like a bed of spices (Song 5:13). The different reflections of Jesus’ personality in the Church will all meet together in the New Jerusalem or the mountain of spices (Song 8:14).

예수님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과 같다 (아 5:13). 교회에서 다양하게 반영하는 예수님의 성품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또는 ‘향기로운 산’ (아 8:14)에서 모두 합쳐지게 될 것이다.

D. When we compare Song 1:7-8 to Song 6:2-3, we see that the Bride gives the same answer that Jesus gave her (see session 10). She asked Jesus, “Tell me, where do you feed Your flock?” In Song 1:8, Jesus gave her a 3-fold instruction as to where He feeds His flock.

아가서 1:7-8 와 아가서 6:2-3을 비교해 보면, 신부가 예수님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아 1:8에서, 신부는 “말해다오, 어디서 당신의 양떼를 먹이시는가?” 질문 했고, 예수님은 양떼를 먹이시는 곳을 세가지로 응답해 주셨다.

⁷*Tell me, O You whom I love, where You feed Your flock...? ⁸*O fairest among women,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flock, and feed your little goats beside the shepherds’ tents. (Song 1:7-8)**

⁷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 ⁸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찌니라 (아 1:7-8)

1. Commitment to Body life (v. 8c): refuse unsanctified isolation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헌신함 (8절): 고립됨을 거부한다.
2. Commitment to servant ministry (v. 8d): refuse unsanctified idleness
섬김의 사역에 헌신함 (8절): 나태함을 거부한다.
3. Commitment to spiritual authority (v. 8e): refuse unsanctified independence
영적 권위에 헌신 (8절): 독립된 태도를 거부한다.

E. In our next session: Jesus breaks the silence as He lavishes affection on her. He proclaims that she is as awesome as a victorious army with banners. Jesus is “conquered” only by His Bride’s extravagant love. Our eyes of devotion deeply touch His heart. All the armies in hell cannot conquer Jesus, but the eyes of His Bride “conquer” Him when they are true to Him in testing. 다음 장에서: 예수님은 신부를 향한 사랑을 쏟아 부으시면서 침묵을 깨뜨리신다. 주님은 깃발을 높이 든 ‘승리의 군대’와 같이 신부가 위대하다고 선포하신다. 예수님은 넘치는 신부의 사랑에 “정복” 되신다. 주님께 드리는 깊은 ‘헌신의 눈’이 주님을 감동시킨다. 지옥에 있는 모든 군대도 예수님을 정복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시험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신부의 눈은 주님의 마음을 “정복”하게 된다.

⁴O My love, you are as beautiful as Tirzah, lovely as Jerusalem, awesome as an army with banners! ⁵Turn your eyes away from Me, for they have overcome Me. (Song 6:4-5)

⁴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엄위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네 눈이 나를 놀래니 (정복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아 6:4-5)

Session 20 Jesus Praises Her After Her Season of Testing (Song 6:4-10)

시험의 계절 후 신부를 칭찬하시는 예수님 (아 6:4-10)

- I. REVIEW: THE BRIDE'S CRY FOR THE INCREASE OF GOD'S PRESENCE IN HER LIFE**
 복습: 삶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신부의 부르짖음
- A. The Bride prayed for both the north winds of adversity and the south winds of blessing to come to the garden of her heart that the spices of grace or God's presence might flow in her to others. 신부는 역경의 북풍과 축복의 남풍이 모두 '심령의 동산'에 불어 은혜의 향기 즉,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타인들에게 날리기를 기도했다.
- ¹⁶*Awake, O north wind, and come, O south! blow upon my garden, that its spices may flow out. Let My Beloved come to His garden and eat its pleasant fruits... (Song 4:16).*
¹⁶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일하노라 (아 4:16).
- B. This is the turning point in the Song. The Song of Solomon has two main sections. First, Song 1-4 is focused on receiving our inheritance in God. Second, Song 5-8 is focused on God receiving His inheritance in us. The answer to the prayer for the north winds comes in Song 5:3-7. 아가서의 전환 부분이다. 아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아가서 1-4장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아가서 5-8장은 우리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풍을 위한 기도의 응답은 아가서 5:3-7에 나오게 된다.
- C. The Lord calls the Bride to intimacy by coming to her as the "Jesus of Gethsemane" (Song 5:2) and asking her to open her heart "for Him" to experience new depths of intimacy with Him. 주님은 "겔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 (아 5:2) 으로 신부에게 찾아오시면서, 더 깊은 차원의 친밀감을 신부가 경험하도록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초청하신다.
- ²*It is the voice of my Beloved! He knocks, saying, "Open for Me... My love..." (Song 5:2)*
²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 나의 사랑 ... 문 열어 다고 (아 5:2)
- D. She responds in obedience (Song 5:3-5) which is followed by a 2-fold test. First, Jesus tests her by withdrawing His presence from her (Song 5:6). Second, He allows the spiritual authorities to mistreat her (Song 5:7). The Bride responds to God in love (Song 5:8). 신부는 순종으로 응답하며 (아 5:3-5) 두가지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먼저, 예수님은 신부로 부터 임재를 거둬 가신다 (아 5:6). 그리고, 주님은 신부가 영적 권위자들 (종교적 지도자들)로 부터 학대받는 것을 그대로 놔두신다 (아 5:7). 그러나 신부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한다 (아 5:8).
- E. The daughters then ask her two questions. First, "Why do you love Him so much?" (Song 5:9). The Bride answers by proclaiming ten facets of Jesus' beauty (Song 5:10-16). After hearing her answer they ask her the second, "How can we know Him like you?" (Song 6:1).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에게 두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그가 누구이길래 그렇게 사랑하는가?" (아 5:9) 이다. 신부는 '예수님의 아름다움' 열가지를 선포하면서 질문에 답한다 (아 5:10-16). 신부의 대답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너와 같이 그를 알수 있는가?" 라는 두번째 질문을 한다 (아 6:1).
- ¹⁰*My beloved is white (dazzling, NAS)...and chief among ten thousand...¹⁶His mouth is most sweet, Yes, He is altogether lovely. This is my Beloved, and this is my friend... (Song 5:10-16)*
¹⁰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눈부신, NAS역)...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 ¹⁶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아 5:10-16)

II. OVERVIEW OF SONG 6:4-10

아가서 6:4-10 개관

- A. In Song 6:4-10, Jesus breaks the silence with the Bride that began in Song 5:6. He praises her beauty and reveals what He was feeling about her during her time of testing. (He does not rebuke her for disobedience in Song 5:3). He describes her beauty using three metaphors (v. 4) and His passion for her (v. 5) in terms as extravagant as her declarations about Him in Song 5:10-16.

아가서 6:4-10 에서, 예수님은 아가서 5:6에서 시작된 침묵을 마침내 깨뜨리신다. 주님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시고 시험의 계절동안 신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셨는지를 드러 내신다 (주님은 아가서 5:3 에서 불순종했던 신부를 꾸짖지 않으신다). 주님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 세가지 비유를 사용하신다 (4절). 또한 아가서 5:10-16 에서 신부가 주님에 대해 선포한 것처럼 신부를 향한 주님의 열정 (5절)을 아낌없이 드러내신다.

- B. Jesus describes the Bride’s maturity (Song 6:5c-7) and her pre-eminence in His royal court with angelic attendants including seraphim, cherubim and angels without number (Song 6:8-9).

주님을 섬기는 스랍과 그룹, 셀 수도 없이 많은 천군천사들이 있는 주님의 왕정에서 예수님은 신부의 성숙함 (아 6:5-7)과 훌륭함을 칭찬하신다 (아 6:8-9).

⁸There are 60 queens and 80 concubines, and virgins without number. ⁹My dove, my perfect one, is the...only one of her mother, the favorite of the one who bore her... (Song 6:8-9)

⁸왕후가 육십이요 비빈이 팔십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 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 (아 6:8-9)

- C. The Holy Spirit describes the Bride’s glory (Song 6:10).

성령님은 ‘신부의 영광’을 기술하신다 (아 6:10).

¹⁰Who is she who looks forth as the morning, fair as the moon, clear as the sun, awesome as an army with banners? (Song 6:10)

¹⁰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 6:10)

III. JESUS DESCRIBES THE BRIDE’S BEAUTY IN THE TIME OF TESTING (SONG 6:4)

시험의 계절에 있던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시는 예수님 (아 6:4)

⁴O My love, you are as beautiful as Tirzah, lovely as Jerusalem, awesome as an army with banners! (Song 6:4)

⁴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엄위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아 6:4)

- A. Jesus breaks His silence to praise her beauty using 3 metaphors, after she proclaimed, “I am lovesick because He is dazzling and altogether beautiful.” (Song 5:8-16). The Bride is praised for her beauty which is found in her love for Jesus. Augustine said the only praise to be desired and the only praise that is true is the praise that comes from God. Jesus describes her beauty more fully in Song 7:6-9. He celebrates the beauty worked in her by the Spirit. In the Song, He affirms the Bride’s beauty 9 times (Song 1:15 {2x}; 2:10, 13; 4:1 {2x}; 4:7; 6:4; 7:7).

신부가 “그는 빛나고, 전체가 아름다움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며 병이 났나이다”라고 고백한 후 (아 5:8-16), 예수님은 오랜 침묵을 깨시고, 신부의 아름다움을 세가지로 비유하며 칭찬하신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발견되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신다. 우리가 갈망해야 할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 이라고 성 어거스틴은 말했다. 예수님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아가서 7:6-9 에서 더 완벽하게 칭찬하신다. 심령안의 성령님의 역사로 더욱 아름다와지는 신부를 예수님은 기뻐하신다. 아가서 전체를 통해 예수님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9 번 확증시켜 주신다 (아 1:15 (2번); 2:10,13; 4:1 (2번); 4:7; 6:4; 7:7).

- B. He first communicates how He feels about her by calling her, “O My love”.
신부를 향한 마음을 전달하시기 위해, 주님은, “오 내 사랑”이라고 신부를 부르신다.
- C. Jesus declares that the Bride is as beautiful as the city of **Tirzah**. It was one of the most attractive cities in the ancient world. Tirzah means “beautiful”. Before Israel captured the land of Israel under Joshua, it was a capital city of the Canaanites (Josh. 12:24; 1 Kings 15:33; 16:61). Thus, some commentators present this Canaanite city as symbolic of the unbelieving Gentile nations. In other words, the Bride is beautiful to unbelievers thus, she is effective in winning unbelievers. 예수님은 신부를 디르사 성 (도시)처럼 아름답다고 칭찬하신다. 이 도시는 고대에 가장 매력적인 도시중의 하나였다. 디르사는 “아름답다”라는 뜻이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아래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 도시는 가나안의 수도였다 (수 12:24; 왕상 15:33; 16:61). 주석 학자들 중에는 이 가나안 도시를, 믿지 않는 ‘이방인의 나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시 말해, 신부는 불신자들에게도 아름다와 불신자들을 효과적으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
- D. Soon after Solomon’s death, a civil war divided the nation of Israel (931 BC). Jeroboam, the king of the Northern Kingdom chose Tirzah as his capital city (1 Kings 14:17; 15:21; 16:6) because it was the most beautiful city in the north. It was in the territory of Manasseh’s tribe. 솔로몬이 죽은 후, 내전이 일어난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지게 된다 (931 BC).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디르사를 수도로 삼았는데 (왕상 14:17; 15:21; 16:6), 그 이유는 북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디르사였기 때문이었다. 디르사는 본래 므낫세 족의 영토였다.
- E. Jesus declares that the Bride is as lovely as **Jerusalem**. It was the spiritual capital of Israel. It was the city chosen by God for the building of Solomon’s Temple which was the only place on earth continually blessed with the manifest presence of God (Shekinah glory in the Holy of Holies). God ordained this city as His worship center for the whole world (Isa. 2:1-4; Zech. 14:16-19). Jerusalem’s beauty speaks of the beauty of holiness found in worshipping God. 예수님은 신부를 예루살렘 만큼이나 사랑스럽다고 칭찬하신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적’ 수도였다.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곳으로, 지구상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의 쉼카이나 영광이 나타남)가 계속 나타나는 축복이 임했던 장소였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전 세계의 예배 센터’로 위임하셨다 (사 2:1-4; 스 14:16-19).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 F. Tirzah speaks of natural beauty that affects even unbelievers. Jerusalem refers to spiritual beauty that believers greatly value. The Bride being as beautiful as Tirzah and Jerusalem refers to her impacting both believers and unbelievers. Her beauty reaches both groups. Unbelievers see the Bride’s self-sacrificing love and pure motives. They see her as one who gives everything for love. 디르사는 불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아름다움’을 말하며, 예루살렘은 믿는자들이 귀하게 여기는 ‘영적 아름다움’을 가리킨다. 신부가 디르사와 예루살렘처럼 아름답다는 것은, 믿는 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끼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말한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친다. 불신자들은 희생적인 신부의 사랑과 순수한 동기를 보게된다. 그들은 신부를 볼 때,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내 주는 자로 보게된다.

- G. When an army in the ancient world returned victorious from battle, they displayed their banners in a military parade. A defeated army lost its banners. She defeated her greatest enemies which were those found in her heart. She finished her time of testing as a victorious army with banners because she did not give in to sin and unbelief. She gained the victory over her own heart. When we feel nothing, His heart feels so much when we gaze on Him with eyes of devotion. The shadows of her compromise and fear are gone (Song 2:17; 4:6). She conquered them by grace. 고대 군대들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행렬하면서 기를 높이 들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패배군은 기를 빼앗겼다. 신부는 가장 큰 적인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신부가 기치를 벌인 승리의 군대처럼, 시험의 계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죄와 불신에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불투명하게 보일 때에도, 헌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주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베풀어주시게 된다. 신부에게 타협과 두려움의 ‘그림자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다 (아 2:17; 4:6). 주님의 은혜로 정복했기 때문이다.

⁴O My love, you are...awesome as an army with banners! (Song 6:4-10)

⁴내 사랑아 ... 엄위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아 6:4-10)

IV. JESUS DESCRIBES THE IMPACT THE BRIDE HAS ON HIS HEART (SONG 6:5)

주님의 마음에 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신부를 칭찬하시는 예수님 (아 6:5)

⁵Turn your eyes away from Me, for they have overcome Me. (Song 6:5)

⁵네 눈이 나를 놀래니 (정복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아 6:5)

- A. This is one of the great statements in the Scripture. By her eyes we understand her love for Him. 이 구절은 성경의 본문 중 가장 위대한 성명문 중의 하나다. 신부의 눈을 통해 주님을 향한 신부의 사랑을 알 수 있다.
- B. Jesus is not asking her to literally look away from Him. He speaks poetically in the language of extravagant love. His heart is overcome or deeply moved by our steady love for Him as expressed in Song 5:10-16 in the midst of testing. When the daughters asked, “Why do you love Him?” She spoke of Him as being altogether lovely and dazzling”. 문자 그대로 주님으로 부터 눈을 돌리라는 말이 아니다. 주님은 시적인 언어를 통해, ‘신부의 아낌없는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은 아가서 5:10-16에서 표현된 것처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요동치 않는 우리의 사랑에 깊이 감동받으사 마음이 정복되신 것이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뭐가?”라고 질문했을 때 신부는 주님이 ‘전체가 사랑스럽고 빛나는 분’이라고 대답했다.
- C. Our eyes of devotion move Jesus’ heart. Our greatest glory is that we can move God’s heart. 헌신의 눈은 예수님을 감동시킨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영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D. What overcomes His heart? The greatness of the stars, oceans and mountains do not. The vast armies of men or demons are nothing before Him. The greatest warrior in history is “conquered” by our love, when we are true to Him in times of testing. Yes, our eyes of love move Him. This steady gaze of Song 6:5 is even more intense than her single glance (Song 4:9). 누가 주님의 마음을 정복하는가? 산과 바다, 별들의 위대함도 주님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다. 인간이나 마귀의 강력한 군대라도 주님께는 적이 되지 못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사’이신 예수님은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신부의 사랑에 “정복”되신다. 그렇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부의 사랑의 눈이 주님을 감동시킨다. 아가서 6:5 에 나오는 신부의 한결같은 ‘주 바라기’는 ‘한번 보는 것’ (아 4:9)보다 더 강력하다.

- E. ***Do you know the way you move Him?*** He is overcome by weak and broken people who truly love Him. While she felt nothing in her time of testing He felt so much. Our love for Him in the midst of the testing is more precious to Him than we understand. She did not know the impact her love was having on His heart because she did not feel His presence in the time of testing.
주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은가? 주님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연약한 자, 상한 자들에 의해 정복되신다. 시험가운데 신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주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고 계셨다. 시험가운데 드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물론, 신부는 자신의 사랑이 주님께 끼치는 영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험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 F. In this age, we will never understand the fullness of the impact that we have on Jesus' heart. The woman did not know that Jesus marveled at her when He seemingly refused her (Mt. 15:21-28).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 다 알지는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 ‘가나안 여자’를 거절한 것처럼 보였을 때, 그 여자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놀랐다는 사실을 그 여자는 알지 못했다 (마 15:21-28).
²⁸Jesus said to her, “O woman, great is your faith!” (Mt. 15:28).
²⁸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마 15:28).

V. JESUS DESCRIBES THE BRIDE'S SPIRITUAL MATURITY (SONG 6:5C-7)

신부의 영적 성숙함을 칭찬하시는 예수님 (아 6:5-7)

⁵Your hair is like a flock of goats going down from Gilead. Your teeth are like a flock of sheep which have come up from the washing; every one bears twins, and none is barren among them. Like a piece of pomegranate are your temples behind your veil. (Song 6:5c-7)

⁵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⁶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⁷너울 속의 너의 뺨은 적류 한쪽 같구나 (아 6:5-7)

- A. Jesus describes her maturity by highlighting 3 aspects of her character signified by her hair, teeth and temples. They refer to her dedication (hair), life in the Word (teeth) and godly emotions (temples). These are same qualities that He prophesied of when they were only budding virtues (Song 4:1-3). Now they have come to maturity in her life. Song 4:1-2 describes her eyes, hair, teeth and temple as does Song 6:5-6. Song 4:2 adds the word “shorn”.
신부의 성숙함을 묘사하기 위해 예수님은 머리털, 이, 그리고, 뺨을 통해 신부의 세가지 성품을 강조하신다. 머리털은 신부의 ‘헌신’을, 이는 ‘주 말씀안의 생활’을, 그리고 뺨은 ‘거룩한 감정’들을 가리킨다. 예전에, 이러한 미덕들이 신부안에 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예언 하셨던 바로 그 성품들이다 (아 4:1-3). 이제 이 미덕들이 신부의 삶에 ‘꽃이 피듯’ 성숙하게 되었다. 아 4:1-2 은 신부의 눈, 머리털, 이, 그리고 뺨을 아가서 6:5-6 와 같이 기술한다. 아가서 4:2 에는 “털 깎인”이라는 단어가 추가 되어 있다.
- B. He repeats these affirmations, using nearly the same words to prove that the test of Song 5:6-7 was necessary and fruitful. He causes everything to work together for good (Rom. 8:28). 거의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하시며, 주님은 확증들을 반복하시는데, 이것은 아가서 5:6-7 의 시험이 신부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꼭 필요했던 과정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함이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롬 8:28).

- C. The Bride's hair speaks of her dedication to God. The hair of the Nazirite was an outward sign of their consecration or dedication (Num. 6).

신부의 머리털은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헌신'을 말한다. 나실인의 머리털은 그들의 거룩한 헌신을 뜻하는 외적 표징이었다 (민 6 장).

⁵*Your hair is like a flock of goats going down from Gilead. (Song 6:5)*

⁵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아 6:5)

- D. Her stately hair or dedication is the result of being well fed. Mount Gilead was a bountiful place in which the goats were abundantly fed. Her dedication is the result of being well fed on the Word of God. Song 4:1 adds the word "Mount" in referring to Gilead.

신부의 머리털 즉, 헌신은 '영적 공급'을 잘 받은 결과다. 길르앗 산은 염소들이 풍부하게 먹을 것을 공급받는 비옥한 땅이었다. 신부의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은 결과다. 아가서 4:1에는 길르앗을 가리키기 위해 "산"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다.

- E. Goats walk in a stately order (Prov. 30:29-31). The Bride's dedication is like a flock of goats in the sense that it is manifestation of godly order (wisdom) in contrast to fleshly zeal.

염소들은 위풍당당하면서도 질서를 지키며 걷는다 (잠 30:29-31). 신부의 헌신은 육적 열심과는 대조되는 '거룩한 질서 (지혜)'가 나타나는 면에서 염소떼와 같다.

²⁹*There are three things which are majestic in pace, Yes, four which are stately in walk: 30 A lion, which is mighty among beasts...31 a male goat also... (Prov. 30:29-31)*

²⁹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³⁰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³¹사냥개와 수염소와 (잠 30:29-31)

- F. Teeth speak of the ability to chew solid food thus, to receive the meat of the Word (Heb.5:12-14). Infants have no teeth and thus can only receive nourishment through milk (1 Cor. 3:1-3).

'이'는 딱딱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고기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히 5:12-14). 유아는 이가 없어 우유나 젖을 통해서만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다 (고전 3:1-3).

⁶*Your teeth are like a flock of sheep which have come up from the washing; every one bears twins, and none is barren among them. (Song 6:6)*

⁶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아 6:6)

1. We receive the meat of the Word and maintain cleanliness or healthy teeth by long and loving meditation on God's Word. In this way, we keep as clean as the sheep who come up from when the shepherd washes the mud off (Eph. 5:26-27; Jn. 13:10; 17:17).

우리는 '고기'와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 하면서 청결하고 건강한 이를 관리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목자가 진흙을 씻어 주고 그 목욕장에서 나오는 양처럼 '영적 순결함'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엡 5:26-27; 요 13:10; 17:17).

2. Her ministry fruitfulness comes from her life in the Word. To bear twins speaks of a double portion of fruitfulness. She is compared to the sheep in which none are barren. A diligent life in the Word guarantees fruitfulness (1 Tim. 4:6-16). The sheep in this passage are both clean and fruitful due to their life in the Word (Jn. 15:7-8).

사역의 열매는 '말씀안에 거하는 신부의 삶'에서 나온다. 쌍태를 낳는다는 것은 '갑절의 열매'를 말한다. 신부는 새끼를 잘 낳는 양에 비교되고 있다. 말씀안에 신실하게 거하는 삶은 '열매'를 보장해 준다 (딤후 4:6-16). 여기에 나와있는 양은 순결하고 열매를 맺는 양으로, 열매는 말씀안에 거하는 삶에서 비롯된다 (요 15:7-8).

G. The Bride's temples being like pomegranates speaks of her godly emotions. The temples (cheeks) reveal one's emotions. The Hebrew word translated as temples can also be translated as cheeks. Our emotions are expressed by our cheeks. We can see anger, joy, gladness, and sadness on the cheeks. They are windows into one's emotions.

‘석류’같은 신부의 뺨은 신부의 ‘거룩한 감정’들을 말한다. 뺨은 사람의 감정을 드러낸다. 우리의 감정은 뺨을 통해 전달된다. 사람의 뺨을 보면 그 사람이 기쁜 지, 슬픈 지, 즐거운 지를 알 수 있다. 뺨은 ‘감정의 창문’이다.

⁷*Like a piece of pomegranate are your temples behind your veil... (Song 6:7)*

⁷너울 속의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 6:7)

1. The pomegranate is a very sweet fruit. Her emotions are godly and sweet to God.

석류는 상당히 단 과일이다. 신부의 마음은 거룩하며, 하나님께 ‘달콤’하다.

2. When pomegranates are broken they are red. Red speaks of her modesty, her propensity for blushing in the presence of shameful things. Prostitutes do not blush with immodesty. A red countenance speaks of one sensitive to shameful things (red from blushing).

석류를 쪼개보면 안이 빨갱다. 빨강은 신부의 정숙함, 그리고 부끄러운 일에 얼굴을 붉히는 성향을 말한다. 매춘부는 자신의 부끄러운 일에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 빨개진 얼굴은 부끄러운 일에 대한 민감성을 말한다.

H. Behind her veil speaks of her hidden life in God. Her emotions of love for God and her modesty is genuine when no one is watching. It is not just a show before people as in Song 4:3.

너울 속 (베일 속)은 하나님 안에서 갖는 신부의 ‘은밀한 삶’을 말한다.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마음과 정숙함은 누가 보지 않더라도 진정하다는 뜻이다. 아가서 4:3 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

VI. THE ROYAL COURTS OF THE HEAVENLY BRIDEGROOM (SONG 6:8)

하늘의 신랑인 예수님의 궁정 (아 6:8)

⁸*There are sixty queens and eighty concubines, and virgins without number... (Song 6:8)*

⁸왕후가 육십이요 비빈이 팔십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 (아 6:8)

A. The Bride is preeminent in honor among the glorious hosts in Jesus' heavenly court. In the ancient world, a king's court included his harem which was comprised of women of various ranks. King Solomon's earthly royal court symbolized King Jesus' heavenly court. Three positions of honor in Solomon's court are used (queens, concubines and virgins).

신부는 천국 궁정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무수한 영광의 천군 천사들보다 더 큰 최고의 영광을 누린다. 고대 왕의 궁정에는 다양한 계급의 여자들로 구성된 규방들이 있었다. 솔로몬 왕의 궁정은, 왕이신 예수님의 ‘하늘 궁정’을 상징한다. 솔로몬 궁정에는 각각 다른 영광을 나타내는 지위들이 있었다 (왕후, 비빈, 시녀등).

B. At the time this Song was written, Solomon had 60 wives who were each called a queen. He eventually had 700 wives (1Kings 11:3). These queens did not have the same of honor as the Shulamite which was his favorite. The king's bride was the most honored among his queens.

아가서가 씌어졌을 당시, 솔로몬에게는 왕후라고 불린 자들이 60명 이었다. 나중에 솔로몬은 700 명의 부인을 두게 되었다 (왕상11:3). 하지만, 이 왕후들은 솔로몬의 총애를 받았던 솔라미 여인만큼의 신망과 영광을 얻지 못했다. 모든 왕후들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여인은 ‘왕의 신부’였다.

- C. The numbers 60, 80 and a group ‘without number’ represent the different degrees of glory in Solomon’s court. The 60 queens had the highest ranks in Solomon’s court. The number with “queenly glory” is the smallest number listed. The concubines were next in rank with 80. Concubines in a king’s court had lesser honor than queens, yet still more than virgins because they were legally part of the King’s family and owned property. The virgins were in the King’s court as “staff members” but had no legal claim to the King’s family or property.
60명, 80명, ‘무수한’ 이 숫자들은 솔로몬 궁정에서 누리는 ‘영광의 차이’를 말한다. 60명의 왕후들은 솔로몬 궁정에서 최고의 계급을 가진 자들이었다. “왕후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숫자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 다음 계급은 비빈으로 80명이 있었다. 왕의 궁정에 있던 비빈들은 왕후보다는 영광이 적었지만, 시녀보다는 더 영예로운 지위를 가졌다. 그들은 법적으로 왕의 가족에 속하며,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녀들은 왕의 궁정의 “일원”에 불과했으며, 법적으로 왕의 가족에 속하지도, 자산을 소유할 수도 없었다.
- D. The primary point is to see that Jesus’ Bride has more honor than all the hosts in His court. Jesus is surrounded by a host of glorious beings with different ranks. The Bride surpasses them all.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의 신부가 주님의 궁정에서 그 어떤 천군 천사들보다 더 큰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계급들을 가진 수많은 영광의 천군천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지만, 주님의 신부는 이들을 훨씬 능가한다.
- E. Our purpose here is not to seek specific angelic groups that correspond to queens, concubines and virgins but to point out there are degrees of glory in a king’s court. There are positions of varying rank in God’s court including the seraphim, cherubim, archangels, the 24 elders, etc.
우리의 목적은, 왕후, 비빈, 시녀들에 상응하는 천상의 특정 무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궁정에 계급에 따른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궁정에는 다양한 계급과 지위가 존재하며, 스랍, 그롭, 천사장, 24장로들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 F. We are not to think there are specifically 60 and 80 in various ranks around God’s Throne. These merely convey different positions of honor in a king’s court. We are not meant to categorize the heavenly court into the three groups in Song 6:8. For example, some compare the virgins without number in Solomon’s court to the unnumbered multitudes of angels.
그러나, 하나님 보좌 주위에 60 와 80 과 같은 특정 숫자로 계급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 숫자들은 단지 왕의 궁정의 지위에 따라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달해 줄 뿐이다. 아가서 6:8에 나오는 세 종류의 무리를 사용, 천상의 궁정의 계급을 똑같이 분류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솔로몬 궁정에 있는 무수한 시녀들을 천상의 무수한 천사들에 비교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VII. THE BRIDE’S HONOR IN GOD’S FAMILY (SONG 6:9)

하나님의 가족 안에 누리는 신부의 영광 (아 6:9)

My dove, My perfect one, is the only one, the only one of her mother, the favorite of the one who bore her. The daughters saw her and called her blessed, the queens and the concubines, and they praised her. (Song 6:9)

⁹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 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총애를 받는)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 6:9)

- A. The Shulamite is referred to as His dove and His perfect one. Being His dove speaks of her singleness of heart and that she walks in the Spirit as God’s dove walking in bridal identity.
술람미 여인은 주님의 ‘비둘기’, 주님의 ‘완전한 자’로 불린다. 주님의 비둘기는 신부의 ‘일편단심’을 말한다. 신부는 하나님의 비둘기로서,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간다.

- B. Being His perfect one means she has matured spiritually. Jesus' End-Time Church will become mature in love as she is filled with God's glory without any spot or wrinkle (Eph. 5:26-27).
주님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신부가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뜻이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교회는 '주름이나 흠없이'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며 성숙한 사랑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엡 5:26-27).
- C. Of all the glorious hosts in Jesus' courts in the Eternal city, He has only one Bride. The only one" is translated "is unique" (NAS/NIV). She is unrivaled. She has no competition. Jesus is saying, "Of all the attendants in My court, she is the only one I want and the only one that I would die for." Jesus is saying to her what she said to Him (Song 5:10, 16), that she is unique or a one of a kind that has captured His heart. She is the chief among ten thousand in His heart as He is in her heart. He wants no other.
'영원의 도시'에 자리잡은 예수님의 궁정의 영광의 무리들 가운데, 주님의 신부는 오직 하나다. "외팔"은 NAS/NIV 역에 "특별한"으로 번역되어 있다. 신부에게는 라이벌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부는 다른 무리와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내 궁정에 있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자는 나의 신부이며, 내가 누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도 신부뿐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신부가 주님께 고백했던 말 (아5:10, 16)을 그대로 신부에게 고백하고 계신데, 그것은 신부가 '특별한 자', 또는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유일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신부에게 예수님이 '만 사람위에 뛰어난 자'인 것처럼, 예수님께 신부는 '만 사람위에 뛰어난 자'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는 오직 신부뿐이다.
- D. The mother is a picture of the Church through history. God is our father and the Church is spoken of as our mother. Paul spoke allegorically of the New Jerusalem as "the mother of us all" (Gal. 4:26). The redeemed from history are represented as a "mother" that gave birth to Jesus (manchild) and as well as the believers that come after her (Rev. 12:5, 17). God is the author of our natural and spiritual birth. The agency He uses for our natural birth is our natural mother. The agency He uses for our spiritual birth is the witness of the Church, our spiritual mother. Those who do God's will are His mother (Mt. 12:46-50). The Lord uses the Church to win the lost that they may become a part of His Church. The mother crowns Jesus with her love on His wedding day (Song 3:11).
'어미'는 역사적으로 '교회'를 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교회는 '어머니'로 여겨진다. 바울은 새 예루살렘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비유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갈 4:26). 역사적으로 구속받은 자들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낳은 "어미"로, 또, 그 어미후에 나온 믿는자들을 대표한다 (계 12:5, 17).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 영적 탄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육의 탄생을 위해 주님이 사용하는 도구는 우리의 육의 어머니이다. 영적 탄생을 위해 주님이 사용하는 도구는 우리의 영적 어머니인 '교회의 증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주님의 어미다 (마 12:46-50). 주님은 교회를 사용하사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며, 이들을 주님의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하신다. 어미인 교회는 주님의 혼인 날에 사랑으로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워 드리게 될 것이다 (아 3:11).
- E. I define the Bride as the Church becoming mature in love for God and people. This has never happened. The Church in the Book of Acts was not fully mature. It had moments of glory in several cities. Before the Lord returns the worldwide Church will be mature or spotless and blameless (Eph. 5:26-27). The End-Time Church that survives the Great Tribulation has a unique honor in history being the only generation to walk blameless before Jesus returns.
나는 '주님의 (성숙한) 신부'를,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성숙해 진 교회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도 온전히 성숙한 교회는 아니었다. 물론, 여러 도시에 영광의 순간들은 있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전 세계의 교회는 '티도, 흠도 없는 교회'로, 즉,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엡 5:26-27). 마지막 때, '대환란'을 통과하며 승리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역사상 유일하게 흠없이 온전히 살아온 세대가 되는 '특별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 F. The Bride is by definition made up of those who walk in mature in love. Living like the heavenly Bride while on earth is to walk in mature in love. The interesting thing to note is that the Bride is the favorite of the one who bore her, in other words, the favorite of her mother which speaks of the redeemed through history. The worldwide End-Time mature Bride is unique in history and is the favorite of the one who bore her.
 정의에 따르면, 신부는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신부’ 같이 사는 방법은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하게 흥미로운 점은, 신부가 그녀를 낳은 자들 중, 특별한 사랑 (총애)을 받는 (귀중한) 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구속받은 자들은 ‘어미’의 사랑을 받는 (총애) 자들이다. 마지막 때, 전 세계에 퍼져있는 성숙한 신부들은 역사상 특별한 자들로, 그 신부를 낳은 ‘어미’의 사랑을 받는 (총애) 자들이 된다.
- G. The Church from history is our mother. The favorite work of the historical Church is the great End-Time harvest of souls and its full maturity (Rev. 14:14-16; Eph. 5:27).
 역사적으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이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마지막 때의 영혼의 대추수며, 온전한 성숙이다 (계 14:14-16; 엡 5:27).
- H. The End-Time Church will enter in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of maturity that belongs to the fullness of Christ (Eph. 4:13). God will finish what He began and the gates of hell will not prevail in the Church (Mt. 16:18; Phil. 1:6). The Church throughout all history did not walk in maturity. They lived much more like the daughters of Jerusalem. The Church through history from heaven’s point of view will see the End-Time Church and will call her blessed.
 마지막 때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속하는 ‘온전한 성숙’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엡 4:13).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마치실 것이며,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 16:18; 빌 1:6). 모든 역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교회는 온전한 성숙함을 이루지 못해 왔으며, 거의 ‘예루살렘의 여자들’처럼 살아왔다.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난 역사의 모든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보며 ‘축복받은 자’라 부르게 될 것이다.
- I. The honor of the Bride in her maturity is seen in the phrase the daughters saw her and called her blessed (6:9). The daughters speak of the immature believers throughout history. They will call her blessed as they did in Song 6:1. The redeemed through history will praise God for the End-Time Church as it prevails in love while still on earth. The queens and the concubines will praise the End-Time Church. They may speak of the heavenly host rejoicing with gladness as the Bride comes into her honored position. God has brought to pass a people that are mature on the earth.
 성숙한 신부의 영광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받은 자’라고 부르는 구에서 나타난다 (아 6:9).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여자들은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아 6:1에서 그랬던 것 처럼, 신부를 ‘축복받은 자’라 부르게 될 것이다. 지난 역사상의 모든 구속받은 자들은, 마지막 때의 교회가 땅에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신부가 영광의 지위를 받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천상의 무리’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숙하게 되는 성도들을 전세계적으로 일으키실 것이다.

VIII. THE HOLY SPIRIT DESCRIBES THE BRIDE'S 4 FOLD CROWN OF GLORY**신부의 4 가지 영광의 면류관을 묘사하시는 성령님**

¹⁰Who is she who looks forth as the morning, fair as the moon, clear as the sun, awesome as an army with banners? (Song 6:10)

¹⁰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 6:10)

A. The Bride is described as possessing a 4-fold glory as co-heir with Jesus of the Eternal City. The Spirit here uses four metaphors to show the Bride's beauty by comparing her to heavenly objects in the way Jesus compared her to earthly cities (Jerusalem and Tirzah) in Song 6:4.

이 본문에서, 신부는 영원의 성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로 4가지의 영광을 소유한다. 성령님은 4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여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아가서 6:4 에서 신부를 땅에 도시들 (예루살렘과 디르사)에 비교 했듯이, 이번에는 신부를 '하늘의 피조물들'에 비교하신다.

B. The Spirit asks a rhetorical question, "Who is she?" Jesus just declared the Bride's preeminent place in His court. The Spirit is now affirming her place of preeminence. The Spirit speaks three times in the Song asking the same question, "Who is this...?" (Song 3:6, 6:10; 8:5).

성령님은 반어적 (수사적) 질문을 하신다, "그녀는 누군가?" 예수님은 방금 전, 주님의 궁정에서 갖는 신부의 영광과 지위를 선포하셨었다. 성령님은 이제 그 신부의 영광의 자리를 확증시켜 주신다. 성령님은 똑같은 질문을 아가서에서 3번 반복하신다, "이는 누군가...?" (아 3:6; 6:10; 8:5).

C. The Bride's ministry in the culture is as one "who looks forth or shines forth as the morning". After the long night, the sunlight of the morning shines forth with hope on the horizon. The Church in this age functions as salt (flavor, preservation) and light (direction, life) in Mt. 5:13-16. This emphasizes the impact that God's people will have on individuals and society (political, military, economic, educational, family, media, arts, technology, social institutions, etc).

이 세상에서의 신부의 사역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빛나는" 사역이다. 지나간 밤이 지난 후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은 희망을 가져다 주는 빛을 발한다. 이 땅의 교회는 마태복음 5:13-16에 나온 것처럼, 빛 (방향, 생명)과 소금 (맛, 보존)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또, 사회의 각 분야 (정치, 경제, 군사, 교육, 가정, 방송, 미술, 과학, 사회 기관등등)에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D. The Bride's ministry in this age is as one "who shines forth as beautiful as the moon". The mature Church is as beautiful as the moon. The moon was established by God to provide light in the nighttime (Gen. 1:14-19). It does not have its own light but receives the reflected light of the sun. The mature Church is a source of God's light in a dark and fallen world.

이 땅의 신부의 사역은 "달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사역이다. 성숙한 교회는 달과 같이 아름답다. 달은 하나님이 세우신 피조물로 밤에 빛을 제공한다 (창 1:14-19).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 빛을 반사한다. 성숙한 교회는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반영한다.

¹⁶God made two great lights: the greater light (sun) to rule the day, and the lesser light (moon) to rule the night... (Gen. 1:16)

¹⁶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 (해)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달)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창 1:16)

- E. The Church in this age is to shine like the moon in the darkness as we work in evangelism and transformation of our culture (Mt. 5:16; Phil. 2:15). This age is in a time of darkness as the Millennial Kingdom is a worldwide time of day).
이 땅의 교회는 어둔 곳을 비추는 달과 같이, ‘전도와 문화의 변혁’을 위해 일해야 한다 (마 5:16; 빌 2:15). 이 시대는 어두움에 휩싸여 있지만, 다가올 천년왕국에는 전세계가 늘 낮과 같이 밝게 될 것이다.
- F. The Bride’s ministry in the age-to-come is as one “who shines forth as bright as the sun”. Her full glory is in the brilliant light of Jesus’ glory. The Church will reflect the glory of Jesus’ light in the New Jerusalem. Jesus is the “sun” in the Eternal City (Rev. 21:23).
다가오는 시대에 신부의 사역은 “해같이 맑고 환하게 빛나는”사역이다. 신부의 온전한 영광은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한다.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성에서 “해”로서 빛을 제공하실 것이다 (계 21:23).
²³***The city (New Jerusalem) had no need of the sun or of the moon to shine in it, for the glory of God illuminated it. The Lamb is its light. (Rev. 21:23)***
²³그 성 (새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계 21:23)
- G. The Church will reflect God’s light in the New Jerusalem as co-heir of the Eternal City.
영원한 성의 ‘공동 상속자’로,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¹¹***Having the glory of God. Her light (the Church’s) was like a most precious stone, like a jasper stone, clear as crystal. (Rev. 21:11)***
¹¹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그 성의 빛 (교회)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계 21:11)
³⁶***The whole body will be full of light, as when the bright shining of a lamp... (Lk. 11:36)***
³⁶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 (눅 11:36)
³***Those who are wise shall shine like the brightness of the firmament... (Dan. 12:3)***
³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 (단 12:3)
- H. The Church rules with Jesus and reflects God’s light in time and eternity (Rev. 21:23-24, 11; 1:16; Isa. 60:1-3, 19-20; 24:23; 59:19; 62:1; Ezek. 43:2; Ps. 50:2; Mal. 4:2; 2 Cor. 4:6; Jn. 8:12; 1 Jn. 1:5; Mt. 5:14-16; Phil. 2:15; Dan. 12:3; 1 Cor. 15:41-42; Song 6:10).
교회는 이 땅에서, 또, 영원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며,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계 21:23-24, 11; 계 1:16; 사 60:1-3, 19-20; 24:23; 59:19; 62:1; 겔 43:2; 시 50:2; 말 4:2; 고후 4:6; 요 8:12; 요일 1:5; 마 5:14-16; 빌 2:15; 단 12:3; 고전 15:41-42; 아 6:10).
- I. The Bride’s government is as one “who is as awesome as a powerful army with banners”.
신부의 정부는 “기치를 벌인 강력한 군대 같이 위엄있는” 정부다.
¹⁰***You are as awesome (majestic, NIV) as an army with banners (NAS). (Song 6:10)***
¹⁰기치를 벌인 군대 같이 엄위한 (광대한, NIV역) 여자 (아 6:10)

- J. The Bride will rule in the governmental administration of Jesus' Kingdom forever (Dan. 7:27).
신부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정부적 다스림'을 이끌어 가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단 7:27).
²⁷Then the kingdom and dominion, and the greatness of the kingdoms under the whole heaven, shall be given to the people, the saints of the Most High. (Dan. 7:27)
²⁷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단 7:27)
²¹To him who overcomes I will grant to sit with Me on My throne, as I also overcame and sat down with My Father on His throne. (Rev. 3:21)
²¹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 3:21)
- K. In Song 6:4, Jesus emphasizes the victory over her heart in earthly difficulties. Here, the Spirit emphasizes her victory over all powers.
아가서 6:4 에서, 예수님은 이 땅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신부를 강조하셨다. 성령님은 여기서 모든 권세를 물리친 '승리의 신부'를 강조하신다.
- L. **Summary:** the Bride's 4-fold glory is seen in three progressive stages in the glory of God. First, she experiences the dawning of God's light to bring salt and light to the culture (Mt. 5:13-16). Second, she shines forth as a beautiful moon in warfare and evangelism in this age. Third, she shines forth as the sun in the age-to-come. In all this, she rules as God's weapon in His government forever.
요약: 신부의 4 가지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점진적 단계 3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신부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떠오르는 빛을 반영한다 (마 5:13-16). 두번째, 신부는 이 시대에 영적 전투와 전도를 통해 아름다운 달과 같이 빛나게 된다. 세번째, 신부는 다가오는 시대에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이 모든 단계에서, 신부는 하나님의 '무기'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정부를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
- M. It has not yet appeared what we will be like.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²It has not yet been revealed what we shall be, but we know that when He is revealed, we shall be like Him,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1 Jn. 3:2)
²...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일 3:2)
- N. The 7-fold comparison of the triumphant Bride who walks in the Holy Spirit
성령님 안에 사는 승리의 신부에 대한 7 가지 비유
1. She is compared to Tirzah speaking of her beauty to unbelievers.
신부는 불신자들에게 비추는 아름다움을 말하는 '디르사'에 비유된다.
 2. She is compared to Jerusalem speaking of her beauty to believers.
신부는 믿는자들에게 비추는 아름다움을 말하는 '예루살렘'에 비유된다.
 3. She is compared to an earthly army speaking of her triumph over her own heart.
신부는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땅의 군대'에 비유된다.

4. She is compared to the dawn speaking of persevering in God's order on earth in this age.
신부는 이 시대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지탱하는 '떠오르는 아침'에 비유된다.
5. She is like the moon speaking of her triumph in evangelism and transformation.
신부는 전도와 영적 변혁의 성취를 말하는 '달'과 같다.
6. She is like the sun speaking of her triumph in glory as a co-heir of the Eternal City.
신부는 영원의 도시의 공동 상속자로 누리는 승리의 영광을 말하는 '해'와 같다.
7. She is like God's army with government over all things.
신부는 모든 것을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

Session 21 Vindication of the Persecuted Bride (Song 6:11-7:9)

핍박받는 신부를 변호하다 (아 6:11-7:9)

I. REVIEW OF SONG 6:4-10

아가서 6:4-10 복습

- A. In Song 6:4-10, Jesus breaks the silence with the Bride that began in Song 5:6. He praises her beauty and reveals what He was feeling about her during her time of testing. He describes her beauty using 3 metaphors (v. 4). He describes the impact the Bride has on His heart (v. 5).
아가서 6:4-10 에서 예수님은 아가서 5:6 에서 시작된 침묵을 마침내 깨뜨리신다. 주님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시고, 시험의 계절동안 신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는지를 드러내신다. 주님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 세가지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4절),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부의 강력한 영향력을 설명하신다 (5절).

⁴*O My love, you are as beautiful as Tirzah, lovely as Jerusalem, awesome as an army with banners! ⁵*Turn your eyes away from me, for they have overcome me.* (Song 6:4-5)*

⁴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요이 예루살렘 같고 엄위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 (아 6:4-5)

- B. When an army in the ancient world returned victorious from battle, they displayed their banners in a military parade. A defeated army lost its banners. She defeated her greatest enemies which were those found in her heart. She finished her time of testing as a victorious army with banners because she did not give in to sin and unbelief. She gained the victory over her own heart. When we feel nothing, His heart feels so much when we gaze on Him with eyes of devotion. The shadows of her compromise and fear are gone (Song 2:17; 4:6). She conquered them by grace.
고대 군대들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행렬하면서 그들의 기를 높이 들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패배군은 기를 빼앗겼다. 신부는 가장 큰 적,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신부가 ‘기치를 벌인 승리의 군대’처럼, 시험의 계절을 승리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신부가 죄와 불신에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부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헌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기쁨과 사랑으로 넘치신다. 신부의 타협과 두려움의 그림자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다 (아 2:17; 4:6). 신부는 ‘주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정복한 것이다.

- C. Jesus describes the Bride’s maturity (Song 6:5c-7) and her pre-eminence in His royal court with angelic attendants including seraphim, cherubim and angels without number (Song 6:8-9).

예수님은 신부의 성숙함(아 6:5-7)을 묘사하시고, 스랍, 그룹, 무수한 천사들을 포함한 천상의 무리들이 모여있는 하늘의 궁정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신부를 묘사하신다(아 6:8-9).

⁸*There are 60 queens and 80 concubines, and virgins without number. ⁹*My dove, my perfect one, is the...only one of her mother, the favorite of the one who bore her...* (Song 6:8-9)*

⁸왕후가 육십이요 비빈이 팔십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 뿐이로구나

⁹그는 그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총애를 받는) 여기는 자로구나 (아 6:8-9)

- D. The Spirit describes her 4-fold glory as co-heir with Jesus of the Eternal City (Song 6:10).
성령님은 ‘영원의 도시’에 계신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인 신부가 갖게 되는 4가지 영광을 묘사하신다 (아 6:10).

¹⁰*Who is she who looks forth as the morning, fair as the moon, clear as the sun, awesome as an army with banners? (Song 6:10)*

¹⁰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 6:10)

- E. First, the Bride's ministry in the culture is as one who looks forth or shines forth as the morning. Second, the Bride's ministry in this age is as one who shines forth as beautiful as the moon in the darkness as we work in evangelism and transformation of our culture (Mt. 5:16; Phil. 2:15). Third, the Bride's ministry in the age-to-come as one who shines forth as bright as the sun will occur because we will reflect Jesus' light in the New Jerusalem (Rev. 21:11). Fourth, the Bride's government is one who is as awesome as a powerful army with banners.

첫번째, 사회적으로 신부의 사역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빛나는” 사역이다. 두번째, 이 시대의 신부의 사역은 어둔 곳을 아름답게 비추는 달과 같이, 전도와 문화의 변혁을 위해 일하는 사역이다 (마 5:16; 빌 2:15). 세번째, 다가오는 시대에 신부의 사역은 “해같이 맑고 환하게 빛나는” 사역이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계 21:11). 네번째, 주님과 함께 다스릴 신부의 정부는 기치를 벌인 강력한 군대와 같이 ‘장엄한 정부’이다.

II. OVERVIEW OF SONG 6:11-7:9A

아가서 6:11-7:9 개관

- A. As the Bride walks in the Song 6:4-10 revelation, she is overcome by love for the whole Church. She commits to serve the weak and immature ones in God's garden (Song 6:11-12). A primary theme of the Song is that Jesus is equipping His Bride to walk in mature partnership with Him. 신부는 아가서 6:4-10의 계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교회 전체를 향한 사랑에 사로 잡히게 된다. 신부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연약하고 미성숙한 자들을 섬기는데 헌신하게 된다 (아 6:11-12). 아가서의 가장 큰 주제중의 하나는, 신부가 주님과 성숙한 동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신부를 양육시킨다는 것이다.
- B. After this season of service, the Bride is persecuted. She receives two different responses from the Church. First, she is supported from part of the Church (Song 6:13a). Second, another part of the Church gives her a sarcastic response (Song 6:13b). The Bride is vindicated by the daughters who express respect for ten areas of her life (Song 7:1-5). Next, the Bride is vindicated by Jesus who endorses her as His partner by releasing His grace on her in a great measure (Song 7:6-9a). ‘섬김의 계절’이 지난 후, 신부는 핍박받게 된다. 이 때 교회안에는 두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먼저, 일부의 사람들은 신부를 지지한다 (아 6:13). 두번째, 다른 일부는 신부에게 야유를 보낸다 (아 6:13). 신부의 삶의 10가지 영역을 보며, 신부를 존경하게 된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를 변호해 주게 된다 (아 7:1-5). 예수님도 신부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사 ‘동역자’로 인정하시면서, 신부를 직접 변호해 주신다 (아 7:6-9).

III. THE BRIDE'S COMMITMENT TO SERVE THE WHOLE CHURCH (SONG 6:11)

교회 전체를 섬기고자 헌신하는 신부 (아 6:11)

¹¹I went down to the garden of nuts (walnut grove) to see the verdure of the valley, to see whether the vine had budded and the pomegranates had bloomed. (Song 6:11)

¹¹곶자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낫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 6:11)

- A. The garden of God is mentioned 9 times in the Song. The first 3 references are to her garden (Song 4:12, 15, 16). The last 6 references are to His garden (Song 4:16; 5:1; 6:2, 11; 7:12; 8:13). 아가서에 ‘하나님의 동산’은 총 9번 등장한다. 처음에 등장하는 세개의 동산은 신부의 동산을 가리키며 (아 4:12, 15, 16), 나머지 여섯개의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을 말한다 (아 4:16; 5:1; 6:2, 11; 7:12; 8:13).

- B. The Bride goes down to God's garden to help the plants that were merely budding and blooming. She taught the daughters that Jesus is found in His garden feeding His people (Song 6:2-3). Thus, she goes down to His garden to partner with Him because she wants to be with Him where He is. 신부는 하나님의 동산에 내려가, 이제 막 순이 나고 피어나는 식물들을 돕게 된다.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의 동산에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 바 있다 (아 6:2-3). 그래서, 신부는 주님의 동산에 내려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게 된다. 신부는 '주님이 계신 곳'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 C. The garden includes a walnut grove which gives a clear picture of spiritual truth. Walnut trees have dense shade thus they provide refuge from the summer heat as well as having economic value in producing food. Oil is also produced from walnuts that was used to making soap, which speaks of cleansing. Its leaves were used in medicinal ways to aid in physical healing. 그 동산에는 영적 진리의 그림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호도나무도 있다. 호도 나무는 두터운 그늘을 가지고 있어 한 여름의 열기를 막아주고, 열매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높여준다. 호도에서 생산되는 기름은 비누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것은 '정화'를 뜻한다. 호도 나뭇잎은 몸을 치료하는 약으로도 사용되었다.
- D. The life in a walnut seed is on the inside. However, the seed must die and be broken before it can provide food, oil or healing for others. We must die to ourselves to provide food, cleansing (soap) and healing for others. The life within is hidden and not immediately observable. 호도 씨의 생명은 안에 있다. 그러나, 그 씨앗은 반드시 죽고 깨져야만 다른 이들에게 열매와 기름, 치유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자아의 죽음'을 거쳐야만 우리는 타인들에게 열매와, (영적) 정화(비누), 그리고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내면의 삶'은 숨겨져 있기에 겉으로 쉽게 관찰되지 않는다.
- E. She went to see the verdure or the vibrant greenness of God's garden. One dictionary defines verdure as the fresh vibrant greenness of flourishing vegetation. 신부는 하나님의 동산에 내려가 싱그러움, 또는 활력적인 푸르름을 보았다. 어떤 사전은, '싱그러움'을 한창 무성한 식물에 나타나는 신선하고 활력적인 푸르름으로 정의한다.
- F. She "went down" to invest herself in God's vineyard in other places outside of her familiar sphere. She sees God's flourishing garden in the midst of the valley in this fallen world. She goes to see if the vine had budded or to gain insight into God's work in other places. 신부는 자신의 친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뛰어드는" 모험을 감행한다. 신부는 골짜기와 같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번창하는 하나님의 동산을 본다. 신부는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지,'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지를 보기 위해 하나님의 동산에 내려간다.
- G. In Scripture, the vine and vineyard speak of God's people and His work (Isa. 5; Jn.15). The budding vineyard speaks of the vine that did not yet have fruit. In other words, it speaks of the immature Church. She sees God's vineyard without much fruit but he sees buds and blooms. In Song 2:11-13, the budding vineyard was a prophetic sign of God's visitation coming soon. 성경에서, 포도 나무와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역사를 말한다 (사 5장; 요 15장). 순이 피어나는 포도원은 아직 열매가 나지 않은 포도 나무를 말한다. 다시 말해, '미성숙한 교회'를 말한다. 신부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아직 열매가 없는 것을 보지만, 주님은 이미 '순'과 피어나는 '꽃'을 보신다. 아가서 2:11-13 에서, 순이 난 포도원은 하나님의 '방문'이 곧 임하게 된다는 예언적 표징이었다.

- H. The blossoming pomegranates speak of individual believers. She goes down to invest into the budding vine that had not yet matured instead of being impatient with them.
개화하는 ‘석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한다. 신부는 사랑의 인내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포도나무의 순을 섬기게 된다.
¹¹To see whether the vine had budded and the pomegranates had bloomed. (Song 6:11)
¹¹포도나무가 순이 낫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아 6:11)
- I. The Bride sees the budding virtues in others as the Lord saw her virtues in seed form (Song 4:1-5). Her enthusiasm for them comes from His enthusiasm for her while she was immature.
주님이 ‘씨앗’과 같았던 신부의 미덕 (성품)들을 보셨던 것 처럼 (아 4:1-5), 신부는 다른 이들 안에 ‘피어나는 미덕들’을 보게 된다. 이들을 향한 신부의 열의는, 자신이 미성숙한 자였을 때, 자신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주님의 열의에서 나온 것이다.
- J. The Bride is saying “Yes!” to the Great Commission. We can “go down” to help immature ones in our own neighborhood. We do not have to get on a plane to serve in God’s garden. In principle it speaks of leaving the comfort zone to embrace the difficulty of caring and helping others.
신부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에 순종하며 대답 한다. 가깝게는 우리가 이웃에 “찾아가” 미성숙한 자들을 도울 수도 있다. 하나님의 동산을 섬기기 위해 멀리 비행기 타고 갈 필요는 없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나의 ‘안락의 지대’를 벗어나, 타인들을 돌보고 돕는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LOVE FOR GOD’S CHURCH OVERCOMES HER (SONG 6:12)

신부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교회’ 를 향한 사랑 (아 6:12)

¹²Before I was even aware, my soul had made me as the chariots of my noble people. (Song 6:12)

¹²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아 6:12)

- A. While she is down in the valley working with the budding vineyard, suddenly her soul becomes like the chariots of her noble people. This depicts the zeal she feels for others. The Bride’s soul moved like a chariot. In the ancient world, a chariot was the fastest and easiest way to travel with luggage for a long distance. The best chariots belonged to the noble people or the royal family. (KJV translates “noble people,” as “Ammi-Nadib” which is a prince’s name).
신부가 골짜기에서 막 순이 나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동안, 순간적으로 신부의 심령이 ‘귀한 백성의 수레’같이 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신부의 ‘열심’을 뜻한다. 신부의 심령이 수레처럼 요동한 것이다. 고대에 수레 (2륜 마차)는, 장거리를 짐을 싣고 가장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동하는 교통수단이였다. 최고의 마차들은 귀족이나 왕족이 소유했다. (KJV 역은 “귀한 백성”을 왕자의 이름인 “아미나딕”이라 번역했다).
- B. ***My soul had made me* (my desire set me among, NIV).** Her soul was made like a king’s chariot that moved swiftly. In other words, she suddenly found strong desires to serve God’s people.
내 마음이 나로... 하였구나 (내 소원이 나를 ...에 넣었구나, NIV 역). 신부의 심령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왕의 병거’ 같이 되었다. 다시말해, 순식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이 생긴 것이다.

- C. As she went down to see how the work of God was progressing, she was suddenly overcome with desire to help others. She is “beside herself” or is compelled by love (2 Cor. 5:11, 14). Instead of being put off by the immaturity, pride, wrong applications of the Word and lack of discernment of these “budding vines” she is surprised by the tender compassion that she feels.
신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지켜보러 내려갔다가, 순간적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신부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사랑’이 신부를 강권한 것이다 (고후 5:11, 14). 이제 “순이 나는 포도나무들”의 미숙함과, 교만, 말씀의 오류 적용, 부족한 분별력에 불쾌해 하기 보다는, 신부는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향해 느끼는 온유하고 긍휼한 마음에 자신도 놀라게 된다.
- D. Her heart moves forward in this burden without any resistance like a swiftly moving chariot. She is surprised by this new movement of her heart. Before she was even aware, she had new desires and burdens with great enthusiasm to help others. This is the work of the Spirit.
신부의 마음은 신속하게 이동하는 수레 마차처럼, ‘거룩한 부담’을 마차에 싣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마음의 동요에 신부 자신도 놀라게 된다. 자신이 깨닫기도 전에, 신부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열망과 거룩한 부담을 새롭게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 E. God loves the whole Church, not just the part we are involved in. He wants us to have ownership of the whole Church not just the small part under our authority. Zeal for the whole Church is foundational to the unity in the End-Time Church (Jn. 17:21). Most only support what is theirs.
하나님은 우리가 소속된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 전체를 다 사랑하신다. 주님은 소속된 교회나 지체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 전체에 대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신다. ‘모든 교회를 향한 열심’은 마지막 때 교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요 17:21).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소속된 기관만을 지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 F. The Lord is raising up shepherds who care about His larger purposes and who train the people to love the whole Church. She is filled with love for the Body like Joseph was for his brothers without any sense of bitterness over the way she was mistreated (Gen. 50:15-21).
주님은 현재, 더 큰 주님의 목적과 비전들에 관심을 두는 목자들, 그리고 모든 교회를 사랑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목자들을 세우고 계신다. 요셉이 형들에게 쓴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신부는 과거에 학대받은 것에 대한 쓴뿌리, 쓴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리스도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차게 된다 (창 50:15-21).
- G. The Bride follows through on this burden by walking it out with diligence.
신부는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계속 신실하게 살아간다.
¹²Let us get up early to the vineyards; let us see if the vine has budded, whether the grape blossoms are open, and the pomegranates are in bloom. (Song 7:12)
¹²우리가 일찌기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 보자 ... (아 7:12)

V. THE TWO RESPONSES OF THE CHURCH TO THE BRIDE (SONG 6:13)

신부에 대한 교회의 반응 2 가지 (아 6:13)

¹³***Return, return, O Shulamite; return, return, that we may look upon you! What would you see in the Shulamite-- As it were, the dance of the two camps? (Song 6:13)***

¹³***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아 6:13)***

A. The first response to the Bride is one of respect and admiration. The daughters of Jerusalem wanted to seek the Lord with the Bride in Song 6:1. Here, they urgently express this desire to learn from her by crying out to her four times “to return.” They wanted her to return from her labors in the garden in the valley seen in Song 6:11-12.

첫번째 반응은 존경과 칭찬이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아가서 6:1 에서 신부와 함께 주님을 찾고자 했다. 여기서, 그들은 신부에게 배우려는 절박한 소원을 표현하기 위해 “돌아오라”라는 외침을 네번이나 반복한다. 그들은 아가서 6:11-12 에 나오는 것처럼, 골짜기의 동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신부가 자신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B. The Ephesian elders wept because Paul left them to go to other parts of the Lord’s vineyard.

에베소 장로들은 다른 ‘포도원’으로 떠나는 바울을 보내며 함께 울었다.

³⁷***They all wept freely, and fell on Paul’s neck and kissed him, ³⁸sorrowing most of all for the words which he spoke, that they would see his face no more... (Acts 20:37-38)***

³⁷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 (행 20:37-38)

C. The Bride is called the Shulamite because she grew up in the Israelite city of Shunem. This is the only place in the Song in which the Bride is called the Shulamite. Solomon and Shunem come from the same root word that means peace. Jesus and His Bride have the same name.

신부는 ‘술람미’ 여인으로 불린다. 그것은 그녀가 이스라엘 수넴 지방이란 곳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다. 신부가 술람미 여인으로 불리는 구절은 아가서에서 이곳에 딱 한 번 나온다. 솔로몬과 수넴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둘다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과 신부는 같은 이름을 소유한 것이다.

D. The second response is one of sarcasm from the jealous watchman who had recently struck and wounded her in Song 5:7. Here they sarcastically challenge the daughters’ respect for the Bride (who they recently censored) by saying, “What do you see in the Shulamite?” or “Why do you want her to return? They undermine their desire to look to the Bride for spiritual input.

두번째 반응은, 아가서 5:7 에서 신부를 치고 상처 주며, 질투하고 시기하는 ‘행순자’들로 부터 오는 야유다. 여기서 그들은 신부를 존경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비꼬는 투로 도전의 말을 던진다, “술람미 여인에게 뭐 특별한 게 있어?”, “왜 기다리는데?” 이들은 신부에게 ‘영적 조언’을 받고자 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갈망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 E. The dance of two camps speaks of the conflict between the daughters and the watchman over the Bride. The KJV translates this as “the dance of the two armies,” NAS as the “dance of the two companies,” and the NIV translates it as “the camp of Mahanaim.” Mahanaim in Hebrew may be translated as “two camps, two armies” or as the name of the city. Since Mahanaim is the city in which Jacob and Esau had a great conflict, either translation brings us to the same conclusion. ‘마하나임의 (양쪽 진영의) 춤추는 것’은, 신부에 대한 예루살렘 여지들과 행순하는 자들 사이의 대립을 뜻한다. KJV역은 이것을 “두 군대의 춤”으로 번역했으며, NAS 역은 두 진영의 춤”으로, NIV역은 “마하나임의 진영”으로 번역했다. 히브리어로 마하나임은 “두 진영, 두 군대,” 또는, 도시 이름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마하나임은 야곱과 에서의 쟁쟁한 대립이 벌어졌던 도시로 유명하기 때문에, 어떤 번역을 사용하든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¹³***What would you see in the Shulamite-- as it were, the dance of the two camps? (Song 6:13)***

¹³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 6:13)

- F. Mahanaim is famous for the conflict between Jacob and Esau. In Gen. 32, Esau pursued Jacob with the intent of killing him because Jacob stole his birthright. At Mahanaim, Jacob divided his people into two camps so Esau could only destroy one if he caught them. Jacob saw angels at Mahanaim that intervened to help him in this great conflict. 마하나임은 야곱과 에서의 대립이 있던 도시로 유명하다. 창 32 장에서, 에서는 장자권을 도둑질한 야곱을 죽이기 위해 그를 쫓아간다. 마하나임에서, 야곱은 그의 백성들을 두 진영으로 나눠, 만약 에서가 한 쪽 진영을 발견하면 그 진영만 충돌을 감당할 있게 만들었다. 이 엄청난 대립 가운데,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도움’의 천사를 만나게 된다.

¹***So Jacob went on his way, and the angels of God met him. ²When Jacob saw them, he said, “This is God’s camp.” And he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Mahanaim. (Gen. 32:1-2)***

¹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창 32:1-2)

- G. The dance is an interaction between two camps (companies) in the Body of Christ. This is a dance of spiritual warfare that also involves two realms in the spirit (angelic and demonic). 여기서 ‘춤추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지체) 안에 있는 ‘두 진영 (사람들)’ 사이의 대립을 뜻한다. 또한, 이것은 ‘영적 전투의 춤’으로 두 영계 (거룩한 것과 악한 것) 사이의 전투를 의미 하기도 한다.

- H. There are always two extreme positions in the Body of Christ. Those who pursue Jesus with great fervency and those who do not. Wholeheartedness is the core issue of many divisions. 그리스도의 몸안에는 언제나 양극단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좇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 ‘전심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 주님을 좇는 것이 사람들을 분열되게 하는 핵심 문제가 되게 한다.

- I. Jesus brought division between the sincere and the insincere not between the mature and the immature (Mt. 10:34-36). The Lord will unify the Church after He purges it of compromise. 예수님은 미성숙한 자와 성숙한 자 사이에 분열을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진실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분열을 가져 오셨다 (마 10:34-36). 주님은 ‘타협’하는 교회를 정화하시고 나서, 주님의 교회를 연합하실 것이다.

³⁴***Do not think that I came to bring peace on earth. I did not come to bring peace but a sword.***

³⁵***For I have come to set a man against his father, a daughter against her mother, and a daughter-in-law against her mother-in-law... (Mt. 10:34-35)***

³⁴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마 10:34-35)

- J. The two camps are represented by Saul attacking David. Paul's ministry resulted in division as he confronted disobedience to God as h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Acts 17:6). '두 진영'은 다윗을 공격하는 사울에게도 나타난다. 바울의 사역에서는, 그가 세상을 뒤집어 놓았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직면하면서 '분열'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행 17:6).

⁶These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have come here too. (Acts 17:6)

⁶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세상을 뒤집어 놓은)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행 17:6)

VI. THE BRIDE IS VINDICATED BY DISCERNING BELIEVERS (SONG 7:1-5)

분별력 있는 신자들에게 변호받는 신부 (아 7:1-5)

¹How beautiful are your feet in sandals, O prince's daughter! The curves of your thighs are like jewels, the work of the hands of a skillful workman. ²Your navel is a rounded goblet; it lacks no blended beverage. Your waist is a heap of wheat set about with lilies. ³Your two breasts are like two fawns, twins of a gazelle. ⁴Your neck is like an ivory tower, your eyes like the pools in Heshbon by the gate of Bath Rabbim. Your nose is like the tower of Lebanon which looks toward Damascus. ⁵Your head crowns you like Mount Carmel, and the hair of your head is like purple; a King is held captive by your tresses (hair). (Song 7:1-5)

¹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나 네 넓적다리는 동글어서 공교한 장색의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²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³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⁴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⁵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의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⁵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아 7:1-5)

- A. This passage answers the sarcastic question, "Who is the Shulamite?" The Bride is vindicated first by sincere believers (Song 7:1-5). Next the Lord Himself vindicates her and promises to release a greater measure of the Spirit on her (Song 7:6-9). The Holy Spirit always raises up sincere believers to vindicate those who radically pursue the Lord as His Bride.

이 본문은 "그 술람미 여인에게 뭐 특별한 게 있는가?"라고 비꼬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 먼저, 진실한 신자들이 신부를 변호해 주게 된다 (아 7:1-5).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직접 신부를 변호하시고, 신부에게 감절의 성령의 기름부음을 부어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신다 (아 7:6-9). 성령님은, 항상 진실한 자들을 세우사, 주님을 헌신적으로 좇는 주의 신부들을 변호하게 하신다.

- B. These sincere ones discern many of the same affirmations that Jesus gave the Bride (Song 4:1-5). They speak of 10 virtues in the Bride as she spoke of 10 virtues of Jesus (Song 5:10-16).

진실한 자들은, 예수님이 신부에게 주신 많은 확증들을 잘 분별하는 자들이다 (아 4:1-5). 신부가 예수님의 10 가지 미덕 (성품)을 찬양했던 것처럼 (아 5:10-16), 이들은 신부 안에 있는 10 가지 미덕 (성품)을 칭찬하게 된다.

- C. It is good to compare the 10 affirmations of the Bride in Song 7:1-5 with 8 given to her in Song 4:1-5. There are 4 main differences. In Song 4:1-5, Jesus began by describing her head (giving 6 of the 8 affirmations about her head) and worked down her body. Whereas, in Song 7:1-5, the daughters start by describing her feet as they work up to the head (4 affirmations are related to her head). The qualities in Song 7 relate to her ministry. In Song 4 the focus is on her character.

아가서 7:1-5에서는 신부의 10 가지 미덕을 확증해 주는데, 이것을 아가서 4:1-5에 나오는 8 가지 신부의 미덕 (성품)과 비교해도 좋다.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약 4 군데가 나온다. 아가서 4:1-5에서, 예수님은 신부의 머리부분 (8 가지 중, 6 가지의 미덕이 머리를 포함한 얼굴부분임)에서 시작하여 몸을 묘사해 나가셨다. 그와는 반대로 이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신부의 발부터 시작, 머리부분 (4 가지 미덕)으로 올라가며 설명한다. 여기에 나오는 미덕들은 '신부의 사역'에 관계된 미덕들로, '신부의 성품'에 초점을 맞춘 아 4 장의 미덕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 D. We also see what the Lord delights in when He sees these 10 characteristics and what He wants in bringing us to maturity. They are practical definitions of holiness and fruitfulness.
열 가지 성품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성숙케 하기 위해 어떤 것을 바라시는 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 본문은 ‘거룩함과 열매를 위한 실제적 정의’들을 보여준다.
- E. It is clear that the daughters are speaking in Song 7:1-5 and that Jesus speaks in Song 7:6. For example, the daughters call the Bride the “Prince’s daughter” (7:1), whereas Jesus calls the Bride “My love” or “My spouse” each time throughout the Song. In Song 7:5, Jesus is referred to as “a King” (instead of Him speaking in the first person to the Bride). In Song 7:8, Jesus speaks in the first person saying, “I will,” indicating a change of speakers in v. 6-9 from v. 1-5.
아가서 7:1-5 은 예루살렘 여자들의 고백이며, 아가서 7:6 은 예수님의 고백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를 “귀한 자 (왕)의 딸”이라 부른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가서 전체에 걸쳐 신부를 “내 사랑,” “나의 신부”라 부르신다. 아가서 7:5 에서, 예수님은 (1인칭이 아닌 3인칭) “왕”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아가서 7:8 에서 예수님은 1-5 절과는 다르게 주격의 변화를 주어 “내가”라는 1인칭을 사용하신다.
- F. The daughters take a stand for the Bride declaring that “she is beautiful” and by calling her the prince’s daughter which points to her royal character or character befitting of royalty. We all have a royal bloodline by our new birth.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를 “아름답다”라고 선포하면서, 신부의 고귀한 품성, 또는 왕족에 걸맞는 성품을 지적하는 ‘귀한자의 딸’이라고 부르며 신부를 변호한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왕족의 혈통’을 갖게 된다.
- ¹How beautiful are your feet in sandals, O prince’s daughter! (Song 7:1)***
¹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 7:1)
- G. The Bride’s feet in sandals speak of evangelism. Her success in evangelism is a sign of her beauty. Our feet are to be shod by the preparation of the Gospel (Eph. 6:15).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Isa. 52:7). The place our feet walk speaks of our inheritance (Josh. 1:3). Shoes speak of prosperity and honor (Lk. 15:22). The poor in the ancient world often did not have shoes. Bare feet speak symbolically of shame, poverty, and humiliation. 신발을 신은 신부의 다리는 ‘전도’를 말한다. 전도의 성공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징중의 하나다. 우리의 발은 복음을 예비하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 (엡 6:15).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사 52:7). 우리의 발이 밟는 곳은 우리의 ‘기업’이 된다 (수1:3). 신발은 ‘부와 명예’를 말한다 (눅 15:22). 고대에 가난한 자들은 신발이 없었다. 맨발은 수치와 가난, 굴욕을 상징했다.
- H. The Bride’s thighs or legs speak of the strength behind her walk in God. Jesus’ legs are like pillars of marble (Song 5:15). The curves of her thighs speak of the muscular definition in her legs giving her strength. This athletic feature was developed through much discipline. Thus, her strong walk is costly and esteemed as rare like the jewels worked on by a skillful workman.
신부의 ‘넙적다리,’ 또는, 다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신부의 삶을 받쳐주는 ‘힘’을 말한다. 예수님의 다리는 ‘화반석 기둥’같다고 했다 (아 5:15). 넙적다리가 ‘둥글다’는 것은 신부에게 힘을 전달해 주는 ‘강인한 근육’을 말한다. 운동선수와 같은 강인한 근육은 수많은 단련을 통해 발달된다. 그렇기에, 신부의 강건한 신앙의 발걸음은, ‘공교한 장식 (장인)이 만든 구슬 꿰미 (보석들)’처럼 귀한 것으로 존경받는다.

¹The curves of your thighs are like jewels, the work of the hands of a skillful workman. (Song 7:1)
¹네 넙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식의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아 7:1)

- I. The navel speaks of the nourishment a child receives in their mother's womb. This refers to our formative years in the Lord as the time in which our inner life in God is developed. A rounded goblet speaks of a healthy navel. This is opposite of being malnourished. A goblet which lacks no beverage speaks of a full range of nourishment. She is healthy with a balanced diet with all the necessary nutrients for a strong life. This speaks of a good spiritual foundation in our life. '배꼽'은 태아가 엄마의 자궁에서 자양분을 공급받는 생명줄이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내면의 삶'이 자라나는 시간, 즉,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형성해 나가는 세월을 가리킨다. '둥근 잔같은 배꼽'은 건강한 배꼽으로, '영양실조'와는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다.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은 풍족한 영양상태를 말한다. 신부는 균형잡힌 '영적' 식단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위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좋은 영적 기반'을 말한다.

²**Your navel is a rounded goblet; it lacks no blended beverage. (Song 7:2)**

²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아 7:2)

- J. The daughters see the Bride as prepared for the coming harvest. A heap of wheat speaks of an abundance of wheat which only occurs during the harvest. She is pictured as pregnant (large waist) with an abundant harvest. She is pregnant with the harvest wheat that is set about with lilies. The harvest that comes forth from her will be established in purity and holiness.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를 '다가오는 추수에 예비된 자'로 본다. '밀단'은 추수시기에만 생기는 '풍성한 밀'이다. 신부는 '풍성한 수확'을 '임신한 (커다란 허리)'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신부는 백합화로 두른 추수의 밀단을 '임신'했다. 신부에게 나올 추수 (아기)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²**Your waist is a heap of wheat set about with lilies. (Song 7:2)**

²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아 7:2)

- K. Breasts speak of the ability to nurture others. Babes are nurtured through milk from the breast. She is ready to nurture the harvest that she gives birth to. Her breasts are like youthful fawns (young deer less than one year old) in contrast to being elderly and without the ability to nurture with milk. Twins of a gazelle speaks of a double portion in her ability to nurture. This is in contrast to the little sister (immature believer) who is not prepared to nurture others (Song 8:8). 유방은 '다른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유아는 엄마의 젖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신부는 자신이 낳은 '추수'를 양육할 준비가 되어있다. 늙어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젖과는 대조되는, 신부의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한 살도 안된 어린 사슴) 같다고 묘사되었다. 사슴이 '쌍태'라는 것은, 신부에게 타인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갑절'이나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다른 이들을 양육할 능력이 아직 없는 '어린 누이 (미성숙한 자)'(아 8:8)와도 대조된다.

³**Your two breasts are like two fawns, twins of a gazelle. (Song 7:3)**

³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아 7:3)

- L. In Scripture, the neck speaks of the will that can be stiff-necked (resistant) or submissive. The rebellious neck speaks of pride (Isa. 3:16). The Bride's will is like an ivory tower which is rare and costly. Her resolute choices are as costly as an ivory tower which provides her protection. 목은 성경적으로 승복하거나, 또는 반대로, 버티려는 '의지'를 말한다. 버티며 저항 (대적)하는 목은 '교만'을 의미한다 (사 3:16). 신부는 '귀하고 비싼 상아 망대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신부의 결단은 상아 망대와 같이 귀하며, 자신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결단이다.

⁴**Your neck is like an ivory tower... (Song 7:4)**

⁴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아 7:4)

- M. Eyes speak of our ability to receive revelation (Eph. 1:18). She has keen spiritual insight (Song 1:15; 4:2, 9; 6:5). In Song 4:1, Jesus compared her eyes to dove's eyes speaking of her purity and loyalty. Here, her eyes are like the pools in Heshbon. These pools were not muddy but clean and easy to see through. To see clearly is our first priority because seeing is the doorway to growing spiritually (Phil 3:8-10). When we see differently we feel differently. The gate of Bath Rabbim was a resort area with clean water in the once royal city of Heshbon (Num. 21:25-26).

눈은 '주님의 계시를 받는 능력'을 말한다 (엡 1:18). 신부는 날카로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아 1:15; 4:2, 9; 6:5). 아가서 4:1 에서, 예수님은 신부의 눈을 '비둘기의 눈'으로 비유하시면서 신부의 '순결함과 충성심'을 말씀하셨다. 여기서, 신부의 눈은 '헤스본의 연못'과 같다. 이 연못은 진흙탕이 아닌, 맑고 투명한 연못이었다. 주님의 계시를 뚜렷하게 보고 깨닫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빌 3:8-10). 대상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는 다른 해석과 감정을 가지게 된다. 한 때 귀족의 성이었던 헤스본에서, 바드랍빔 문은 맑은 물을 가진 휴양지였다 (민 21:25-26).

⁴Your eyes like the pools in Heshbon by the gate of Bath Rabbim. (Song 7:4)

⁴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의 못 같고 (아 7:4)

- N. The nose speaks of discernment. A tower provides protection. Her nose is like a protective tower that looked toward Damascus the capital of Syria (Israel's greatest enemy). Lebanon was on the north side of Judah facing Syria. She had discernment of her fiercest enemies.

코는 '분별력'을 말한다. 망대는 방위를 제공한다. 신부의 코는 시리아 (이스라엘의 최대 강적)의 수도인 다메섹을 향한 방위용 망대와 같다. 레바논은 유다왕국 북쪽에 위치해 시리아를 접하고 있었다. 신부는 자신의 최대의 적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한다.

⁴Your nose is like the tower of Lebanon which looks toward Damascus. (Song 7:4)

⁴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아 7:4)

- O. The Bride's thought life is powerful like the beautiful mountain tops of Carmel. Her thought life is filled with royal thoughts or crowned like Mount Carmel (Isa. 35:2). Our thoughts are significant in spiritual warfare, especially related to our image of God.

신부의 머리는 '생각의 삶'으로, 아름다운 갈멜산과 같이 강력하다. 신부의 머리는 '고귀한 생각'으로 가득차 있다. 그래서, 갈멜산과 같이 아름답다 (사 35:2). 우리의 생각은 영적 전투와,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⁵Your head crowns you like Mount Carmel, and the hair of your head is like purple; a King is held captive by your tresses (hair). (Song 7:5)

⁵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아 7:5)

- P. In Scripture, hair spoke of one's dedication to God. The hair of the Nazirite was an outward sign of their dedication to God (Num. 6). A Nazirite did not cut their hair. Her hair is like purple which speaks of royalty. Her dedication is like the resolution of a king (NAS says "The King").

머리털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말한다. 나실인들의 머리털은 그들의 헌신을 보여주는 외적 표징이었다 (민 6 장). 그래서, 나실인들은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다. 자주 빛같은 신부의 머리털은 '왕족 (귀한 자)'을 말한다. 신부의 헌신은 '왕의 결단'과 같다 (NAS 역은 "그 왕 (되신 예수님)"이라고 번역함).

Q. The Bride's dedication holds the heart of God. His love is so powerful that it binds Him to weak people who love Him. It is His glory (not His weakness) to be captivated by love for His people. His unique ability is to love those so much lower than He. His heart is "held" by us. He possesses all authority, but gives His heart without any reserve to His Bride.

신부의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강력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연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매이게 만든다. 그러나 백성들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주님께는 (연약함이 아니라) 영광이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은, 주님보다 훨씬 미천한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매어"있다.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신부에게는 아낌없이 자신의 마음을 다 내어 주시는 분이다.

R. God's love binds Him to His people. For example, five intercessors captured His heart: Daniel, Noah, Job, Moses and Samuel (Ezek. 14:14; Jer.15:1; Ex. 32:7-14).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매이게 만든다. 예를 들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대표적인 중보기도자들 : 다니엘, 노아, 욥, 모세, 그리고 사무엘 (겔 14:14; 렘 15:1; 출 32:7-14).

VII. THE BRIDE IS VINDICATED BY JESUS (SONG 7:6-9A)

신부를 변호하시는 예수님 (아 7:6-9)

⁶ How fair (beautiful) and how pleasant you are, O love, with your delights! ⁷ This stature of yours is like a palm tree, and your breasts like its clusters. ⁸ I said, "I will go up to the palm tree, I will take hold of its branches." Let now your breasts be like clusters of the vine, the fragrance of your breath like apples, ⁹ and the roof of your mouth like the best wine. (Song 7:6-9a)

⁶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 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 (아 7:6-9)

A. Jesus vindicates His Bride (the speaker changed in Song 7:6). The watchmen asked, "Who is the Shulamite that anyone should pay attention to her?"

예수님이 신부를 직접 변호하신다 (주격이 아가서 7:6 에서 바뀌었다). '행순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었다, "술람미 여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모두다 그 여인한테만 관심을 쏟는가?"

B. Jesus' heart is truly held captive by the Bride (Song 7:5) as He says, "How beautiful and pleasant you are, O love, with your delights!" (v. 6). Jesus sees His people as beautiful and pleasant. His fruit is sweet and pleasant to her (Song 1:16; 2:3). Her fruit is pleasant to Him (Song 4:16-5:1).

예수님의 마음은 신부에게 빼앗겨 있으시다 (아 7:5).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6절).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아름답고 기쁨을 주는 존재'로 바라보신다. 주님의 열매는 신부에게 달고도 즐겁다 (아 1:16; 2:3). 그와 같이, 신부의 열매도 주님께 즐겁다 (아 4:16-5:1).

C. "O love" expresses the passion in God's heart for her. God loves us to the measure He loves Jesus (Jn.15:9; 17:23). It is beyond human comprehension (Eph. 3:18). Our love is greater than wine to Him (Song 4:10). There is nothing more delightful to Jesus than the love of His people. Our voice is sweet and our face is lovely to Him even in our weakness and struggle (Song 2:14).

"사랑아"는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표현한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 15:9; 17:23).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사랑이다 (엡 3:18).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은 주님께 '포도주'보다 더 위대하다 (아 4:10). 다시말해, 주님을 향한 백성들의 사랑, 이보다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심지어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죄와 씨름 할 때에도, 우리의 음성은 주님께 달콤하며, 우리의 얼굴은 주님께 사랑스럽다 (아 2:14).

- D.** Jesus affirms the stature of the Bride's spiritual maturity as proclaimed by the daughters in Song 7:1-5. A palm tree is a sign of victory and conquest (Rev. 7:4) and is a picture of maturity (Jer. 10:5). It thrives even in a drought because it's roots go down deep finding water far below the surface. Thus, it grows exceptionally high and straight. Strong winds cannot break a palm tree. Her breasts or ability to nurture, are like the clusters of a palm tree that nourishes many.
- 아가서 7:1-5 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선포한 것 처럼, 예수님도 여기서 신부의 영적 성숙을 확증해 주신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정복'의 표징이요 (계 7:4), '성숙함'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렘 10:5). 종려나무는 가뭄속에서도 번창하는 데, 그 이유는 뿌리가 수분을 찾기 위해 지면아래 매우 깊숙한 곳까지 뚫고 내려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예외적으로 곧고 높이 자란다. 매우 강력한 강풍이 불어도 종려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신부의 유방, 즉, 양육하는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종려나무 열매 송이' 같다.

⁷*This stature of yours is like a palm tree, and your breasts like its clusters. (Song 7:7)*

⁷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아 7:7)

- E.** Jesus promises to "take hold" of His people or to release a great manifestation of His presence through them. Jesus said that He is the vine and we are the branches that He releases His power through (John 14:12). Jesus promises to "go up" to the palm tree to take hold of His servants.
-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사로 잡으리라," 즉, 백성들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크게 나타내시리라 약속하신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요 14:12).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사로잡기 위해 종려나무 위로 "올라 간"다고 약속하신다.

⁸*I said, "I will go up to the palm tree, I will take hold of its branches." (Song 7:8)*

⁸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아 7:8)

⁵*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He who abides in Me...bears much fruit... (Jn. 15:5)*

⁵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요 15:5)

- F.** As the Lord "lays hold" of His people, He commissions her in three significant ways. 주님은 백성들을 "사로 잡으실" 때, 신부에게 세가지 중요한 위임을 부여하신다.

⁸*Let now your breasts be like clusters of the vine, the fragrance of your breath like apples, ⁹ and the roof of your mouth like the best wine. (Song 7:8-9a)*

⁸네 유방은 포도 송이 같고 네 콧김 (호흡)은 사과 냄새 같고 네 입은 좋은 (최고의) 포도주 같은 것이니라 (아 7:8-9)

- G.** His first commission is to nurture others in the power of the Spirit. Her breasts are to nurture people with the dimension of the Holy Spirit's activity operating in her in a new measure. 첫번째 위임: '성령님의 권능'으로 다른 이들을 양육하라. 신부 (유방)는, 더 충만하게, 더 깊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양육해야 한다.

- H.** His second commission is to let the fragrance of her breath refresh people like apples. Her breath speaks of her inner life. Apples speak of refreshing (Song 2:3). It is to refresh others in the Spirit. 두번째 위임: 신부의 향기로운 콧김 (호흡)은, '사과'같이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 신부의 호흡은 '내면의 삶'을 말한다. 사과는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새롭게 해주는) 것을 뜻한다 (아 2:3). 이것은, 성령으로 다른 이들을 '새롭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²²*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Jn. 20:22)*

²²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 20:22)

- I.** Her third commission is that her mouth or intimacy with God is to be like the best wine to God. The mouth throughout the Song speaks of the kisses of the mouth (Song 1:2, 4:3, 5:16). Our intimacy with Jesus is the best thing that the Spirit works in us for Jesus.
세번째 위임: 신부의 입 즉,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하나님께 ‘최고의 포도주’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가서에 걸쳐서 입은 ‘입맞춤’을 말한다 (아 1:2, 4:3, 5:16). 예수님과과의 친밀감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최고의 역사’다.
- J.** We are to give Him the best we have in our relationship with Him. We must not neglect our intimacy with Him for any reason.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깊은 교제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 K.** Jesus said that the roof of her mouth was the best wine of the Holy Spirit. The roof of the mouth refers to the palate of the mouth or the taste of her mouth. The Hebrew word is roof or palate. It is simply that which comes from her mouth. It is to be the best wine or that which brings the greatest joy to Jesus (Song 4:10).
예수님은 신부의 입 (천장)이 성령님의 ‘최고의 포도주’라고 말씀하셨다. 입천장은 입 구개 또는, 입맛을 가리킨다. 히브리어로 천장, 또는 구개를 뜻한다. 이것은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뜻한다. 이것은 최고의 포도주, 즉, 예수님께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 4:10).
¹⁰***How fair is your love...How much better than wine is your love (Song 4:10)***
¹⁰...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아 4:10)
- L.** The wine speaks of the influences of the Holy Spirit (Eph. 5:18). The best wine to God is the wine of our intimacy. It is the most pleasurable thing to God outside of their fellowship within the Godhead.
포도주는 성령님의 ‘영향력’을 말한다 (엡 5:18). 하나님께, 최고의 포도주는 우리와의 ‘친밀감’의 포도주다. 삼위일체의 교제 다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 M.** The best wine of all the works of His Kingdom or the best work of the Holy Spirit or the wine that Jesus enjoys most is when the Church walks in mature love (Jn 17:26).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가운데, 최고의 포도주, 즉, 성령의 최대 역사, 또는 예수님이 가장 즐기시는 포도주는 ‘성숙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다 (요 17:26).
²⁶***That the love with which You loved Me may be in them... (Jn. 17:26)***
²⁶이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 (요 17:26)
³⁷***You shall love the LORD...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and mind. (Mt. 22:37)***
³⁷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7)

Session 22 *The Bride's Mature Partnership With Jesus (Song 7:9b-8:4)* 예수님과 성숙한 동역을 이루는 신부 (아 7:9-8:4)

I. REVIEW OF SONG 6:11-7:9

아가서 6:11-7:9 복습

- A. In Song 6:11-12, the Bride committed herself to minister to those who were spiritually immature. Jesus equipping His Bride to walk in partnership with Him is a primary theme of the Song.
아가서 6:11-12 에서, 신부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을 섬기기로 헌신한다. ‘주님과 동역하며 살아갈 신부를 양육하시는 예수님’은 아가서의 핵심 주제중의 하나이다.
- B. In Song 7:8-9a, Jesus commissioned her in ministry in a 3-fold way: to nurture others, to release the presence of the Spirit and to maintain her intimacy with Jesus.
아가서 7:8-9 에서, 예수님은 신부의 사역을 세가지로 위임하셨다: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과, 성령님의 임재를 풀어놓는 일,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II. OVERVIEW OF SONG 7:9B-8:4

아가서 7:9-8:4 개관

- A. In Song 7:9b-8:4, she walks out the 3-fold commissioning of ministry from Song 7:8-9a. We see her enthusiasm for this as she says, “The wine goes down smoothly for my Beloved”.
아가서 7:9-8:4 에서, 신부는 아가서 7:8-9 에서 위임받은 3 가지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 사역에 대한 신부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데, 신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 내려서” 라고 고백한다.
- B. In Song 7:9b-8:4, the Bride describes 4 aspects of walking out bridal partnership with Jesus. She walks it out in her instant obedience (7:9b-10), her intercession for more power (7:11-13), her boldness and humility in public ministry (8:1-2) and in her unbroken union with Him (8:3-4).
아가서 7:9-8:4 에서, 신부는 예수님과의 동역을 이루어가는 측면을 4가지로 설명한다. 신부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아 7:9-10), 더 큰 권능을 위해 중보하며 (아 7:11-13), 회중사역에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아 8:1-2), 깨지지않은 주님과와의 연합 (아 8:3-4)을 유지하며 동역을 이루게 된다.

III. BRIDAL PARTNERSHIP EXPRESSED IN INSTANT OBEDIENCE (SONG 7:9B-10)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신부의 동역 (아 7:9-10)

⁹The wine goes down smoothly for my Beloved, moving gently the lips of sleepers. I am my Beloved's, and His desire is toward me. (7:9b-10)

⁹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 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 7:9-10)

- A. The flow of thought changes significantly in the middle of Song 7:9. In response to the affirmation that the Bride receives from Jesus in Song 7:6-9a, she enthusiastically proclaims her agreement with the three things that Jesus commissioned her to do in Song 7:8-9a.
아가서 7:9 중간에서 신부의 생각의 흐름이 크게 바뀌게 된다. 아가서 7:6-9 에서 예수님이 주신 확증에 보답하기 위해, 신부는 아가서 7:8-9 에서 예수님이 위임하신 세가지에 대한 동의를 열렬하게 선포한다.

- B. In the poetic language of love the “wine going down smoothly” refers to her living in instantaneous agreement with the Holy Spirit’s leadership. The wine of the Spirit will go down smoothly because she receives it without resistance or without choking on it. To be continually filled with the Spirit means to continually live under the Holy Spirit’s leadership (Eph. 5:18).
시적인 사랑의 언어로 표현된 “포도주가 미끄럽게 흘러 내려”는, 성령님의 리더십에 ‘즉각 순종’ 하며 사는 신부의 모습을 말한다. 성령의 포도주는 미끄럽게 흘러 내려가게 되는데, 이것은 신부가 거부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성령의 포도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계속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리더십’ 아래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엡 5:18).
- C. She delights in the Spirit’s leadership and drinks the cup of God’s will without hindrance. 신부는 성령님의 리더십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잔’을 주저하지 않고 받아 마신다.
⁸I delight to do Your will, O my God, and Your law is within my heart. (Ps. 40:8)
⁸나의 하나님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 40:8)
²²Are you able to drink the cup that I am to drink...? They said, “We are able.” (Mt. 20:22)
²²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마 20:22)
- D. When she refers to Jesus as “my Beloved” it indicates that she obeys the Spirit out of love for Jesus. As we live in more agreement with the Spirit, then He pours more love for Jesus into our heart (Rom. 5:5; Jn. 16:14). When obedience is difficult, we confess, “The wine goes down smoothly because You are my Beloved and because I love You, Jesus.”
신부는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언급하는 데,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신부의 모습을 나타낸다. 성령님께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더 부어주신다(롬 5:5; 요 16:14). 순종이 쉽지 않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한다,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미끄럽게 흘러내려갑니다.”
- E. The Spirit desires to awaken carnal believers who are spiritually asleep. 성령님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육적인 신자들을 깨우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¹⁴Awake, you who sleep, a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give you light. (Eph. 5:14)
¹⁴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하셨느니라 (엡 5:14)
- F. The Spirit will minister through her to those who are asleep as she obeys Him in her own life. 우리가 삶에서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⁹The wine goes down smoothly for my Beloved, moving gently the lips of sleepers. (Song 7:9)
⁹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 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 7:9)
1. The proof that the Spirit has awakened the sleepers is that their speech comes under His leadership. He will move the sleepers so that they speak in purity and righteousness. 성령님이 자는 자들을 깨우셨다는 증거는 주님의 리더십 아래 사는 그들에게 흘러나오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2. The Spirit gently woos us to speak on His behalf with subtle impressions. He calls us to voluntary love, therefore, He will gently move us without violating our free will. 성령님은 섬세한 감동으로 주님께 대한 계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잔잔히 구애 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자원하는 사랑으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시면서 잔잔히 우리를 감동시키신다.

- G. The OT prophets spoke of wine to symbolize the blessing and presence of the Spirit (Joel 3:18; Amos 9:13; Hos. 2:22; Zech 9:17; Acts 2:15-16).
구약 선지자들은 성령님의 축복과 임재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언급했다 (욘 3:18; 암 9:13; 호 2:22; 슝 9:17; 행 2:15-16).

¹⁵*These are not drunk, as you suppose...16 This is what was spoken by...Joel... (Acts 2:15-16)*

¹⁵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행 2:15-16)

- H. It would be easier to understand Song 7:9 if it were divided into two verses. The Lord speaks in the first line of v. 9 and the Bride speaks after that. Through the Song she addresses Jesus as “my Beloved” (Jesus never refers to her this way). He refers to her as “My love” or “My fair one”.
아가서 7:9 이 두 구절로 나뉘어 있었다면,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수도 있다. 주님께서 9 절 첫부분을 말씀하시고 신부가 나머지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가서 전체에 걸쳐 신부는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며 예수님은 신부를 “내 사랑” 또는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신다.

IV. THE BRIDE’S 2-FOLD SPIRITUAL IDENTITY IN THE LOVE OF GOD (SONG 7:10) 하나님의 사랑안에 갖는 신부의 영적 정체성 2 가지 (아 7:10)

¹⁰*I am my Beloved’s, and His desire is toward me. (Song 7:10)*

¹⁰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 7:10)

- A. The Bride’s obedience in Song 7:9 is rooted in this 2-fold spiritual identity. **Her spiritual identity #1:** She sees herself as one that Jesus desires. **Her Spiritual identity #2:** She sees herself as belonging totally to Jesus as her Beloved. Note that she is her Beloved’s **because** His desire is for her. Understanding His desire comes first. We love Him because He first loves us.
아가서 7:9 에 나타나는 신부의 순종은 두가지의 영적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신부의 영적 정체성 #1: “예수님은 나를 사모하신다.” 신부의 영적 정체성 #2: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속했다”. 신부가 예수님께 속한 것은, 주님이 신부를 ‘사모’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라. 우리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¹⁹*We love Him because He first loved us. (1 Jn. 4:19)*

¹⁹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9)

- B. ***Spiritual identity #1:*** She sees herself as one that Jesus desires. The most prominent theme in the Song is the revelation of God’s desire for us. She has deep insight into Jesus’ affection and enjoyment of her. This revelation will powerfully change us. This is her primary motivation for obedience and diligence (Song 4:9; 6:4-5; 7:6-10). Insight into God’s desire gives us strength to refuse to live by the opinions of others. This gives us emotional security. We speak the Word to the enemy, saying, “It is written: “His desire is towards me, regardless if others reject me”.
- 영적 정체성 #1: “예수님은 나를 사모하신다”. 아가서의 가장 큰 주제 중의 하나는, ‘우리를 사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다. 신부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애정과 기쁨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이 계시는 우리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며 우리의 순종과 신실함의 주 동기가 된다 (아 4:9; 6:4-5; 7:6-10).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될 때 사람들의 의견이나 눈치를 보지 않는 힘을 얻게 되며, 결국 정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원수에게 “말씀에 씌여진 바: 사람들이 나를 거절한다 할 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모하신다”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한다.
- C. ***Spiritual identity #2:*** She sees herself as a lover of God in saying, “I am my Beloved’s” or “I belong to Jesus, I’m under His leadership, I want to please Him, His desires are what I care most about.” She has revelation of Jesus’ total ownership of her (1 Cor. 6:20). She exists for Him without other considerations (Rev. 14:4). She serves God without concern for what happens to her. Her focus is now entirely on Him, without self-interest. The question of what He desires is the most relevant issue in her life. This is what she values most.
- 영적 정체성 #2: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자신을 바라본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것입니다.” 즉, “나는 예수님께 속했고, 주님의 리더십 아래 있으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신부는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 (고전 6:20). 무엇이 일일이 생각하지 않아도, 신부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계 14:4).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제 신부의 초점은 자신의 관심사와는 전혀 거리가 멀며, 온전히 주님께 맞춰지게 된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 이것이 신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요 주제이며, 가장 귀한 것이요 최우선 순위이다.
- D. We are defined most by the fact that we are desired by God and that we desire (love) Him. We confess our identity, “I’m a lover of God. That is who I am. That is what I do.”
-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하시며, 우리는 주님을 사모 (사랑)한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입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 E. We live a life of sacrificial obedience because He already desires us (not to gain His love). The wine goes down smoothly because Jesus desires her and she belongs to Him (Song 7:9-10). 우리가 희생적 순종의 삶을 사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모하시기 때문이다. ‘포도주가 미끄럽게 흘러 내려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신부를 사모하시고, 신부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아 7:9-10).

V. JESUS HAS GREAT DESIRE FOR HIS PEOPLE (SONG 7:10)

주의 백성들을 깊이 사모하시는 예수님 (아 7:10)

- A. Our greatest glory is that we can move God’s heart. His heart is deeply moved by our steady love for Him. The movements of our heart are so important to God that they are recorded in His books.
-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한결같은 사랑에 주님은 깊이 감동받으신다.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작은 ‘움직임’들은 그분의 책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⁸You number my wanderings; put my tears in Your bottle; are they not in Your book? (Ps. 56:8)

⁸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 56:8)

- B. Do you know the way you move Him? He is overcome by weak people who truly love Him. Our responsive love for Him is more precious to Him than we understand. The Bride did not know the impact her love was having on Jesus' heart because she did not feel His presence in the time of testing. Jesus reveals how He feels about our faithful love when we are in times of testings.

주님을 어떻게 감동시키는 지 알고 싶은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약한' 백성들에게 주님은 정복당하신다. 받은 사랑에 보답하여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 더 크고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 신부는 자신의 사랑이 예수님께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치는 지 잘 알지 못했었다. 왜냐하면 신부가 '시험의 계절'을 지나는 동안 주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험의 계절'을 지날 때 그 분을 향해 일관된 사랑을 보인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감동시켰는지를 주님은 나중에 드러내신다.

⁵Turn your eyes away from Me, for they have overcome Me. (Song 6:5)

⁵네 눈이 나를 놀래니 (정복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아 6:5)

- C. Jesus' love for us is so powerful that it binds Him to weak people who love Him. It is His glory (not His weakness) to be captivated by love for His people. His ability to love those so much lower than Him is unique. Jesus' heart is truly held captive by the Bride (Song 7:5).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도 강력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연약한 백성들에게 자신이 매이게 되신다. 주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에 사로 잡히는 것은 (주님의 연약함이 아니요), 주님이 누리시는 영광이기 때문이다. 주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자, 미천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은 매우 특별한 것이다. 예수님은 신부를 향한 사랑에 깊이 빠지셨다 (아 7:5).

- D. God loves us to the measure He loves Jesus (Jn.15:9; 17:23). This is beyond our comprehension (Eph. 3:18). There is nothing more delightful to Jesus than the love of His people. Our voice is sweet and our face is lovely to Him even in our weakness and struggle (Song 2:14).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 15:9; 17:23). 이 진리를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엡 3:18). 주님을 향한 백성들의 사랑보다 예수님을 더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은 없다. 연약함과 죄와 씨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소리는 주님께 달콤하며, 우리의 얼굴은 주님께 사랑스럽다 (아 2:14)는 것을 기억하라.

- E. We regularly pray, "Release this revelation to me and pour Your love into my heart.

우리는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한다, "주님, 제게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더 깊이 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을 제 심령에 더 깊이 부어 주세요."

⁵Now may the Lord direct your hearts into the love of God... (2 Thes. 3:5)

⁵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 (살후 3:5)

⁵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in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Rom. 5:5)

⁵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롬 5:5)

VI. OUR PARTNERSHIP IS EXPRESSED IN INTERCESSION FOR POWER (SONG 7:11-12) 권능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한 동역 (아 7:11-12)

¹¹***Come, my Beloved, let us go forth to the field; let us lodge in the villages. ¹²Let us get up early to the vineyards; let us see if the vine has budded, whether the grape blossoms are open, and the pomegranates are in bloom. There I will give You my love. (Song 7:11-12).***

¹¹(오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우리가) 동네에서 유숙하자 ¹²우리가 일찌기 일어나서 (우리가)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아 7:11-12)

A. Our partnership with Jesus is expressed in our intercession to see more of His power released. In Song 7:8 Jesus promised to release the Spirit in her life. She intercedes according to this promise. Here, we see the Bride following through on her commitment to go forth in ministry (Song 6:11). 예수님과 동역은 주님의 권능이 더욱 풀어지기를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표현된다. 아가서 7:8 에서, 예수님은 신부의 삶에 성령님을 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신부는 이 약속을 붙잡고 중보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사역에 매진하고자 하는 (아 6:11) 신부의 헌신을 엿볼 수 있다.

B. Earlier she went down to the garden to partner with Jesus in bringing the immature ones under His blessing and leadership. Now, she intercedes that He would come with her in the sense of releasing His presence through her labors. She changed her language in Song 6:11 from “I went down” to “let us go”. She uses “let us” 4 times (Song 7:11-12) indicating that they work together. 앞서서, 신부는 ‘동산’에 내려가 예수님과 동역하며 미성숙한 자들을 주님의 축복과 리더십 아래로 데리고 왔다. 이제, 신부는 자신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풀어달라는 의미에서 ‘오시옵소서’라고 중보하게 된다. 신부는 아 6:11의 “내가 내려가”에서 말을 바꾸어, 이제는 “우리가 가자”라고 말하게 된다. 신부는 주님과 동역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라는 단어를 4 번 이상 사용하게 된다 (아 7:11-12).

¹¹***I went down to the garden...to see whether the vine had budded... (Song 6:11)***

¹¹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 6:11)

²⁰***They went out and preached everywhere, the Lord working with them and confirming the word through the accompanying signs. (Mk. 16:20)***

²⁰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막16:20)

C. In Song 7:11, the Bride commits to go to the villages and fields of the harvest (Jn. 4:35). 아가서 7:11 에서, 신부는 ‘마을’과 ‘추수의 밭’에 가기로 헌신한다(요 4:35).

¹¹***Come, my Beloved, let us go forth to the field; let us lodge in the villages. (Song 7:11).***

¹¹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아 7:11)

⁹***For we are God's fellow workers; you are God's field... (1 Cor. 3:9)***

⁹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 (고전 3:9)

³⁵***Behold...look at the fields, for they are already white for harvest! (Jn. 4:35)***

³⁵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 4:35)

- D. The field of service begins in our family, job, church and neighborhood. It is where God places you. It may be any where that people live. We do not have to get on a plane to serve in the field. ‘섬김의 밭’은 우리 가정, 직장, 교회, 그리고 이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으로 사람들이 있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 꼭 비행기를 타고 멀리 선교지로 떠나야만 섬길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 E. The villages speak of the small out of the way areas where Jesus has an inheritance and desires to build His Church. She sees God’s value for unknown people and places not just the big cities. She is willing to lodge or stay for a season even in a remote village (Song 7:11). ‘마을 (동네)’은 예수님의 ‘기업’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지역들의 ‘작은 단위’를 말한다. 신부는, 큰 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의 무명의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신부는 ‘한 계절’동안은 기꺼이 외딴 마을에도 머물며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 (아 7:11).
- F. Getting up early speaks of her diligence and urgency in the assignment that the Lord gave her. ‘일찌기 일어난다’는 것은 신부의 ‘신실함’과 맡은 사명에 대한 ‘긴박한 마음’을 말한다.
- G. She goes down to invest into the budding vines that had not yet borne fruit. She goes to “to see” the budding vine because she sees them as Jesus’ inheritance and “His garden” thus, she values them and is patient with them. The budding vines, the grape blossoms and the blooming pomegranates speak of different people and ministries that need maturity (Song 4:12, 13; 6:11). 아직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움이 돋아나 있는 ‘포도나무’를 섬기기 위해 신부는 내려간다. 신부는 순이 피어나는 포도나무를 “보기”위해 내려가는데, 이것은 신부가 그들을 ‘예수님의 기업,’ ‘주님의 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신부는 그들을 귀히 여기고, 인내로 대하게 된다. 움이 돋아나는 포도나무, 피어나는 꽃술, 그리고 피어나는 석류꽃은 ‘성숙’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사역들을 말한다 (아 4:12, 13; 6:11).
- H. The Moravian missionaries lived in sacrifice that, “the Lamb might receive the reward of His sufferings”. In this passage she’s running with Him under the influence of the Spirit.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희생의 삶을 살면서 “고난받은 어린 양께서 그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랐다. 이 본문에서 신부는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주님과 함께 달린다.

VII. THERE I WILL GIVE YOU MY LOVE (SONG 7:12)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아 7:12)

¹¹Come, my Beloved, let us go forth to the field; let us lodge in the villages. ¹²Let us get up early to the vineyards...There I will give You my love. (Song 7:11-12).

¹¹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찌기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아 7:11-12)

- A. The Bride experiences undistracted intimacy with Jesus in the midst of ministry. “There” is the place of selfless labor, the risks of faith, disappointments and mistreatment. She embraces both being drawn along in intimacy and running together in ministry (Song 1:4). She learns to love Him while serving others instead of losing her intimacy in the rigors of ministry. She runs effectively with Jesus in the fields and villages that He might receive His inheritance from them. 바쁜 사역가운데서도, 신부는 잊지않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된다. ‘거기서’는 자기를 돌보지 않는 희생과 믿음의 위기, 실망과 학대가 존재하는 장소다. 그러나, 신부는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며 주님과 동역에 달음질한다 (아 1:4).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주님과 친밀함을 잃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신부는 ‘들’과 ‘동네’에서도 예수님과 효과적으로 사역 하면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기업’을 누리시게 한다.

- B. It is much easier to give Jesus our love at the banqueting table under the shade tree (Song 2:3-4). The immature maiden could love Jesus in private but could not sustain it while serving others. 나무 그늘 아래 주님의 잔치 상에 편하게 앉아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아 2:3-4). ‘미성숙한 자’는 혼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남을 섬기면서 그 사랑을 유지하지는 못한다.
- C. It requires maturity to walk in undistracted love for Jesus while in difficulty, persecution and disappointment. The Bride is walking in apostolic Christianity as outlined in Phil. 3:10 which calls us to walk in intimacy and ministry while embracing hardship. Paul loved Jesus in context to being mistreated in being sent to prison and while ministering to the jailer in Acts 16. 고난과 박해, 실망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신부는 빌립보서 3:10 의 고난을 지고 친밀감을 누리며 사역을 감당하는 삶, ‘사도적 기독교인의 삶’을 산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학대와 투옥, 그리고, 간수에게 사역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했다.
¹⁰That I may know Him (intimacy with God)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ministry), and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hardship), being conformed to His death... (Phil. 3:10)
¹⁰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사역)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하나님과의 친밀함)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 3:10)
- D. Paul labored in ministry more than all the other apostles and suffered great difficulties. 주님을 섬기기 위해,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와 고난을 감당한 자다.
¹⁰I labored more abundantly than they all, yet not I, but the grace of God which was with me. (1 Cor. 15:10)
¹⁰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²³In labors more abundant...²⁷ in weariness and toil, in sleeplessness often, in hunger and thirst, in fastings often, in cold and nakedness—²⁸ besides the other things, what comes upon me daily: my deep concern for all the churches. (2 Cor. 11:23-28)
²³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 ²⁴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²⁸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늘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후 11: 23-28)

VIII. THE BRIDE WANTS JESUS TO ENJOY THE FRUIT OF HER LABOR (SONG 7:12-13)

수고하여 거둔 열매를 예수님이 즐기시기를 바라는 신부 (아 7:12-13)

¹²*There I will give you my love.* ¹³*The mandrakes give off a fragrance, and at our gates are pleasant fruits, all manner, new and old, which I have laid up for you, my Beloved. (Song 7:12-13)*

¹²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¹³합환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아 7:12-13)

A. The fragrance of the mandrake flows as they labor in love together in the harvest. The mandrake fruit has a purple flower with a beautiful fragrance. Mandrakes symbolize intimacy with God. Barren women in ancient times used to use the mandrake fruit to enhance their chances of bearing children. It became known as a fruit associated with love and fertility because of the story of Rachel who while struggling with barrenness was told by her sister Leah to use mandrakes. The unspoken idea was that she might gain a higher chance of fertility (Gen. 30:1, 14-16). This is the only time outside of the Song that the mandrake is mentioned in Scripture. Even to this day the mandrake fruit in Jewish traditions is known as a fruit associated with love.

주님과 신부가 함께 수고하며 추수를 거둘 때 ‘합환채’의 향기가 발하게 된다. 합환채 열매는 자주색 꽃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한다. 합환채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상징한다. 고대에는 불임 여성들이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합환채 열매를 사용하였다. 불임으로 고민하던 라헬이 누이 레아의 말을 듣고 합환채를 사용하게 된 전례를 통해 합환채는 사랑과 가임에 연관된 열매로 알려지게 되었다. 전해내려 오는 민담에 따르면, 합환채를 통해 라헬이 가임의 가능성을 높였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창 30:1, 14-16). 아가서 외에 합환채를 언급한 곳은, 성경에서 딱 이 한 곳 밖에 없다. 오늘날 까지도 유대인 전통에서는 합환채 열매가 ‘사랑의 열매’로 알려져 있다.

B. The impact of her ministry results in pleasant fruit. There is joy in knowing that the fruit of her ministry is pleasant to Jesus (Song 4:16). Having fruit at my gates speaks of it being before me. 신부의 사역은 ‘즐거운’ 열매를 맺게 된다. 사역의 열매를 보고 예수님이 즐거워하실 거라는 사실 (아 4:16)을 알게 될 때, 신부의 기쁨은 배가 된다. ‘내 문앞에 실과가 있다’는 것은, ‘(사역의) 열매’가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한다.

C. The Spirit anoints us to bear all manner of pleasant fruit both new and old. Jesus spoke of drawing out of our treasury that which is old and new. This includes the proven truths from her past along with her former victories and experiences as well as the new and fresh ones.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름부으셔서 각종 즐거운 열매, 옛 것과 새 것을 다 거두게 하신다. 예수님은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끌어 내는 것을 말씀하신 바 있는 데, 이것은 신부가 예전에, 그리고 이제 새롭게 거둔 승리의 경험들로, 신부의 과거에서 검증된 진리들도 포함한다.

⁵²*Every scribe instructed...brings out of his treasure things new and old. (Mt. 13:52)*

⁵²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 (마 13:52)

D. The Spirit gives us treasures from our life of loving obedience and faith that are laid up in heaven. We lay them up to give to Jesus. She laid up pleasant fruits for Jesus her Beloved.

그동안 ‘하늘의 보고’에 쌓여진 우리의 사랑의 순종과 믿음의 삶, 이 보고에서 나오는 보물들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목적은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다. 신부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즐거운 열매를 쌓는다.

²⁰*Lay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where neither moth nor rust destroys... (Mt. 6:20)*

²⁰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마 6:20)

- E. We will cast our treasure at His feet when we stand before Him (Rev. 4:10). This stored up treasure will be our crown on the last day. Our life goal is to accumulate riches to offer at Jesus' feet on the last day. Our toil and sacrifice is motivated by love for Him. This is what compels us to go to the fields of service.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주님 발 앞에 우리가 거둔 '보화'를 드리게 될 것이다 (계 4:10). 이 보물은 그 날에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 그 날에 예수님 발 앞에 다 내어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가능케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며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강권하여 '섬김의 발'으로 가게 만든다.

¹⁰*The 24 elders fall down before Him...and cast their crowns before the Throne... (Rev. 4:10)*

¹⁰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계 4:10)

IX. PARTNERSHIP EXPRESSED IN HER HUMILITY IN PUBLIC MINISTRY (SONG 8:1-2) 겸손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신부 (아 8:1-2)

¹Oh, that You were like my brother, who nursed at my mother's breasts! If I should find You outside, I would kiss You; I would not be despised. ²I would lead You and bring You into the house of my mother, she who used to instruct me. I would cause You to drink of spiced wine, of the juice of my pomegranate. (Song 8:1-2)

¹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²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웠겟고 (아 8:1-2)

- A. The mother throughout the Song is a picture of the Church through history. God is our father and the Church is spoken of as our mother. The redeemed from history are represented as a "mother" that gave birth to Jesus (manchild) and the believers that come after her (Rev. 12:5, 17).

아가서에 걸쳐 나오는 '어미'는 역사적으로 교회를 상징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교회는 주로 우리의 어미로 언급된다. 역사에 걸쳐 구속받은 자들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후에 나온 믿는 자들은 낳은 '어미'로 대표된다 (계 12:5, 17).

- B. She longs to boldly show her loyalty and affection to Jesus in public. She prays, "O, that You, Jesus were like my brother." It was improper to express public affection to members of the opposite sex that were not in one's immediate family. She wishes that she could publicly relate to Jesus with the liberty that she had with a brother. A woman at that time in history could be more "familiar in public" with her brother than her fiancé.

대중 앞에서 신부는 예수님께 충성과 사랑을 담대히 보여주고 싶어한다. 그래서 신부는 이렇게 기도한다 "네가 오라비 같았더라면." 당시 가족이 아닌 다른 이성에게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공중예절이 아니었다. 신부는 단지 '오라비와 같이' 편하게 공개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바랄 뿐이다. 그 당시의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여성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약혼자보다는 오라비와 더 "친하게" 보일 수도 있었다.

- C. Like the apostles, she wants continual boldness in her life as expressed in the apostolic prayers (Acts 4:29; Eph. 6:19). Boldness is more than a personality trait but is an operation of the Spirit. 사도들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것 처럼 (행 4:29; 엡 6:19) 신부는 삶에서 계속 담대함을 지니며 살고 싶어한다. 담대함은 사람의 성격을 넘어서는 '성령님의 역사'라 할 수 있다.

- D. A brother who nursed at her mother's breasts speaks of a full brother instead of a half brother. Children from the same mother is meant as a contrast to children with one father but different mothers. In ancient times, men had several wives. Therefore, many siblings had the same father but a different mother. They often were rivals as Absalom was with Amnon (2 Sam. 13).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는 이복형제가 아닌 ‘친형제’를 말한다. 같은 엄마를 둔 형제들은, 엄마가 다른 형제들과 비교된다. 고대에 남자들은 여러 아내를 두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형제들은 엄마가 다른 이복 형제들이었으며, 그들은 압살롬과 암논의 경우 처럼 (삼하 13장), 서로 라이벌인 경우가 많았다.
- E. The Bride prays that if she should find Jesus outside in a public place that she would be able to kiss Him without being despised. To kiss Jesus in public without being despised speaks of expressing the fullness of her heart to Him in public without being misunderstood and despised.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사람들에게 멸시받지 않고 주님께 ‘입맞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부는 기도한다. ‘조롱받지 않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입맞춘다’는 것은, 오해와 멸시를 받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자신의 온전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을 말한다.
- F. She recognizes the necessity to be restrained in public in certain aspects of her private life with Jesus. There are certain expressions of our life in God that are meant to be kept private. There are intimate expressions of prayer and worship that are not best suited for public settings. 신부는 ‘예수님과 의 사생활’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절제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표현들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사용해야 할 표현들이 있다. 친밀감을 표현하는 기도와 찬양가운데에는 회중사역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들도 있기 때문이다.
¹²Since you are zealous for spiritual gifts, let it be for the edification of the church that you seek to excel...¹⁹In the church I would rather speak five words with my understanding... than 10,000 words in a tongue. ²⁰Do not be children in understanding...²³If the whole church comes together...and all speak with tongues, and there come in those who are uninformed or unbelievers, will they not say that you are out of your mind? (1 Cor. 14:12, 19-20, 23)
¹²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¹⁹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²⁰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 ²³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고전14:12,19-20, 23)
- G. She will be despised or label as “out of her mind” if she has an inappropriate boldness in public. It causes hindrances to the gospel. We don't express everything God gives us in every setting. We walk in love when we restrain our liberty on some occasions because of those who do not understand (Rom.14:14-15:2; 1Cor.14:20, 23-33, 6-19).
 사람들 앞에서 부적절한 담대함을 보인다면 신부는 멸시를 당하거나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모든 것들을 아무 모임에서나 다 표현할 필요는 없다.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자제와 절제를 하는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롬 14:14 - 15:2; 고전 14:20, 23-33, 6-19).
- H. Bridal partnership is expressed in anointed ministry (Song 8:2). 신부의 동역은 ‘기름부음’의 사역으로 표현된다 (아 8:2).
²I would lead You and bring You into the house of my mother, she who used to instruct me. I would cause You to drink of spiced wine, of the juice of my pomegranate. (Song 8:2)
²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너를)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웠겠고 (아 8:2)

- I. Jesus gives the Bride the dignity of leading and bringing Him into places that honor Him. She prays to be able to bring Jesus to places through anointed ministry. She longs to “bring Him” without seeking to establish her own name and ministry.
 예수님은 ‘주님을 높이는 장소에 주님을 모셔올 수 있는 특권’을 신부에게 주신다. 신부는 기름부음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시기를 기도한다. 신부는 자신의 이름이나 사역을 알리기를 원치 않으며, 오직 “주님을 그곳에 모셔오기”만을 열망한다.
- J. She prays, “I would lead You”. Jesus allows us to make some of the decisions in His kingdom. He blesses some of what we decide in the outworking of His purposes. This reveals the dignity He has given us as co-heirs with Him (Rom.8:17). A mature believer only desires to lead Jesus in a way that honors Him.
 신부는 “제가 주님을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 예수님은 주님 나라의 어떤 부분에 관한 결정권을 신부에게 맡기기도 하신다. 주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부분을 축복하신다. 이것은, 주님이 공동 상속자인 우리를 존중하신다 것을 말한다 (롬 8:17). ‘성숙한 자’는 존귀한 길로만 예수님을 인도하게 되기를 사모한다.
- K. She desires to bring Jesus to her mother’s house or to those who instructed her. This speaks of those she has been in a long-term relationship with. It is to the very people that initially taught her the things of God. It is sometimes more difficult to minister to those to whom we are in a familiar relationships. A prophet is often not received in his home town (Mt. 13:57). It is easiest to hold back when we are with familiar relationships. She is willing to minister the truths of Jesus in the context of the people who knew her when she was just starting to walk with God.
 신부는 ‘어미의 집’으로, 즉, 자신을 목양 해 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셔오고 싶어한다. 이들은 장기간 신부와 친분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로, 처음으로 신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친숙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다. 선지자는 보통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 13:57). 사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차라리 더 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믿음 생활의 시작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며 섬기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 L. She desires to bring the deep things of God to her mother’s house or to those in the church.
 신부는 ‘어미의 집,’ 즉,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받은 깊은 계시들을 간절히 소개하고 싶어한다.
- M. Why does she want to stir up her old friends in the deep things of God? She has gratitude toward those who taught her in her beginning days. She does not forget her roots in a time of blessing. She honors the people that first trained her by seeking to serve them. She wants to return blessing to those who helped her. We must honor the heritage the Lord sovereignly gave us. We must not be critical of those we started with because they don’t always grow into the deeper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계시들을 소개해서 오랜 친구들의 심령을 흔들기를 원하는 이유는? 믿음의 초창기에 자신을 가르쳐 준 이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이다. 영적인 축복의 삶을 살면서도 신부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다. 초신자 때 자신을 양육해 준 이들을 존중하기에 그들을 섬기고 싶어한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의 축복에 보답하고 싶은 것이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유산을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 그 사람들에게 영적 성숙함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 N. The Bride longs to give her best to Him by praying, “I would cause You to drink of spiced wine, of the juices of my pomegranate (Song 5:1). One would mix wine with spices when hosting an honored guest because it a much more pleasant drink.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부는 이렇게 기도한다 “나는 향기로운 술 (포도주)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웠겠고” (아 8:2). 당시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사람들은 향 (신)과 포도주를 섞어 대접했는데, 이것은 향이 더 풍부해 저 포도주가 더 큰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 O. It was much more expensive but it was appropriate when seeking to honor a guest with their best. She longs to give her best to Jesus regardless of how much it costs her. In saying, “I would cause You to drink” she promises to attend to His every desire as she serves Him as her honored guest.
물론,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데에 적합한 관습이었다. 신부는 대가에 상관없이 예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열망한다. “나는 네게 (주님께) 마시우겠고” 라고 말하면서, 신부는 귀한 손님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소원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 P. The juice of my pomegranate speaks of the sweet things of grace that she experiences in her inner life. The foundation of her ministry is what she experiences in the secret place with God.
‘나의 석류즙’은 신부의 내면의 삶에서 경험하는 달콤한 ‘은혜’들을 말한다. 신부의 사역 토대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삶’에 있다.

X. PARTNERSHIP EXPRESSED IN UNBROKEN UNION WITH JESUS (SONG 8:3-4)

예수님과 연합을 통한 동역 (아 8:3-4)

³*His left hand is under my head, and His right hand embraces me. ⁴I charge you, O daughters of Jerusalem, do not stir up nor awaken love until it pleases. (Song 8:3-4)*

³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찌니라 (아 8:3-4)

- A. Jesus answers her prayer to be close to her (8:1) and fulfills His promise to lay hold of her (7:8).
예수님은 가까이 임하길 기도하는 신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 8:1), 신부의 마음을 사로잡으리라는 약속을 성취하신다 (아 7:8).
- B. The *left hand of God* speaks of the activity of God that we cannot see with our natural eyes. It is the hand that is under her head therefore, it is out of view. The Lord does many things for us that we do not see. He withholds and releases many things to bless, provide and protect us. He spares us from troubles that we are not ever aware of in this age.
하나님의 왼손은 자연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활동을 말한다. 왼손은 신부 머리 밑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신다. 축복과 공급, 보호를 위해 많은 것들을 풀기도, 또 묶기도 하신다. 우리가 사는 동안 전혀 알 수도 없는 문제들로 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 C. The **right hand of God** speaks of the visible or discernable activity of God. The idea is that Solomon stood in front of the Bride to embrace her. She can see and feel it. This speaks of the “sweet” manifest presence of God that can be felt and discerned. At times, we feel our heart tenderized by the working of God’s right hand. A physical embrace is easy to discern thus it speaks of the manifest activity of God. The Lord allows Himself to be found by her (8:1) as He manifests His embrace to her. The embrace of God tenderizes her heart.
하나님의 오른손은 눈에 보이거나 식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활동을 말한다. 이 장면은 솔로몬이 서서 신부를 안는 장면이다. 신부는 직접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다. 이것은 느낄 수도, 또, 분별할 수도 있는 “달콤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 때로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온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안는다’는 것은, 직접 느낄 수 있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활동을 말한다. 신부가 금방 찾을 수 있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아8:1) 신부를 안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신부를 안아 주실 때 신부의 마음은 온유해 지게 된다.
- D. The Holy Spirit guards us in strategic spiritual seasons (Song 8:4). The Spirit speaks here. He has ordained strategic seasons in each person’s spiritual life. There are seasons, where He desires to establish our heart in new and deep revelations of His heart. The Spirit’s agenda for the Bride in this season was to impart boldness and humility in her (Song 8:1-2).
성령님은 전략적으로 ‘영적 계절들’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 8:4).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주님은 각 사람의 영적 삶에 ‘전략적 계절들’을 위임 하셨다. 주님의 마음에 대한 새롭고 깊은 계시를 우리 심령에 확립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런 계절들을 허락하신다.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계절에서 성령님의 계획은 신부에게 담대함과 겸손을 나눠주시는 것이다 (아 8:1-2).
- E. The daughters of Jerusalem represent believers who lack discernment of the various operations of the Spirit and the different seasons in God. The Spirit charges other believers to not disrupt or disturb the devoted ones with the Bride’s heart in this season by their opinions and judgments. ‘예루살렘 여자들’은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와 영적 계절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주님은 분별없는 자들에게 전략적으로 주어진 계절에 ‘신부의 마음’으로 헌신된 자들을 분별없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판단으로 방해하지 말라고 부탁하신다.
- F. In the phrase, “Until it pleases”, the Hebrew can be translated as it, he or she. The NAS accurately translates the phrase as “Don’t awaken love until she pleases” instead of “until it pleases.” If the Hebrew was translated “He” it would refer to the Lord being stirred to action by the daughters of Jerusalem. The Lord has no need for this nor does He need to be protected by the gentleness pictured by the gazelles. It is the Bride that must be protected from distraction.
“나의 사랑하는 자 (it)가 원하기 전에는”라는 구에서 ‘it’ 은 히브리어로, 그것, 그, 그녀로 해석될 수 있다. NAS 역은 정확하게 “그녀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다. 히브리어로 “그”가 되었다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주님을 깨우는 것이 되는 데, 주님은 누가 깨울 필요가 없는 분이며, 쉽게 놀라는 노루와 같이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다. 방해받지 말아야 하는 자는 신부이기 때문이다.
- G. Three times Jesus speaks this phrase, “Don’t arouse or awaken my love until it pleases.” (2:7; 3:5; 8:4). In 2:7, He uses the same phrase “don’t disturb her” but adds the phrase “by the gazelles of the field” because she was immature and lacked stability being easily tossed to and fro (Eph. 4:14).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 라는 구절을 예수님은 아가서에 걸쳐 3 번 말씀하신다 (아2:7; 3:5; 8:4). 아가서 2:7에서 주님은 “신부를 방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노루와 들사슴으로” 라는 구절을 첨가하셨다. 그 때는, 신부가 미성숙했고 불안정하여 쉽게 산만해지고 요동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엡 4:14).

Session 23 *The Bridal Seal of Mature Love (Song 8:5-7)* 성숙한 사랑의 인치심을 받는 신부 (아 8:5-7)

I. INTRODUCTION

소개

- A. Theme of Song 8:5-7: God's commitment to supernaturally seal our heart with His fiery love. 아가서 8:5-7의 주제: 우리의 마음을 불 같은 주의 사랑으로 인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이다.
⁶Set Me (Jesus) as a seal upon your heart...its flames are flames of fire... (Song 8:6)
⁶너는 나(예수님)를 인 같이 마음에 품고... 사랑은... 불 같이 일어나니 (아 8:6)
- B. This is the pinnacle of the Song and the New Covenant (Heb. 10:16). The Bride's journey begins with a cry for the kisses of God's Word (Song 1:2) and ends with a seal of fire on her heart. 이 구절은 아가서와 새 언약의 '절정'을 보여준다 (히 10:16). 신부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춤을 위한 절규'로 시작해서 (아 1:2), 신부의 마음에 '불같은 인치심'을 통해 절정에 이른다.
²Let Him (Jesus)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Word)... (Song 1:2)
²(예수님이) 내게 (말씀으로) 입맞추기를 원하니 ... (아 1:2)
- C. Review from Session 1: the Song of Solomon is an 8 chapter love song. It is interpreted 2 ways. 1 장 복습: 아가서는 8 장으로 구성된 사랑의 노래다. 해석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1. ***Natural interpretation:*** describes the love story between King Solomon and his bride, the Shulamite maiden. It emphasizes biblical principles that honor the beauty of married love. 자연적 해석: 솔로몬왕과 그의 신부, 술람미 여인의 러브 스토리다. 이것은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존중하는 성경 원칙을 강조한다.
 2. ***Spiritual interpretation:*** the love story between King Solomon and his bride symbolizes the spiritual truth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ing Jesus and His Bride, the Church. This is the interpretation that has been used the most in the last 3,000 years since it was written. 영적 해석: 솔로몬왕과 그의 신부의 러브 스토리는 왕이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적 진리로, 이 책이 쓰여진 후부터 지난 3000년동안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해석 방법이다.
- D. Jesus spoke of Himself from all the Scriptures (including the Song) to the Emmaus disciples.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기에 관한 모든 성경 (아가서 포함)을 다 인용하셨다.
²⁷He (Jesus) expounded...in all the Scriptures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Lk. 24:27)
²⁷이에 ...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눅 24:27)
- E. The Spirit inspired all Scripture (2 Tim. 3:16). He is loyal to exalt Jesus in all of Scripture.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씌어졌다 (딤후 3:16). 성령님은 성경 66권의 책 하나마다 예수님을 높이려는 헌신을 갖고 계신다.
¹⁴He will glorify Me, for He will take of what is Mine and declare it to you. (Jn. 16:14)
¹⁴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 16:14)

- F. Marriage will cease but the Word remains forever and will inspire us to love Jesus.
결혼은 멈춰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의 심령을 울리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 것이다.
³⁰***In the resurrection they neither marry nor are given in marriage... (Mt. 22:30)***
³⁰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 22:30)
- G. The context for understanding God’s seal of fire is found in understanding the Father’s commitment to bring forth an eternal companion for Jesus or a Bride equally yoked to Him in voluntary love. Obedience to Jesus is mandatory, yet love is always voluntary (Phil. 2:9-11). 하나님은 ‘불같은 인치심’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원한 동반자, 즉, 자원하는 사랑으로 주님과 동일한 명예를 지는 신부를 아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 드리는 순종은 의무지만 사랑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빌 2:9-11).
- H. Jesus prayed that His people would love Him in the way the Father loves Him.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그 만큼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은 기도 하셨다.
²⁶***I declared Your name...that the love with which You loved Me may be in them... (Jn. 17:26)***
²⁶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요 17:26)
- I. It takes God to love God. We need the Spirit’s supernatural help to love God with all our heart. The anointing to love God is the greatest gift that the Spirit imparts to a believer. The Holy Spirit is the “All Consuming Fire” and the “Living Flame of Love” that baptizes us with His fiery love.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름부음’ 이야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선물들 중 가장 큰 선물이다. ‘주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침례 (세례)를 베푸시는 성령님은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요 “살아 계신 사랑의 불꽃” 이시다.
⁵***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in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Rom. 5:5)***
⁵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롬 5:5)
¹⁶***He (Jesus)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Lk. 3:16)***
¹⁶그(예수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 (세례)를 주실 것이요 (눅 3:16)
- J. The 120 believers in the Upper Room received a token of the baptism of God’s fiery love.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은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침례 (세례)’의 증표를 받았다.
³***There appeared to them...tongues, as of fire, and sat upon each of them. (Acts 2:3)***
³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행2:3)
- K. The seal of God’s love points to the same truth as the First Commandment and union with God’s heart. God will help us to love Him in the way He loves us with all His heart and strength.
‘하나님 사랑의 인’이란 첫 계명,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진리를 말한다. 하나님이 마음과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³⁰***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This is the first commandment. (Mk. 12:30)***
³⁰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막 12:30)

- L. Jesus prayed that our hearts would be one with each other as we are one with His heart. This speaks of our mind and emotions coming into agreement with His in a supernatural way (glory). This happens in part in this age where unbelievers can witness it and in fullness in eternity.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듯,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초자연적 (영광)으로 주님의 마음과 같이 되는 영광을 말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목도할 것이지만, 영원의 시대에는 이것이 우리안에 충만해 지게 될 것이다.
- 21That they all may be one, as You, Father, are in Me, and I in You; that they also may be one in Us,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sent Me. 22The glory which You gave Me I have given them,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Jn. 17:21-22)***
²¹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 (요 17:21-22)
- M. We must believe that it is the inheritance and destiny of the Church in this age to walk in the two great commandments that call us to love God with all our heart and our neighbor as ourselves. We must apply the principles of faith to grow in the anointing of love in our inner man to the full degree that God has determined to give the human spirit in this age. 가장 큰 두 계명,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 시대 교회에 주어진 기업이요,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 이 시대에 부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현신을 보며 우리는 속사람 안에 ‘사랑의 기름부음’이 채워지도록 ‘믿음’의 원칙들을 적용해야 한다.
- 23Whoever says to this mountain, “Be...cast into the sea,” and does not doubt in his heart, but believes that those things he says will come to pass, he will have whatever he says. (Mk. 11:23)***
²³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막 11:23)
- N. We cry, “Lord we want more of You.” Jesus responds by saying, “I want more of you.” This is the spiritual violence of love that Jesus said is required to take the Kingdom promises by force. 우리는 “주님을 더욱 갈급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 우리의 갈급함에 예수님은 “내가 너를 더 갈급해 한단다.” 라고 응답하신다, 갈급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사랑의 침노’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침노하여 쟁취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다.
- 12The kingdom of heaven suffers violence, and the violent take it by force. (Mt. 11:12)***
¹²침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 11:12)

II. JESUS CALLS US TO INVITE HIM TO COME TO US AS THE JEALOUS BRIDEGROOM 질투의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Set Me (Jesus) as a seal upon your heart, as a seal upon your arm; for love (God’s love in you) is as strong as death, (God’s) jealousy as cruel (demanding) as the grave; its flames are flames of fire, a most vehement flame. Many waters (sin, pressures) cannot quench love, nor can the floods drown it. If a man would give for love all the wealth of his house, it would be utterly despised. (Song 8:6-7)

⁶너는 나 (예수님)를 인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하나님의) 투기는 음부 같이 잔혹하며 (고된 것) 불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많은 물 (죄, 압력)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찌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 8:6-7)

A. The Lord spoke to me by His audible voice in July 1988. I was in my office reading Song 8:6 and began to pray, “Jesus seal my heart with Your seal of love.” The Lord said that He would **release grace to walk in Song 8:6-7 across the Body of Christ worldwide** and that I was to focus on this theme throughout my ministry. (This was also a promise for the IHOP-KC movement).

1988년 7월, 주님은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사무실에서 아가서 8:6 을 읽으며, “예수님, 사랑의 인으로 제 마음에 인쳐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전세계 그리스도의 몸에 아가서 8:6-7 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풀으시겠다고, 그렇기에 사역을 하는 동안 내가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아이합의 기도 운동을 위한 약속이기도 하다).

B. God’s love in us is as strong as death: Nothing escapes its grasp. God’s love in us is as strong or as comprehensive as death. Nothing in the natural realm escapes the power of death. ***Its grasp is comprehensive.*** So also, God’s jealous love will not allow any areas of darkness to escape its grasp. It is “as cruel as the grave” or as demanding as death.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 사랑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광범위한 것이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죽음을 절대 피해갈 수 없다. 이것은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강력한 흑암의 영역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질투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 이 사랑은 “음부같이 잔혹하며,” 즉, 죽음같이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C. Jesus as the Jealous God wants all of us. We walk with God according to the light He gives us. When we obey that light, the Spirit gives us more to show us how to increase in our love.

‘질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하신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빛에 따라 하나님을 따르며 산다. 우리가 그 빛에 순종하며 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기름부어 주셔서 더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 주신다.

⁵Do you think that the Scripture says in vain, “The Spirit who dwells in us yearns jealously”? (Jas 4:5)

⁵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야 4:5)

D. We must earnestly ask Jesus to come to us as the God of Jealous Love who demands everything. This is the highest thing that God will give the human spirit in this age.

우리는 모든 것을 요구하는 ‘질투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정직하게 간구해야 한다.

¹⁴For the LORD, whose name is Jealous, is a jealous God... (Exod. 34:14)

¹⁴여호와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출 34:14)

- E. Jesus wants to reveal Himself to us as more than our savior (forgiver), healer and master but as the jealous Bridegroom God who will not relent in His pursuit of us until He has all our heart. 예수님은 구원자 (용서의 주), 치료자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좇으시는 ‘질투의 신랑’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 하신다.

III. GOD’S SEAL IS A FLAME OF DIVINE FIRE THAT CANNOT BE QUENCHED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꽃: 하나님의 인

“Set Me (Jesus) as a seal upon your heart...its flames are flames of fire, a most vehement flame. ⁷ Many waters (sin, pressures) cannot quench love, nor can the floods drown it. (Song 8:6-7)

⁶너는 나 (예수님)를 인 같이 마음에 품고 불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많은 물 (죄, 압력)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니 (아 8:6-7)

- A. In the ancient world, kings put a “seal of wax” on important documents. They encased them with wax then stamped it with the king’s signet ring. They were protected and authenticated by a royal seal. This wax seal spoke of the king’s ownership, protection and authority. A king’s seal spoke of his guarantee. It was backed up by all the power of his kingdom. 고대에는 왕이 중요한 문서에 ‘밀랍을 이용한 인’을 찍었다. 문서 사이에 밀랍을 넣고 그 위에 왕의 반지 도장을 찍었다. 왕의 인을 통해 문서들은 보호받았고 원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왕의 인은 왕의 소유권과 보호, 권위와 보증을 말했다. 왕국의 모든 힘이 그것을 뒷받침 해주었다.
- B. Water always puts out fire (unless it is God’s supernatural fire). The enemy will send the waters of temptation, apathy, disappointment, pain, etc. to put this fire out. God’s love poured in our hearts (when continually yielded to) is more powerful than the dark floods of sin and temptation.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불이 아니라면) 물은 항상 불을 끄게 마련이다. 원수는 이 불을 끄기 위해 유혹과 무관심, 실망과 고통 등을 우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심령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계속 흘러나갈 때) 어둔 죄와 유혹의 홍수보다 더 강력하다.
- C. The seal of fire is the progressive impartation of Spirit’s power in pouring God’s love into our heart (Rom. 5:5). The seal is our present tense experience in fellowshiping with the Spirit. ‘하나님의 불의 인 (印)’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부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한다 (롬 5:5). ‘인’은 성령님과 교제에 있어서 ‘현재 진행형의 경험’을 말한다.

¹³In whom, having believed, you were sealed with the Holy Spirit of promise... (Eph. 1:13)

¹³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엡 1:13)

IV. WE MUST SET JESUS AS THE SEAL ON OUR HEART BY INVITING HIS PRESENCE

주의 임재를 초청하며 예수님을 인같이 마음에 품자

- A. Jesus calls her to set Him as a seal on her heart. He urges us to cry out to know Him as the God of all consuming love. To set Jesus as the seal on our heart means to invite His fiery presence to touch or seal our heart. By the very definition of love, we must invite Him. He will not force us into a relationship of voluntary love. He waits until we invite Him in the matters of our heart. 예수님은 신부에게 “나를 인같이 네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것을 소멸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도록 부르짖으라고 권고하신다. ‘예수님을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것은 주님의 불같은 임재를 초청하여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인쳐주시기를 바라는 갈급함을 소유하라는 의미다. 이 사랑을 위해 우리는 주님을 초청해야 한다. 주님은 자원적 사랑의 관계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심령 안에 주님을 초청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 B. Some scholarly commentaries point out that there is uncertainty about the Hebrew pronouns in this passage. From theological point of view, it is impossible to interpret this passage as the Bride urging Jesus to set her on His heart so that He would begin to love her with fiery love. Jesus loves us with infinite everlasting love (that is not enhanced by us asking Him to do so). 학문중심적 주석들 중에는 이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 명사들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책들도 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신부를 인같이 주님의 마음에 품어 불같은 사랑으로 신부를 사랑하게 해 달라고 하는 해석은 사실 신빙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탁한다고 해서 주의 사랑이 향상되는 게 아니다).

³***The LORD has appeared...saying: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Jer. 31:3)***

³나 여호와가 ...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고로 (렘 31:3)

- C. God requires us to cooperate with Him in the grace of God. This is an expression of His desire for intimate partnership with us. God will not do our part and we cannot do His part. We set Jesus as the seal on our heart by putting on the Lord Jesus or by putting on the new man.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친밀한 동역을 바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을 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는 주님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또는, '새 사람'을 입음으로 예수님을 인같이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다.

¹⁴***Put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make no provision for the flesh... (Rom. 13:14)***

¹⁴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3:14)

¹⁰***Put on the new man who is renewed in knowledge according to God's image. (Col. 3:10)***

¹⁰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 3:10)

²⁴***Put on the new man which was created...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Eph. 4:24)***

²⁴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엡 4:24)

V. THE REWARD OF LOVE IS FOUND IN POSSESSING THE ABILITY TO LOVE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사랑의 상급

- A. We are the only one who can give God all our love. God will not force us to love Him. It is our gift to Him that we give voluntarily as we cooperate with the Spirit's work in our life. This is the work of the Spirit in her because it takes God to love God.

인간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삶에서 성령님의 역사에 협력하며 주님께 자원함으로 드리는 사랑, 이것이 주님께는 귀한 선물이다. 이것 또한, 신부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이다.

- B. The highest reward of true love is found in possessing the love itself. Those who are wealthy in love do not look at price tags. Anybody can quit except a person in love. When we are tempted to quit, the obstacle in our path is that we love God. God is raising up a people who will not quit. 진실한 사랑의 최고 상급은 바로 '더 깊이 사랑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다. '사랑의 부자들'은 (희생의) 가격표를 보지 않는다. 누구나 다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포기의 길을 가로 막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백성들을 세우고 계신다.

⁷***If a man would give for love all the wealth of his house, it would be utterly despised. (Song 8:7)***

⁷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찌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 8:7)

- C. Paul spoke of this love that will pay any price. He laid down his open doors of opportunity. 바울은 모든 대가를 치르는 사랑을 말한 바 있다. 그는 자신에게 열려있던 ‘세상적 성공의 문들’을 모두 내려 놓았었다.

⁸I count all things loss for the excellence of the knowledge of Christ...for whom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and count them as rubbish, that I may gain Christ... (Phil. 3:8)

⁸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 3:8)

- D. The Spirit is raising up many ministries in the earth who will also focus on making Jesus known as the Bridegroom and the Church as a fully devoted Bride fulfilling the First Commandment. Ministries with this focus will function as “friends of the Bridegroom” who prepare the Bride. 성령님은 현재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랑 예수님’과 ‘첫계명’에 헌신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초점을 둔 사역들을 온 땅에 세우고 계신다. 이들은 “신랑 (예수)의 친구들”의 역할을 하면서 주님의 ‘신부’ (교회) 를 준비시키는 사역을 하게 된다.

²⁹The friend of the Bridegroom...rejoices greatly because of the Bridegroom’s voice. (Jn. 3:29)

²⁹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요 3:29)

⁷Rejoice...for the marriage of the Lamb...and His wife has made herself ready. (Rev. 19:7)

⁷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계 19:7)

VI. THE END-TIME CHURCH WILL BE VICTORIOUS IN LOVE

사랑으로 승리하는 마지막 때 교회

⁵Who is this coming up (victory) from the wilderness (testing), leaning upon her Beloved? I awakened you under the apple tree. There your mother brought you forth.... (Song 8:5)

⁵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시험)에서 올라 오는(승리의)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머니가 신코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 8:5)

The Bride is leaning upon Jesus as her Beloved empowered by love and gratitude. The Church ends natural history with a leaning and loving heart as she is victorious in love. The Spirit prophetically speaks as He declares the Bride’s victory in the End-Times as she “comes up” in victory in the testing, temptations and difficulties in the wilderness in this fallen world.

신부는 ‘사랑’과 ‘감사’로 권능을 입고, ‘사랑하는 자’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 교회는 사랑으로 승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인류역사를 마감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광야’같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시험과, 유희,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게 될 것을 성령님은 마지막 때 ‘신부의 승리’를 선포하고 예언하신다.

²Those who have victory (in love) over the Beast (Antichrist)...on the sea of glass... (Rev. 15:2)

²짐승 (적그리스도)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사랑으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계 15:2)

²⁷He might present...glorious church...that she should be holy and without blemish. (Eph. 5:27)

²⁷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5:27)

Session 24 *The Bride's Final Intercession and Revelation (Song 8:8-14)* 신부의 마지막 중보기도와 계시 (아 8:8-14)

I. OVERVIEW OF SONG 8:8-14

아가서 8:8-14 개관

- A. The Song tells the story of how the young maiden grew until she became a Bride filled with the fire of God. Now, she reveals how she sees herself in God. ***She knows who she is.*** We can only be alive like the Bride as we walk in her revelation, confidence and radical obedience. The Bride offers her two final intercessory prayers, first for the church (8:8-9) then for Jesus' return (8:14). 아가서는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불로 충만한 '신부'가 되는 성장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제 신부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실히 드러낸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신부와 같은 계시와 확신, 그리고 헌신적인 순종으로 살 때만이 영적으로 '살아 있게' 된다. 이제, 신부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중보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아 8:8-9) 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 (아 8:14)
- B. In Song 8:8-9, we see her passion and intercession for the Church.
아가서 8:8-9에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향한 신부의 '열정'과 '중보'를 보게 된다.
- C. In Song 8:10, we see the Bride's confidence or the revelation of how God sees her (Song 8:10). Her 3-fold confidence is as a wall (selfless motives), as a tower (her supernatural abilities to nurture) and as one with peace (emotional hindrances removed). She enjoys living before His eyes. Her identity allows her to enjoy a radiant confidence to walk in her place before God.
아가서 8:10 에서, 우리는 신부의 확신, 즉, 하나님이 신부를 어떻게 보시는 지에 대한 계시를 볼 수 있다 (아 8:10). 신부의 확신 3 가지는 성벽 (희생적 동기), 망대 (타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 화평을 얻은 자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짐)와 같다. 신부는 주님 앞에 사는 것을 기뻐한다. '신부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를 누리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 D. In Song 8:11 she has revelation of her accountability before God.
아가서 8:11 에서, 신부는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에 대한 계시를 갖게 된다.
- E. In Song 8:12, she has confidence in her faithfulness to God.
아가서 8:12 에서, 신부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
- F. In Song 8:13, Jesus gives His final commission to the Bride.
아가서 8:13 에서, 예수님은 신부에게 '마지막 위임'을 부여하신다.
- G. In Song 8:14, she intercedes with urgency for Jesus' coming.
아가서 8:14 에서, 신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긴박함'으로 중보한다.

II. THE BRIDE'S PASSION AND INTERCESSION FOR THE CHURCH (SONG 8:8-9)

교회를 향한 신부의 열정과 중보 (아 8:8-9)

⁸We have a little sister, and she has no breasts. What shall we do for our sister in the day when she is spoken for? If she is a wall, we will build upon her a battlement of silver; and if she is a door, we will enclose her with boards of cedar (Song 8:8-9)

⁸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쥬대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쥬대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 8:8-9)

- A. In the overflow of having the seal of love renewed in her heart (Song 8:6-7), she is aware of the spiritual condition of others who have remained as babes in Christ. She intercedes for them. ‘사랑의 인’으로 갱신되고 흘러 넘치는 사랑의 심령을 소유하게 된 신부는 (아 8:6-7), 그리스도 안에 아직 ‘유아’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인지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된다.
- B. The Bride speaks to Jesus saying, “we have a little sister” because she is working closely with Jesus. The Bride does not use the singular, saying, “What will ‘I’ do for my sister,” but rather, she uses the plural, “we,” indicating that she is in partnership with Jesus. Her original prayer in 1:4, “*Let us run together,*” is in the plural. All running in ministry is in the plural. We work together with the Lord and with others to help the lost and the immature.
신부는 예수님께 ‘우리’에게 작은 누이가 있어요”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신부가 예수님과 밀접하게 동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부는 “‘내가’ 내 누이를 위해 무엇을 할꼬”라는 단수형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바로, 효과적인 예수님과의 동역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가서 1:4 에 나오는 첫번째 신부의 기도는 “우리가 함께 달려가리라”라는 복수형을 취하고 있다. ‘우리’가 달려가는 모든 사역은 복수형인 것이다. 잃어버린 자들과 미성숙한 자들을 돕기위해, 우리는 주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해야 한다.
- C. The fact that she even “sees” the little sister’s need is the work of the Spirit in her. She feels the same towards the little sister as Jesus does. He is ravished over them (4:9) and longs to see their face and hear their voice (2:14). She joins Jesus in mature partnership.
작은 누이에게 도움이 필요함을 신부가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성령님이 신부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제 신부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작은 누이’를 바라본다. 주님은 ‘작은 누이’들에게도 마음이 빼앗기셨으며 (아 4:9), 이들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아 2:14). 이제 신부는 예수님과 함께 ‘성숙한 동역’을 하며 살게 된다.
- D. The Bride remembers her little sister instead of forgetting her as she moves on to deeper things. Immature believers are under the responsibility the Bride. The “little” sister is little in faith and thus, easily loses her courage in difficulties. She quickly gives up in pressure. The daughters of Jerusalem were in this same condition as this little sister.
스스로는 더 깊은 영성을 좇으면서 작은 누이를 잊지 않는다. 신부에게는 ‘미성숙한 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작은’ 누이는 ‘작은’ 믿음을 지니고 있기에 고난이 오면, 쉽게 낙망하는 자들이다. 작은 누이는 ‘압력’을 받으면 견디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 버린다. 예루살렘의 여자들도 작은 누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던 자들이다.

- E. The little sister has no breasts which means she is unwilling and unable to nurture others with the milk of the Word (1 Cor. 3:1-2). She fellowships with those she hangs out with, but neglects to take responsibility for others being overwhelmed with her own problems and wants. She remains a spiritual babe who is focused on herself. The Bride is not offended by her but helps her.
작은 누이에게는 아직 유방이 없다. 작은 누이에게 주님의 말씀의 젖 (고전 3:1-2)으로 다른 이들을 먹이고,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교제 하지만, 자신의 문제와 필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 볼 여유가 없다. 그래서, 자신에게만 초점을 두는 ‘영적 유아’로 남아 있게 된다. 신부는 작은 누이를 보며 비난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작은 누이의 성장을 도와준다.
- F. The Bride asks for the Lord’s counsel and help concerning the little sister. She intercedes by saying, “What shall we do for our sister? How can we help bring her forth to maturity?”
신부는 작은 누이에 관하여 주님께 상담과 도움을 요청한다. 신부는 이렇게 중보한다, “우리가 그 (우리의 누이)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누이가 성숙하게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G. The Bride has a deep sense of responsibility for immature believers (Song 6:11; 7:11). This is the heart of a spiritual father (1 Thess. 2:11). She is not content to go on in the Lord without helping others follow Jesus.
신부는 미성숙한 자들을 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아 6:11; 7:11).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다 (살전 2:11). 신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그들을 돕지 않고서는 주님 안에 만족하지 못한다.
- H. I had a life changing encounter with the Lord in the summer of 1983. I was very focused on my own spiritual development. I was seeking to grow in prayer and revelation of the Word. I didn’t want to be burdened and distracted by others depending on me. In prayer, I was complaining to the Lord that I didn’t want to be responsible for so many people (the church was 500 people). Suddenly, the Lord spoke to me powerfully from Josh. 1:2.
1983년 여름에, 난 삶이 180도 뒤바뀌게 되는 ‘주님과의 만남’을 체험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내 자신의 영적 성장에만 초점을 두며 살고 있었다. 나만을 위한 기도와 말씀의 계시의 성장을 구했으며,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려는 부담을 내게 주거나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는 주님께 불평을 늘어 놓기 시작한 적이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당시 500명의 교인)을 돌보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다. 순간 주님은 여호수아 1:2 을 통해 내게 강력하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2Now therefore, arise, go over this Jordan, you and all this people, to the land which I am giving to them -- the children of Israel. (Josh. 1:2)
²...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수 1:2)
- I. The Lord commanded Joshua to lead the people to their inheritance in the land. The Holy Spirit asked me a question in a strong way, “What is more important to the Lord than a holy man on the earth? I was perplexed by this question and could not imagine what the answer was. The Lord answered me, “a whole generation of holy people.” Then the Spirit gave me Josh. 1:2, saying, “I want you and the people to inherit the land.” This verse struck my heart like an arrow.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유업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하셨다. 성령님은 내게 강한 어조로 물으셨다, “이 땅에 거룩한 성도 한 명 보다 주님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질문에 난 고민하는 가운데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자 주님은 내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주의 백성 전체이다” 라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은 내게 여호수아 1:2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너뿐만 아니라, 유업의 땅을 물려받을 내 백성 모두를 원한다.” 이 구절은 내 심령에 화살 같이 꽂혀 버리게 되었다.

- J. As an immature believer, being holy was enough for me. But as I grew, the Lord began to say, “Where are your brothers? Where are your little sisters?” One significant sign of spiritual maturity is concern for the spiritual condition of others. “What shall we do for our sister?” This question was deeply rooted in the Bride’s heart.
 미성숙한 자였던 나는 나 혼자만 거룩하게 되는 것에 신경썼던 것이다. 하지만, 성숙해 지면서, 주님은 내게, “네 형제들은 어디 있느냐? 네 작은 누이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기 시작하셨다. 사람의 영적 성숙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징표중의 하나는, 성숙한 자는 타인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돌본다는 것이다. 신부의 마음에는 “우리의 작은 누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깊이 뿌리박혀 있다.
- K. The Bride knows that all will eventually stand before the Lord “in the day we are spoken for.” The day a woman is spoken for is a reference to her wedding day. This refers to the time she attains to maturity in her bridal partnership with Jesus. For those who pursue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 the sense of being spoken for by Jesus for deep mature partnership happens in this life. To most believers, this happens on the day they stand before Jesus.
 신부는 “청혼함을 받는 날에” 모두가 주님앞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청혼함을 받는 날’은 혼인 날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신부가 예수님과 동역에 ‘성숙해진 시기’를 말한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좇는자들에게는, 깊고 성숙한 동역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청혼’의 날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청혼’이 일어난다.
- L. She asks what she can do in partnership with Jesus to help bring her sister forth? Many believers miss out in partnering with Jesus in taking responsibility for others in the grace of God.
 예수님과 동역하는 신부는 어떻게 하면 작은 누이를 성숙해 지도록 도울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다른 이들을 돌보는 책임감을 놓쳐 버린다.
- M. The Bride presents her little sister’s case before the Lord in intercession with two possibilities.
 신부는 주님 앞에서 두 종류의 부르심을 붙들고, 작은 누이를 위해 중보한다.
‘If she is a wall, we will build upon her a battlement of silver; and if she is a door, we will enclose her with boards of cedar. (Song 8:9)
⁹그가 성벽일찢대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찢대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 8:9)
- N. If the little sister is called to be a spiritual wall then the Bride and the Lord will build on her. A wall brings defense to a city and establishes a line of demarcation. “Wall ministries” either function in a pastoral way to protect the people from the enemy or they raise up God’s prophetic standard. They establish God’s line of demarcation for holiness to go forth in the land.
 만일 작은 누이가 영적 ‘성벽’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신부와 주님은 그 위에 ‘은 망대’를 세울 것이다. 성벽은 도시의 방어벽이며, 분계선의 역할을 한다. “성벽 사역”은 원수로 부터 주의 백성을 보호하는 ‘목회적’ 사역, 또는, 하나님의 ‘영적 표준 (기준)을 높이는’ 사역으로, 백성들이 ‘유업의 땅’을 물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준의 ‘거룩함의 분계선 (경계선)’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O. In Song 8:10, the Bride speaks of herself as a wall ministry. This involves protecting others and being a prophetic standard bearer. There are pressures associated with being a wall. When the enemy shoots arrows, the wall stands in the path of the arrows meant for the young ones. 아가서 8:10 에서, 신부는 자신의 사역을 ‘성벽 사역’이라 말한다. 이 사역은 사람들을 원수의 공격으로 부터 보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표준’을 제시해 준다. 물론 여기에는 부담감과 외부의 압력이 작용한다. 원수가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겨냥하여 화살을 쏘며 공격할 때, 성벽이 그 화살들을 가로막아 주기 때문이다.

P. If the little sister is called to be a spiritual door then the Bride and the Lord will enclose her. A door is the point of entry for others. The “door ministries” open doors of grace and salvation for others as an intercessor, evangelist, teacher or apostle. Intercessors open doors of opportunity for others. Evangelists open the door for unbelievers to come into the Kingdom. Teachers open the door for believers to go deeper in God. Apostles open doors to regions for new initiatives in God. 만일, 작은 누이가 영적 ‘문’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신부와 주님은 누이를 ‘감싸게’ 될 것이다. 문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구다. ‘문의 사역’은 중보자, 전도자, 교사, 또는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중보자들은 사람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 전도자들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 교사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더 깊이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 사도들은 그 지역에 문을 열어 하나님 안에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

³***Praying also for us, that God would open to us a door for the word to speak... (Col. 4:3)***

³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 (골 4:3)

Q. There are two directions the little sister might respond, to be a wall or a door. The Lord and the Bride respond to the little sister’s response which is according to what God put into her heart. They will work to help her be effective according to her response to God’s call in her life. 작은 누이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따라 성벽이든, 문이든 하나를 고르게 될 것이며, 주님과 신부는 누이의 부르심에 맞게 효과적으로 도와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누이 삶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과 신부는 누이가 효과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이를 돕게 될 것이다.

R. The Bride says to Jesus, “We will build her into a battlement of silver.” The battlement of a fortress was on the top of the tower where the archers shot through the indentations in the stone. They shot then stood behind the stone battlements for protection. The battlements provided places for the watchmen to spot and shoot the enemy and thus, defend the city.

신부는 예수님께 말한다,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요새의 망대는 탑 꼭대기에 세워져 활사수가 돌사이의 빈 공간을 이용해 활을 쏘던 곳이다. 그는 화살을 쏘고나서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망대벽 뒤에 몸을 감춘다. 망대는 파수꾼이 적을 감시하고 화살을 쏘는 장소로 그 성(도시)을 방어하고 사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⁹***If she is a wall, we will build upon her a battlement of silver; and if she is a door, we will enclose her with boards of cedar... (Song 8:9)***

⁹ 그가 성벽일찐대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찐대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 8:9)

S. Battlements speak of the ministries that provide safety from the enemy. Silver speaks of redemption. There was no such thing as a battlement of silver. They were usually made of stone. Battlements of silver speak of bringing redemption to others.

‘망대’는 적으로 부터의 안보를 제공해 주는 사역을 말한다. ‘은’은 ‘구속’을 말한다. 은 망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망대들은 보통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은 망대’는 사람들이 구속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말한다.

- T. If the grace on the little sister's life leads her to be an intercessor, evangelist, teacher, etc. then the Bride prays, "let us enclose her with boards of cedar."
작은 누이의 삶에 중보자, 전도자, 교사와 같은 부르심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그를 두르리라"라고 신부가 기도한다.
- U. Boards of cedar or cedar panels were expensive, reliable, strong and scented. In the Tabernacle, wood was symbolic of humanity. The stately cedars of Lebanon were the most fragrant, strong, expensive building material. Jesus is the cedar of Lebanon (Song 3:9). The gospel chariot was made out of the cedar of Lebanon or the humanity of Jesus. The boards of cedar speak of the fragrance of Christ, as the cedars of Lebanon are fragrant. Cedars from Lebanon were used in building Solomon's Temple for the dwelling place of the Lord's presence (1 Kings 4:33; 5:6). 백향목 판자는 믿을 만하고, 강도가 뛰어나면서도 향기를 가진 값비싼 목재였다. 성막에서, 나무는 '인류'를 상징했다. 광대한 레바논의 백향목은 가장 향기롭고,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난, 값비싼 건축 자재였다. 예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이시다 (아 3:9). '복음의 병거 (마차)'는 레바논의 백향목, 즉,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지어졌다. 백향목 판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향기롭듯,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한다. 주의 임재가 거한 처소였던 솔로몬의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다 (왕상 4:33; 5:6).
- V. To be enclosed with the cedars of Lebanon is to be clothed with the character and presence of Jesus. We are to be clothed in Jesus who is the cedar sent from the Father.
'레바논의 백향목 판자로 두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임재를 입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부터 보내심을 받은 '백향목'이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¹⁴Put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make no provision for the flesh... (Rom. 13:14)
¹⁴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3:14)
- W. The Bride prayed, "We will enclose her..." Jesus and the Bride will work together with the little sister until she is enclosed by God.
신부는 "우리는 ... 그 (누이)를 두르리라"라고 기도했다. 작은 누이가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로 덮혀질 때까지 예수님과 신부는 누이를 도울 것이다.

III. THE BRIDE'S CONFIDENCE: REVELATION OF HOW GOD SEES HER (SONG 8:10) 신부의 확신: 신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 (아 8:10)

¹⁰I am a wall, and my breasts like towers, then I became in His eyes as one who found peace. (8:10)
¹⁰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 8:10)

- A. The fullness of the Bride's identity includes a 3-fold revelation that leaves her with confidence. She has revelation of her true spiritual stature. This is a rare yet powerful reality in the Church. 온전한 신부의 정체성에는 확신을 주는 세가지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 신부는 자신의 '영성의 깊이'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드물지만, 교회안에 강력한 실재다.

- B. She selflessly sees herself as a wall of protection that exists to help others. She does not see her life in context to pursuing earthly pleasures but sees herself as a source of protection for others. Her time, energy, finances and dreams are bound up in serving this high purpose in God. Paul saw himself as a wall of protection for others (I Thess.2:7-12; Gal. 2:11-14).
신부는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보호 성벽’으로 자신을 바라본다. 신부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며, 사람들을 보호하는 도구로 살게 된다. 신부의 시간과 정력, 물질과 꿈은 하나님 안에 이 ‘고귀한 목적’을 섬기는 데 매여 있다. 바울도 사람들을 보호하는 ‘성벽’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다 (살전 2:7-12; 갈 2:11-14).
- C. Throughout the Song breasts speak of the ability to nurture the young. Breasts like towers speak of a supernatural ability to care for others. Her ministry is so abundant; it is as a tower of milk referring to her ability to nurture. Three times she has been compared to a tower (Song 4:4; 7:4; 8:10).
아가서에 나오는 ‘유방’은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망대같은 유방’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말한다. 신부의 사역은 풍성하다. 그래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젖의 망대’와 같다. 아가서에 신부가 ‘망대’로 비유된 본문은 모두 세번 나온다 (아 4:4; 7:4; 8:10).
- D. She has confidence in her effectiveness in ministry. Jesus commissioned her to let her breasts be like clusters of the vine (Song 7:8). She knows that she skillfully uses the Word to help others. This is not arrogance. Paul, John the Baptist, David, Samuel and Moses has confidence like this.
신부는 자신의 ‘효과적인’ 사역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신부의 유방이 ‘포도송이’와 같을 것을 위임하셨다 (아 7:8). 신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다. 바울, 침례 (세례)요한, 다윗, 사무엘, 모세도 이와같은 확신을 갖고 살았다.
- E. Paul wrote concerning himself, one of the boldest statements in the NT when he said, “imitate me just as I imitate Christ (1 Cor. 11:1; 2 Cor. 1:12, 15). Paul told the elders of Ephesus he served the Lord with all humility and did not count his life dear to myself and is therefore, innocent of the blood of all men (Acts 20:18-37).
바울은 자신에 대해 기술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담대한 고백 하나를 남겼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 되라” (고전 11:1; 고후 1:12, 15).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겸손함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섬겼기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한 바 있다 (행 20:18-37).
- F. Enoch obtained a testimony he was pleasing to God before God took him (Heb. 11:5). John the Baptist said, “Jesus is even mightier than I...” (Lk. 3:16). Moses wrote about himself as being very humble more than any man on earth (Num. 12:3). Samuel at the end of his ministry proclaimed that he walked before the people from his childhood to that day with great integrity and that he would teach the nation the good and the right way (1 Sam. 12:1-5, 23).
하늘로 올리우기 전에, 에녹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간증한 바 있다 (히 11:5). 침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눅 3:16)라고 고백했으며, 모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이 더 ‘겸손한 자’라고 자랑했다 (민 12:3). 사무엘은 사역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어려서 부터 그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으며, 열방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선포했다 (삼상 12:1-5, 23).

- G. This confidence comes only by revelation (not pride) and fills her with great thanksgiving. She has confidence about her ministry and maturity because God spoke it to her. She can say before God that she lives to serve His people throughout her life because that is what the Lord thinks. She has the witness in her heart that is doing the will of God (Heb. 11:5).
신부의 이러한 확신은 (교만이 아닌) 오직 계시를 통해 오며, 자신의 마음을 깊은 감사로 채우게 된다. 신부는 사역과 성숙함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직접 확증해 주셨기 때문이다. 신부는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증거해 주는 분이 신부안에 거하고 계신다 (히 11:5).
- H. She has peace in her life and calling in God before God’s eyes or before the Audience of One. She finds peace in Jesus’ eyes which is not the same as finding peace in the eyes of others. This removes many emotional hindrances in her life.
신부는 삶에 화평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지켜 보는 앞에서 사는’ 즉, ‘한 분의 청중 (Audience of One)’ 앞에 사는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살 때 신부의 삶에 많은 ‘감정의 방해물’들은 사라지게 된다.
- I. She enjoys living before His eyes. Her spiritual identity allows her to enjoy a radiant confidence to walk in her place before God.
주님이 보는 앞에 사는 것을 신부는 기뻐한다. ‘신부’의 정체성은, 주님의 사랑 안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도와준다.
- J. This confidence makes a believer powerful emotionally as they do their work in God. Consider how much emotional energy is expended on condemnation, fear, self-doubt and uncertainty. The fiery seal of love on her heart has produced this confidence and purity of motives (Song 8:6).
이 확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주는 강력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죄책감과 두려움, 자기 불신과 혼동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정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신부의 심령 안에 있는 ‘불같은 사랑의 인’은 이러한 확신과 순수한 동기들을 창출해 낸다 (아 8:6).
- K. Paul was criticized by many in the Church yet he had this peace and confidence (1 Cor. 4:3-5). How wonderful it is after 50 years of ministry to know you served Jesus with all of your heart.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어도, 바울은 평강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고전 4:3-5). 50년 간의 사역을 다 마친 후,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한번 생각해 보라!
- L. She came to peace with God’s design for her life by knowing she lives to partner with Jesus. It is profound to understand our life and to have confidence that we accomplished God’s will. 신부는 자신이 예수님과 동역하며 살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 우리의 삶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계시는 심오한 것이다.

IV. THE BRIDE'S REVELATION OF HER ACCOUNTABILITY BEFORE GOD (SONG 8:11) 하나님 앞에 갖게 된 책임감에 대한 계시 (아 8:11)

"Solomon had a vineyard at Baal Hamon; he leased the vineyard to keepers; everyone was to bring for its fruit a thousand silver coins. (Song 8:11)

¹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일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아 8:11)

- A. The outcome of living before His eyes is the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of our accountability and eternal reward before God (1 Cor. 3:11-15; 2 Cor. 5:10; Rom. 14:12-14). On the last day, every believer will give a full account of their earthly life to God. Her revelation of eternal rewards dignifies her smallest acts of obedience and gives every day a sense of importance.
주님 앞에 살게 될 때, 우리는 맡겨진 책임과 동시에 영원한 상급을 알게 된다 (고전 3:11-15; 고후 5:10; 롬 14:12-14).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거둔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상급’의 계시를 얻은 신부는, 매일의 삶 가운데 가장 작은 순종도 존귀하게, 또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
- B. King Solomon owned a vineyard that he leased out to keepers. King Solomon throughout the Song is a picture of King Jesus. Jesus has a vineyard which speaks of His people (Isa. 5:1-7). 솔로몬 왕은 ‘지키는 자’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맡긴다.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며, 예수님의 포도원은 ‘주님의 백성들’을 말한다 (사 5:1-7).
- C. King Jesus' vineyard at Baal Hamon has grown dynamically through history. There is no mention in Scripture or in Israel's history of Baal Hamon which may be translated as "the populous one." The word literally means in Hebrew, "the father of a multitude." Some Bible versions translate the meaning without trying to translate it as a city. King Jesus has a very large vineyard at Baal Hamon that reaches to the multitudes of the nations (Mt. 24:14; Rev. 7:9).
‘바알하몬’에 있는 예수님의 포도원은 지난 역사동안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알하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데, 그 단어의 뜻은 “인구가 많은 곳”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 “무리의 아버지”다. 어떤 성경 번역본들은 그 단어를 도시로 번역하지 않고, 문자적 의미로 해석했다. 왕이신 예수님은 ‘바알하몬’에 모든 열방과 족속까지 미칠 수 있는 거대한 ‘포도원’(하나님의 백성들)을 갖고 계신다 (마 24:14; 계 7:9).
- D. King Jesus leased (entrusted) His vineyard to His Bride knowing she would keep it for Him. Jesus leasing His vineyard speaks of the Kingdom in this age as being entrusted to His people.
왕이신 예수님은 포도원을 신부에게 맡기 (위임)셨다. 신부가 주님을 위해 그 포도원을 지키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포도원을 맡기신다는 것은, 이 시대에 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 E. In the parable in Matt. 21:33-44, Jesus made reference to Song 8:11-12, by teaching about a landowner who planted a vineyard, built a tower and "leased" it to keepers then went into a far country (Mt. 21:33). We are living in time when the Lord is in a "far country".
아가서 8:11-12 은, 마태복음 21:33-44 에 포도원을 심고, 망대를 세워,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간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인용한 것이다 (마 21:33). 우리는 현재 주님이 “먼 나라”에 가 계신 시기에 살고 있다.

- F. The Lord entrusted the responsibility to cultivate His vineyard to keepers. Each believer is given a certain stewardship in His vineyard. You do not need to wait for an official job description or a title from a ministry organization to be faithful to your stewardship. Start serving people.
주님은 포도원을 가꾸는 책임을 ‘지키는 자들’에게 위임하셨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님의 포도원을 지키는 ‘청지기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 충성스런 청지기가 되기 위해, 교회나 사역단체의 공식적인 업무나 지위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먼저 주위 사람들을 섬기면서 출발하라.
- G. She understands that “everyone” will give an account to the King for their assignment (Lk. 12:31-48). Each is responsible to cultivate the vineyard in such a way to bring forth fruit. The Lord rewards us based on the measure of our faithfulness, not giftedness or opportunity.
신부는 “모든 사람”이 맡겨진 부르심에 대한 열매를 그 날에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눅 12:31-48).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포도원을 잘 가꾸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주님은 특별한 은사나 (성공의) 기회가 아닌, 우리의 ‘신실함’의 정도에 따라 상급을 주신다.
- H. The Lord desires a full return of fruitfulness from each keeper. Each must bring a thousand pieces of silver. The “thousand” is a complete number which speaks of fullness or the full measure that God requires according to what was entrusted to each person. The 1,000 pieces of silver was referred to by Isaiah to mean the fullness of the potential value of the vineyard.
주님은 ‘지키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터 ‘충만한 (온전한) 열매’를 기대하신다. 각 사람은 ‘은 일천’을 가져와야 한다. “일천”은 충만함을 말하는 완전한 숫자로 각 사람에게 위임된 만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충만함을 말한다. 이사야에 언급된 은 일천은 포도원의 충만한 가치를 의미한다.
²³It shall happen in that day, that wherever there could be a thousand vines worth a thousand shekels of silver, it will be for briars and thorns (as a sign of God’s judgment). (Isa. 7:23)
²³그 날에는 천 주에 은 일천 개의 가치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질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싸인의 표시) (사 7:23)

V. THE BRIDE’S CONFIDENCE IN HER FAITHFULNESS TO GOD (SONG 8:12)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 확신을 갖게되는 신부 (아 8:12)

¹²My own vineyard is before me. You, O Solomon, may have a thousand, and those who tend its fruit two hundred. (Song 8:12)

¹²솔로몬 너는 일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 8:12)

- A. The Bride’s own vineyard is before her. In other words, she was aware that she will give an account of the responsibility given to her by Jesus. This includes her personal life and ministry assignment. At the beginning of her journey her vineyard was not kept but now it is (Song 1:6).
신부의 포도원은 앞에 있다. 다시말해 신부는 예수님이 맡기신 책임에 대해 열매를 거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신부의 ‘은밀한 삶’과 ‘사역의 부르심’ 모두를 포함한다. 신부는 여정 초반에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 지키게 된다 (아 1:6).

- B. The Bride is confident that she is able to give Jesus all that He expects from her by declaring that He may have the thousand pieces of silver that He requires from her in Song 8:11. Enoch before he was taken received the testimony that he was pleasing to God. She had this same confidence to say to God, “I lived to protect and nurture Your people” (Song 8:10).

신부는 아가서 8:11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은 일천’을 소유하실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주님이 기대하신 모든 열매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받았다. 이와 같은 확신으로, 신부는 하나님께 고백한다 “나는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살았습니다” (아 8:10).

⁵*Enoch...before he was taken he had this testimony, that he pleased God. (Heb. 11:5)*

⁵에녹은 ...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 11:5)

- C. She acknowledges that those who “keep its fruit” or her fellow workers will have a portion in her fruitfulness when they stand before God. She only fulfilled her mandate as she worked in team relationship with others. Each worker on the team will share in her reward in eternity. The 200 shekels of silver speak of the portion of reward that her co-workers will receive on the last day.

“열매를 지키는” 자들 즉, 신부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신부가 거둔 열매의 기업의 일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신부는 인정한다. 신부는 사람들과 팀 사역을 하며 사명을 감당했다. 팀 동료들은 영원토록 신부의 상급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은 이백’은 신부의 동역자들이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상급의 몫’을 말한다.

- D. The Philippians helped Paul financially and he reported that the fruit would be in their account.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는 열매가 그들의 몫이라고 격려해 주었다.

¹⁷*Not that I seek the gift, but I seek the fruit that abounds to your account. (Phil. 4:17)*

¹⁷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빌 4:17)

- E. **Summary:** The Bride says before God, “I am a wall. I am a tower. I am at peace with You. I am ready to give account to You because I have given You the thousand that You asked for.”

요약: 신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나는 성벽이며 망대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이제 주님께 제가 거둔 열매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요청하신 ‘은 일천’을 드려왔기 때문입니다.”

VI. JESUS’ FINAL COMMISSION TO THE BRIDE (SONG 8:13)

신부에게 맡겨지는 최종적 위임 (아 8:13)

¹³*You who dwell in the gardens, the companions listen for your voice—Let Me hear it! (Song 8:13)*

¹³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아 8:13)

- A. Jesus’ last words to the Bride commend her effectiveness in serving the Church. Jesus names the Bride, “You who dwell in the gardens” to affirm that she is still dwelling in the midst of God’s garden serving His people instead of retreating in selfish isolation. She did not quit. The gardens (plural) refer to the many parts of the Church as the beds of spices in Song 6:2 did.

신부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교회를 훌륭하게 섬기는 신부를 칭찬하신다. 예수님은 “너 동산에 거한 자야”라고 신부를 부르시는 데 이것은 이기적으로 자신을 고립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며 주의 백성을 잘 섬기는 신부의 모습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다. 신부는 포기하지 않는다. ‘동산들’ (복수형)은 아가서 6:2 에 나오는 ‘향기로운 풀밭’처럼, 주님의 교회의 ‘많은 지체들’을 가리킨다.

- B. The Bride's continuing credibility and impact until the end is seen as Jesus affirms that the companions who she served still eagerly listen for her voice because there is a stature of maturity in her life that is obvious to them. They see reality in God in her, thus, they still receive from her. As the daughters wanted to hear her voice in Song 5:9; 6:1, 13 so others still listen for her voice. 신부의 계속되인 신임과 영향력은 끝까지 나타난다. 신부의 섬김을 받는 동무들이 여전히 신부에게 귀기울여 열심히 듣는 것을 예수님이 확증해 주시고, 동무들이 신부의 삶에 있는 '성숙의 깊이'를 명백히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신부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재를 보고 느끼며, 신부로부터 공급받는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아가서 5:9; 6:1, 13 에서 신부의 '목소리'를 듣기 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신부의 말에 여전히 귀를 기울인다.
- C. Jesus one more time calls the Bride to fervent worship and intercession by telling her that He still wants to hear her voice. Her voice was sweet to Him in her immaturity (Song 2:14). How much sweeter is her voice now that she walks in mature union with Him as His beloved partner. 예수님도 신부의 음성을 여전히 듣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한번 뜨거운 예배와 중보로 신부를 초청하신다. 미숙할 때에도 신부의 음성은 주님께 달콤했다 (아 2:14).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동역자로 주님과 성숙한 연합을 이루며 사는 신부의 음성은 얼마나 더 달콤할까!
- D. The Lord wants to continually hear our voice in 4 ways.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음성을 다음의 네가지를 통해 듣기 원하십니다.
1. First, in **worship** as He forever wants to hear us declare our love to Him.
예배 -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을 영원토록 듣기 원하십니다.
 2. Second, in **intercession** as we join Jesus who makes intercession forever (Heb. 7:25).
중보 -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중보한다 (히 7:25).
 3. Third, in **teaching** as we speak the Word to one another (Mt. 28:19-20; Col. 1:28).
가르침 - 서로에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격려한다 (마 28:19-20; 골 1:28).
 4. Fourth, in **evangelism** as we share the gospel to unbelievers.
전도 -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 E. The enemy wants to silence our voice.
그러나, 원수는 우리의 음성을 소멸하려 한다.

VII. HER URGENT INTERCESSION IS FOR JESUS TO COME QUICKLY (SONG 8:14)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간박하게 중보하는 신부 (아 8:14)

¹⁴***Make haste, My Beloved, and be like a gazelle or a young stag on the mountains of spices. (Song 8:14)***

¹⁴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아 8:14)

- A. The Bride immediately obeys Jesus' exhortation to let Him hear her voice by interceding for Jesus to come quickly. We see the urgency and longing of her heart to be with Jesus. She calls Jesus, "My beloved" because her love for Him is her strength to the end. 신부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권고에 즉시 순종하는 신부는 예수님께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중보한다. 예수님과 속히 함께 있기를 바라는 신부의 열망이다. 여기서 신부는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끝까지 신부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다.

- B. Jesus was revealed as the gazelle and young stag who conquered the mountains in Song 2:8, 17. She asks Jesus to come quickly like a swift gazelle and a young stag to conquer all the mountains of opposition and to manifest Himself as the victorious King over all the obstacles of this age.
 아가서 2:8, 17에서 예수님은 산들을 정복하며 넘어오는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나오셨다. 장애물의 산들을 모두 정복하며 넘어오는 재빠른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이, 예수님이 이 시대의 모든 장애물들을 신속히 정복하는 ‘승리의 왕’으로 오시기를 신부는 간구한다.
- C. She offers a 3-fold prayer that Jesus come *near her* personally in intimacy, *to her* city in revival and finally *for her* at the Second Coming. The End-Time Church has this same prayer.
 신부는 3 가지 기도를 드린다. ‘친밀감’을 위해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까이 임하시기를, 자신의 도시에 ‘부흥’을 위해 임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재림’하시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때 교회는 이 세가지의 중보기도를 하게된다.
¹⁷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²⁰Surely, I am coming quickly. (Rev. 22:17, 20)
¹⁷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 ²⁰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계 22:17, 20)
1. **Come NEAR US in intimacy** (individual breakthrough of our heart in God)
 친밀감을 위해 우리에게 가까이 오소서 (하나님 안에서의 개인적인 돌파)
 2. **Come TO US in revival** (regional or national breakthrough of the Spirit in revival)
 부흥을 위해 우리에게 오소서 (지역이나 나라의 부흥을 통한 영적인 돌파)
 3. **Come FOR US in the sky** (historical breakthrough by the Second Coming of Jesus)
우리를 위해 재림 하소서 (오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역사적인 돌파)
- D. This will be the *first time* in history, that the Church worldwide will be in dynamic unity with the Spirit and therefore, the Spirit will be resting on and moving through the Church in great power.
 역사상 처음으로, 전세계의 교회는 성령님과 역동적인 연합을 통해,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 E. The 2-fold expression of the Bride’s cry for Jesus to come (breakthrough)
 예수님의 임재를 중보하는 신부의 두가지 기도 (돌파)
1. **Worship** – “We love You, we worship You, we beckon You to come by our love.”
 예배 –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2. **Intercession** – “We need You, we pray for You to come and release revival power.”
 중보기도 –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부흥의 권능을 풀어주소서.”
- F. A two-dimensional cry: *upward* to God and *outward* to people (one billion new souls)
 이차원적 중보기도: 위로는 하나님께, 바깥으로는 사람들에게 (10억의 새 영혼 추수)
1. **Vertical** – an upward *call to Jesus* to come to us in breakthrough power (near us/to us/for us)
 수직적 – 예수님께서서 돌파구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부름 (우리 가까이 / 우리에게 / 우리를 위해)
 2. **Horizontal** – an outward *call to people* to come to Jesus as the Bridegroom King
 수평적 – 신랑이요,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사람들을 부름

- G. We call believers (*revival, discipleship*) and unbelievers (*evangelism*) to experience the Bridegroom God. The Church will “call out” in two directions. First, we will call out to Jesus in intercession to “come to us,” and second we will call out to people who thirst to “come to Jesus.”
우리는 믿는 자들 (부흥, 제자훈련)과 불신자들 (전도) 모두를 불러, 그들이 ‘신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초청해야 한다. 주님의 교회는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먼저, 예수님을 부르며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라고 중보할 것이며, 둘째로, 목마른 자들을 불러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할 것이다.
- H. The Throne of God and the dwelling place of the Bride is a vast mountain of divine fragrance. 하나님의 보좌와 신부가 거할 처소는 ‘거룩한 향기’를 발산하는 ‘광활한 산’과 같다.
¹⁴Make haste...and be like a gazelle or a young stag on the mountains of spices. (Song 8:14)
¹⁴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아 8:14)
- I. The Bride describes the New Jerusalem as the mountains of spices. The individual believer is like a lily (Song 2:1) who has the fragrance of “*all the chief spices*” (Song 1:12; 4:10, 14). The corporate Church is spoken of as a “*garden of spices*” (Song 4:16, 5:1, 6:2). 신부는 ‘새 예루살렘’을 ‘향기로운 산들’로 묘사한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뛰어난 향기”(아 1:12; 4:10, 14)를 지닌 백합화 (아 2:1)며, 주님의 교회 전체는 “향기로운 동산” 이다 (아 4:16, 5:1, 6:2).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MISSIONS BASE OF KANSAS CITY

국제 기도의 집 - 한국인 사역부

www.IHOP.org
www.IHOPKorean.org